

보고서유인용(2013.1.22.)

세계와 경쟁하는
정예 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마 상 진 연 구 위 원
오 내 원 선임연구위원
김 경 덕 연 구 위 원
남 기 천 연 구 위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담당

마 상 진	연 구 위 원	연구 총괄
오 내 원	선임연구위원	제5장 집필
김 경 덕	연 구 위 원	제4장 집필
남 기 천	연 구 위 원	설문조사, 사례조사

머 리 말

한·칠레 FTA를 전후하여 제시된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2004~2013)이 추진된 이후, 국가적 차원의 농업인력육성과 농업교육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 된지, 10년이 되어 간다. 최근에는 한·미 FTA 등 변화된 여건 하에서,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농업인력육성정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인력육성 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으로서 ‘신규 전문농어업경영인 육성방안(2012~2017년)’과 ‘농업교육 기본계획(2011~2013년)’ 등이 제시되었다. 이처럼 농업 인력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틀이 서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농업교육체계 개편 계획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 성과 점검과 향후 농어촌 교육 로드맵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는 농업교육을 중심으로 그동안 추진되었던 농업인력육성정책을 진단하고, 최근의 농업환경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인력육성정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농업교육과 인력육성정책을 발전시키고, 특히 관련 정책을 기획·관리하는 정부 담당자와 현장의 농업인력 관계자들의 업무 개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 연구의 수행과정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관련 정책 및 통계자료의 수집에 도움을 준 농림수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관계자 그리고 연구 진행 자문을 해주신 현장의 농업교육 관계자(여주농고 김명찬 선생님, 전북농식품인력개발원 최연규 팀장, 경북농민사관학교 이하윤 팀장, 경북 성주의 전병목 선생님,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강용 회장,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김관배 국장), 그리고 전문가(농촌진흥청의 최상호 박사, 서울대학교의 김진모 교수)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13.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요 약

- 이 연구는 범 농업계 교육을 포괄하는 농업 교육의 현황과 그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되는 인력수급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세계와 경쟁하는 우리나라 농업을 이끌 정예 농업인 육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자 하였음.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음.
 - 농업인력육성정책을 분석하고 시사점 도출
 - 농업교육을 중심으로 농업인력육성정책의 평가와 문제점 도출
 - 중장기 농업인력 수급 전망
 - 정예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개발

-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관련 문헌연구, 통계자료 재분석, 농업인 설문조사 (KREI 통신원, 농업마이스터대학 이수생), 사례조사(국내 농업교육 우수사례, 외국 농업교육사례, 비농업분야 교육사례), 전문가 협의 등의 연구방법을 사용함.

- 농업인력육성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2000년대 중반부터 국가적 차원의 농업인력 및 농업교육에 대한 본격적 투자가 시작되고, 농업교육과 관련된 정부차원의 전담기구가 등장하면서, 농업교육에 대한 정보적 접근성 개선, 농업교육 참여기관의 확대와 농업교육내용이 다양화,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 진행을 확인할 수 있었음. 하지만 여전히 농업인력육성계획의 구체적인 성과 목표가 타당하지 않고, 설정된 목표와 실행 계획간의 연관성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농업인력육성정책에 대한 평가 결과, 지난 5~6년간 농업교육 관련 예산 증가가 많이 이뤄졌지만, 무조건적인 교육의 양적인 확장보다는 교육내용의 내실화, 소수 정예인력에 대한 교육에 집중되었음을 확인함. 농업교육을 통

해 교육이수자들은 농업경영의 자신감, 신기술 습득, 인적네트워크 형성과 같은 무형의 자산을 얻음과 동시에, 경영비 감소, 생산성 증대, 농업소득 증가와 같은 경제적 성과를 얻고 있음.

- 중장기 농업인력 수급을 전망한 결과, 점차 떨어지는 농업 노동생산성 성장률을 향후 얼마나 효과적으로 유지하느냐에 따라 농업인력 mismatch의 많은 편차가 발생하였음. 미래에 기상이변에 따른 식량안보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거나, 국가적으로 농식품 수출 확대를 현재보다 상향 조정할 것이라면, 생산성 높은 인력의 유입과 더불어 노동생산성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투자가 현재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음.
- 이상의 분석 결과와 국내외 농업교육 우수사례, 그리고 비농업분야의 인력 육성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토대로 세계와 경쟁하는 정예 농업인력 육성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제시함.
 - 정예 농업인력 육성 목표로 ① 농업 노동생산성 연평균 3% 성장을 유지, ② 지역 농업·농촌 활성화, ③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체에 의한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등으로 설정함.
 - 정예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농업교육의 기본방향을 능력중심, 지역중심, 품목중심의 농업교육 그리고, 농업교육 내용의 확장,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접근 등으로 제시함.
 - 이러한 방향성 아래 ① 잠재농업인력 육성, ② 농업계 학교교육 강화, ③ 농업인 교육 프로그램 개선, ④ 농업 학습조직 및 농업법인 활성화, ⑤ 농업교육 시스템 개선 등의 다섯 분야에 나누어 중점 추진해야할 농업교육 과제를 제시함.

ABSTRACT

Road Maps for Promoting Advanced Agricultural Human Resource through Agricultural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road maps for promoting advanced agricultural human resource through agricultural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For the purpose, this study examined agricultur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policies of the past, evaluated the recent agricultural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in terms of input, output, and effect, prospected agricultural human resource demand and supply for the year of 2022.

Based on the examination, evaluation, and outlook, as well as review of domestic best practice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ojects in advanced agricultural country and non-agricultural fields, some suggestions were made, through expert consultations, on how to improve agricultural education policies aimed at developing agricultural human resources.

The objective for promoting advanced agricultural human resource is ① three percent growth rate per year of agricultural labor productivity, ② local agriculture and rural area revitalization, and ③ stable agricultural production by sustainable agricultural business unit.

For the objective, agricultural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should be competency-based, local-based, commodity-based, agri-food complex-based, and life-long learning-based. Under the direction, this study suggested agricultural education and training projects under five categories including ① potential agricultural human resource promotion, ② agricultural highschool and college education reinforcement, ③ farmer education & training program improvement, ④ agricultural learning organization and corporate body invigoration, ⑤ agricultural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compensation.

Researchers: Ma Sang-Jin, Oh Nae-Won, Kim Kyeong-Duk, Nam Ki-Cheon

Research period: 2012. 5. - 2013. 1.

E-mail address: msj@krei.re.kr

차 례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2
3. 연구 범위와 내용	18
4. 연구 방법	20

제2장 농업인력 육성 정책의 변천과 현황

1. 농업구조정책의 변화	23
2. 주요 농업인력 육성 정책	29
3. 시사점	40

제3장 농업인력 육성 정책 평가

1. 평가 모형	43
2. 투입 분석	46
3. 산출 분석	50
4. 성과 분석	55
5. 평가결과 요약	61

제4장 농업인력 수급 전망

1. 분석 모형	63
2. 수요 전망	64
3. 공급 전망	70
4. 농업인력 미스매치 전망	74
5. 농업인력 수급 분석의 시사점	79

제5장 정예 농업인력 육성 중장기 로드맵

1.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예 농업인력 육성방향	83
2. 정예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농업교육 기본방향	100
3. 농업교육 중점 추진과제와 중장기 로드맵	106
참고 문헌	183
부록1: 질문지	189
부록2: 농업교육 현황(2012년)	203
부록3: 비농업분야 부처별 인력육성사업	223

표 차 례

제1장

표 1- 1.	주요 농업교육기관별 교육내용과 농업인 참여현황	5
표 1- 2.	농업인의 전문 역량 개발 활동 참여율(%)	7
표 1- 3.	농업인의 교육·훈련 참여 횟수(최근 3년간)	7
표 1- 4.	논농가 규모계층별 생산비중 전망	15
표 1- 5.	밭농가 규모계층별 생산비중 전망	15
표 1- 6.	경영주 연령별 농가수 전망	16
표 1- 7.	농업부문 총량지표 추이와 전망(1970~2030년)	16
표 1- 8.	농업인 대상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21

제2장

표 2- 1.	한국농정의 전개과정	24
표 2- 2.	1990년대 이후의 농업농촌종합대책의 주요내용	26
표 2- 3.	한미FTA에 따른 농업부문 보완대책	27
표 2- 4.	농업교육 3개년 기본계획의 농업교육의 개편방향	36
표 2- 5.	농산업 경쟁력제고·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교육체계 개편 계획에서의 교육기관별 역할 및 기능 정립 방안	39

제3장

표 3- 1.	이 연구에서의 농업교육 평가모형	45
표 3- 2.	분석요소별 활용된 분석 자료	46
표 3- 3.	농업교육·훈련 예산 변화 추이(2006~2011)	47
표 3- 4.	농업인의 직업교육(비형식학습) 관련 교육비 지출변화	48
표 3- 5.	농업교육사업 추진 기관별 예산, 교육과정, 교육인원 현황(2011) ...	50

표 3- 6.	농식품부 경영인력과 / 농촌진흥기관 주도 농업교육 인원변화(2007~2011)	51
표 3- 7.	농업인의 교육참여 실태	52
표 3- 8.	농업경영주의 연간 영농교육 일수	52
표 3- 9.	농업인의 현재 참여하는 교육의 내용과 희망하는 교육내용 ...	54
표 3-10.	농업교육참여시간에 대한 Tobit 분석(설문조사)	54
표 3-11.	농업인의 현재 참여하는 교육기관과 참여 장애요인	55
표 3-12.	농업교육의 무형의 성과	56
표 3-13.	농업교육의 경제적 성과	57
표 3-14.	농업교육이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	58
표 3-15.	농업교육 프로그램의 접근성/품질 변화에 대한 농업인 평가 ..	59
표 3-16.	농업교육투자액 및 농업 노동생산성 변화(2006~2011)	59
표 3-17.	투입요소 및 총요소생산성의 성장 기여분 및 기여율	60

제4장

표 4- 1.	농업부문 생산액 전망	65
표 4- 2.	통합중분류 취업 및 고용계수	66
표 4- 3.	농림어업 취업자 전망	68
표 4- 4.	농가인구중 농업종사자 비중 변화(1990~2010)	72
표 4- 5.	재배업 노동생산성의 재배업 생산액에 대한 탄력성 분석	78
표 4- 6.	축산업 노동생산성의 축산업 생산액에 대한 탄력성 분석	78
표 4- 7.	영농분야 신규유입 변화추이	81

제5장

표 5- 1.	중장기 농정의 패러다임 변화	87
표 5- 2.	농가의 노동 생산성 변화 추이	88
표 5- 3.	농업 노동생산성의 농업생산액에 대한 탄력성 분석	89
표 5- 4.	주요 품목별 토지·노동생산성	95

표 5- 5.	농업생산 80%가 정예 농업인력(전문농)에 의해 담당시 인력 수요	96
표 5- 6.	농업법인에 의한 생산점유 고려에 따른 전업농, 법인취업자 수요	98
표 5- 7.	우리나라 농업법인 현황(사업분야별)	99
표 5- 8.	농업인력육성의 단계별 목표와 관련 사업	105
표 5- 9.	정예 농업인력육성을 위한 중장기 농업교육과제 추진 로드맵 ...	107
표 5-10.	농고 특성화 교육 참여 3학년생의 진로계획 변화	122
표 5-11.	농산업분야 취업/창업 진로계획 변화	122
표 5-12.	농업계 대학의 이원화된 교육체제 운영(안)	126
표 5-13.	전국농업인대학 학습 기술수준 향상도(2011)	133
표 5-14.	농업마이스터대학 참여의 무형적 성과	134
표 5-15.	농업마이스터대학 참여의 경제적 성과	135
표 5-16.	후계농업경영인의 조수입 변화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143
표 5-17.	경남의 농업인 Study Group 학습 활동	149
표 5-18.	농업분야 능력표준 개발 직종 현황	157
표 5-18.	농업(생산)분야 NQF (안)	157
표 5-20.	뉴질랜드의 국가자격체제	161
표 5-21.	우리나라 농림수산업 분야별 총산출 및 고용인력 현황(2000~2010)	164
표 5-22.	네덜란드의 농산업의 생산 및 고용구조(1995, 2005년)	164

그림 차례

제1장

그림	1-	1.	연구 흐름도	22
----	----	----	--------------	----

제2장

그림	2-	1.	119조원 투융자계획과 한미 FTA 투융자계획	28
그림	2-	2.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 비전과 정책틀	30
그림	2-	3.	농업교육체제 개편방안 목표와 전략	31
그림	2-	4.	신 농업교육체제 구축 계획의 비전·목표·전략	33
그림	2-	5.	신규 전문농어업경영인 육성방안	34
그림	2-	6.	농업교육 3개년 기본계획(2011~2013)의 비전과 전략	37
그림	2-	7.	농산업 경쟁력제고·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교육체제 개편 계획	38

제3장

그림	3-	1.	위스콘신 대학의 LOGIC 모형	44
그림	3-	2.	농업인이 영농교육을 위해 지불하는 연간 교육비	49
그림	3-	3.	농업인들의 교육비 지불의향	49
그림	3-	4.	농업인의 농업교육 이수시간(%)(설문조사)	53

제4장

그림	4-	1.	농가 인구중 농업종사자 전망(2022)	73
그림	4-	2.	농업인력 과부족(가족노동력) 전망	75
그림	4-	3.	농업 노동생산성의 변화	77

제5장

그림 5- 1.	중장기 농정의 비전과 전략	86
그림 5- 2.	농업 노동생산성 국제비교(2005)	89
그림 5- 3.	Rogers의 Diffusion of Innovation	91
그림 5- 4.	파레토 곡선	92
그림 5- 4.	농업교육의 기본방향	100
그림 5- 5.	농업 생산 및 농업 전·후방 그리고 농촌의 일자리	102
그림 5- 6.	농업교육의 영역 체계화	103
그림 5- 7.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회수율(Heckman 2008)	108
그림 5- 8.	농식품 관련 내용 모니터링 체계(안)	111
그림 5- 9.	첨단나노분야 특성화고 인력양성 협력체계	118
그림 5-10.	네덜란드 AOCs의 주요현황과 지역별 분포	125
그림 5-11.	농업계 학생의 농업 생산 분야 진로 경로(안)	129
그림 5-12.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내용	138
그림 5-13.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절차	138
그림 5-14.	농업교육을 통해 육성하고자하는 농업인력상	141
그림 5-15.	직업능력표준상의 직업능력의 구조	156
그림 5-16.	뉴질랜드 NQF 하위영역과 NCS관계	160
그림 5-17.	뉴질랜드의 농업경영인 진로경로	162
그림 5-18.	농산업 인력구조 개편의 방향	165
그림 5-19.	경북 농민사관학교 운영체계도	176
그림 5-20.	농업교육/인력육성단계별 보급지도센터의 역할	177

제 1 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1990년대 UR 이후 진행된 FTA 협상으로 인해 농가 경영체들은 가격·소득 불안정의 위협에 노출되었고, 신규 농업인력의 유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농업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 1980년대에 시작된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을 필두로, 전업농육성사업, 법인 경영체육성사업, 신지식인 육성사업 등 그동안 정부는 다양한 농업인력육성사업을 실시하였고, 2004년에는 한·칠레 FTA에 대응한 ‘농업농촌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정예농업인력육성종합대책’이라는 농업분야의 종합적인 인력육성대책(2013년까지의 10년 대책)을 제시하였음.
- 최근(2011년)에는 농림수산식품부가 한미FTA 등 변화된 여건 하에서,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농업인력육성정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향후 5년간(2012~2017년)의 한국농업의 인력육성 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으로서 『신규 전문농어업경영인 육성방안』을 제시하고, 관련법(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농업교육 3개년 기본계획(2011~2013년)』과 더불어

장관지시에 의한 『농산업 경쟁력제고 및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교육체계 개편 계획』을 제시하였음.

-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틀이 서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농어업교육체계 개편 계획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 성과 점검과 향후 10년간 농어업 교육 로드맵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임.
- 이 연구에서는 범농업계 교육을 포괄하는 농업 교육의 현황과 그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되는 인력수급변화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교육을 통해 세계와 경쟁하는 우리나라 농업을 이끌 정예 농업인 육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자 하였음.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음.
 - 농업인력육성정책을 분석하고 시사점 도출
 - 농업교육을 중심으로 농업인력육성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도출
 - 비농업분야 및 농업계의 농업교육 우수 사례 분석
 - 중장기 농업인력 수급 전망
 - 정예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개발

2. 선행연구 검토

□ 농업교육에 대한 참여와 요구

- 마상진(2006)은 ‘농업인 교육·훈련 참여 요인’ 연구에서 농업인들이 교육·훈련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고, 농업인들의 어떠한 개인 특성과 영농 관련 특성이 교육·훈련 참여와 관계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음. 한국농업경영인 연합회원,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773부의 설문지 분석

결과 다음의 결과를 도출하였음.

- ① 농업인들의 교육·훈련 참여가 일부 농업인에게 다소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음. ② 여성 농업인이 남성 농업인보다 교육·훈련 참여도가 높았음. ③ 청장년 농업인이 고령 농업인보다 교육·훈련 참여도가 높았음. ④ 교육수준이 높은 농업인이 교육 수준이 낮은 농업인보다 교육·훈련 참여도가 높았음. ⑤ 영농작목이 식량작물인 농업인보다 그 외 영농작목 농업인의 교육·훈련 참여도가 높았음. ⑥ 창업농이 승계농 보다 교육·훈련 참여도가 높았음. ⑦ 영농 경력이 적은 농업인이 영농 경력이 많은 농업인보다 교육·훈련 참여도가 높았음. ⑧ 영농수준이 높은 농업인이 영농수준이 낮은 농업인보다 교육·훈련 참여도가 높았음. ⑨ 생산자 조직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농업인이 생산자 조직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농업인보다 교육·훈련 참여도가 높았음. ⑩ 농업인의 교육·훈련 참여도를 잘 설명해 주는 변인은 연령이었고, 영농수준, 생산자 조직 활동, 영농작목, 취농형태 등도 이를 설명해 주고 있었음.
- 마상진·김영생(2006)은 ‘농업인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분석’ 연구에서 농업인들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를 파악함으로써 농업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음.
- 연구 결과 ① 농업인들은 생산기술, 마케팅 이외에도 다양한 영농 영역에 대한 교육·훈련 요구가 있었음. ② 농업인들은 소규모 인원으로 구성된 교수학습과 견학식으로 진행되는 교수학습을 많이 선호하였음. ③ 농업인들은 그들의 현실과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 강사를 선호하였음. ④ 농업인들은 프로그램 평가 방법으로 실습평가를 선호하였음. ⑤ 농업인들은 겨울철교육훈련과 단기 교육훈련을 선호하였음. ⑥ 농업인들은 농업관련 공무원과 신문방송 등을 통해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얻고 있었음. ⑦ 농업인들은 교육·훈련 비용에 대한 지원을 원하고 있었음. ⑧ 농업인들은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교육·훈련과 연계된 적

절한 영농정보의 제공을 가장 원하고 있었음. ⑨ 농업인들은 교육훈련 프로그램 내용, 방법, 지원 등에 대하여 영농작목, 경영수준, 영농경력, 성별과 같은 특성에 따라 다른 요구를 하고 있었고, 특히 영농작목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훈련을 원하고 있었음.

- 윤준상(2007)은 ‘여성농업인의 요구분석을 통한 전문기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에서 여성농업인의 전문교육 실태와 요구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전문기술교육프로그램의 체계 및 표준교과를 제시하며, 여성농업인의 전문기술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과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이를 위해 그는 여성농업인 주종사작목의 150농가 부부를 대상으로 설문 및 면접조사를 통해 분석 실시함.

- 분석 결과 여성농업인이 주로 교육받는 장소는 농업기술센터이었으며, 주 교육과정은 재배기술이었으며, 교육수준은 중급이었고, 교육내용의 중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여성농업인의 교육·훈련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분석결과 ① 영농기술교육의 전문화가 높으며, ② 전문농업인력이 되기 위해 농업생산기술, 유통판매기술에 대한 교육요구수준이 높았음. ③ 여성농업인의 사회활동 참여의 필요한 의식교육에 대한 요구는 평등한 부부의식과 협력, 부부갈등과 자녀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문제이해와 의사결정능력 향상의 순으로 나타났음. 또한, 여성농업인들은 이러한 전문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해 각종농업정책지원에서의 우선권을 요구하고 있었음.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여성농업인의 전문교육 프로그램 모듈을 교양과정과 전문기술과정으로 나누고, 과정별 교육목표와 교육방법을 설정하였음. 교양과정에서의 교육목표를 ① 여성의 의식 및 인성개발 ② 지역사회조직 및 리더십 개발 ③ 농업정보화 ④ 생활관리 능력개발(여성문화와 건강, 자녀교육, 대화법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고, 전문기술과정에서는 작물생산과 관리, 유통 및 경영과정을 농촌진흥청의 농업경영관실의 경영표준진단표의 각 작목의 진단영역을 종합화하여 경영관리, 작물재배 및 환경관리, 시설 및 자동화 등의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음. 수준별 전문교육체계는 교양수준과 전문기술수준을 초급, 중급, 심화과정으로 3개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교육내용과 방법을 제시하였음.

- 김진모 등(2007)은 ‘농업인 교육 프로그램 분석’ 연구에서 농업인들의 교육 참여 실태 연구함. 분석을 위한 개념적 틀은 8가지의 기관 유형, 17가지의 프로그램 내용 영역, 5가지의 교육방법, 3가지의 교육인원, 3가지의 교육기간을 도출하였고, 총 173개 기관의 2,483개 프로그램을 분석의 대상으로 설정함. 연구 결과로 그가 제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농업인 교육은 국가기관 및 기술센터 등의 정부기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음<표 1-1>. ② 재배/사육기술, 생활개선 및 농촌건강관리, 정보획득 등의 내용이 주요 교육내용으로 다루어짐. ③ 각 기관 유형별로 비중 있게 다루는 주요 교육내용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었음. ④ 교육프로그램에서 활용되는 교육방법은 대체적으로 강의에 편중되어 있었음. ⑤

표 1-1. 주요 농업교육기관별 교육내용과 농업인 참여현황

	주요 교육 내용	국가 기관	기술 센터	학교 기관	농민 단체	농협 연수원	지역 농협	합계	백분율	
기술	농기계 및 시설관리	17	163	3	3	1	-	187	8.4	60.0
	생산관리	32	126	9	3	6	8	184	8.3	
	재배/사육기술	65	825	12	27	13	18	960	43.3	
경영	영농계획	7	92	2	6	-	4	111	5.0	38.7
	사업기반조성	4	24	2	-	-	-	30	1.4	
	경영관리	20	22	9	3	2	8	64	2.9	
	정보획득	78	314	11	44	-	13	461	20.8	
	마케팅	64	93	9	9	2	2	179	8.1	
	사업검토 및 재계획	-	8	3	-	2	-	13	0.6	
사회	가족/지역사회 관계	2	3	6	-	-	10	21	0.9	1.3
	영농 일손 관리	4	1	1	-	-	3	9	0.4	
	기타	124	1238	2	54	3	23	1,444	-	-
	합계	417 (11.4)	2909 (79.4)	69 (1.9)	150 (4.1)	29 (0.8)	89 (2.4)	3,663 (100.0)	-	-

자료: 김진모 등(2007)

교육인원에 있어 중규모와 대규모 인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1대1 개별 교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⑥ 1일 혹은 3일 이상 이루어지는 교육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2일 동안 이루어지는 교육의 비중은 비교적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 마상진(2008)은 ‘농업인의 전문역량 강화’방안을 준비하면서 농업인들의 전문 역량 개발은 정규교육, 공공·민간 사회기관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개인학습을 통해 이루어짐을 보고¹.
 - 농업인들은 정규교육(형식학습)²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고, 사회기관을 통한 프로그램(비형식학습)³이나 개인학습(무형식학습)⁴을 통해 전문 역량을 개발하고 있었음.
 - 취농이후 농업 관련 자격·학위 취득을 위해 농업계 학교의 과정을 이수 하였거나 현재 이수 중인 농업인은 3.1%이었음.
 - 교육·훈련, 학습조직(작목반, 품목연구회), 전문가자문(컨설팅)과 같은 사회교육을 통한 역량 개발 실태를 보면 교육·훈련 37.4%, 학습조직 63.5%, 전문가자문 29.3%로 학습조직이 가장 활발하였음.
 - 농업인의 87.4%가 이웃농가와 협의, 관련 잡지·서적 구독, 방송이나 인터넷 활용, 관련 전시회·회의 참석 등을 통한 개인학습을 하고 있었음.
 - 대체로 젊은 중견(11~30년)의 농업인의 개인학습 참여율이 높았음.

1 새로운 정보, 지식, 태도를 습득하는 방식(학습 형식)은 의도성·계획성 등에 따라 형식(formal) 학습, 비형식(non-formal) 학습, 무형식(informal) 학습으로 나눌 수 있음. 여기에서 정규교육은 형식학습을, 사회기관을 통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비형식학습을, 개인학습은 무형식학습을 의미함.

2 일반적으로 엄밀한 학사 관리를 하는 학교와 같은 정규 교육기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일제로 이루어지는 구조화된 학습

3 학교가 아닌 각종 공공·민간 단체를 통해 제공되는 상대적으로 덜 구조화된 학습

4 ‘우발적 학습’이라고 하여 일상의 생활에서 계획되거나 조직되지 않은 학습

표 1-2. 농업인의 전문 역량 개발 활동 참여율(%)

		정규교육	사회기관 프로그램			개인학습 ⁴⁾
			교육·훈련 ¹⁾	학습조직 ²⁾	전문가자문 ³⁾	
전 체		3.1	37.4	63.5	29.3	87.4
연 령	40대 이하	2.1	41.2	65.7	33.8	89.2
	50대	4.6	37.5	69.8	27.9	86.6
	60대	-	29.4	48.0	22.5	85.3
영 농 경 력	10년 이하	-	31.1	34.4	32.8	83.6
	11~30년	5.1	43.3	73.6	34.6	89.4
	31년 이상	1.2	30.6	58.8	20.0	85.9

1) 연 1회 이상 교육·훈련 참여하는 경우

2) 가입하고 있는 학습조직에서 연 1회 학습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3) 연 1회 이상 전문가자문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4) 이웃과 논의, 서적 구독, 방송 청취, 인터넷, 관련 행사 참석 중에 한 가지라도 하고 있는 경우

자료: 마상진(2008)

- 전문 역량 개발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많은 농업인일수록 더 자주 참여함. 농업인의 교육·훈련 참여 횟수를 분석해 보면, 농업인의 절반 이상인 62.7%가 연 1회 이하(최근 3년간 2회 이하)의 회수로 참석하고 있는 반면, 연 2회 정도(최근 3년간 6~8회) 참석하는 농업인보다 연 3회 이상(최근 3년간 9회 이상) 참석하는 농업인이 오히려 많았음.

표 1-3. 농업인의 교육·훈련 참여 횟수(최근 3년간)

		교육·훈련 참여 횟수(%)				
		0회	1~2회	3~5회	6~8회	9회이상
전 체		28.7	34.0	18.8	5.8	12.8
연 령	40대 이하	26.0	32.8	22.1	6.4	12.7
	50대	25.7	36.9	16.8	6.7	14.0
	60대	39.2	31.4	15.7	2.9	10.8
영 농 경 력	10년 이하	50.8	18.0	16.4	4.9	9.8
	11~30년	21.7	35.0	20.9	6.7	15.7
	31년 이상	31.2	38.2	16.5	4.7	9.4

자료: 마상진(2008)

- 유영민 등(2011)은 ‘농업인 교육 프로그램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정부기관과 농업인력 교육훈련기간 수준에서 농업교육프로그램을 분석함으로써 프로그램 내용 및 방법을 살펴보고 향후 농업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지식기반을 제공하고자 함. 이를 위해 정부 예산 지원을 받는 농업인 교육기관에서 실행된 농업인 대상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335개 프로그램의 설문지를 수집하였으며 328개 프로그램이 분석에 사용함.
- ① 교육 내용 면에서 조사한 결과 품목교육이 40.9%(137개)고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영과 기타 순이었음. ② 각 프로그램의 교육목표를 분석한 결과 목표 설정이 보통인 경우 180개(54.9%), 우수가 94개(28.7%) 미흡이 54개(16.5%)로 나타났음. ③ 교육 프로그램의 체계성은 우수 123개(37.5%), 보통 165개(50.3%), 미흡 40개(12.2%)로 나타났음. ④ 교육과정을 운영 주체별로 조사한 결과 농촌진흥청 6개(30.0%), 농촌진흥기관 7개(53.8%), 학교기관 71개(60.7) 등으로 품목교육과정이 집중된 것을 볼 수 있음. ⑤ 운영주체별 과정성격은 전문과정 173개(48.7%), 경영 53개(14.9%), 소양 44개(12.4%) 순으로 나타났음. ⑥ 교육방법을 조사한 결과 이론 311개(24.4%), 그 다음으로 실습과 토론 순으로 나타났음. ⑦ 교육 운영은 합숙과 비합숙이 전체 48.8%와 46.8%로 나타나났음. ⑧ 교육시기는 8, 9, 10월이 다른 달에 비해 조금 더 제공되고 있으며 1, 2, 12월에는 조금 덜 제공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⑨ 교육시간은 300시간(27.4%), 20시간 미만(29.0%), 20~50시간(18.3%) 순으로 나타났음. ⑩ 교육대상자의 선발은 서류전형과 면접 두가지 방법을 통한 경우가 4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조건별 우선순위, 추천과 의무교육 순으로 나타났음. ⑪ 교육 프로그램 선수 조건은 희망자, 관련종사자, 관련전문가 순으로 나타났음. ⑫ 프로그램의 평가방법은 58.3% 정도가 만족도와 출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험, 과제, 결과물로 평가하는 과정은 36.1%로 나타났음.
- 이순석·장우환(2011)은 ‘농가경영성과에 따른 농업인 교육 분야별 필요도에

대한 분석' 연구에서 농업인 교육의 효과를 구명하고, 농가경영성과별로 농업인 교육 분야별 필요도의 차이를 분석하고, 농가경영성과별로 필요한 교육 분야를 제시함.

- 자료 수집은 농촌진흥청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교육 수료 농가 중에서 임의로 240호 농가를 추출하여 1대1 면접 형태의 직접면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① 농업교육과정에 대한 농가들의 교육 참여 이후 만족도 점수가 참여 이전 기대 점수보다 더 높아 농업인 교육 사업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② 농업인의 교육 필요도를 농가경영성과의 주요 지표인 소득과 부채를 기준으로 구분해본 결과, 경영능력배양과 농외소득증대 교육 필요도에서 공통적인 차별성이 존재하였음. ③ 대응일치분석을 통해 지각도를 그려본 결과, 농가 소득수준과 부채수준에 따라서 교육 분야에 대한 필요도가 다르게 나타났음. 이러한 분석 결과는 교육과정을 개발함에 있어서 농가들의 소득수준과 부채수준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음.

□ 농업교육에 대한 평가와 성과

- 마상진(2008)은 농업계 대학생의 영농 분야 신규 유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도출하면서, 농업계 대학생의 직업선택과 관련한 이론과 선행연구 고찰, 농업계 대학 및 졸업생의 진로 현황 분석, 농업계 대학생의 취농 의사결정 관련 실태 분석 그리고 관련 제도와 사례를 고찰하였음.
 - 농업계 대학생의 직업선택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대학시절 영농과 관련한 다양한 사건이나 경험에 많이 노출될수록 학생의 발달이 촉진되고, 궁극적으로는 영농 분야 직업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음.
 - 농업계 대학 현황 분석 결과 농업계 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은 비교적 많았지만, 실제 농학, 원예, 축산 등 농업 생산과 관

련한 학과는 많지 않음. 졸업생 진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업계 학과 출신자의 30%가 미취업이었고, 농업계 대학 졸업생의 극히 일부만이 영농분야로 취업을 하고 있었음.

- 농대생의 영농분야 유입을 위한 제도에는 사실상 농대 영농정착교육과정이 유일하였는데 아직 실행한지 얼마 되지 않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모범이 될 만한 표준 모형이 없음.
 - 농업계 대학생의 취농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학생 조사를 통해 선행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농업과 관련한 과거 경험 및 학교에서의 다양한 활동이 영농분야 진로계획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현재 일부 농업계 대학에서 제공하고 있는 영농정착교육과정은 아직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농업계 대학생들에게 기존의 대학교육과정이 제공하지 못하는 영농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어 학생들의 영농에 대한 생각 전환, 나아가 진로 계획의 수정에 까지 영향을 주고 있었음.
- 김진영 등(2008)은 ‘농업경영컨설팅 성과평가를 위한 소득증가율 조사 결과보고’에서 농가의 경영능력향상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지원사업의 효과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를 실시. 이를 위해 2007년 농업컨설팅을 지원받은 농가 중 203개 농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데이터분석이 가능한 188개 농가를 대상으로 소득 증가율 등을 분석함.
- 분석 결과 ① 소득변동에 대한 조사결과 전년대비 7.4% 증가하였고, 76.0%(143개) 농가가 소득이 증가(122개) 하였거나 전년도 수준을 유지(21개)하였음. ② 생산성증대, 상품성 향상, 비용절감 및 매출증대 등의 효과에 대하여 93%가 보통수준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소득변화의 효과에 대해서는 88.3%가 영향이 있다고 평가하였음. ③ 매출액은 전년대비 36.4% 증가하였음에도 유가상승 및 원자재값 인상, 물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소득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6.1% 감

소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④ 매출액은 2006년 대비 2007년도(26.4%), 2008년도(42.2%) 증가하였으나 부채가 22.9%와 41.5%로 각각 증가하였고 비용이 늘면서 소득은 7.4%, 0.8% 각각 증가하는데 그쳤음. ⑤ 2007년 농가당 자산은 7.1억, 부채는 2.7억, 자본은 4.3억으로 나타나 전년에 비해 각각 11.4%, 18.7%, 7.1% 증가하였음. 부채비율은 0.64%로 전년(0.58%)에 비해 0.06% 증가하였으나, 농업법인당 부채비율(188.5%)보다는 양호하였음.

- 분석결과의 개선의견으로는 ① 컨설팅 분야별 인증요건 기준 마련, ② 컨설턴트 양성 및 비상근 전문인력 참여 제한 기준 마련, ③ 컨설팅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 등 관리기준 제고, ④ 농가 부담금 납부 풍토 조성을 제시하였음.
- 남양호 등(2010)은 ‘농업인 특성별 교육성취도와 농업 경영활동 성과분석’ 연구에서 농업인들의 교육태도, 교육여건, 교육프로그램의 우수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교육성취도와 농업 경영활동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대하여 분석. 이를 위해 전국의 농업인 요건을 갖춘 사람들 350명 중 연구와 밀접한 관계자들인 직업군이 농업과 축산업에 있는 총 203부를 가지고 연구 분석에 이용
- 연구 결과는 ① 농업인 교육태도가 좋을수록 농업교육 성취도가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지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업인의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선정과 교육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② 교육여건이 좋을수록 농업교육 성취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③ 농업교육 프로그램이 좋을수록 농업교육 성취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④ 농업교육 성취도가 높을수록 농업 경영활동의 성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⑤ 농업인 교육 태도가 성실할수록 농업 경영활동의 성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⑥ 농업교육 프로그램의 우수성이 높아질수록 농업 경영활동의 성과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음.

- 강혜정 등(2011)은 ‘농업교육 참여에 따른 농가소득 증가율 추정’ 연구에서 농업교육이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가정 하에 농업교육 이수 후 농가소득이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실증 분석. 그녀는 고소득 농업경영체와 중·저소득 농업경영체의 농업교육 이수 후 농가소득 증가율을 비교·분석하여, 농업소득 규모에 따른 교육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봄. 연구의 방법은 이중양분선택형(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model, 또는 이중 투표모형) 질문법을 이용하여, 농업경영체가 농업교육 이수 후 평가하는 농가소득 증가율의 범위를 좁혀나가는 방식을 사용
 - 최근 3년간 농업교육에 참여한 농업경영체 중 농가소득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농업교육을 받기 전과 받은 후의 농가소득 증가율을 추정한 결과, 평균 농가 소득증가율은 17.54%로 나타났음. 특히 고소득 농업경영체의 농업교육 참여 전후 평균 농가소득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음. 중·저소득 농업경영체의 평균 농가소득 증가율도 높은 편이나, 해당 소득계층의 농업경영체 간 농가소득 증가율 변화폭이 매우 커서 중·저소득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하는 농업교육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제시하였음.

- 홍은파(2010)는 ‘여성농업인 영농교육이 농업생산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연구에서 여성농업인의 정규교육과 영농교육이 농업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가진다고 보고. 또한 그는 정규교육과 영농교육의 매출액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가 음의 값을 가져, 둘간의 대체관계가 있다고 보고함. 이러한 결과는 Huffman(1974), Durjaiye와 Olanloye(1992) 등의 선행 연구결과와도 일치함을 강조함. 본래 인적자원이론에서는 정규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교육훈련 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 정설이지만, 농업에서는 비교적 저학력 인구가 많아, 영농교육은 낮은 정규교육수준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임.

- 장우환 등(2011)은 ‘농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효율성 분석’ 연구에서 농촌진흥청의 농촌인력자원개발센터를 통해 농촌진흥공무원과 농업인을 대상

으로 수행되고 있는 농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효율성 제고방안을 모색. 연구의 방법으로는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및 토빗모형(Tobit Model)을 이용하여 농촌진흥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농촌 진흥공무원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53개)과 농업인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27개)의 효율성을 분석.

- ① 농촌진흥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농촌진흥공무원 대상 53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기술효율성 평균값이 0.83으로 나타나 17%의 운영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기술효율성을 순수기술효율성(0.92)과 규모효율성(0.90)으로 구분해서 분석해본 결과 규모효율성이 미세하지만 비효율에 영향을 더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② 농촌진흥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농업인 대상 27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기술효율성 평균값은 0.62로 나타나 38%의 운영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기술효율성을 세분해서 분석해보면 규모효율성(0.82)보다는 순수기술효율성(0.78)이 비효율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음. ③ 토빗모형을 이용한 효율성 원인분석 결과 농촌진흥공무원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투입예산과 투입시간이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농업인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투입예산과 투입강사 수가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음.
- 서종석 등(2011)은 ‘농업교육이 농업소득 증대에 미치는 효과분석’ 연구에서 농업교육의 농업소득에 대한 효과를 농업교육의 참여 여부가 농업인의 소득 수준에 미치는 수준효과와 교육수준의 변화에 따른 농업소득의 변화 즉 한계효과로 나누어 분석. 이를 위해 연구의 방법은 전국의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1,100개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856개의 표본을 분석에 이용
- 연구의 결과 ① 농업교육은 농업인 소득과 강한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② 중·저소득 농가에 비해 고소득 농가의 소득증대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③ 11개 세부교육과정 중 5개 과정만이 소득증대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교육과정이 소득에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④ 소득 증대에 중요한 교육 프로그램은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필요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참여를 유도한다면 농업교육의 소득증대효과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농업인력수급 전망

- 박천수(2010)는 ‘농어촌 지역의 일자리 실태와 전망’ 연구에서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한국고용정보원 2001~2008)를 활용하여 농림어업분야 고용인력을 전망
 - 그는 농림어업관련 산업은 작물재배업과 어로어업의 감소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연평균 2.08%가 감소하여 2020년에 923천명이 종사할 것으로 추산하였음. 농림어업관련 직업은 곡식작물재배자, 연근해 어부 및 해녀, 농림어업관련 단순노무자의 감소로 연평균 2.01%가 감소하여 2020년에 931천명이 종사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김정호(2007)는 ‘농가의 사회경제적 성격변화와 전망’ 연구에서 농가계층 분화의 추이를 반영하여 1990년대 이후의 변화율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향후 10년 후의 농가계층 비율을 추정하여 규모별 분포를 전망
 - 논 3ha 이상을 경작하는 농가는 2005년에 호수로 4.9%, 면적으로 26.4%를 차지하였으나, 2015년에는 호수 비율이 9%, 면적 비율이 36.8%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밭 2ha 이상을 경작하는 농가는 2005년에 호수로 3.9%, 면적으로 29.9%를 차지하였으나, 2015년에는 호수 비율이 5.7%, 면적 비율이 41.9%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표 1-4. 농농가 규모계층별 생산비중 전망 (단위: %)

구 분	0.5ha 미만		0.5-3ha		3ha 이상	
	호수비율	면적비율	호수비율	면적비율	호수비율	면적비율
2000	42.25	13.75	53.97	66.21	3.79	20.04
2005	43.08	11.73	51.99	61.90	4.93	26.37
2010	43.26	10.52	50.08	57.88	6.66	31.60
2015	42.78	9.06	48.25	54.11	8.97	36.83

자료: 김정호(2007)

표 1-5. 밭농가 규모계층별 생산비중 전망 (단위: %)

구 분	0.3ha 미만		0.3-2ha		2ha 이상	
	호수비율	면적비율	호수비율	면적비율	호수비율	면적비율
2000	53.68	14.90	43.16	61.14	3.16	23.95
2005	54.86	13.27	41.26	56.81	3.89	29.93
2010	55.85	11.32	39.44	52.78	4.71	35.90
2015	56.63	9.09	37.70	49.04	5.67	41.87

자료: 김정호(2007)

- 박성재(2008)는 ‘선진국형 농정으로의 전환을 위한 연구’에서 농업총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농업인력의 세대교체는 ‘다수 고령인력의 축적과 소수 신규인력의 진입’이라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향후 20년이 지나면 극소수의 젊은 영농인에게 농지 등 농업자원이 집적될 것으로 예상

- 신규 진입은 연간 1만 명 정도(2000~05년간 49,840명)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중 26.4%가 60세 이상이고, 또 74.4%가 연간 매출액 500만원 미만. 매출액 1천만 원 이상의 신규 진입농은 연간 1,500호 정도에 불과하여 농업으로 성장하겠다는 농가는 극히 적은 편. 참고로 2000~05년간 신규로 49,840호가 진입했고, 160,400호가 퇴출하여 순감소는 110,560호. 또한 경영주 연령이 60대 이상인 농가는 2005년 58%에서 2020년에 80%에 달하고 2030년이면 8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영주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였음.

표 1-6. 경영주 연령별 농가수 전망

단위: 천 호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40대 미만	42.4	19.5	12.9	12.0	11.9	11.9
40~50대	488.7	336.1	221.1	138.4	100.9	87.6
60대 이상	741.8	762.8	649.0	608.3	578.5	524.5
합계	1,272.9	1,118.3	883.0	758.7	691.4	624.1

주: 2010년 이후 전망치는 농업총조사자료를 이용함.

자료: 박성재(2008)

- 김정호·한석호(2011)는 ‘농업의 미래상과 새로운 활로’란 연구에서 농업·농촌 2030전망을 하였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을 이용하여 농업부문 총량 지표의 과거 추이와 2030년까지 전망치를 제시하였음.

표 1-7. 농업부문 총량지표 추이와 전망(1970~2030년)

구분	단위	1970	1990	2010	2020	2030	2010/ 1970	2030/ 2010
농가호수	천호	2,483	1,767	1,172	1,078	924	0.47	0.79
농가인구	천명	14,422	6,661	3,039	2,295	1,732	0.21	0.57
65세이상 비율	%	4.9	11.5	35.3	45.2	51.4	7.20	1.46
경지면적	천ha	2,298	2,109	1,718	1,574	1,488	0.75	0.87
벼 재배면적	천ha	1,203	1,244	910	809	802	0.76	0.88
농업부가가치	10억원	10,762	16,827	20,691	18,705	18,755	1.92	0.91
농가소득	만원	650	1,895	3,298	3,910	5,746	5.07	1.74
농외소득 비율	%	23.1	25.7	39.4	48.2	62.0	1.71	1.57

주: 1970~90년 수치는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2010, 2020, 2030년 수치는 KREI-KASMO 추정치. 농업부가가치는 2005년 기준 가액. 농가소득은 GDP디플레이터(2005=100) 적용. 2020년과 2030년 수치는 2010년 불변 가액.

자료: 김정호 등(2011)

- 농가호수와 인구의 추이를 보면, 지난 40년간 농가호수는 절반 수준으로, 농가인구는 2할 수준으로 감소하였지만 앞으로는 감소 속도가 다소 완화되어 2030년에 농가호수는 92만호(2010년 대비 79%), 농가인구는

173만명(2010년 대비 57%)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특히 앞으로 고령화가 가속화되어 농가인구 65세 이상의 비율이 2030년에는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였음. 따라서 농업경영주 수를 추산해 보면 2030년 경에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기간적 전업농가는 20만호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하였음.

- 경지면적은 지난 40년 동안에도 완만한 감소세를 보여 왔으며, 앞으로도 거의 같은 추세로 진행될 것이어서, 경지면적은 2010년 172만ha에서 2030년 149만ha로 감소하고, 벼 재배면적도 같은 기간 동안에 91만ha에서 80만ha 수준으로 완만한 감소가 예상하였음.
- 농업생산액은 1990년대까지는 증가 추세를 나타냈으나, 농산물 시장개방의 영향으로 2000년대 들어서는 정체 기조로 전환되었으며, 앞으로도 증가 요인이 별로 없을 것이지만, 농업경영비는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농업부가가치는 2010년 21조원(불변가격)에서 2030년에 19조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였음.

□ 선행연구의 한계

- 농업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 요구와 관련하여, 적지 않은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2008년 신농업교육체제 계획 이후 농업교육에 대한 본격적인 정부차원의 투자 확대이후 변화된 농업교육에 대한 요구와 참여 실태가 제대로 점검되지 않았음.
- 농업교육에 대한 평가와 성과와 관련하여 일부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농업교육 프로그램 개별에 대한 미시적 평가에 한정하여 접근하고 있음.
- 농업인력수급 전망과 관련한 연구에서 최근의 한·미 FTA와 같은 우리나라 농업에 파급효과를 큰 사건을 반영한 전망이 미흡했고, 특히 농업인력육성의 관점에서 수급전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3. 연구 범위와 내용

3.1. 연구 범위

- 농어업인이라 함은 넓게는 농업, 임업, 수산업 등을 모두 포괄하는 인력을 의미하지만, 농업과 임업, 수산업은 산업구조와 인력수급 체계 그리고 인력육성 정책/사업관련 추진 주체와 인프라가 상이하여 동일한 인력육성의 비전과 목표하에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기에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음.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농업 분야에 한정하여 접근하고자 함.
- 이 연구는 농업인력육성정책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관련 정책에 대한 투입, 산출, 성과 평가 그리고 중장기 로드맵 실현을 위한 과제 제시는 논의의 구체화를 위해 그리고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농업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었음.
- 농업교육이라 함은 농업이라는 직업 세계를 탐색하거나, 관련 역량을 개발하는 활동의 일종으로, 직업교육으로서의 농업교육⁵, 교양교육으로서의 농업교육으로 나뉨. 이 연구에서는 직업교육으로서의 농업교육을 중심으로 다루되, 교양교육으로서의 농업교육 부문도 과제 제안에서 일부 다루었음.

5 직업 농업교육은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장차 농직업에 진출하려는 사람에게 필요한 지식, 태도, 기능을 습득하게 하는 교육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농업교육과, 학생이 아닌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외 농업교육으로 나뉨.

3.2. 연구 내용

- 농업인력육성 정책의 변천과 현황
 - 농업 구조정책의 변천사
 - 농업인력육성 정책과 농업교육 관련 계획
 - 시사점 도출
- 농업인력육성정책의 평가
 - 평가 분석틀: 농업교육 중심
 - 투입, 산출, 성과 측면에서의 농업교육 평가
 - 농업교육의 문제점과 교육관련 요구(Needs) 도출
- 농업인력육성 사례 조사⁶
 - 국내 농업분야 우수사례 조사
 - 비농업분야 벤치마킹 사례 조사
 - 외국의 농업교육 사례 조사
- 농업인력수급 분석
 - FTA를 반영한 농업인력 수요 전망(2022년 시점 기준)
 - 농업인력 공급 전망
 - 수요공급 분석에 따른 농업인력 미스매치 전망과 농업인력육성정책 방향에 주는 시사점
- 정예 농업인 육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설정
 - 정예 농업인력의 기본방향(개념 및 비전, 육성 목표 설정)
 - (향후 10년간) 농업인력육성 로드맵과 농업교육 핵심 추진과제

⁶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지 않고, 관련 과제 제안에서 본문 글상자 형태로 제시함.

4. 연구 방법

○ 문헌연구

- 농업분야 인력육성과 교육훈련 정책사업 관련 정책자료, 연구보고서, 학술논문 고찰
- 정부투자 인력육성 사업 평가 관련 연구보고서 및 학술논문 고찰
- 비농업분야 인력육성 사업이나 프로그램, 외국의 농업인력육성 정책사업 관련 자료 검토

○ 통계자료 분석

- 농업인력의 교육효과성 분석, 인력수급 분석과 관련한 기존 국가 통계의 원자료를 구입하여 재분석
- 관련 통계: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농가경영등록정보, 농업총조사, 농가경제조사,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등

○ 설문조사

- 조사대상: KREI 통신원(1,960명)⁷, 농업마이스터대학 이수생(1,881명)
- 조사기간: 2010년 11월 5일~11월 20일
- 조사방법: 우편조사
- 조사내용: 개인특성/영농특성, 농업교육참여현황(횟수, 시간, 기관, 교육비), 농업교육참여동기, 농업교육이수성과, 농업교육선호(내용, 방법), 개선요구, 농업교육정책에 대한 인식
- 응답자: KREI 통신원(653명), 농업마이스터대학 이수생(197명)

7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1978년부터 농업인의 의식구조 및 여론조사를 위해 지역을 안배하여 선정한 농업인으로 연령, 영농규모면에서도 고루 분포되어 있지만, 농업인 중에서도 최소한 설문에 응할 수 있을만한 지적수준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선정되었기에 일반농업인 평균에 비해 학력이 다소 높을 수 있음.

표 1-8. 농업인 대상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개인특성		KREI 통신원	농업마이스터 대학 이수생	전체
성	남	89.3%	84.8%	88.3%
	여	10.7%	15.2%	11.7%
학력	초졸이하	7.5%	0.5%	5.9%
	중졸	27.5%	10.3%	23.7%
	고졸	48.6%	46.7%	48.2%
	전문대졸	5.2%	18.5%	8.2%
	대졸이상	11.2%	23.9%	14.0%
연령	50세미만	11.2%	55.7%	21.0%
	50~59세	34.8%	35.7%	35.0%
	60~69세	27.6%	7.6%	23.2%
	70세이상	26.5%	1.1%	20.9%
품목	쌀	37.6%	3.8%	30.1%
	특용	15.3%	4.3%	12.9%
	과수	19.2%	35.3%	22.7%
	채소	14.1%	19.0%	15.2%
	축산	9.5%	32.1%	14.5%
	기타	4.3%	5.4%	4.5%

○ 사례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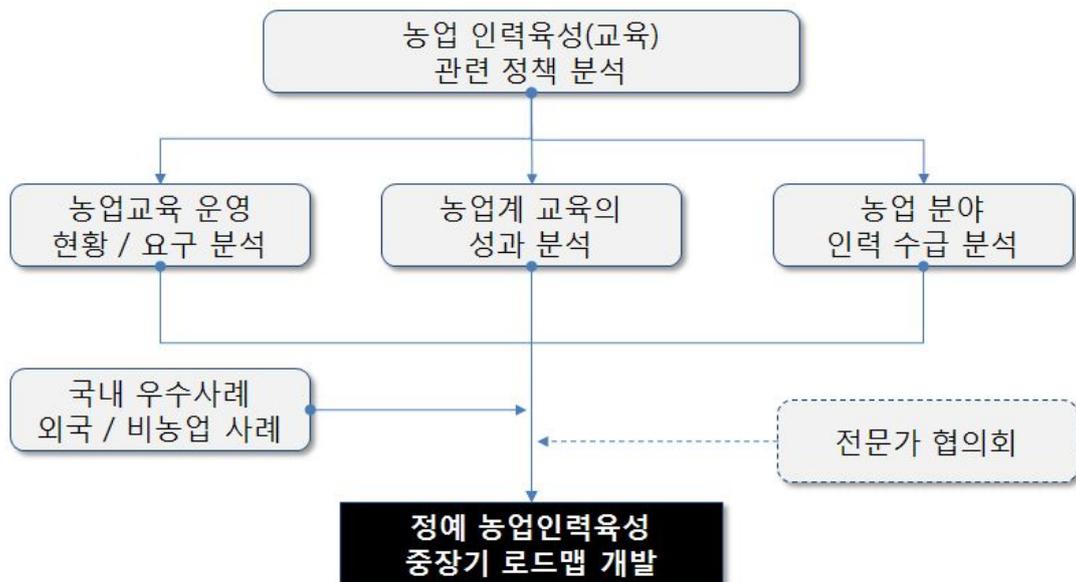
- 농업인력육성 중장기 로드맵 설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국내의 농업교육 사례를 조사하였음.
- 국내사례: 8월 22일~23일(전라지역), 9월 26일~27일(경상지역), 11월 7일~8일(충청지역)
- 외국사례: 네덜란드(LEI Floor Brouwer 박사, 7월 3일), 뉴질랜드(최양부 박사, 8월 9일), 미국(University of Florida의 Kirby Barrick 교수, 9월 11일)
- 비농업분야: 중소기업청(산업연구원 양현봉 박사, 11월 13일)

○ 전문가협의

- 농업교육 성과지표 설정, 비농업분야 사례 조사, 농업 인력육성 로드맵 마련을 위한 농업교육 분야별 전문가 자문·협의 실시하였음.

- 농업계 학교교육(8회): 5월 15일, 6월 8일, 6월 14일, 6월 19일, 7월 13일, 9월 19일, 9월 25일, 10월 8일
- 농업인 영농교육(6회): 6월 13일, 7월 12일, 7월 20일, 8월 24일, 9월 5일, 9월 13일
- 농업교육 일반(9회): 7월 27일, 8월 27일, 8월 29일, 8월 31일, 9월 12일, 10월 10일, 10월 25일, 11월 22일, 12월 7일

그림 1-1. 연구 흐름도



제 2 장

농업인력 육성 정책의 변천과 현황

1. 농업구조정책의 변화⁸

1.1. 해방후 근대 농정사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농정의 전개 과정에 대하여 농업을 둘러싼 경제사회 여건과 농업 관련 제도 및 정책 기조의 변화를 기준으로 시기를 구분하면, 1948~1967년의 제도정비기, 1968~1977년의 증산농정기, 1978~1985년의 소득농정기, 1986~1997년의 구조농정기, 1998년 이후 현재까지의 개방농정기 등 5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⁸ ‘박석두 등. 2011. 농업구조정책의 평가와 방향 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내용을 발췌한 것임

표 2-1. 한국농정의 전개과정

제1기 (1948~1967)	제도정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개혁 실시(1949) ○ 농업기본법(1967) 제정 ○ 잉여농산물(PL480) 도입
↓		
제2기 (1968~1977)	증산농정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공병진과 농어민소득증대특별사업 추진 ○ 농지확장사업(간척, 개간 등) ○ 새마을사업 추진(1970) ○ 녹색혁명과 고미가정책 ○ 주곡자금 달성(1977)
↓		
제3기 (1978~1985)	소득농정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특적자 누적으로 양정전환론 대두 ○ 냉해(1980)로 양곡 도입, 저곡가정책 시작 ○ 소값파동과 농가부채 문제(1984/85) ○ 비교우위론, 농외소득론 대두
↓		
제4기 (1986~1997)	구조농정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개방 대응, 농어촌종합대책 수립(1986) ○ GATT/BOP 졸업(1989)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정(1990) ○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착수(1992) ○ UR협상 타결(1993), WTO 출범(1995) ○ 농어촌특별세 도입(1994)
↓		
제5기 (1998~현재)	개방농정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환위기, IMF관리체제 돌입(1998) ○ 농업·농촌기본법 제정(1998) ○ 쌀 관세화 유예 연장(2005~2014년까지) ○ FTA 진전(칠레, ASEAN, 싱가포르, 미국, EU, 페루 등) ○ 농어촌삶의질특별법 제정(2005)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정(2008)

자료: 박석두 등(2011)

1.2. 최근의 주요 농업구조정책

- 1986년에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점점 타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던 1989년에 우리나라는 GATT/BOP(국제수지조항)를 졸업하게 되어 본격적인 개방 시대를 맞음.
- 국제화 시대의 농정대책으로 처음 수립된 정책이 1989년의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이며, 이를 보완하여 농업구조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 1991년 7월에 발표된 ‘농어촌구조개선대책’.
- 농어촌구조개선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관련 법령의 제정과 개정을 단행.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을 제정하여 투자재원 확보를 제도화하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축산법, 낙농진흥법, 양곡관리법, 산림법 등 관련 법규 개정. 특히 1992~2001년까지 10년 계획으로 총 42조원 규모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 투자계획을 수립. 1991년의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은 그 후 몇 단계를 거쳐 세부사업이 보완
- 1993년에 「신농정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에 완료하기로 하였던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의 사업 기간을 3년 앞당겨 1998년까지 완료하기로 결정. 또한 세부사업의 투자순위를 조정하면서 정책사업의 추진방식을 기존의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전환
- 1994년 6월에는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WTO 체제에 대응하는 농정의 기본 틀을 재정립하고, 42조원 농어촌구조개선 투융자계획을 조기집행하며, 특히 15조원 규모의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여 농어업 경쟁력 향상 시책에 추가적으로 사용. 이 때 농특세의 계획기간은 1995~2004년의 10년

-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농업·농촌발전계획」을 발표하고, 1999~2004년의 6개년 계획으로 45조원 투융자계획 수립. 이 계획에서 농업 경쟁력 제고의 방향은 기존의 영농규모 확대를 통한 생산비 절감에서 친환경 고품질 농업을 육성하는 방향 전환. 또한 농정조직, 협동조합, 농산물유통 등을 개혁하여 농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이듬해 「농업·농촌종합대책」을 발표하여 향후 10년간(2004~2013)의 중장기 농업·농촌투융자 계획을 제시. 10년간로 총 119조원을 투융자하기로 하고, 그중 2004~2008년의 전반기 5년에 50조 5,100억 원을 책정.

표 2-2. 1990년대 이후의 농업농촌종합대책의 주요내용

대 책 명	주 요 내 용
농어촌구조개선대책 (1991.7)	○ 계획기간: 1992~2001년 ○ 농어촌구조개선을 위한 42조원 투자계획 마련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설치
「신농정」 5개년계획 (1993.7)	○ 계획기간(수정): 1992~1998년 - 42조원 투융자계획을 3년 앞당기고 투자순위 조정 ○ 정책사업 추진방식을 상향식으로 전환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방안 (1994.6)	○ WTO 체제 대응 농정의 기본 틀 마련 ○ 42조원 농어촌구조개선 투융자계획 조기 집행 ○ 15조원 농어촌특별세 신설 및 농어업 경쟁력 시책 강화 - 농특세 계획기간: 1995~2004년(10년간)
농업·농촌발전계획 (1998.7)	○ 계획기간 1999~2004년의 45조원 투융자계획 수립 ○ 농정개혁 지속 추진(농정조직, 협동조합, 농산물유통 개혁)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설치(2002.2)
농업·농촌종합대책 (2004.2)	○ 계획기간: 2004~2013년(전반기 2004~2008년) ○ 119조원(전반기 50조 5,100억원) 투융자계획 수립 ○ 산업정책, 소득정책, 농촌정책의 종합적 연계 체계

자료: 박석두 등(2011)

1.3. 한·미 FTA 대책⁹

- 2007년 4월 2일 한-미 FTA 협상 타결과 동시에 정부는 농업부문을 포함한 국내보완대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일정을 발표(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 재정경제부 2007. 6. 28. 등).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한-미 FTA로 인한 농업부문 피해를 생산액 기준으로 이행 5년차에 4,465억원, 10년차에 8,958억원, 15년차에는 1조 361억원 감소로 추정함. 15년간 연평균 생산액 감소 규모는 6,698억원으로 15년간의 총 생산액 감소는 10조 465억원 수준임.

표 2-3. 한미FTA에 따른 농업부문 보완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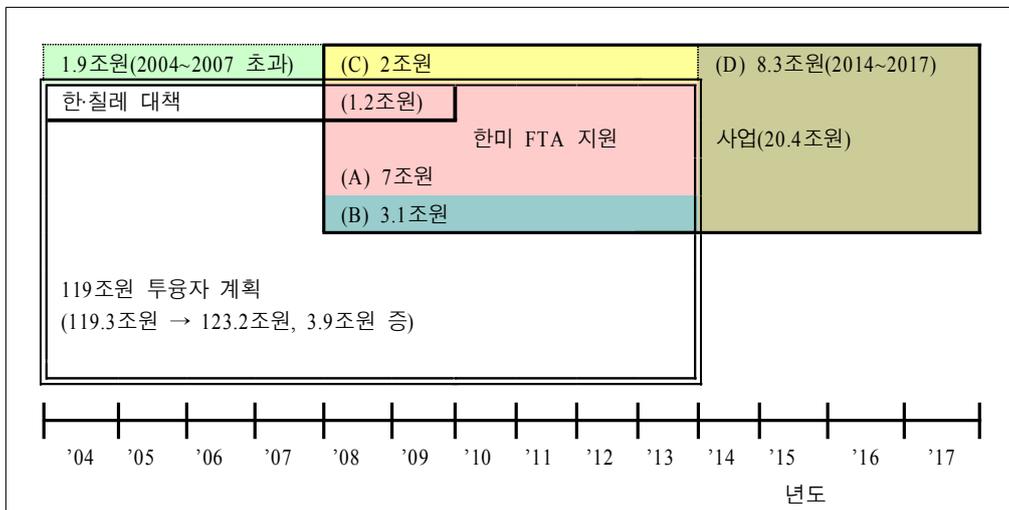
구 분	예산(억원)	주요 사업
합계	203,627	61개 사업
1. 품목별 경쟁력 강화	69,968	33개 사업
1.1. 축산분야	46,940	축사시설현대화(14,700), 조사료생산기반확충(8,028), 분뇨처리시설(6,418) 등 17개 사업
1.2. 원예분야	22,822	인삼계열화(6801), 원예작물브랜드 육성(4,202), 과수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3,856) 등 14개 사업
1.3. 식량분야	206	발작물 브랜드(170), 고랭지감자광역유통(36) 등 2개 사업
2. 농업의 체질개선	121,459	26개 사업
2.1. 맞춤형농정	88,748	농업경영체등록제(690), 경영이양직불(17,895), 교육훈련(2,980), 기계임대(2,980), 후계농육성(26,322),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17,200), 재해보험(20,719) 등 8개 사업
2.2. 신성장동력 확충	32,711	광역식품클러스터(1,000), 친환경물류센터(500), 농림기술개발(8,930), 바이오기술산업화(1,320), 해외시장개척(4,046), 한식세계화(480) 등 18개 사업
3. 단기적 피해보전	12,200	2개 사업: 피해보전직불(7,200), 폐업지원(5,000)

자료: 농림부(2007b)

9 '최세균. 2012. 한미FTA 국내보완대책.' 요약 발췌

- 한미 FTA 비준에 대비하여 농어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적 수입피해보전, 품목별 경쟁력, 한국농업의 근본적 체질개선, 농촌활성화 지원 등 4개 분야로 구분하여 대책을 추진하였음.
- 2007년 11월 6일 정부는 농업부문 국내보완대책으로 10년간(2008~2017년) 20조 4천억원의 투융자계획을 발표하였음. 국내보완대책에는 중점사업으로 61개의 사업이 선정됨. 61개 사업 중 기존사업은 36개, 신규사업은 25개로 구성됨.
- 한-미 FTA 대책 예산 20조 4천억원 가운데 경쟁력강화에 34%, 농업체질개선에 60%를 지원하여 전체 예산의 94%가 경쟁력 강화와 구조개선에 사용

그림 2-1. 119조원 투융자계획과 한미 FTA 투융자계획



주 * (A) 7조원: 2008~2013 간 119조원 계획에 기 포함된 한미FTA 대책사업 규모
 * (B) 3.1조원: 2008~2013 간 기존 119조원 사업 중 투융자 실적이 부진한 사업을 감액하고 한미FTA 대책사업을 증액한 규모
 * (C) 2조원: '2008~2013 간 119조원 계획 증액
 * (D) 8.3조원: 119조원 계획 종료 이후 한미FTA 투융자 지원 규모
 * (A)+(B)+(C)+(D): 20.4조원(한미FTA 투융자사업 규모)

자료: 농림수산식품부(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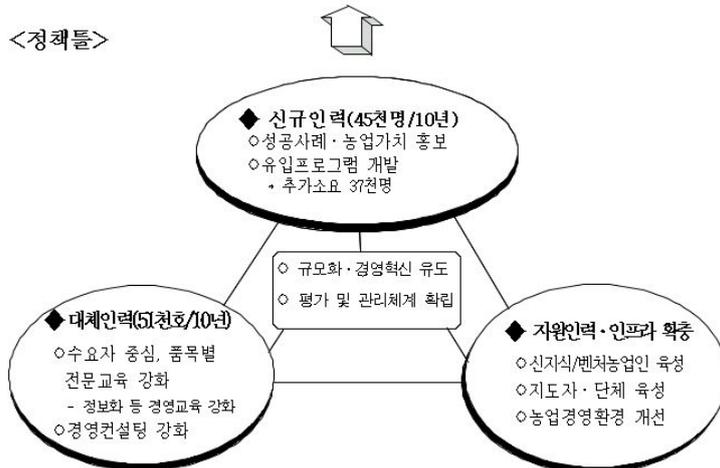
2. 주요 농업인력 육성 정책

2.1.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2004~2013)

- 한·칠레 FTA이후 그 대응책으로 추진된 농업·농촌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제시된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에서 가시적으로 내건 비전은 향후 10년간 정예농업인력 20만호를 육성하여, 전체 농업생산의 50% 이상을 담당하게 한다는 것이었음(농림부 2004).
 - 이 대책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방안은 ① 신규인력 양성과 신규 정예인력 유입대책(신규인력 양성·유입), ② 성공적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정착지원), ③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교육지원), ④ 농가경영개선, 위기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 제공 확대(경영개선지원), ⑤ 전문인력육성 평가 및 사후관리 체계 마련(사후관리 강화), ⑥ 농업부문의 관련 인력육성 및 여건 정비(관련인력 육성) 등이었으며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총 10년간 2조 4,278억을 투자하는 계획이었음.
 -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에서는 기존 농업인력육성정책들과의 차이점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고 있다.
 - 정책방향: 전체 농업인 대상 → 차별화된 정예인력 지원
 - 육성대상: 농업내부 주력 → 내·외부인력 유입 고려
 - 교육: 공급자 위주(교육) → 수요자·평생교육시스템
 - 창업지원: 일회성, 평균적 지원 → 지속지원 체계 마련
 - 컨설팅: 정부 주도 컨설팅 위주 → 정부·민간 역할 분담
 - 추진체계: 행정, 중앙정부 중심 → 농업인단체 역할 및 지자체 참여
 - 평가·사후관리: 단순 사업관리 수준 → 단계별 선택과 집중방식의 평가·사후관리체계 구축

그림 2-2.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 비전과 정책들

<비전>	■ 농가의 1/4이상(20만호)이 정예농업인력으로 성장 ■ 정예농업인력이 생산의 50% 이상 담당
	◆ 쌀 : 전업농 7만호 육성 (생산의 50% 담당) - 평균 : (경작규모) 6ha, (소득) 53백만원 ◆ 원예 : 선도농가 11만호 육성 (생산의 50% 담당) - 최저 : (경작규모) 과수 1.7ha, 시설 1.5 (소득) 사과 5t, 시설 48 ◆ 축산 : 규모화된 전업농 2만호 육성(생산의 85% 담당) - 평균 : (사육두수) 한우 132두, 돼지 2,025 (소득) 한우 15t, 돼지 113 농림업 취업인구 3~4%, 원활한 세대교체로 인력구조 안정



자료: 농림부(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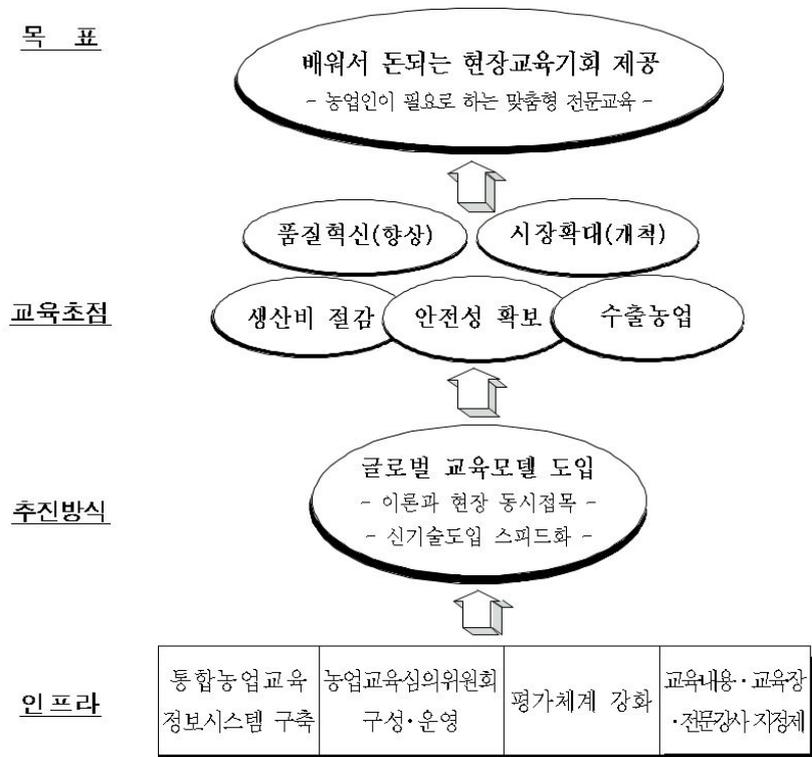
□ 농업교육체계 개편방안(2006)

- 정예농업인력종합대책에 따른 농업교육체계 개편방안은 ‘배워서 돈되는 현장교육기회 제공’이라는 목표 하에 ① 현장위주의 맞춤형 전문교육, ② 잠재후계인력육성 체계 운영, ③ 농업교육 지원 인프라 운영 등을 골자로 함 (농림부, 2006).

- 현장위주 맞춤형 전문교육: 품목별 생산자단체 단위의 품목전문교육, 지역협력체 단위의 지역 특성화 교육, 농업인단체 중심의 경영기법 및 성공사례 등을 중심으로 한 특수전문교육, 농축산물 브랜드 육성 교육, 농

업인 해외연수 확대 강화, 경영·마케팅·브랜드 등 종합컨설팅 강화(지원 대상 농가기준 제한, 컨설팅업체 농림부 인증제), 농업인 전문교육의 성공기반 마련(농업인 교육·지도 주체간 경쟁체계 구축, 필수 교육내용 및 교육장 인증제 등 교육과정 운영 및 편성지침 제시, 관계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사업 등을 추진

그림 2-3. 농업교육체계 개편방안 목표와 전략



자료: 농림부(2006)

- 젊고 유능한 잠재후계인력 육성 체계 운영: 창업농 선발제도 개편, 비농업계 출신을 위한 「직업훈련과정」운영, 농과계대학 영농정착 교육과정 도입, 농고 현장체험교육 강화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
- 농업교육 지원 인프라 구축·운영: 농업교육 총괄조정 시스템(농림부 훈령으로 농업교육심의위원회 구성·운영(위원장 차관), 농업·농촌인력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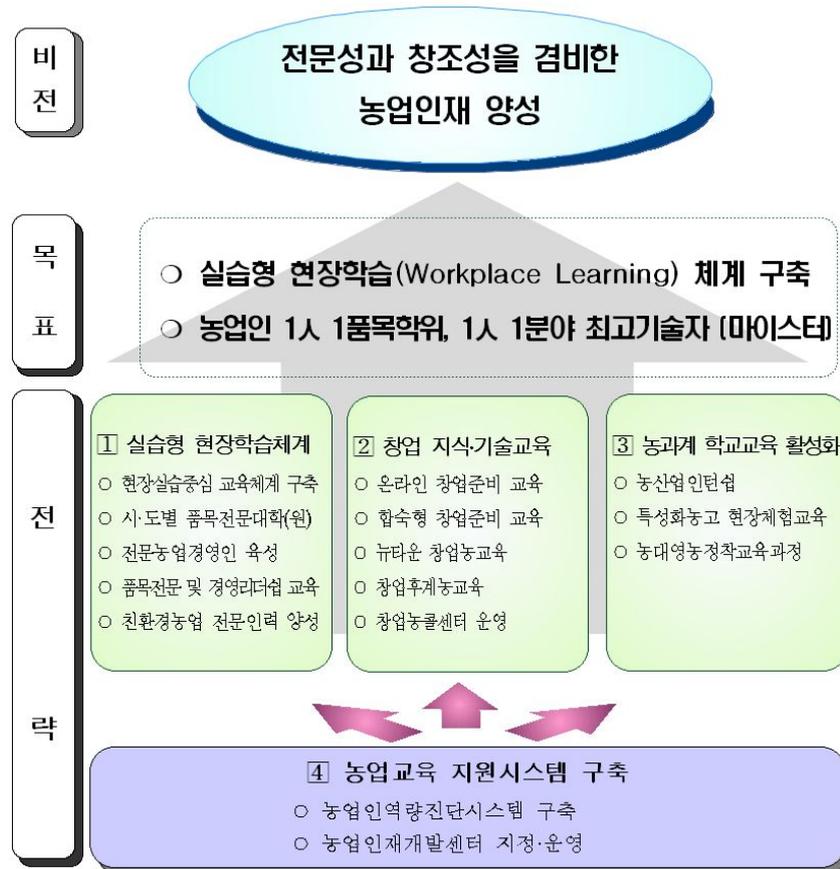
육재단 설립 검토), 교육평가 강화(교육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 우수사례 발굴·확산), 통합농업교육 정보시스템 운영, 교육기관·단체의 교육전담인력의 역량강화, 성공사례발굴·확산시스템 운영, 그리고 농업인자격제, 농업교육 수급예측모형 등 중장기 과제 추진

□ 신 농업교육체제 구축 계획(2008)

- 농림부(참여정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MB정부)로 전환하면서 ‘전문성과 창조성을 겸비한 농업인재 양성’이라는 비전하에 ‘농업인 1인 1품목학위, 1인 1분야 최고기술자’를 목표로 하며, 기존의 농업교육체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① 실습형 현장학습체계 운영, ② 창업 지식·기술교육 강화, ③ 농과계 학교교육 활성화, ④ 농업교육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한 새로운 농업교육체제를 제시(농림수산식품부 2008).

- 실습형 현장학습체계: 이론중심교육에서 실습중심교육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현장실습교육 지원을 위한 품목별 실습장 네트워크 구축(원예·축산 등 핵심품목 전국 대표실습장, 선도농가의 고급기술과 노하우를 배울 수 있도록 선도농장을 ‘농림수산식품부 지정 품목실습장’으로 지정·운영), 시·도별 품목전문대학·대학원(마이스터 과정) 과정 운영, 농업법인 CEO·수출전문가 및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친환경농업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 추진
- 창업 지식·기술 교육: 농업분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을 포함한 수준별 창업준비교육, 창업단계교육 강화
- 농과계 학교교육 활성화: 선도농가 멘토링, 농식품 창업동아리 활동, 농산업체 인턴쉽 등을 통한 특성화농고 현장체험교육, 농산업인턴쉽 등의 사업 추진
- 농업교육지원시스템구축: 농업인 역량진단시스템 구축, 농업 인재개발센터 지정·운영 등의 신규사업을 추진

그림 2-4. 신 농업교육체제 구축 계획의 비전·목표·전략



자료: 농림수산식품부(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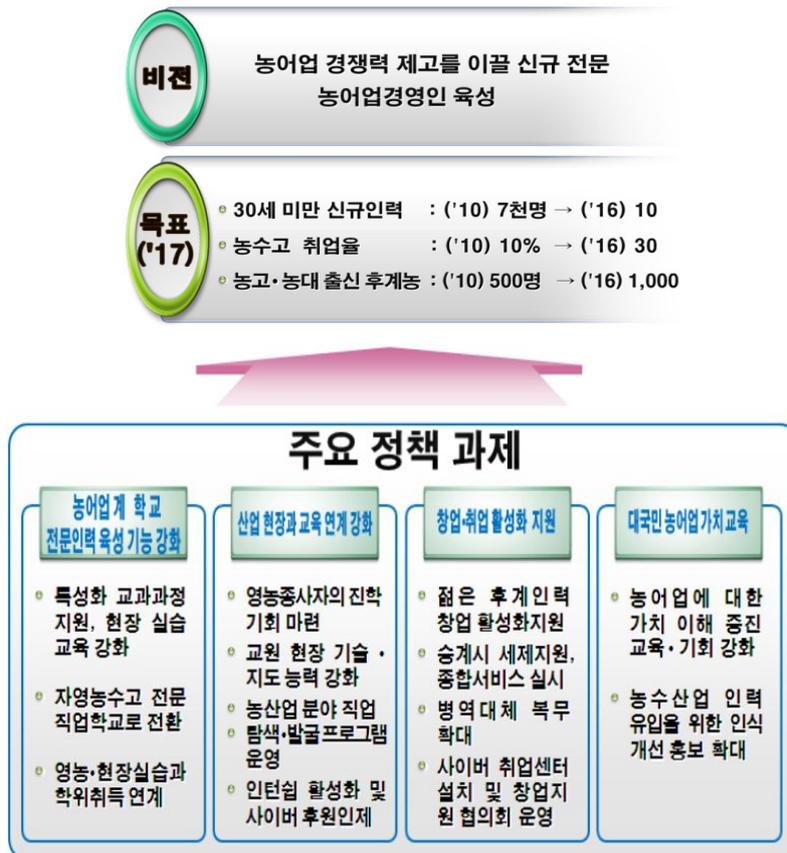
2.2. 신규 전문농어업경영인 육성방안(2011)¹⁰

- 한·미 FTA가 발효(2012년 3월)시점부터 2013년에 종료되는 기존의 정예농

¹⁰ 이 대책은 국무총리실 보고(2011년 11월) 이후, ‘전문농어업인 육성방안’으로 수정되어 2011년 12월에 발표되었음.

업인력육성 종합대책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이후 5년간(2012~2016)의 농어업분야 인력대책으로 제시된 것이 ‘신규 전문농어업경영인 육성방안(농림수산식품부, 2011. 11.)’임. 이 대책은 주로 신규 유입인력의 육성에 초점을 둔 정책으로 ‘농어업경쟁력 제고를 이끌 신규 전문농어업인 육성’을 비전으로 2017년까지 30세미만 신규인력 유입규모를 1만명, 농수고생 취업률을 30% 수준, 농고·농대 출신 후계농을 1,000명 수준으로 높인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음.

그림 2-5. 신규 전문농어업경영인 육성방안



자료: 농림수산식품부(2011b)

- 농어업계 학교의 전문인력 육성 기능 강화: 자영농·수고를 농수산업 분야 직업전문학교로 점진적 전환을 추진, 일반농수고의 특성화 교과과정 지원을 강화하고, 농산업분야 취업·창업 지원을 위한 영농정착과정 운영을 25개 대학으로 확대
- 산업 현장과 교육 연계 강화: 고교 졸업 영농 종사자의 진학기회 마련, 창업·취업을 위한 직업 탐색 프로그램 및 멘토링제 운영, 농수고 및 농대 졸업생을 대상으로 농어업법인 인턴쉽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농어업 법인체 취업을 유도
- 창업·취업 활성화 지원: 영농승계를 위한 컨설팅·자문 등 종합지원 체계 마련 등 원활한 영농승계를 위한 세제 혜택 확대 및 종합서비스 확충, 농림수산식품분야 일자리 정보 네트워크 구축, 농수고·농수산대학생의 취업·창업 지원을 위한 협의회를 운영
- 대국민 농어업가치 교육 강화: 초·중·고 교과서 중 농어업·농어촌에 대해 부정적으로 기재된 부분을 정정하여 농어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 초·중등학생의 현장수업(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등)을 농어업·농어촌 체험과 연계, 도시에서 농어업·농어촌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

□ 농업교육 3개년 기본계획(2011~2013)

- 관련법(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최초의 법정 계획으로서의 농업교육 기본계획이 2010년에 발표됨. 이 계획에서는 ‘우수한 인적자원의 축적과 능력 발전을 위해 농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를 비전으로 강한 농업인재·핵심능력 배양 등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음.
 - 특히 이 계획에서는 기존 농업교육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농업교육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운영체계 확립’, ‘능력있는 기관에서 전문 강사가 교육하여 교육성과 거양’ 등의 2대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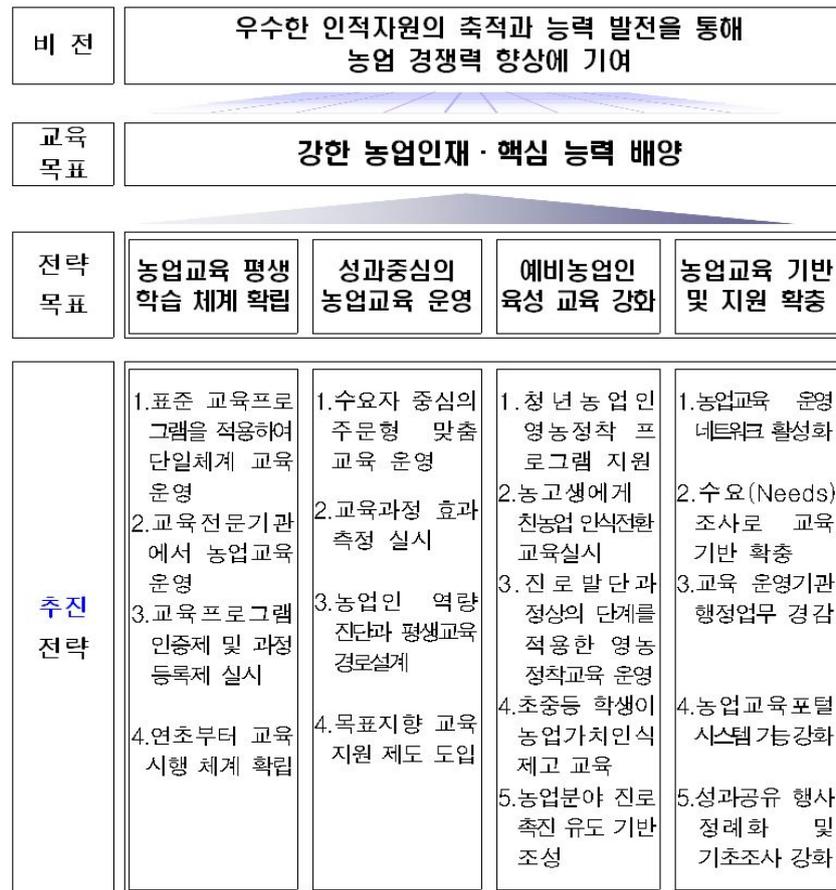
표 2-4. 농업교육 3개년 기본계획의 농업교육의 개편방향

	현행	개편
추진체계	• 실·국, 교육기관 별로 독자 추진	• 단일통합운영체계(Cluster)
교육내용	• 교육기관 자체 기획	• 1품목 1표준프로그램
교육운영	• 공급자 중심 교육	• 수요자 중심 교육
교육기관	• 공모선정, 지정기관	• 인증기관
교육시설	• 임차 및 기관자체 시설	• 인증시설
강사	• 교육기관 자체 선정	• 등록(인증) 강사
성과제고	• 교육운영 평가	• 교육성과 측정, 역량진단 실시
정보활용	•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AgriEDU)	• 농업교육포털(AgroHRD)

자료: 농림수산식품부(2011)

- 이 계획에서의 주요 추진사업은 ① 농업교육 평생 운영 체계 확립, ② 성과 중심의 농업교육 운영, ③ 예비 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교육, ④ 농업교육 기반 및 지원 체계 확충 등이었음.
- 농업교육 평생 운영 체계 확립: “1품목 1 표준프로그램“ 을 기본으로 단일체계 교육운영, 기관인증을 통한 교육전문기관에서 농업교육 운영, 교육프로그램 인증제 및 과정 등록제 실시
- 성과 중심의 농업교육 운영: 자부담비 증가와 더불어 수요자 중심의 주문형 맞춤형 교육 운영, 역량진단 강화 및 교육과정 효과 측정 실시
- 예비 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교육: 경영승계 강화 프로그램을 포함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프로그램 지원, 농고생에게 친농업 인식전환 교육강화, 진로발단과정상의 단계를 적용한 영농정착교육 운영, 초중등 학생이 농업가치인식제고 교육, 농직업군 발굴 등 농업분야 진로촉진 유도 기반 조성 사업 실시
- 농업교육 기반 및 지원 체계 확충: 농업교육 운영 네트워크 활성화, 수요(Needs)조사로 교육 기반 확충, 교육 운영기관 행정업무 경감, 농업교육포털시스템 기능 강화, 성과공유 행사 정례화 및 기초조사 강화 사업을 추진

그림 2-6. 농업교육 3개년 기본계획 (2011~2013)의 비전과 전략



자료: 농림수산식품부(2010)

□ 농산업 경쟁력제고 및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교육체계 개편 계획(2011)

- 농림수산식품부는 장관(서규용) 지시에 따라 기존의 농업교육기본계획을 보완하면서 한·미 FTA 추진상황을 반영하는 농업교육체계 개편계획을 제시하였음(농림수산식품부, 2011. 9.). 특히 이 계획에서는 ‘농산업·농어촌을 이끌 10만 정예인력 육성’이라는 비전하에 범농수산식품분야 총괄 교육추

진체계 정립 미흡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였음.

- 이 계획에서의 2013년까지 육성한다는 10만 정예인력은 선도농어업인, 지역개발 핵심 선도자, 지역산업 경영자, 강소농 등으로 이중에는 마을리더 7만명 [일반리더 3.5, 사업리더 3.5], 기술리더 3만명을 가리키는 것임.

그림 2-7. 농산업 경쟁력제고·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교육체계 개편 계획

비전	농산업·농어촌을 이끌 10만 정예인력 육성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 식품산업 분야 경쟁력 제고 ◇ 농어촌 활력창출 지원 인력 확보 ◇ 농어업, 농어촌에 대한 대국민 가치 제고 		
농식품·농어촌 교육체계 개편 전략과 과제			
구분	대상	전략	과제
교육추진 체계	농식품부 교육추진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간 역할 정립 •교육체계 정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교육 심의회 •교육운영 표준지침 및 평가 •전문기관 지정, 인증제 확대
분야별 교육 내실화	농어업인 식품중사자 농어촌리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요자 중심 자율 교육체계 •수준별 현장 중심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품목/자조금단체 역할 강화 •학습조직화(단체, 지자체) •수요자 역량 진단, 주문교육
교육 인프라 확충	농어업식품산업 교육기관 고등학교 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교육시설 확충 •교육운영 인프라 •학교 기자재, 프로그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실습장 활용도 제고 •농업교육포털 교육과정 안내, 사이버교육 확충 •현장교수 양성, 조사분석 활용 •실습장 지원 특성화프로그램 강화 •농수산식품 MBA검토 •신규학제 도입(학과신설)
대국민 교육	청소년 도시민 재능기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업·농어촌 이해 제고 •농어업·농어촌 이해교육 •잡재적 귀촌·귀농인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과정점검, 체험프로그램 다양화 •학교농장 기술지원 •도시농업 교육 •체험기회 제공

자료: 농림수산식품부(2011a)

- 이 계획에 따른 주요 농업교육 주체별 역할 방안은 표 2-4와 같음. 이 밖에 이 계획에서는 농수산계열 대학생의 농수산업 분야 진출 확대를 위해 식품관련 분야, 종자산업, 축산분야 등 취업과 연계가 가능한 분야에 계

약학과 도입, 농수산식품분야 전문가 육성을 위한 농수산식품MBA(경영전문대학원) 설립 등을 검토하고 있음.

표 2-5. 농산업 경쟁력제고·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교육체계 개편 계획에서의 교육기관별 역할 및 기능 정립 방안

구 분	현 황	개편(안)	
농식품부	경영인력과	-농업인, 농업학교 교육 총괄 *농업인단체, 민간기관, 대학 등 위탁교육 운영(마이스터 포함) -인력육성 정책 총괄	-인력육성 정책 총괄 -교육기본계획 수립, 기관별 계획 총괄·조정 -교육 운영 모니터링 및 평가 총괄 -농업마이스터대학 등 광역/전국단위 교육과정 운영(위탁방식)
	품목·사업과	-품목특화교육(자조금, 기금) *유통공사, 농어촌공사 위탁	-사업연계 특화교육
	농수산식품연수원	-농업관련 공무원 교육 -소비자, 여성농업인 교육	-농어업관련 공무원 교육 특화 -농어업인 단체 임직원 교육(정책교육)
농촌진흥청	기술연수과	-시험연구, 지도공무원 교육 -시군단위 수요가 부족한 농업인교육과정 운영	-농업 기술교육 전문강사 양성(강소농) -최신 기술중심 지도훈련 -시험연구, 지도사업 종사자 교육
	지도개발과	-도기술원, 시군기술센터 교육 관리 (농업인대학, 새해영농교육 등)	-기술원, 기술센터 기술교육 총괄운영(농업인대학, 새해영농교육 등) -기술원, 기술센터 교육 평가
지자체	-초보기술, 경영, 취미교양 등 종합교육	-정책전달 교육 -지역특화 교육 (분야별, 품목별)	
농업인재개발원	-평가, 사업관리 등 지원	-정책 개발, 평가, 집행 지원(연구조사포함) -교육기관 네트워크 운영(평생학습·교육이력관리 등 포함) -신규 수요 및 모델 개발	
공공기관	농어촌공사	-농지관리위원, 농식품부위탁 도농교류, 농촌개발 교육	-지역개발 교육 등 기관특화영역 운영
	유통공사	-유통, 농식품부 위탁 식품 교육	-유통, 식품교육 등 기관특화교육 운영(기존 교육 중복 조정)
	농협중앙회	-조합원교육	-품목별 조직화, 경제사업활성화 교육 등 특화(조합원 중심)
학교	농수고, 농수산대학	-일반 실습교육 -멘토링 등 농고특성화교육	-현장위주 최신정보 학습, 훈련 -리더십, 창업 등 자긍심 고취
	농어업계 대학	-일반 대학교육 -농촌체험등 농대활성화교육	-직업체험, 창업과정 운영 -농수산업 R&D 인력 유도
민간·단체	-단체별 개별 과정운영	-정책연계, 단체별 특성 반영 전문화 교육	

자료: 농림수산식품부(2011a)

3. 시사점

- 농업인력 및 농업교육에 대한 체계적 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함.
 - 정예농업인력육성종합대책을 시발점으로 농업인력 및 교육에 대한 장기적 계획하에 체계적인 투자가 추진됨.
 - 민간부문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내부경쟁이 유도됨.
 - 농업인력육성 관련 전담지원기관(농업인재개발원 2009 → 농림수산물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인재양성본부 2012)을 통한 농업인력육성 기획, 연구조사, 평가, 인증, 개발의 전문화 추진
- 농업교육에 대한 정보적 접근성 제고됨.
 - 농업교육포털(agriedu.net) 개설이 개설되면서, 국민 누구나 본인이 원하면 어디서, 언제, 어떤 교육이 누구를 대상으로 개설되는지에 대한 체계적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농업교육 참여기관의 확대와 농업교육내용의 다양화됨.
 - 기존의 공공기관이나 소수 농민단체 중심의 교육에서 다양한 교육 콘텐츠와 역량을 가진 민간기관의 참여
 - 기존 농업기술교육 중심에서 농업경영, 마케팅, 회계 그리고 농촌·리더십 관련 교육과 소비자 교육 등 다양한 교육내용이 농업교육에서 다루어짐.
- 농업교육 내용의 질이 개선됨.
 - 농업 교육내용 및 운영(기획, 관리)의 표준화와 더불어 정기적인 교육평가 추진을 통해 농업교육기관의 교육역량이 제고됨
 - 농업교육 강사 Pool제, 품목전문교수 육성 등 강사요원을 개발 관리하고, 프로그램 전담인력에 대한 연수 실시

- 그러나 농업인력육성계획의 구체적인 성과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있더라도 그 설정 근거가 타당하지 않음.
 - 정예농업인력 20만호 육성(← 쌀전업농 7만호, 원예 선도농가 11만호, 축산전업농 2만호)의 설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20만호 육성 계획과 구체적인 사업들과의 연관성이 다소 떨어짐

- 거시적인 농업인력육성계획에 비해 구체적인 (교육)사업들의 도입과정에서 관련자들의 공감대 형성이 다소 부족함.
 - 농업 마이스터 대학: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인대학과의 중첩성 그리고 교육생 모집의 어려움이 발생
 - WPL: 농가 WPL의 경우 상당수가 교육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개소

- 농업인력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대한 (성과)평가와 더불어 거시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사업의 연관성을 높이는 작업(신사업발굴 및 기존 사업의 개편) 필요함.

제 3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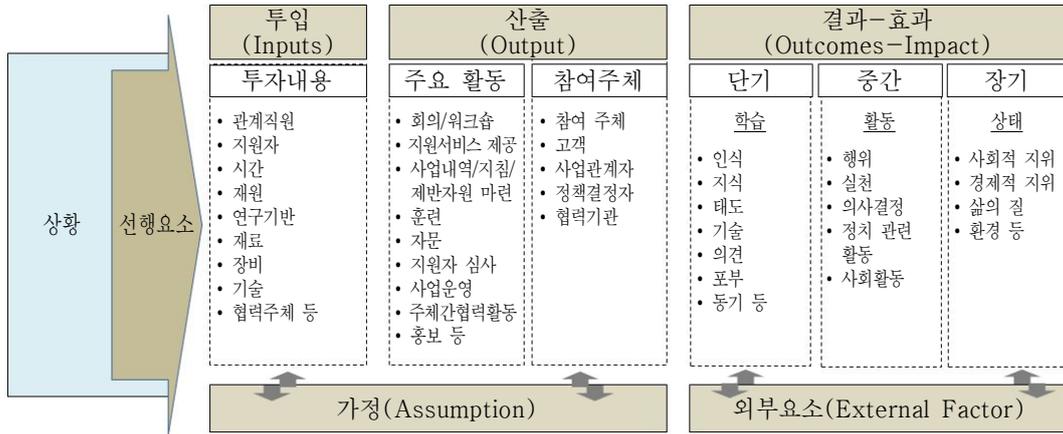
농업인력 육성 정책 평가

1. 평가 모형

□ 위스콘신 대학교(UW)의 LOGIC 모형

- 위스콘신 대학의 농촌지도사업 평가모형으로 1971년까지 활용된 USAID의 논리모형(Log Frame), 위계적 프로그램 효과 모형(the hierarchy of program effectiveness), 국가단위 장기 농촌지도사업 평가모형 등을 토대로 개발됨 (Taylor-Powell 등 2008).
- 모형의 구성: 평가 대상을 크게 투입(inputs), 산출(outputs), 결과 및 효과(outcomes-impact) 등의 세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을 함.
 - 투입: 재정적, 인적, 물적 자원
 - 산출: 투입된 자원에 의한 각종 활동내용과 참여주체(participation) 현황
 - 결과 및 효과(성과): 단기, 중기, 장기 성과를 분석. 단기 성과로는 학습의 결과를, 중간 성과로는 학습이 농업 현장에 적용된 결과를, 장기 성과로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변화나 삶의 질 변화를 분석하고 있음.

그림 3-1. 위스콘신 대학의 LOGIC 모형



자료: Taylor-Powell, et al(1996)

□ 이 연구의 평가 모형

○ 농업인력육성을 위한 여러 정책 수단 중에서도 농업교육에 초점을 두어¹¹ 활용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위스콘신 대학교(UW)의 LOGIC 모형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음. 농업교육에 대한 공공부문의 사업활동을 투입, 산출, 성과 세가지 측면에서 개인, 국가적 관점에서 나누어 접근하였음.

- 투입: 농업인 개인들이 투입한 농업교육비용, 농업교육에 투입된 공공부문의 예산
- 산출: 농업인 교육참여율과 참여일수, 공공예산투입에 의한 농업교육기관수, 이들 기관에 의한 제공된 교육과정수, 그리고 이들 프로그램의 교육인원수

¹¹ 발주처(농림수산식품부)의 요구에 의해 농업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가 이루어졌음. 농업인력양성 전반에 대한 평가는 마상진(2011)의 보고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사업에 대한 평가는 마상진(2010) 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람.

- 성과: 개인적 차원의 성과로는 농업교육 이수자의 자신감 획득, 지식·기술 습득, 인적 네트워크 확대, 농가의 경영비 감소, 농업소득 증가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농직업에 대한 만족도 증가 그리고 나아가 농가의 후계전승 등을 보았음. 국가적 차원에서는 농업교육 프로그램 질 개선, 접근성 개선 등에 대한 평가 정도 그리고 농업교육투자 확대에 대한 찬성 정도를 보았고, 노동 생산성의 변화를 분석하였음.

표 3-1. 이 연구에서의 농업교육 평가모형

	투입	산출	성과	
			단기	중·장기
개인	-교육비용	-교육참여 -교육참여시간	-자신감 -지식·기술습득 -네트워크 확대 -경영비 감소 -농업소득 증가	-매출액 변화
국가	-예산	-교육기관수 -교육과정수 -교육인원수	-프로그램 질 개선 -접근성 개선	- 노동생산성

□ 분석 자료

- 각 투입, 산출,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활용된 분석자료로는 농림수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내부자료, 농업조사, 농가경제조사, 교육과학기술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그리고 이 연구에서 실시한 농업인 교육실태 설문조사 결과임.

표 3-2. 분석요소별 활용된 분석 자료

분석요소		분석 자료(조사주체, 조사시기)	
투입	교육비용	•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교육과학기술부 2007~2011) • 농업인 설문조사(2012)	
	예산	• 농림수산식품부 예산관련 자료	
산출	교육참여율	•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교육과학기술부 2007, 2009, 2011)	
	교육참여시간	• 농업조사 • 농업인 설문조사(2012)	
	교육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및 관련 교육기관 내부자료	
	교육과정		
	교육인원		
성과	단기	자신감 획득	2012)
		지식·기술습득	
		인적네트워크 확대	
		경영비 감소	
		생산성 증가	
		농업소득 증가	
		프로그램 품질 개선	
	프로그램 접근성 개선		
장기	매출액		
	노동생산성	• 농가경제조사(통계청 2006~2012)	

2. 투입 분석

2.1. 공공부문 투입예산 (2006~2011)

- 앞선 농업인력육성정책에 대한 분석(제2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농업교육 분야에, 국가적 차원의 종합 계획하에 처음으로 체계적인 투자가 이뤄진 것은 2006년 이후임.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인력과에 주도 농업교육 예산에 한정하여 2006년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 2003년 29억, 2004년 28억,

2005년 36억 수준이었는데, 2006년부터 그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여 2006년 122억, 2009~2010년에 360억을 넘어선다. 2005년 대비 2010년 예산이 10배로 늘어난 것임.

○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인력과 이외의 다양한 실국 주도 및 각종 지자체 지원

표 3-3. 농업교육·훈련 예산 변화 추이 (2006~2011)

단위: 억원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농업 교육·훈련(경영인력과)	122	130	214.5	364.5	350.9	350.2	
경북 농업사관학교 ¹⁾	-	-	-	15	15	-	
전북 실용농업교육센터 ¹⁾	-	-	-	-	15	-	
제주 농업인 교육훈련 ²⁾	-	0.7	2	2.8	3.6	3.5	
자조금 교육 ³⁾	경중분야	6.9	9.9	9.9	10.8	10.8	10.3
	한우	17.3	20.4	45.5	72.3	60.9	56.6
	한돈	9.7	13.8	26.1	46.2	50.1	34.7
	낙농	4.6	5.9	10.1	23.6	30.8	36.4
도농교류:인적역량강화	4.3	8.3	10	12.3	13.8	13.8	
한국농수산대학 ⁴⁾	142	151	153	138	200	193	
쌀전업농교육	-	1.7	1.7	1.7	2.7	2.8	
식품산업/식문화 교육	-	-	-	45.0	67.2	56.8	
정보화교육	25	26.3	24.9	28.4	9.8	-	
농림수산식품연수원 ⁵⁾	4.7	11.3	13.9	17.4	17.3	20.3	
유통교육 ⁶⁾	17	19	20	19	20	18.5	
농촌진흥사업 ⁷⁾	50	46	53	65	81	79	
계	403.5	444.3	584.6	862.0	948.9	875.9	

1)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예산

2) 광특회계 제주계정

3) 교육 및 정보제공 예산

4) 정보화 예산 제외

5) 농업교육운영예산

6)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에 의한 농식품유통교육원 교육·훈련 예산

7) 농촌진흥사업 일반회계(농업전문인력양성)

자료: 농림부(농림수산식품부). 각년도. 예산내역/기금운용계획/예산·결산 검토보고서/사업시행지침서.

및 자조금 기반 교육 등의 예산 변화 추이를 보면 2006년에 403억원에서 시작하여 2010년에 948억원으로 최고조에 이른 후 2011년에 875억원으로 다소 감소한 상황임.

2.2. (개인)교육비

- 농업인의 직업교육(비형식학습) 관련하여 개인이 지불한 교육비 변화(교육과학기술부의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2007~2011)를 보면, 2007년 교육비 지불자가 전체 농업인중에 2.4%였고 이들의 평균 지불금액은 1.93만원였는데, 2008년 36.7%에 5.34만원, 2009년 43.0%에 9.71만원으로 점차 증가하지만, 2010년에 급격히 떨어져 2.5%에 0.33만원 수준에 머물렀고, 이후 2011년 다시 반등하여 19.7%에 5.15만원이었음¹².

표 3-4. 농업인의 직업교육(비형식학습) 관련 교육비 지불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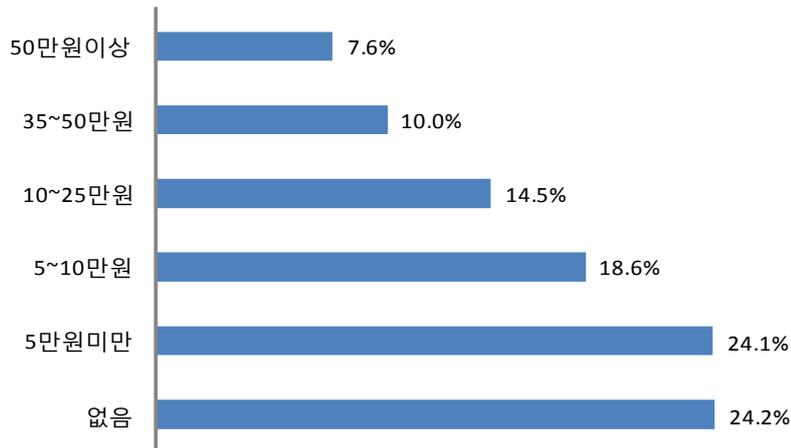
	직업관련			평균 (만원)
	없음	10만원미만	10만원이상	
2007년	97.6%	-	2.4%	1.93
2008년	63.3%	20.8%	15.9%	5.34
2009년	57.0%	26.3%	16.7%	9.71
2010년	97.5%	1.4%	1.1%	0.33
2011년	80.3%	2.3%	17.4%	5.15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각년도.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 이 연구에서 별도로 실시한 농업인의 교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연간 교육비 지불이 있는 농업인 비율은 75.8%로, 10만원 미만이 42.7%, 10만원 이상이 31.1%였음.

¹² 농업인중 평생학습관련 참여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어 대표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인 경향성은 참조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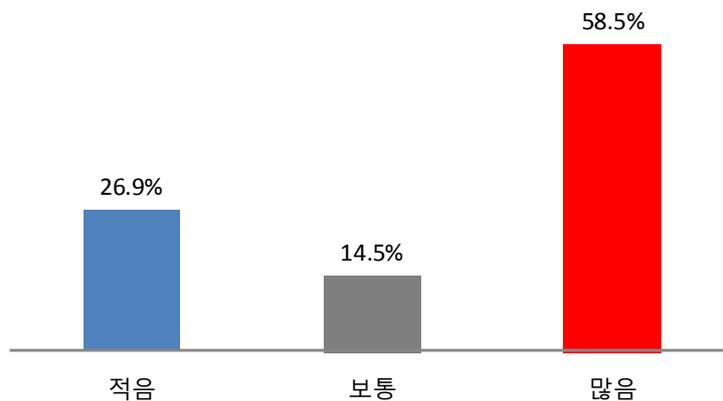
그림 3-2. 농업인이 영농교육을 위해 지불하는 연간 교육비



자료: 이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2012)

- 한편 농업인들의 교육비 지불의향(10단계 조사)을 조사한 결과 ‘배우기 위해 내 돈을 기꺼이 지불할 의사가 많다(6단계)’는 응답자가 58.5%가 지불의사가 적은(4단계 이하) 집단(26.9%)보다 월등히 많았음.

그림 3-3. 농업인들의 교육비 지불의향



자료: 이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2012)

3. 산출 분석

3.1. 교육기관 / 교육과정 / 교육 인원

- 2011년 현재 농업교육에 참여한 기관은 323개이고 이들 기관에서 570종의 교육과정이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연인원으로 1,034,730명이 교육을 받았음. 이중 농고, 농대생 그리고 일부 소비자 대상 교육인원을 제외하더라도 2011년 농업 종사자수가 1,521천명임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교육이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3-5. 농업교육사업 추진 기관별 예산, 교육과정, 교육인원 현황 (2011)

단위: 백만원, 개, 명

교육주관		수행기관	기관수	과정수	교육 인원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인력과	농고	10	1	4,885
		농대	10	1	1,578
		민간위탁기관	55	67	21,360
	농어촌사회과	지역농협	25	35	1,236
	농어촌산업팀	한국농어촌공사	1	13	3,185
	식량산업과	한국농어촌공사	2	3	1,736
	친환경농업과	민간기관(위탁)	8	9	1,164
	유통정책과	농식품유통교육원	18	44	3,930
	축산경영과	농협/품목단체	22	11	12,690
	농수산식품연수원	농수산식품연수원	1	29	6,490
농촌진흥기관	농업기술원	9	318	28,189	
	농업기술센터	160		941,918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1		5,379	
한국농수산대학	한국농수산대학	1	8	990	
진체			323	570	1,034,730

자료: 농식품부. 내부자료; 농촌진흥청. 2011. 농촌지도사업보고서; 각기관 내부자료.

*농촌진흥기관의 과정수는 농업인대학(원) 품목과정수(282종), 농촌진흥사업차원의 일반 교육 프로그램수(36종)를 더한 값임.

- 교육인원의 변화는 취득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농림수산물부 경영인력과 주도의 농업교육 인원을 보면, 2007년 14,725명에서, 2009년 50,252명까지 증가하였다가, 2010년, 2011년 계속 감소하여 2011년에는 27,823명에 이름. 한편 농촌진흥기관 주도의 농업교육인원 변화를 보면, 2007년 1,379천명에서 이후 지속적으로 년 교육인원이 감소하여 2011년에는 941천명 수준에 이름.

표 3-6. 농식품부 경영인력과 / 농촌진흥기관 주도 농업교육 인원변화(2007 ~2011)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농림수산물부 경영인력과	귀농·귀촌	776	796	3,227	1,134	951	6,884
	후계인력	-	-	7,142	7,026	6,463	20,631
	현장실습/품목	-	-	2,756	3,505	3,514	9,775
	경영교육	13,949	10,558	37,127	23,605	16,895	102,134
	전 체	14,725	11,354	50,252	35,270	27,823	139,424
농촌진흥기관	농촌진흥청	2,608	2,486	1,243	1,546	2,724	7,883
	도 농업기술원	29,433	29,139	23,881	28,227	28,189	110,680
	시군 농업기술센터	1,347,008	1,373,903	1,182,380	1,085,719	941,918	4,989,010
	전 체	1,379,049	1,405,577	1,207,504	1,115,492	972,831	5,107,622

자료: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내부자료. / 농식품부(2012)

- 이와 같은 연간 교육인원의 변화는 무조건적인 교육의 양적인 확장보다는 교육내용의 내실화, 소수 정예인력에 대한 교육 집중 강화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

3.2. 교육참여율 / 교육참여시간

- 농업인들의 지난 5년간 평생학습 참여율은 30%내외이고, 직업과 관련한 교육의 경우 25%내외 였음. 교육참여시간(참여자 평균)은 전체 평생학습은 73.1시간, 직업관련 평생학습 시간은 41.6시간.

표 3-7. 농업인의 교육참여 실태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교육참여율(%)		교육참여시간(시간/년)	
	전체 학습	직업 관련	전체 학습	직업 관련
2007	35.9	27.5	52.6	23.8
2008	34.1	24.3	104.9	59.9
2009	20.0	13.5	108.1	76.4
2010	35.5	32.0	30.6	14.2
2011	36.7	23.9	69.2	33.8
평균	32.4	24.2	73.1	41.6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각년도.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 한편, 농업조사(통계청 2011)에 의하면 농가 중 영농교육에 참여한 농가는 40.4%이고, 1~5일 미만은 33.5%, 5일 이상은 6.8%였음. 농산물 판매금액이 많을수록 대체로 영농 교육일수가 많았는데, 120만원 미만농가의 영농교육 참여율이 16.0%인데 반해, 2억원 이상 농가는 78.3%의 참여율을 보였음.

표 3-8. 농업경영주의 연간 영농교육 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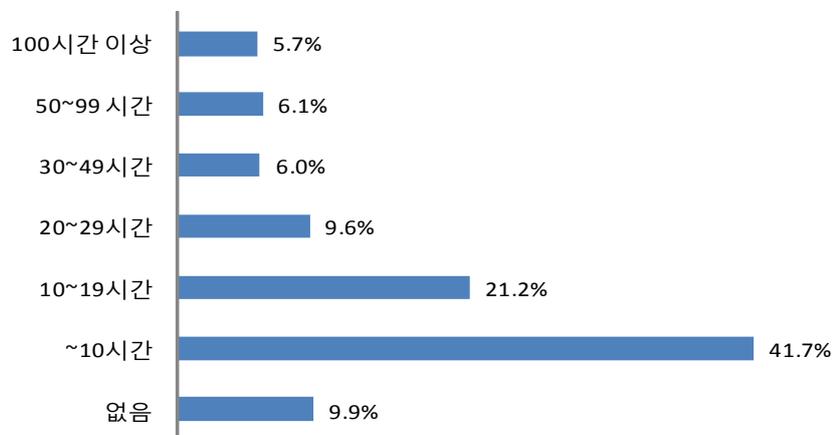
단위: %

판매금액	연간 영농교육일수			
	없음	1~5일 미만	5~10일	10일 이상
판매없음	59.6	33.6	4.4	2.4
120만원 미만	84.0	14.4	0.9	0.6
120~300만원	74.6	22.9	1.4	1.0
300~500만원	66.5	30.2	2.1	1.2
500~1천만원	54.8	40.3	3.1	1.8
1~2천만원	45.9	46.3	5.3	2.5
2~3천만원	36.9	51.4	8.1	3.6
3~5천만원	29.0	54.9	11.1	4.9
5천~1억만원	25.0	52.1	14.6	8.4
1~2억만원	20.2	49.6	17.2	13.0
2억원 이상	21.7	47.1	16.0	15.3
전체	59.6	33.6	4.4	2.4

자료: 통계청(2011)

- 이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한 농업인 설문조사에 의하면¹³, 학습에 참여하지 않거나 10시간 미만인 경우가 51.6%, 10~30시간이 30.8%, 30~100시간이 12.1%, 100시간 이상이 5.7%였음.

그림 3-4. 농업인의 농업교육 이수시간(%)(설문조사)



자료: 이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2012)

농업인 교육참여 실태

- 농업교육내용, 참여시간, 참여장에 등과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 실시한 일반 농업인 대상 교육실태 설문조사를 추가분석함.
- 농업교육 내용
 - 농업인들의 현재 많이 참여하는 교육내용은 생산기술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다음 농기계, 유통/마케팅, 농촌개발, 정보화 등의 순이었음. 반면 농업인들이 희망하는 교육내용은 농촌개발, 정보화, 유통/마케팅, 가공, 경영/회계/위기 등의 순이었음.

13 이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는, 농업인에 한정하여 농업과 관련한 다양한 학습활동을 모두 포괄하였기에,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조사되지 않은 학습을 포괄하여 참여율이 다소 높게 나온 것으로 판단됨.

- 농업교육의 소수에 의한 독점 실태
- 상위 17.3%가 전체 교육참여시간의 68.2%
 - 상위 26.9%가 전체 교육참여시간의 78.1%

표 3-9. 농업인의 현재 참여하는 교육의 내용과 희망하는 교육내용

현재 참여 내용(중복응답)		희망하는 내용	
생산기술	83.0%	농촌개발	19.0%
농기계	27.0%	정보화	18.6%
유통/마케팅	26.3%	유통/마케팅	17.1%
농촌개발	20.5%	가공	12.8%
정보화	16.7%	경영/회계/위기	11.3%
가공	9.3%	생산기술	7.8%
인문교양	5.5%	인문교양	6.4%
경영/회계/위기	4.7%	농기계	3.5%
비농업 취업/창업	1.8%	비농업 취업/창업	3.5%

자료: 이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2012)

- 어떤 사람이 농업교육을 많이 받는가?
- 농업교육참여시간이 많은 집단을 구명하기 위해 관련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Tobit 분석(STATA ver 18.0)을 실시한 결과, 영농경력이 상대적으로 적을수록, 승계보다는 창업을 할수록, 영농규모가 큰 농업인일수록, 품목으로는 쌀보다는 축산 농가일수록 농업교육참여가 많았음.

표 3-10. 농업교육참여시간에 대한 Tobit 분석(설문조사)

교육참여시간	계수	표준오차	t값	유의확률	
경력	-1.51203	0.43778	-3.45	0.001	
경력(제곱)	0.01245	0.00541	2.3	0.022	
학력	0.44718	0.691351	0.65	0.518	
창업(승계=0)	-7.6605	3.625321	-2.11	0.035	
품목 (쌀=0)	특용작물	-2.23297	4.881057	-0.46	0.647
	과수	6.789029	4.728977	1.44	0.152
	채소	5.885836	5.137619	1.15	0.252
	축산	12.46038	5.996212	2.08	0.038
영농규모	5.932167	1.564757	3.79	0.000	
상수	52.69947	14.61581	3.61	0.000	

LR $\chi^2(9) = 72.17$

Prob> $\chi^2 = 0.000$

Log likelihood = -2994.49, Pseudo $R^2 = 0.0119$

자료: 이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2012)

○ 교육참여 장애요인

- 농업인들의 현재 가장 많이 활용하는 교육기관으로는 농업기술센터였으며(농업기술센터 단기교육 36.0%, 농업인대학 20.2%), 그 다음으로 농민/품목/민간단체(11.1%) 그리고 소규모 학습조직 활동(9.4%), 도 단위 지자체 교육(9.3%), 단위농협의 조합원 교육(9.1%) 등 지역 중심의 근거리에서 있는 교육기관들이었음.
- 교육참여의 장애요인으로 농업인들이 생각하는 것으로 가장 큰 것은 거리(25.8%), 시간(25.3%)문제였고, 그 밖에 건강/나이(17.3%), 교육정보의 부족(14.9%) 등도 있었음.

표 3-11. 농업인의 현재 참여하는 교육기관과 참여 장애요인

교육기관		장애요인	
농업기술센터(단기교육)	36.0%	거리가 멀어	25.8%
농업인대학	20.2%	시간부족	25.3%
농민/품목/민간단체	11.1%	건강/나이	17.3%
소규모학습조직	9.4%	교육 정보가 없음	14.9%
도 농업기술원/교육원	9.3%	원하는 교육이 없음	10.0%
단위농협 조합원교육	9.1%	자격이 안되어	3.3%
최고농업경영자과정	3.1%	자신감부족	2.8%
농협중앙회 교육원	2.4%	비용이 비싸	2.3%
농업마이스터대학	2.0%	인원초과	1.1%
농업공공기관 교육	1.8%		
농업인해외연수	0.7%		
WPL	0.5%		

자료: 이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2012)

4. 성과 분석

4.1. 개인성과

- 농업인이 농업교육을 더 많이 받을수록 자신감 획득, 신기술 습득, 인적네트워크 확대 등의 무형의 교육 성과를 더 많이 얻고 있었음.

- 연령, 경력, 성, 학력, 영농승계여부, 품목, 영농규모 등을 통제한 상황에서 농업교육시간과 자신감, 신기술습득, 인적 네트워크 등에 무형적인 교육의 성과의 관계를 다중회귀분석(STATA ver 18.0 Ordinary Least Squares: OLS)한 결과, 교육시간이 자신감획득, 신기술습득, 인적네트워크 확대 등에 유의도 수준 1% 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음.

표 3-12. 농업교육의 무형의 성과

	자신감 획득		신기술 습득		인적 네트워크 확대		
	계수	유의확률	계수	유의확률	계수	유의확률	
연령	0.016	0.373	-0.007	0.683	-0.022	0.210	
경력	-0.015	0.238	-0.024	0.056	-0.018	0.128	
성(남=0)	-0.500	0.193	-0.774	0.048	-0.127	0.733	
학력	0.088	0.432	-0.066	0.564	-0.010	0.927	
승계(창업=0)	-0.055	0.819	-0.025	0.918	-0.268	0.258	
품목 (쌀=0)	특용	-0.216	0.513	0.141	0.671	-0.393	0.228
	과수	0.500	0.121	0.536	0.099	-0.060	0.849
	채소	0.604	0.085	0.147	0.674	0.248	0.466
	축산	0.677	0.077	0.915	0.020	0.688	0.063
영농규모	0.335	0.003	0.237	0.035	0.091	0.400	
교육시간	0.007	0.009	0.009	0.001	0.007	0.006	
상수	3.992	0.006	7.024	0.000	7.828	0.000	
Prob>F	0.000		0.000		0.000		
Adj-R ²	0.063		0.080		0.070		

자료: 이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2012)

- 농업인이 농업교육을 더 많이 받을수록 농업경영비가 감소하고, 생산성은 증가하고, 농업소득도 증가하였음.
 - 연령, 경력, 성, 학력, 영농승계여부, 품목, 영농규모 등을 통제한 상황에서 농업교육시간과 농업경영비, 농업생산성, 농업소득 등의 경제적 성과의 관계를 다중회귀분석(OLS)한 결과, 교육시간이 이들 세가지 경제적 성과에 유의도 수준 1% 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음.

표 3-13. 농업교육의 경제적 성과

	농가경영비 감소		생산성 증가		농업소득 증가		
	계수	유의확률	계수	유의확률	계수	유의확률	
연령	-0.007	0.683	-0.022	0.210	0.001	0.922	
경력	-0.024	0.056	-0.018	0.128	-0.004	0.474	
성(남=0)	-0.774	0.048	-0.127	0.733	-0.080	0.651	
학력	-0.066	0.564	-0.010	0.927	0.005	0.916	
승계(창업=0)	-0.025	0.918	-0.268	0.258	-0.113	0.296	
품목 (쌀=0)	특용	0.141	0.671	-0.393	0.228	-0.175	0.235
	과수	0.536	0.099	-0.060	0.849	-0.178	0.214
	채소	0.147	0.674	0.248	0.466	0.016	0.916
	축산	0.915	0.020	0.688	0.063	-0.132	0.438
영농규모	0.237	0.035	0.091	0.400	0.051	0.298	
교육시간	0.009	0.001	0.007	0.006	0.006	0.000	
상수	7.024	0.000	7.828	0.000	2.575	0.000	
P	0.000		0.000		0.000		
Adj-R ²	0.059		0.084		0.085		

자료: 이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2012)

- 농업교육은 실제 농가의 매출액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
- 농업교육이 농가의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농업인의 농업교육이수시간 이외에 연령, 성별, 학력, 품목, 영농규모 등의 변인을 통제변인으로 넣고, 농업교육비라는 도구변인(instrumental variable)을 설정하여 농업교육이수시간의 농가 매출액에 대한 내생성(endogenous) 통제된 2SLS(STATA ver 18.0 2 Stage Least Square)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을 하였음¹⁴.
 - 분석결과 농업교육시간이 많을수록, 농가 매출액이 많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도 수준 5%이하에서 유의미하였음.

14 농업교육비를 통한 농업교육시간의 농가 매출액에 대한 내생성 검증결과 Durbin (Score) $\chi^2=1.49$, Wu-Hausman $F(1, 572)=1.46$ ($p=0.22$)로 교육시간이 매출액에 대한 외생성이 인정됨.

표 3-14. 농업교육이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

		계수	표준오차	z값	유의확률
교육시간		0.006	0.003	2.010	0.044
연령		-0.075	0.009	-7.980	0.000
경력		0.074	0.018	4.200	0.000
경력(제공)		-0.001	0.000	-3.420	0.001
성(남=0)		-0.859	0.224	-3.830	0.000
학력		0.124	0.063	1.990	0.047
품목 (쌀=0)	특용	0.795	0.175	4.540	0.000
	과수	0.929	0.172	5.400	0.000
	채소	0.923	0.189	4.890	0.000
	축산	0.900	0.219	4.110	0.000
영농규모		1.156	0.063	18.380	0.000
상수		6.476	0.823	7.870	0.000
P		0.000			
R ²		0.6018			
Wu-Housman(1, 572)		1.45678(p=0.228)			

자료: 이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2012)

4.2. 국가성과

- 농업인들은 그동안 농업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프로그램의 질이 과거에 비해 대부분 개선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었음.
 - 농업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과 프로그램의 품질, 두가지에 대하여 농업인 설문조사결과(10단계 리커트 척도 질문, 5=보통), 접근성이 개선(6단계 이상)되었다는 응답이 61.1%, 악화되었다는 응답이 19.7%였음. 프로그램의 품질이 개선되었다는 응답은 68.4%, 악화되었다는 응답은 12.4%였음.

표 3-15. 농업교육 프로그램의 접근성/품질 변화에 대한 농업인 평가

	프로그램 접근성	프로그램의 품질
악화	19.7%	12.4%
보통	19.1%	19.1%
개선	61.1%	68.4%

자료: 이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2012)

○ 농업교육예산에 대한 노동생산성 변화

- 정부차원의 본격적인 농업교육 분야의 투자가 이루어진 것은 2006년 부터라고 할 수 있음. 한편 그 이전 관련 자료 확보가 용이지 않은 관계로, 다음과 같은 2006~2011년 동안의 교육예산 대비 노동생산성의 변화를 분석하였음.

$$\text{노동생산성의 교육예산 탄력성} = \frac{\left(\frac{2011\text{년 노동생산성} - 2006\text{년 노동생산성}}{2006\text{년 노동생산성}} \right)}{\left(\frac{2011\text{년 교육예산} - 2006\text{년 교육예산}}{2006\text{년 교육예산}} \right)} \times 100$$

- (분모) 2006년 대비 2011년 농업교육 예산 금액비는 1.17
- (분자) 2006년 대비 2011년 노동생산성비는 0.195
- 농업노동생산성의 농업교육 예산 탄력성은 0.167 \Rightarrow 농업교육예산 10% 인상하면, 농업노동생산성 1.67% 상승한다는 의미

표 3-16. 농업교육투자액 및 농업 노동생산성 변화 (2006~2011)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변화율 (2011/2006)
농업 교육투자액 (억원)	403.5	444.3	584.6	862	948.9	875.9	1.17
농업 노동생산성 (원/시간)	12,840	13,127	13,352	14,305	14,920	15,349	0.195

* 각년도 노동생산성은 3개년도 평균자료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 / 통계청. 각년도. 농가경제조사.

농업부문의 생산성 변화

- 지난 40년간 농업부문은 토지, 노동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총 요소 생산성 증가
 - 토지의 농업 성장에 대한 기여: 1970년대이후 지속적으로 음의 값, 2000년 이후 -0.29%p
 - 노동투입의 농업 성장에 대한 기여: 토지와 마찬가지로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음의값, 2000년 이후 -1.41%p
 - 토지, 노동, 자본 등 요소투입 전체의 농업 성장에 대한 기여분은 자본스톡 증가로 인한 기여가 노동 및 토지 투입의 감소로 인해 상쇄
 - 이러한 투입요소의 성장기여분의 절대 크기가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분에 비해 작음: 70년대와 90년대에는 양(+의 기여를 한데 반해 80년대와 2000년대에는 음(-)의 기여
 - 총요소생산성의 성장 기여분은 70년대에 0.04%p에 불과하였으나, 80년대에는 3.76%p, 이후 90년대에는 2.12%p로 크게 떨어졌다가, 2000년대 들어서도 계속되어 1.59%
- 시사점: 토지와 노동 투입의 감소를 충분히 만회하고도 남는 정도의 생산성의 향상을 유지하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와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유인책 요구

표 3-17. 투입요소 및 총요소생산성의 성장 기여분 및 기여율

단위: %p, %

	농업GDP		총요소생산성		요소투입							
	합계	합계	기여분	기여율	전체		노동투입		토지투입		자본스톡	
					기여분	기여율	기여분	기여율	기여분	기여율	기여분	기여율
1971-80	1.29	100.0	0.04	3.2	1.25	96.8	-0.90	-69.5	-0.43	-33.2	2.58	199.5
1981-90	3.53	100.0	3.76	106.5	-0.23	-6.5	-1.53	-43.4	-0.42	-12.0	1.72	48.8
1991-00	2.76	100.0	2.12	76.7	0.64	23.3	-1.80	-65.2	-0.30	-10.8	2.74	99.3
2001-10	1.38	100.0	1.59	115.3	-0.21	-15.3	-1.41	-102.3	-0.29	-21.2	1.49	108.2
평 균	2.24	100.0	1.88	75.4	0.36	24.6	-1.41	-70.1	-0.36	-19.3	2.13	114.0

자료: 박춘성 등(2012)

5. 평가결과 요약

- 투입 측면에서 보면 국가적으로 2006년 이후 농업교육과 관련한 많은 예산 투자가 있었음.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농업교육예산이 증가되어 왔지만, 이후 다소 주춤한 상황. 국가적 차원의 농업교육 예산 투자와 더불어 개인의 교육비 지출도 동시에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고, 국가 예산의 축소와 더불어 개인의 교육비 지출도 감소. 아직 많은 사람들이 자기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편이지만, 농업인들의 교육과 관련한 욕구는 높아, 상당수(58.5%)가 배우기 위해 기꺼이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농업교육실시 기관, 교육과정수, 교육인원 등 농업교육의 산출과 관련하여 전체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많은 증가를 보이지 않은 것은 지난 5~6년간의 농업교육 투자가 무조건적인 교육의 양적인 확장보다는 교육내용의 내실화, 소수 정예인력에 대한 교육 집중 강화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
 - 농업교육이 특정인들 소수에 의해 독점되는 현상(교육이수시간 상위 1/4 정도가 전체 교육시간의 80% 정도를 점유)이 있기는 했지만, 이들 다수가 정말로 농업교육을 필요로 하는 신규 창업농 그리고 기술에 민감한 대규모 농가와 축산 농가라는 점에서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라 판단됨.
 - 하지만 여전히 농업교육과 관련한 상당수 농업인들의 불참요인이 농업 교육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에 따른 것으로 근거리 교육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됨.
- 성과측면에서 농업교육은 유무형의 성과를 내고 있었음.
 - 농업교육은 이수자들에게 농업경영의 자신감, 신기술 습득, 인적네트워크 형성과 같은 무형의 자산을 형성해줌과 동시에, 경영비 감소, 생산성

증대, 농업소득 증가와 같은 경제적 성과를 가져다 주고 있었음.

- 한편 농업인들은 최근 5년간(2006~2011) 농업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품질 제고와 관련하여 다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음.
- 농업교육 예산과 투자와 농업노동생산성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자료상의 제한으로 해석상의 한계는 있지만, 농업교육예산 10%인상시, 농업노동생산성이 1.67%상승하는 관계를 도출하였음.

제4장

농업인력 수급 전망

1. 분석 모형

- 농업생산부문의 인력수급 전망을 위해선 먼저 농업생산부문의 생산량에 관한 전망이 필요함. 전망된 농업생산량에 소요되는 인력규모가 인력수요 전망치가 될 수 있기 때문임.
 - 전망의 분석기간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임
 - 농업부문 생산액 전망은 한·미 FTA에 따른 농축산물의 생산액 변화를 고려하였음.
 - 생산량전망에 따른 소요 인력은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0)의 농업(중분류: 재배, 축산)의 취업계수와 고용계수를 활용하였음.
 - 산업연관표 계수를 전망할 때 기술발전, 즉 노동생산성 향상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기 용이하지 않아서 취업 및 고용계수 변화를 시나리오 분석하였음.
- 농업생산부문의 인력공급 전망은 단순 농업취업자보다는 농업경영을 책임질 수 있는 농업종사자를 중심으로 전망하였음.
 - 통계청 농업총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농가인구대비

농업(생산)분야 취업인구비의 변화 전망에 활용

- 농업생산부문의 가족고용계수는 취업계수에서 고용계수를 뺀 것으로 정의됨

2. 수요 전망

□ 농업생산부문 생산액 전망

- 농업생산 부문의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¹⁵
 - 2005~2011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은 4.1%를 기록하였으나 2011~2022년 동안 연평균 0.5%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
 - 재배업: 26조9470억원(2011)→29조2750억원(2022년)으로 연평균 0.8% 증가
 - 축산업: 18조470억원(2011)→18조3960억원(2022년)으로 0.2% 증가 전망
- 한석호 등(2012)의 『2012 상반기 KREI 농업경제전망』(2012. 7)에 의하면 2022년 농업생산액은 47,671십억원, 그중 재배업은 29,275십억원, 축산업은 18,396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됨.

¹⁵ 한미 FTA 이행에 따른 생산량 변화는 고려하였으나,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생산량 변화는 감안하지 않았음.

표 4-1. 농업부문 생산액 전망

단위: 10억원(경상)

연도 구분	2005	2011 (P)	2012 (P)	2017	2022	연평균 변화율(%)				
						11/05	12/11	17/11	22/17	22/11
농업	35,089	44,995	46,652	46,548	47,671	4.1	3.6	0.6	0.5	0.5
재배업	23,322	26,947	28,622	28,869	29,275	2.4	6.0	1.1	0.3	0.8
쌀	8,537	7,521	7,907	7,394	6,736	-2.1	5.0	-0.3	-1.9	-1.0
곡물류	1,202	1,462	1,385	1,388	1,570	3.3	-5.4	-0.9	2.5	0.6
채소류	6,919	9,175	10,067	10,141	10,484	4.7	9.3	1.7	0.7	1.2
과실류	3,082	3,710	3,808	3,886	3,825	3.1	2.6	0.8	-0.3	0.3
특약용	869	1,241	1,344	1,511	1,717	5.9	8.0	3.3	2.6	3.0
화훼	995	1,539	1,711	1,992	2,260	7.3	10.6	4.3	2.5	3.5
축산업	11,767	18,047	18,029	17,680	18,396	7.1	-0.1	-0.3	0.8	0.2
한육우	3,148	3,762	4,278	4,224	4,287	3.0	12.9	1.9	0.3	1.2
양돈	3,759	6,701	6,500	5,739	5,944	9.6	-3.0	-2.6	0.7	-1.1
육계	1,113	2,317	2,319	2,754	3,085	12.2	0.1	2.9	2.3	2.6
낙농	1,551	1,679	1,909	1,743	1,658	1.3	12.8	0.6	-1.0	-0.1
산란계	1,085	1,448	1,213	1,133	1,185	4.8	-17.7	-4.1	0.9	-1.8
오리	649	1,410	1,069	1,313	1,438	12.9	-27.7	-1.2	1.8	0.2

출처: 한석호 등(2012)

□ 농업생산액 변화에 따른 농업인력수요 전망

- 통합중분류 취업 및 고용계수를 활용할 경우 2022년 농업부문의 취업자수는 1,624천명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됨. 그중 재배업 분야는 1,361천명, 축산분야는 263천명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이는 해당 산업의 기술발전과 노동력의 자본대체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현시점에서 농업부문 노동력 수요의 최대 전망치가 됨.

- 재배업: 29,275(십억원)×46.5=1,361천명

- 축산업: 18,396(십억원)×14.3=263천명

⇒ 농업생산부문 인력수요: 1,624천명

표 4-2. 통합중분류 취업 및 고용계수

단위: 명/10억원

부문(78부문)	취업계수			고용계수			취업계수-고용계수		
	2000	2005	2010	2000	2005	2010	2000	2005	2010
농산물(재배업)	70.6	57.5	46.5	4.1	3.9	3.8	66.5	53.6	42.7
축산물	42.7	25.6	14.3	2.5	1.7	1.2	40.2	23.9	13.1
임산물	53.0	49.3	35.3	9.0	10.8	10.1	44.0	38.5	25.2
수산물	18.8	13.4	8.2	7.6	4.0	2.9	11.2	9.4	5.3
농림어업서비스	-	28.2	25.6	-	26.1	23.6	-	2.1	2.0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의 산업연관표

- 그러나 해당 산업의 노동절감기술 및 자본대체를 고려할 경우 위의 수치보다 낮게 전망됨. 따라서 2022년의 농업생산부문 취업계수 전망에는 과거 2000~10년의 노동-자본대체의 변화 추세가 반영되어야 함.
- 2022년의 취업계수는 2005~2010년의 추세치와 동일하게 변화한다고 가정하면 2022년의 취업계수는 2010년 취업계수에 추세치를 2005~2010년 추세치를 차감해서 구할 수 있음. 먼저 2005~10년의 부문별 취업계수 연평균 변화율은 다음과 같음.¹⁶
 - 2005~10년 재배업 취업계수 연평균 변화율: -0.042
 - 2005~10년 축산업 취업계수 연평균 변화율: -0.116

16 취업계수 변화율을 2000~05, 2005~10년의 두 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면 2000~05년의 재배업과 축산물의 취업계수 연평균 변화율은 각각 4.1%, 10.2%이고 2005~10년의 해당계수의 변화율은 4.2%, 11.6%가 됨. 2005~10년의 연평균변화율이 2000~10년의 연평균 변화율과 동일하게 나타났기에 2000~10년의 연평균 변화율을 기준으로 2022년의 취업계수를 추계하더라도 2005~10년의 변화율을 고려하여 구간별 가중평균하여 추계하여야 한다는 비판을 우회할 수 있음.

○ 위의 연평균 변화율을 이용하여 2022년 취업계수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음

- 취업계수₂₀₂₂ = 취업계수₂₀₁₀ $e^{(취업계수연평균변화율 \times 12)}$
- 2022년 재배업 취업계수: $46.5 \times \exp(-0.042 \times 12) = 28.1$
→ 재배업 취업자수: 823천명(=2,9275십억원 \times 28.1명/십억원)
- 2022 축산업 취업계수: $14.3 \times \exp(-0.116 \times 12) = 3.6$
→ 축산업 취업자 수: 66천명(=18,396십억원 \times 3.6명/십억원)
⇒ 농업생산부문 인력수요: 889천명

○ 2022년 농업부문의 인력수요는 [889천명~1,624천명] 사이에 놓여 있을 것으로 전망¹⁷

농림어업 취업자 전망

- 농업부문의 인력과부족은 농업생산부문의 노동생산성 변화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음. 이를 위해 먼저 농림어업부문의 취업자 현황과 전망을 분석함.
- 농림어업취업자 수의 전망은 2005~2011년 동안의 변화추세를 반영한 것임(한석호 등 2012).
- 2022년의 농업취업자 전망치는 1,215천명으로써 산업연관표에서 분석한 농업부문 인력 수요의 범위 내에 놓여 있음.
- 농림어업 취업자의 추세치 전망은 앞의 산업연관표에서 계산한 취업계수를 이용한 고용 전망의 범위 내에 있기에 앞에서 분석한 산업연관표의 노동생산성 변화에 대한 시나리오 가정은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17 권우현외 5인(2012)에 따르면, 산업별 취업계수를 시간과 국민소득(GDP)에 대하여 회귀분석하여 전망하고 있음. 전망 결과 2020년 농업부문의 취업자 전망은 1,078천명으로 2010년 1,481천명 대비 31.8%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고, 이는 우리의 전망치 범위 내에 속해 있음.

- 2010년 산업연관표를 2011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011년도 농재배업의 취업자 수는 1,253천명(=26,947십억원×46.5명), 축산업 취업자수는 258천명(=18,04710억원×14.3명)으로 농업생산부문에 총 1,511천명이 취업한 것으로 추계됨.
- 2011년 농림어업 취업자 1,542천명에는 임업, 어업 및 농림어업서비스 부문 취업자까지 포함한 수치인바, 임업 및 어업과 농림어업 서비스 부문 취업자는 31천명으로 추계됨.

표 4-3. 농림어업 취업자 전망

단위: 천명

2005	2011	2012	2017	2022	연평균 변화율(%)		
					12/11	17/12	22/17
1,813	1,542	1,497	1,355	1,215	-2.9	-2.0	-2.2

자료: 한석호 등(2012)

- 이를 이용하여 농업생산부문의 노동생산성 변화정도에 따른 농업부문의 인력과부족 문제를 분석할 수 있음.
- 2010년 이후의 농업생산분야의 노동생산성(노동력절감 기술발전)이 2005~10년의 추세를 따른다고 하면 농업부문의 인력부족 현상은 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2005~2010년의 노동생산성 증가, 즉 취업계수변화는 재배업의 경우 연평균 4.2% 감소하고, 축산업의 경우 11.6% 감소하였음
- 노동생산성의 증가가 2005~10년의 추세의 1/2에 불과할 경우 즉, 2011년 이후 재배업 취업계수 연평균 변화율 -0.021, 축산업 취업계수 연평균 변화율 -0.058을 가정하면 2022년 재배업과 축산업의 취업계수는 각각 36.1명/10억원, 7.1명/10억원이 됨
 - 이 경우 2022년 농업생산부문의 노동력 수요는 재배업 1,057천명, 축산업 131천명이 되어 1,188천명을 전망되어 농림어업 취업자 추세치 전망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총체적 인력수급 문제는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노동생산성 증가가 추세의 1/3에 불과할 경우 농업생산부문의 노동력 수요는 1,316천명으로 전망됨(재배업 1,151천명, 축산업 165천명). 즉, 노동생산성 증가가 2005~2010년 추세의 1/3이하로 떨어질 경우 농업생산부문의 인력수요는 농림어업 취업자 추세치와 양립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농가 가족노동력 수요

- 이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인력은 농업생산부문의 단순 고용노동력이 아니라 농업경영을 담당하는 경영주 및 가족노동력 등 정예농업인력의 근간을 이루는 인적자본임. 따라서 농업생산부문에 고용된 취업인력중에서 단순 고용된 피고용인을 제외함. 이는 취업계수에서 고용계수를 제한 농업경영주 및 가족노동력 수요를 계산하여야 함(가족고용계수=취업계수-고용계수)
- 노동생산성이 변화하지 않을 경우 2022년도의 농업생산부문 가족고용수요는 1,491천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재배업: $2,9275(\text{십억원}) \times 42.7 = 1,250\text{천명}$
 - 축산업: $1,8396(\text{십억원}) \times 13.1 = 241\text{천명}$
- 노동생산성이 2005~2010년의 추세와 동일하게 증가한다는 가정을 할 경우, 먼저 가족고용계수 변화율은 앞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할 경우 연평균 변화율은 다음과 같음¹⁸
 - 2005~10년 재배업 가족고용계수 연평균 변화율: -0.045
 - 2005~10년 축산업 가족고용계수 연평균 변화율: -0.120
- 가족고용계수의 감소율이 취업계수감소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고용계수 감소율을 연평균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지난 10년 동안 농업생산부문 인력이 농가구원중심에서 고용 인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18 2000~05년의 재배업과 축산업의 가족고용계수의 연평균 변화율은 각각 -0.043, -0.104이고, 2000~10년의 해당계수의 연평균 변화율은 각각 -0.044, -0.1121로 계산됨. 여기서는 최근 구간의 연평균 변화율을 적용하였음.

- 이를 이용하여 가족고용계수를 전망하면 다음과 같음.

$$\text{가족고용계수}_{2022} = \text{가족고용계수}_{2010} e^{(\text{가족고용계수연평균변화율} \times 12)}$$

- 재배업가족고용계수: $42.7 \times \exp(-0.045 \times 12) = 24.9$
- 축산업가족고용계수: $13.1 \times \exp(-0.120 \times 12) = 3.1$

⇒ 2022년도 농업생산부문 정예농업인력 수요: 786천명

- 재배업: $29,275 \times 24.9 = 729$ 천명
- 축산업: $18,396 \times 3.1 = 57$ 천명

- 농업생산부문 가족노동 수요는 [786천명 ~ 1,491천명]의 범위에 놓여있음

3. 공급 전망

- 이 연구의 분석 대상 농업인력은 농업생산부문의 단순 고용노동력이 아니라 농업경영을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정예농업인력임. 따라서 농업취업자의 추세변화보다는 농업경영을 담당하는 경영주 및 가족노동력 등의 분석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 (1) 농가인구의 연령별 전망과 (2) 이들 중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주종사자 전망이 필요함.

- 농가 인구중에 농업(생산)분야 취업자(농가경영주 + 가족노동자)를 안정적인 공급인력으로 파악

- 농가인구는 3,434천명(2005년) → 3,063천명(2010년) → 2,537천명(2017년) → 2,165천명(2022년)으로 전망됨.

- 농가인구 변화율은 2000~05년은 연평균 -3.2%, 2005~10년은 연평균

- 2.3% 인 것으로 나타났음.
 - 연령별 코호트 분석을 통한 농가인구 전망치는 2010~15년은 연평균 -2.6%, 2015~20년은 -3.0%로 예측됨.¹⁹
- 15세이상 농가인구는 3,099천명(2005년) → 2,793천명(2010년) → 2,334천명(2017년) → 1,999천명(2022년)으로 전망됨.
- 15세 이상 농가인구 비중은 90.2%(2005년), 91.2%(2010년), 92.0%(2017년), 92.3%(2022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됨
- 정예농업인력인 경영주 및 가족노동력의 공급가능성은 농가인구에서 15세 이상의 가구원 중 1년 동안 1개월 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업종사자와 그 중에서 농업을 주로 종사한 농업주종사자의 인력을 전망함으로써 얻을 수 있음. 농가인구중에서 농업종사자가 점하는 비중은 <표 4-4>와 같음.
- 15세 이상 농가인구당 농업종사자 비중은 1990년 0.80에서 2010년 0.81로 큰 변화가 없음
 - 그 중 농업에 주로 종사한 가구원의 비중 또한 2000년대 접어들어 0.66수준에 안정적으로 머물고 있음

¹⁹ 1995~2000년의 IMF 외환위기가 발생한 연도구간의 농가구원의 연평균 변화율은 -3.7%, 2000~05년은 -3.2%, 2008년 금융위기가 반영된 구간인 2005~10년의 연평균 변화율은 -2.3%로 나타났음. 2015년 이후 농가인구 감소율이 이들 변화율보다 더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프로젝션된 것은 과거 농가인구 변화율에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라는 특수상황이 반영되어 농가인구의 감소율이 정상추세수준에서 과소되었기 때문임.

표 4-4. 농가인구중 농업종사자 비중 변화(1990~2010)

단위: %

	1990	1995	2000	2005	2010
15세 이상 농가인구중 농업종사 비중	0.80	0.79	0.78	0.78	0.81
15세 이상 농가인구중 농업주종사 비중	0.58	0.61	0.67	0.68	0.66
농가인구중 농업종사자 비중	0.64	0.68	0.69	0.71	0.74
농가인구중 농업주종사자 비중	0.46	0.52	0.60	0.62	0.60

자료: 통계청, 각년도, 농업총조사.

- 농가구원 중 농업생산부문의 종사자 공급가능량은 다음과 같이 전망이 가능함
- 2022년 농가인구 전망치 2,165천명²⁰과 농가인구중 농업종사자 비중 0.74를 이용할 경우 2022년 농가구원 중에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자의 수는 1,602천명으로 전망됨.²¹
 - 그중에서 농업을 주로 하는 주종사수는 농가인구중 주종사비중 0.60(=농업주종사자농가인구/전체농가인구)을 고려할 경우 2022년의 농업주종사자 수는 1,299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됨²²
 - 15세 이상 농가인구 중 농업종사자 비중이 0.81로 안정적으로 유지할 경우 2022년 농업종사 가능자는 1,619천명(=1,999천명×0.81), 그 중에서

20 『2012 상반기 KREI 농업경제전망』에 따르면 2,323천명으로 추정되나 본 고에서는 과거 이농율의 변화치를 유의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1990, 1995, 2000, 2005, 2010년의 연령별 이농율에 가중치를 각각, 0.1, 0.2, 0.3, 0.4를 사용하여 가중평균하였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022년도의 농가인구는 2020년과 2025년 농가인구 전망치에서 2020~2025의 연평균 인구변화율을 고려한 보간법을 이용하여 전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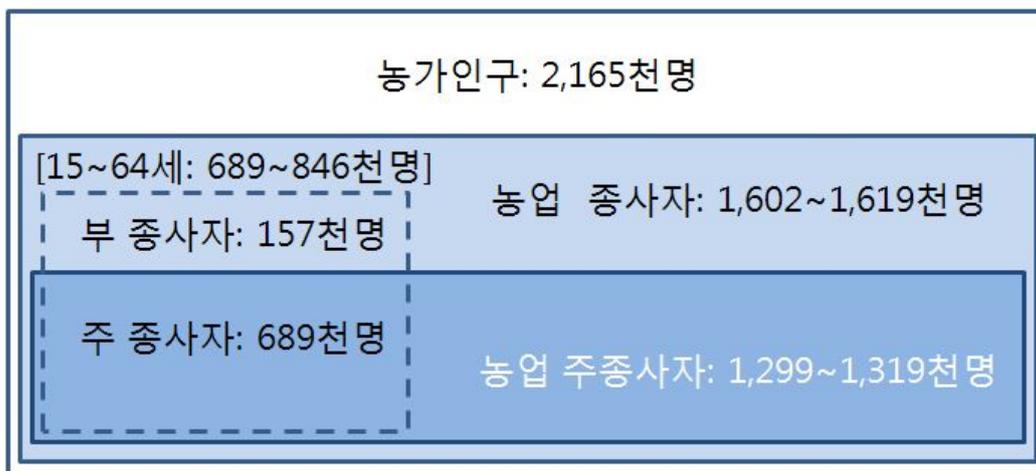
21 2022년 농가인구중 농업종사자 비중이 2010년 0.74 수준에서 안정된다고 가정

22 농가인구 중 주종사비중은 2010년 0.60이 2022년까지 지속된다고 가정

주종사자 비중이 0.66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1,319천명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2022년 농가인구 중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1,602천명~ 1,619천명] 범위에 놓여있고, 그 중 주종사자 수는 [1,299천명~ 1,319천명] 수준에 놓일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정예 농업인력육성대상을 15~64세의 농가인구로 제한할 경우 2022년도 농가인구 중 15~64세 인구규모 전망치 1,044천명에, 농업종사자 비중 0.81을 고려하면 846천명 수준의 농업종사자가 공급가능한 것으로 전망됨. 주종사자 비중 0.66을 가정하면 689천명의 공급가능한 농업주종사수가 됨 - 15~64세 농가인구 중에서 농업종사가능 인구는 [689천명~ 846천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4-1. 농가 인구중 농업종사자 전망(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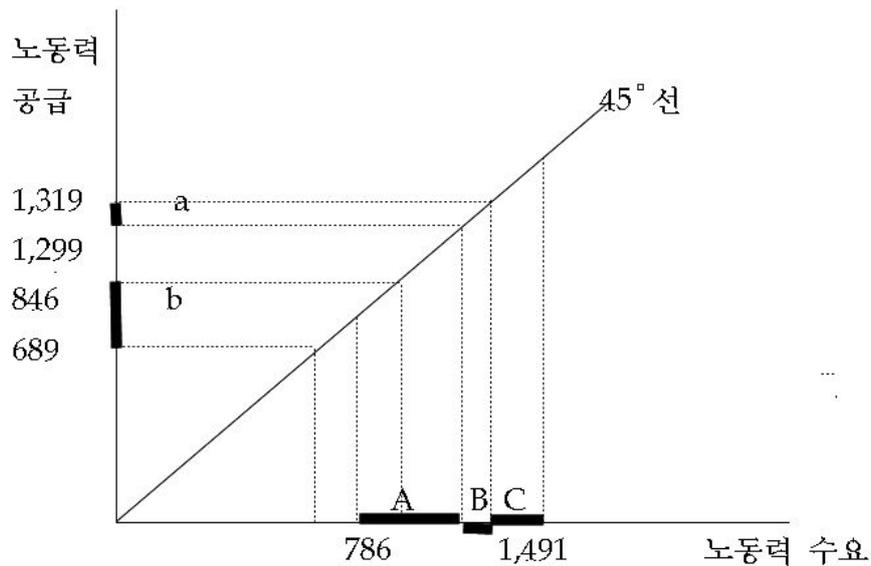
4. 농업인력 미스매치 전망

- 이상의 농업생산부문 노동력 수요와 농가인구를 바탕으로 한 농업생산부문 가족노동력 공급량을 기준으로 농업인력수급의 과부족 문제를 가늠할 수 있음.
- 먼저 농업인력 대상은 취업자 기준이 아니라 농업생산부문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농업생산 정예인력을 농가구원에서 구하는 것으로 가정함. 나아가 농가구원의 농업종사유무가 아니라 주된 경제활동으로 농업에 종사한 주종사자를 농업생산 정예인력으로 간주함.
- 가족노동력 수요는 기술발전, 즉 노동생산성의 변화에 따라 상이하지만 가족고용계수가 종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변화한다고 가정할 경우 2022년 농업생산부문의 가족노동력 수요는 786천명수준이고, 기술발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2010년의 가족노동력 취업계수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할 경우 1,491천명 수준의 가족노동력이 수요될 것으로 전망됨.
 - 가족 노동력 수요 범위: [786천명~1,491천명]
- 농가인구 중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종사자 수의 규모는 [1,602천명~1,619천명]으로 전망되어 가족 노동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농업노동력 수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농가인구 중 농업에 주로 종사하는 주종사자만을 대상으로 가족농업노동력을 구성할 경우 경우에는 공급가능 규모는 [1,299천명~1,319천명]으로 전망되어 노동생산성 증가에 따라 농업기술발전 농업인력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정예농업인력육성대상을 15~64세의 농가인구로 제한할 경우 공급가능한 가족농업노동력은 [689천명~846천명] 구간에 놓여 노동력 부족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짐.
- 이상의 농업인력 미스매치 전망은 그림 4-2와 같이 나타낼 수 있음.

그림 4-2. 농업인력 과부족(가족노동력) 전망

단위: 천명



- 횡축은 가족 노동력 수요를 나타내고, 종축은 가족노동력 공급가능량을 나타냄.
 - 향후 노동생산성 증가 정도에 따라 가족 노동력의 수요는 [786천명~1,491천명] 구간에 놓임
 - 가족 노동력 공급은 주종사자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종축의 a구간[1,299천명~1,319천명], 여기에다 연령대를 15~64세로 한정할 경우 종축의 b구간[689천명~846천명]으로 표시됨.

- 농가인구 중에서 연령에 관계없이 농업에 주로 종사하는 농업주종사자 공급가능량 a구간[1,299천명~1,319천명]에 대응하는 노동력 수급여건은 A, B, C 구간으로 구분할 수 있음.

- A는 [786천명~1,299천명] 구간으로 노동력 수요가 공급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력 부족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구간으로 발생 확률 72.8% 달함

$$\frac{\text{공급범위}A(1,299 - 786)}{\text{전체 노동수요 범위}(1,491 - 786)} \times 100 = 72.8$$

- B는 [1,299천명~1,319천명] 구간으로 노동력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구간으로 발생 확률은 2.8%

$$\frac{\text{공급범위}B(1,319 - 1,299)}{\text{전체 노동수요 범위}(1,491 - 786)} \times 100 = 2.8$$

- C는 [1,319천명~1,491천명] 구간으로 노동력 수요에 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발생 확률은 24.4%에 달함.

$$\frac{\text{공급범위}C(1,491 - 1,319)}{\text{전체 노동수요 범위}(1,491 - 786)} \times 100 = 24.4$$

- 한편 정예농업인력육성대상을 15~64세의 농업 종사자로 제한할 경우, 공급 가능한 가족농업노동력 b구간[689천명~846천명]에 놓이는 바 노동력 부족 확률은 91.5%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됨.

$$\frac{15\sim 64\text{세 농업 종사자 공급범위}(846 - 786)}{\text{전체 노동수요 범위}(1,491 - 786)} \times 100 =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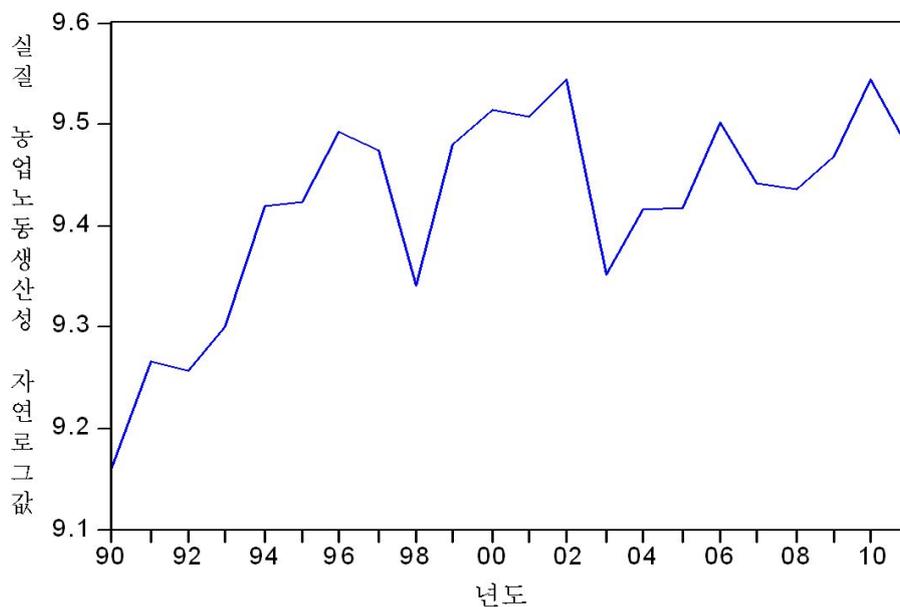
농업 노동생산성 추세 분석과 인력수급 전망

- 농업노동력의 수급문제는 노동생산성의 변화 정도에 따라 상이함. 농업노동생산성의 추세분석을 통해 농업노동력 수요의 변화정도를 정교화 할 수 있음.
- 1990~2011년동안 실질 농업노동생산성 변화추세는 <그림 5-2>와 같음. 노동생산성에 자연로그를 취하였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값의 차이는 노동생산성의 성장률을 의미함.
- IMF 외환위기 이전까지 농업노동생산성은 지속적 성장을 거듭하였음.
 - IMF 외환위기 이후 농업노동생산성은 2000년대 초반 국민경제의 회복에 따라 성장세

를 보이다가, 2003년 매미로 대변되는 자연재해로 인해 농업생산성이 감소하였고 이후 부침을 보이고 있음.²³

- 실질농업노동생산성은 1990~2011년 동안 연평균 1.5%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4-3. 농업 노동생산성의 변화



- 취업계수는 명목생산액 대비 취업인원으로 정의되는 바 노동생산성과 취업계수를 연계 시키기 위해 실질노동생산성보다 명목노동생산성을 적용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음. 1990~2011년의 명목노동생산성은 연평균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재배업 연평균 4.5%, 축산업은 연평균 9.2% 증가
 - 이는 가족고용계수 연평균 감소율 4.5%, 12.0%과 거의 추세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생산액 변동에 따른 노동생산성 변동을 가족고용계수 변화의 근삿값으로 간주하고자 함.
- 한편 농업 노동생산성과 농산물 생산액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재배업 노동생산성의 재배업생산액에 대한 탄력성은 1.14, 축산업 노동생산성의 축산업생산액에 대한 탄력성은 1.31로 추정됨.

23 2003년부터는 농가경제조사 대상농가의 변경으로 이전년도와 비교할 경우 자료의

표 4-5. 재배업 노동생산성의 재배업 생산액에 대한 탄력성 분석

변인	계수	표준오차	t-값	유의도
상수	-8.624188	2.924434	-2.949011	0.0086
Ln(재배업생산액)	1.146966	0.289902	3.956393	0.0009
전년도 값	0.740186	0.176484	4.194078	0.0005

F-statistic 71.48454 Prob(F-statistic) 0.00

Durbin-Watson 값²⁴: 1.586

표 4-6. 축산업 노동생산성의 축산업 생산액에 대한 탄력성 분석

변인	계수	표준오차	t-값	유의도
상수	-9.330190	0.940360	-9.921937	0.0000
Ln(축산업생산액)	1.315073	0.104010	12.64368	0.0000

F-statistic 159.8627 Prob(F-statistic) 0.00

Durbin-Watson 값: 1.406

- <표 4-1>에 의하면 2011~2022년 동안 재배업은 8%, 축산업은 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2022년 예측되는 재배업의 노동생산성은 9.12%(=1.14×0.08), 축산업은 2.62%(=1.31×0.02). 이 경우 농업노동력 수요는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음

- 재배업 가족고용계수: $42.7 \times \exp(-0.0912) = 39.0$
- 재배업 가족노동수요 = 1,142천명
- 축산업가족고용계수: $13.1 \times \exp(-0.0262) = 12.8$
- 축산업 가족노동수요 = 235천명

⇒ 가족노동수요 = 1,377천명으로 전망됨

- 가족노동력 수요를 농가구원의 주종사자[1,299~1,319천명]만으로는 충족할 수 없고 농업 종사할 수 있는 모든 연령층의 가족 구성원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농업종사자[1,602~1,619천명] 개념으로 확충하지 않고서는 농업인력 부족 현상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일관성 유지에 한계가 있음.

- 24 일반적으로 Durbin-Watson 값이 1.5~2.5 사이에 있으면 독립적으로, 1 미만이거나 3 이상이면 자기상관이 있다고 판정함.

5. 농업인력 수급분석의 시사점

- 농업노동력의 수급문제는 노동생산성의 변화 정도에 따라 상이함. 즉 연구와 교육·훈련 분야 등의 투자로 얼마나 노동생산성을 높이냐에 따라 과부족이 달라짐.
- 2022년 기대되는 농업 총생산을 충족시키기 위해 향후 10년간의 농업 노동생산성의 변화가 6% (재배업 9.12%, 축산업 2.62%) 수준인 바, 기상이변에 따른 식량안보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거나, 우리 농식품 수출 확대를 현재보다 대폭 상향 조정 할 것이라면, 노동생산성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투자가 현재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앞선 장에서 농업교육 예산과 농업 노동생산성간의 관계를 탄력성 개념으로 분석한 결과, 2006~11년 동안 농업 노동생산성의 농업교육예산 탄력성은 0.167이었음. 농업교육예산 10%인상시 농업노동생산성 1.67% 상승을 기대한다는 것으로, 만약 목표 연도 생산성 수준이 현재보다 33%(연평균 3%) 수준까지 올리려 한다면 현재보다 200%의 예산 증액이 필요함.
 - 교육투자와 노동생산성의 관계는 좀 더 장기적인 투자가 있는 후에 관련변인들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있는 후에 보다 정밀한 분석이 가능함. 하지만, 과거 추진되어온 농업교육, 컨설팅, 학습조직 육성에 대한 투자 확대와 더불어 이런 노력들의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함을 시사함.
- 반면, 노동생산성의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규 농업인력의 유치 노력이 지속되어야함.
 - 이들의 성공적 정착을 도와주면서, 적절한 전문성 개발과 관련된 투자를 해야함.
 - 특히 이미 농업과 관련된 전문 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하는 농업계 학

생들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

- 또한 30~40대 귀농인력중 농업에 대한 전업 의지를 가진 인력에 대한 선별적 투자가 필요함: 최근의 영농분야 신규유입인력을 보면 2000년대 중반 1만명 규모에서 2009년 이후 급등, 40대 이하 1만명 규모의 유입 → 양보다는 질적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젊은 후계농들이 영농 현장에 정착할 수 있게 65세 이상 고령농의 경영승계, 농업법인을 통한 고용인력(중간 관리자)의 형태로 취업하는 방안도 활성화 될 필요가 있음.

표 4-7. 영농분야 신규유입 변화추이

단위: 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연령	20대 이하	1,548 (14.3)	1,288 (13.1)	1,007 (9.4)	2,946 (21.2)	1,411 (14.8)	4,145 (21.6)	6284 (18.3)
	30대	2,071 (19.1)	2,079 (21.1)	2,482 (23.2)	1,851 (13.3)	1,630 (17.1)	3,489 (18.2)	6076 (17.7)
	40대	1,411 (13.0)	2,352 (23.9)	2,363 (22.1)	1,622 (11.6)	1,724 (18.1)	2,723 (14.2)	5385 (15.7)
	50대	1,821 (16.8)	1,280 (13.0)	1,389 (13.0)	3,087 (22.2)	2,155 (22.6)	4,373 (22.7)	7638 (22.3)
	60대	2,440 (22.5)	2,185 (22.2)	1,692 (15.8)	3,098 (22.2)	1,713 (18.0)	3,594 (18.7)	6017 (17.5)
	70대 이상	1,551 (14.3)	655 (6.7)	1,774 (16.6)	1,318 (9.5)	898 (9.4)	901 (4.7)	2918 (8.5)
고용상 지위	경영주	4,159 (37.8)	5,038 (51.2)	4,486 (41.9)	7,013 (50.4)	5,091 (53.4)	9,437 (49.1)	13,973 (40.7)
	무급 가족노동자	3,592 (32.7)	3,706 (37.7)	4,549 (42.5)	5,493 (39.5)	4,158 (43.6)	7,609 (39.6)	11,198 (32.6)
	임금근로자	3,243 (29.5)	1,095 (11.1)	1,671 (15.6)	1,416 (10.2)	282 (3.0)	2,178 (11.3)	9,147 (26.7)
학력	중졸이하	6,581 (61.0)	3,118 (32.3)	4,672 (45.9)	6,677 (48.0)	3,526 (37.5)	6,545 (34.0)	12567 (36.6)
	고졸	2,503 (23.2)	4,969 (51.5)	3,865 (38.0)	4,066 (29.2)	3,944 (41.9)	7,468 (38.8)	12191 (35.5)
	대졸이상 (2-3년제)	1,711 (15.9)	1571 (16.2)	1637 (16.1)	3179 (21.8)	1946 (20.7)	5211 (27.1)	9559 (27.9)
계	10,842 (100.0)	9,839 (100.0)	10,706 (100.0)	13,922 (100.0)	9,531 (100.0)	19,225 (100.0)	34,318 (100.0)	

주1: 2004~2009년 영농분야 신규 유입자는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한국고용정보원 2004~2009) 자료 활용. 한국고용직업분류(노동부 2005)에 따라 곡식작물재배자, 채소 및 특용작물재배자, 과수작물재배자, 육묘·화훼작물재배자, 가축 사육자로 분류된 자중 영농경력 1년 미만자를 기준으로 하였음.

주2: 2010년 영농분야 신규 유입자는 지역별 고용조사(통계청 2010) 자료 활용. 한국표준직업분류(6차개정)에서 농림어업숙련노동자(대분류) 중에 농·축산숙련직 중분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010년 조사시점(9월) 이전 1년 이내(2009년 10월 ~ 2010년 9월)에 농업을 시작하였고, 전체 영농경력이 1년 미만인 사람.

자료: 고용노동부. 각년도.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

제 5 장

정예 농업인력 육성 중장기 로드맵

1.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예 농업인력 육성방향

1.1. 농업 환경변화와 중장기 농정의 방향²⁵

□ 농업의 환경변화

- WTO 체제 출범 이후 우리나라 농업생산은 빠르게 위축되기 시작하여 2000년대 들어서는 실질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냄.
 - 2000~2007년간 농업생산액은 명목으로 32~34조 원 규모의 ‘박스권’을 형성하다가 2008년부터 성장세를 보였으나, 2009~2011년에는 다시 41조 원 수준에 머물러 있음.
- 경지면적 감소는 지난 40년 동안 연평균 1.5만 ha 내외로 완만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거의 같은 추세로 진행될 것으로 보임.

²⁵ ‘김정호. 2012. 농정,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이슈 심층토론회(2012. 10. 25).’ 내용을 발췌한 것임

- 농가 수의 빠른 감소와 경지면적의 완만한 감소의 결과로 호당 경지면적은 2011년에 1.46ha에서 2030년에 1.7ha 정도로 증가 전망
 - * 3ha 이상 농가 수: 1990년 44천 호 → 2000년 85천 호 → 2011년 97천 호

- 한국 농업의 진화: 1960~80년대; 생산성 중시(신기술) ⇒ ②1980~2000년; 상품화 중시(신상품) ⇒ ③2000년 이후 부가가치 중시(신수요)
 - 앞으로 농업기술과 IT(정보통신), BT(바이오), ET(환경 또는 에너지), NT(나노), CT(문화), ST(우주) 등의 신기술이 융복합되어 산업화되는 경향이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확산될 전망

- 세계 식품시장 규모는 2010년에 약 5조 1천 억 달러로 추정되며, 연평균 약 9.4% 성장하여 2014년에 약 5조 8천 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세계 식품시장 규모는 각 국가 GDP의 10~12% 수준
 - * 세계 가공식품시장 규모는 2010년에 2.64조 달러

- 소비자들의 웰빙(Well-being) 의식,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고령화 추세 등에 따라 건강식 및 기능성 식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국내 유기가공식품은 매년 약 23%, 세계시장은 약 12% 성장 전망

- 미래 농업은 식품산업과의 연계만이 아니라 고부가가치 생산(품목)·저비용 구조로 전환, 신상품(기능성농산물/식품) 생산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임.
 - 후방 관련산업으로 종자(육종), 농기계·장비, 농자재, 농업정보 등의 발전 가능성이 크며, 전방 관련산업으로는 포장, 유통, 가공, 외식, 마케팅, 서비스업 등의 성장잠재력이 큼.
 - 미래 농업의 신성장동력으로 기후·환경산업, 농생명산업, 바이오 에너지 산업, 농촌문화·관광산업 등과 연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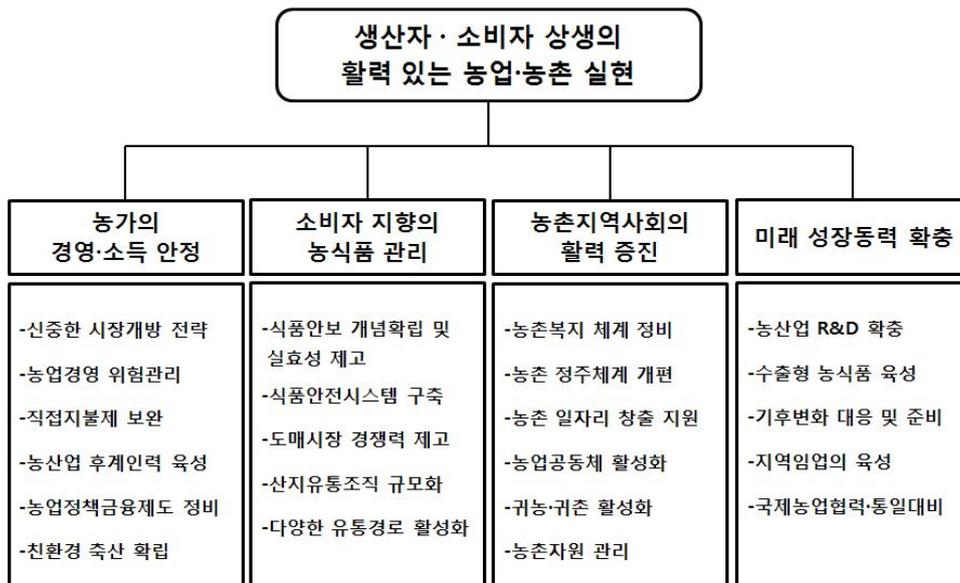
□ 중장기 농정기조의 방향

- 우리 농정은 그동안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농업·농촌이 미래를 향한 활력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향후 당분간은 성장과 안정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함.
 - 2000년대 들어 농업생산이 정체 내지 감소하면서 실질 농업성장률이 1% 남짓한 실정이므로, 중장기적으로 농업성장률이 2~3%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출농업 육성 등의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함.
 - * 향후 10년간 수출 증대(연평균 10%) 및 생산비 절감(연평균 4%)을 통해 농업 부가가치 성장률을 2% 수준으로 유지 가능
 - 농업경영의 안정적 발전이라는 방향에서 전업농의 자립경영(도시근로자 소득 수준과 균형)을 추구하는 동시에, 중소농에 대해서는 농외소득원 개발과 아울러 직접지불 등의 소득안전망을 확충함.
 - 농촌지역의 낙후된 생활환경과 복지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나가면서 고령화·다문화 시대에도 농촌공동체가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상생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아감.

- 중장기 농업·농촌의 비전을 ‘생산자·소비자 상생의 활력있는 농업·농촌 실현’으로 설정하고, 부문별 정책 목표를 ①농가의 경영·소득 안정, ②소비자 지향의 농식품 관리, ③농촌지역사회의 활력 증진, ④미래 성장동력 확충 등으로 구분하여 정책을 추진하도록 함.
 - 농업정책은 전업농을 중심으로 하는 경쟁력 제고 및 경영안정, 겸·부업 농을 대상으로 하는 농외소득 증대, 고령농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대책 등의 맞춤형 추진이 확립되어야 하며, 나아가 농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성장동력 확충이 필요함.
 - 농식품 정책은 소비자 지향의 ‘식품안보’(양적 확보+안전성 확보)를 기본으로 하며,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융합을 도모하면서 농식품산업을 수출산업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해야 함.

- 농촌 정책은 농촌 주민을 위한 ‘농산업·생활 공간’과 국민과 함께 하는 ‘도농교류·전원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방향에서 농정의 영역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함.
- 농정의 수단과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시장 기능과 공정한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개편이 필요함.
 - 정부의 재정투입자는 농업·농촌 분야의 SOC, R&D, 다원적 기능 확충, 사회복지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함.
 - 정책자금 지원은 농업경영체의 책임성 강화라는 방향에서 보조보다는 융자 방식으로, 지역(자치) 역량 강화라는 방향에서 형평적 지원보다는 지역 맞춤형으로 발전시켜야 함.
 - 시장기능의 원활한 작동 및 공정한 경쟁을 위한 규제완화 제도 정비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그림 5-1. 중장기 농정의 비전과 전략



자료: 김정호 등(2012)

- 농정의 추진체계는 지방자치제를 정착시키는 방향에서 ‘자치·자율 농정’에서 ‘협치 농정’으로 발전해야 함.
- 농정과 관련된 중앙부처의 연계 체제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재정 비해야 함.
 -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점차 이양하고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농정의 지방자치제를 발전시켜야 함.
 - * 중앙정부: 식량안보와 다원적 기능 유지, 농가소득 안정, 식품안전성 확보, 시장지향적 제도 정비, 농식품R&D 지원 등
 - * 지자체: 지역농업 진흥, 농촌지역 개발, 주민복지 등
 - 농정거버넌스를 발전시켜 중장기적으로 농업인과 관련 단체 등이 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협치 농정’이 정착되어야 함.

표 5-1. 중장기 농정의 패러다임 변화

구 분	기존 농정	미래 농정
정책 목표	농업생산성 → 경쟁력 제고	지속가능한 농산업 발전 + 농어촌 삶의질 향상
정책 대상	농민 중심 → 농업인, 농촌지역	농업경영체 + 식품산업(소비자) + 농촌공간(지역주민)
중점 시책	증산 + 가격안정 → 경쟁력 제고 + 수급안정	고부가가치농업, 안전한 농식품, 농촌어메니티 배양
추진 방식	평균적 지원 → 맞춤형 지원 보조 → 융자	농업인 및 지자체 역량 강화 (융자, 포괄보조 방식)
추진 체계	중앙정부 중심 → 지방자치제, 상향식 농정	농정거버넌스 강화 (자치 농정 → 협치 농정)

자료: 김정호 등(2012)

1.2. 정예 농업인력 육성 목표

- 농업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정예 농업인력 육성은 양질의 적정 인력 확보와 더불어 질적인 내실(노동생산성 증가, 지역활성화와 연계 등)을 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함.

□ 농업 노동생산성 증가

- 향후 10년간 현재(2011년) 노동생산성 연간 3% 제고
 - 이는 지난 10년(2010/2000년)간의 노동생산성 연간 성장율을 유지하는 수치임 (시간당 부가가치 2011년 15,000원 → 2022년 20,900천원)
 - 상위 20% 농업경영체의 노동생산성 증가는 연간 3.5% (2011년 30천원 → 2022년 44천원)
 - 일반 농가(하위 80%)의 노동생산성 증가는 연간 2.5% (2011년 10천원 → 2022년 13.2천원)

표 5-2. 농가의 노동 생산성 변화 추이

노동생산성(원/시간)				연평균 성장률(%)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1990/1980	2000/1990	2010/2000
1,220	4,932	11,778	15,698	14.0	8.7	2.9

자료: 통계청. 각년도. 농가경제조사

농업 노동생산성 연간 3% 증가시, 농산물 수출 130억불 달성 가능

- 지난 20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업 노동생산성의 농업생산액에 대한 탄력성은 1.06으로 농업 노동생산성이 향후 10년간 매년 3% 성장시, 기대할 수 있는 농업생산액은 56.4조²⁶(연간 성장률 2.83%) → 당초 2022년 추정 농업생산(47.6조: 한석호 등 2012)보다 8.8조의 추가 농업생산 가능

○ 농산물 수출확대 가능: 2011년 51.2억달러 + 80억달러 (1100원/달러 적용시)→ 2022년 130억달러 달성

표 5-3. 농업 노동생산성의 농업생산액에 대한 탄력성 분석

변인	계수	표준오차	t-값	유의도
상수	-1.611526	1.013671	-1.589792	0.1293
Ln(농업생산액)	1.056315	0.097623	10.82032	0.0000
전년도 값	0.371489	0.178317	2.083307	0.05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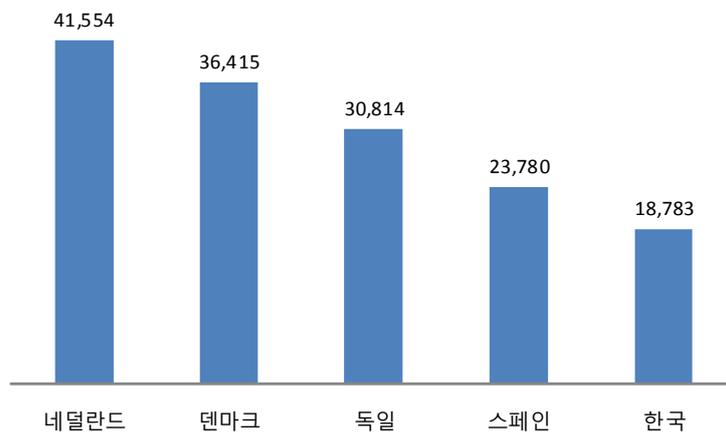
F-statistic 224.2624 Prob(F-statistic) 0.00

Durbin-Watson 값: 1.976

○ 2005년 현재 농업 노동생산성을 주요 국가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최고의 농업 노동 생산성을 나타내는 네덜란드의 45.2%, 독일의 61.0%, 그리고 스페인의 79.0% 수준임. 향후 연평균 3%(2022년/2005년) 농업 노동생산성 증가시 31,200불 수준으로 현재의 독일 수준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5-2. 농업 노동생산성 국제비교(2005)

단위: 명목 미달러 / 취업자1인당



*PPP 환율기준

자료: 이주량 등(2010)

26 $EXP\left(\frac{\text{향후 농업노동생산성연간성장률목표: } 3\%}{\text{농업 노동생산성의 농업생산액에 대한 탄력성: } 1.06} \times 11\text{년} - \text{Ln}(2011\text{년 농업생산액: } 41.4\text{조})\right)$

□ 지역 농업·농촌 활성화

- 지역 단위별로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에 의미가 있는 정예 농업인력 육성
- 정예 농업 생산법인 6,800개 육성 (← 2011년 3,400개)
 - 식량작물: 3~4개 마을당 1개, 읍면당 6~7개 → 전국 10,000개 (2022년까지는 5,000개 수준)
 - 시설원예·과수·특작: 읍면당 1개 → 1,400개
 - 축산: 시·군당 3개 → 400개
- 정예 전문 농업인 100,000명 육성 (← 마을별 3명 배치)
 - 6개월 이상의 장기 교육과정 이상 교육(농업마이스터대학, 예비 농업마이스터 교육과정) 이수자: 연간 10,000명

농업경영 법인화의 이점

- 농업경영 법인화의 이점으로는 ① 가계와 경영의 분리로 경영관리가 철저해지고, 경영자로서의 의식이 강화됨, ② 회계관리의 명확화 및 범정의무가 수반되므로 거래상의 신용과 이미지가 향상됨, ③ 고용보험·취업규칙·급여제도 등을 통해 농업종사자의 복리 후생이 개선됨, ④ 법인 구성원 중에서 후계자를 확보할 수 있고(경영체의 지속가능성 증진), 신규 취농 희망자가 취업하여 경영·기술을 습득할 수 있음(김수석 등 2007).
- 이밖에 개별단위 농가에서 해결하기 힘든 대규모 시설과 자본의 유치와 농용자재의 조달의 수월성 확보, 농산물 고급화 요구에 대한 대응, 다양한 사업분야로의 경영 다각화가 가능함(일본농업경영학회 편, 2011)
 - 농산물이나 농장자체를 활용한 전방산업으로의 다각화: 농산물 판매, 식품 가공, 체험형 농업 테마파크·관광농원·임대농장, 농가 민박, 농가 레스토랑 등
 - 조경, 건설, 컨설팅(농업경영, 마케팅), 정보처리 등 새로운 분야
→ 농업경영의 다각화는 바꾸어 말하면 다른 산업으로부터의 진입 가능성도 높아짐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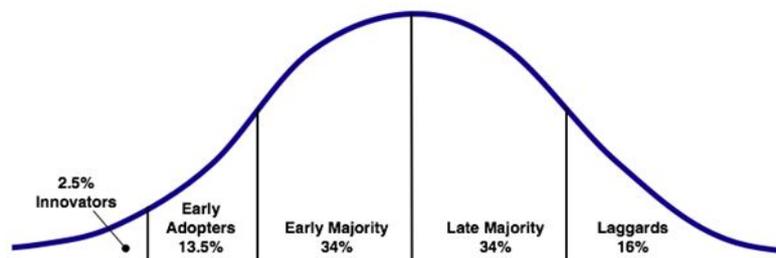
□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체의 의한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 전체 농업생산의 80%를 지속 가능성이 높은 농업경영체(정예 전문농업인, 정예 농업생산법인)에 의해 안정적으로 생산
 - 정예 농업인력들이 지역에서 경영·기술적으로 일반 농업인들을 선도하면서도, 안정적인 농업경영으로 국가적으로 필요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Rogers(1995)의 혁신확산 이론(Diffusion of Innovation)

- Rogers는 새로운 지식·기술을 포함한 혁신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수용자를 크게 혁신자(Innovator), 조기수용자(Early Adopter), 초기 다수수용자(Early Majority), 후기 다수수용자(Late Majority), 지각수용자(Laggard)가 혁신 수용자의 5 가지로 범주화가 가능하다고 하였음. 여기서, 혁신자와 조기수용자는 나머지 사람들에게 혁신이 전파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 상위 16%(Innovator 2.5% + Early Adopter 13.5%)
 - 중간 68%(Early Majority 34% + Late Majority 34%)
 - 하위 17%(Laggard 17%)

그림 5-3. Rogers의 Diffusion of Innov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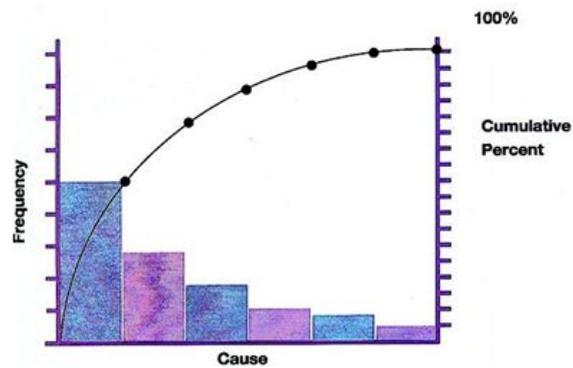


Pareto Principle²⁷

- 대부분 자연현상에서 나타나는 원리이면서, 경영의 가장 효율적인 상태(Pareto

Efficiency)의 분포로, 이 분포에서는 상위 20%가 전체의 80%를 설명

그림 5-4. 파레토 곡선



○ 적용 사례

- 통화한 사람 중 20%와의 통화시간이 총 통화시간의 80%를 차지
- 전체 주가상승률의 80%는 상승기간의 20%의 기간에서 발생
- 20%의 운전자가 전체 교통위반의 80% 정도를 차지
- 20%의 범죄자가 80%의 범죄를 저지름.

27 Joseph Moses Juran이 1941년 주장한 것으로 ‘이탈리아 인구의 20%가 이탈리아 전체 부의 80%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의 이름에서 따왔다(http://en.wikipedia.org/wiki/Joseph_M._Juran).

2.3. 정예 농업인력 적정소요 추정

□ 정예 농업인력의 개념

- 국제화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농업·농촌의 발전을 선도하는 인력
 - 직업으로서 농업을 선택할 수 있는 소득수준을 달성하고 있는 농업종사자. 즉, 기술·경영능력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조건(경영기반 또는 취업처)의 양자를 갖추어야 함
 - 농업정예인력은 전통적으로 개인 전업농을 지칭하였으나, 농업법인 취업자(부문 및 팀 책임자급)도 포함시킴
 - 과거의 농업자원(주로 토지)을 보유한 경영주 개념에서 인력(workforce) 개념으로 전환 (농가의 여성을 포함한 가족노동자, 그리고 농업법인체의 경영자 뿐 아니라 피고용자도 포함)
 - 과거 주로 농업생산에 한정하였던 개념에서 농산물 유통, 가공, 농기계, 자재, 농업정보와 경영 전문인력까지 포함

- 정예 농업인력의 기술·경영능력 수준
 - 일정한 수준과 단위의 전문 교육을 이수하여 현장에서 우수한 경영성과를 거두고 있는 수준 → 이후에 제시되는 표 5-16의 농업 NQF의 4단계 이상(농업분야 10년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 농업경영인 또는 대규모 농업법인의 중간 관리자나 중소규모 농업법인 CEO의 수준)
 - 농업분야 전문교육 120학점(1800시간) 이상 이수 (→ 과도기적으로 6개월 이상의 장기 교육프로그램 이수자로 설정 가능)
 - ※ 뉴질랜드 농업분야 NQF에서 Level 6(이 연구에서는 제시한 농업분야 NQF에서는 수준 4) Diploma(전문학사학위) 수준의 농업분야 전문교육이수시간은 1800시간(120학점*15시간)
 - 해당 품목에 대한 높은 수준의 실무 기술 보유

- 중소규모 법인내 중간관리자를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경영 역량
- 지역 수준에서 기술력 인정
- 인근 지역 농가에 대한 제한적 기술 전파
- 품목관련 전문 연구, 지역농정에 대한 참여
- 지역의 품목 학습조직 선도
- (중소규모 농업법인) CEO로서 농업법인의 성과를 책임
- (대규모 농업법인) CEO의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아 업무 수행
- 농가 경영에 있어 발생하는 예측불가능한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해결

○ 정예 농업인력의 소득 수준

- 경영규모(품목별 다양)와 생산성을 바탕으로 직업으로서 농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평균 이상(도시근로자 평균 이상)의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누릴 수 있는 수준
- 농업소득: 경종 분야 6천 만원, 시설 원예와 축산 분야 8천 만원 이상 ← 한석호 등(2012)이 전망한 2022년 농가평균 농외소득과 이전수입은 2,631만원 수준으로 이 정도 농업소득을 올리면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2022년 8,661만원)을 넘어설 수 있음.
- 정예 농업인력의 적정 노동생산성 (도시근로자 평균이상 소득을 위한)
 - 식량작물, 노지채소: 6천만원 / 1,358시간²⁸(2011년 3ha 이상 식량작물 주 생산자 가족노동시간) = 44,182시간/원
 - 시설원예, 축산: 8천만원 / 1,670시간(2011년 전문농 가족노동시간)=47,904원 /시간

28 식량작물과 노지채소는 생산의 계절성으로 축산과 시설원예에 비해 가용 노동시간이 적음. 현재 식량작물을 주로 생산하는 3ha 이상 농가의 노동투입시간[연간 1,358시간]을 유지하면서 생산성을 향상시킴

주요 품목의 농업 생산성

※ 현재 경종농업 평균 노동생산성 16,100원/시간

- 농촌진흥청 표준소득자료에서 계산한 값으로서 농가 평균보다는 높은 경향치임 (12개 작목 임의선정하여 최고값과 최저값 품목 제외)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에서의 노동생산성은 평균 농가 15천원/시간, 전문농가는 19천원/시간임

표 5-4. 주요 품목별 토지·노동생산성

	토지생산성(10a당)		노동생산성(시간당)	
	수량 (kg)	조수입 (천원)	수량 (kg)	소득 (천원)
쌀	504	911	32.4	14.6
고추	219	3,175	1.31	12.5
가을배추	6,626	2,132	88.6	16.8
가을무	5,182	1,774	77.4	14.7
딸기(반축성)	3,020	14,769	5.72	16.9
토마토(축성)	9,589	17,665	18.9	17.6
파프리카	11,541	40,284	17.8	24.6
국화	58,046	15,658	107	11.9
장미	110,674	30,443	152	15.6
사과	2,096	4,746	13.8	19.1
노지포도	1,624	5,185	7.6	16.0
노지감귤	3,210	2,897	28.6	17.3

* 축산 노동생산성: 2.9만원(비육한우 2만원, 젖소 3.4만원, 비육소 9.3만원, 육계 3.9만원)

□ 정예농업인력 소요 추정

- 앞서 제시된 정예농업인력 육성의 방향에 따라, 농업 노동생산성 연간 3% 성장에 따라 2022년경 기대되는 농업생산(56.4조원)의 80%(45.1조원)를 경

쟁력을 갖춘 정예 농업인력이 담당하도록 함.

- 이와 관련하여 정예 농업인력을 개별 전업농이 모두 감당하는 경우(시나리오1)와 농업법인의 일정부분 담당하는 경우(시나리오2)로 나누어 인력소요 추정을 하였음.
- (시나리오 1) 전업농에 의해 농업생산의 80%가 모두 생산될 경우→ 필요 인력: 13.2만명
 - 식량작물 순수익율 35%, 원예·특작 25%, 축산11%, 품목별 개인의 농업 소득을 앞서 설정하였듯이 식량작물 6천만원, 원예·특작과 축산은 8천만원으로 설정할 경우, 식량작물은 4.6만명, 원예·특작은 6.2만명, 축산은 2.4만명 필요

표 5-5. 농업생산 80%가 정예 농업인력(전문농)에 의해 담당시 인력 수요

	농업 생산액 (조)	정예인력 생산액 (조)	순 수익률 (%)	추정 소득액 (조)	추정 수요인력 (만명)	비고
식량작물	9.84	7.87	35	2.75	4.59	6천만원/명
원예·특작	24.76	19.81	25	4.95	6.19	8천만원/명
축산	21.80	17.44	11	1.92	2.40	8천만원/명
계	56.40	45.12	21	9.48	13.18	

* 원예와 축산은 자본투하가 많고, 생산외부문 고용과 임시고용 비율이 높아 수요인력당 소득액을 식량작물의 1.33배 비율 적용

- (시나리오 2) 전업농과 농업법인에 의한 적정 생산 점유 목표 설정
 - 이 연구에서는 농업교육에 있어 농업법인의 역할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는바, 시나리오 2에서는 전업농과 농업법인의 적정 생산 점유라는 가정하에 목표를 설정하였음. 이후 농업교육의 구체적인 과제별 목표 설계는 이에 근거하여 수행되었음.

- 지역과 품목 여건에 따라 다를 것이나, 일본의 선행 사례(지역 농업계획과의 연계속에 최근 식량작물 분야의 법인화 가속)을 고려하여 표 5-6과 같이 품목별 정예 농업인력 생산량 중에 농업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식량작물 60%, 원예·특작 20%, 축산 20%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계산하였음.

일본의 농업법인 경영체수 변화

- 일본은 마을영농조직 등 역사적으로 조직경영체가 상당수 존재해 왔는데, 여기에는 법인과 임의조직이 있음. 1992년 신정책 이후 정부는 조직경영체의 법인화를 유도하였으며, 최근에는 가족경영의 법인화도 추진 중.
 - 조직경영체 수는 크게 변화하지 않음: 30천('90) → 27천(2000) → 28천('05) → 30천('10)
 - 하지만 농업법인 수는 꾸준히 증가: 3,816('90) → 5,889(2000) → 7,383('05) → 10,519('07)
- 농업법인의 경우 과거 축산부문이 가장 많으나 미맥부문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 수도작 5,210(31%), 맥류·식량작물·공예작물 2,014(12%), 원예작물 4,230(25%), 축산 3,494(20%), 기타
 - 주로 쌀과 콩 등 식량생산을 담당하는 마을영농조직은 숫자와 농지점유비율(경영면적과 농작업수탁면적의 합)이 확대되고 있음: 2005년 10,063개 353천ha에서 2010년 13,577개 495천ha
 - * 일본의 논면적 249만ha의 20%

- 농업 생산법인 육성의 양적 목표(품목별)
 - 식량작물 부문은 생산에서 현재 법인화 비중이 낮으나, 앞으로 후계인력의 부족 속에서 (한계농지까지 포함한) 농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이 부문 법인화의 필요성이 매우 큼. 담당면적이 넓고 품목도 다양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인화 대상 지역은 1개에서 수개 마을 정도로 작은 것이 바람직함. 이에 따라 3개 마을에 1개 설립을 목표(총 1만개)로 하되 2022년까지 50%인 5,000개 목표로 설정.

※ 2010년 농가 10호 이상 행정리 수 31,928개

※ 법인 총 생산액 4.72조원, 법인당 경영면적 100ha, 생산액 9.44억원, 5~6명 상시고용(농업소득 6천만원 수준).

- 시설원예와 과수, 특작, 축산 부문은 품목과 지역여건에 따라 사업부문과 포괄범위 및 규모가 달라질 것임. 시설원예와 축산은 품질차별화가 크고 세심한 노동이 필요하여 개별농가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 다만, 기술과 경영면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게 자본과 기술력을 갖춘 법인의 생산참여도 필요함. 이 부문에서는 생산법인도 품목별로 비교적 넓은 지역(읍면 또는 군)을 대상으로 할 수 있음

- 생산법인: 원예특작 읍면당 1개(1,414개). 축산은 시군에 3개((51개 도 농통합시, 87개 군, 제주도 2개 행정시, 총 140개 농촌 시군→ 420개) 씩 총 1800여개

※ 원예특작: 법인 총 생산액 3.964조, 법인당 28.3억원, 상시고용 8~9명

※ 축산부문: 법인 생산액 3.49조원, 법인당 87.2억원, 상시고용 12명

- 농업생산법인에서 필요한 생산외 전문인력: 15,400명(현재 공급인원 파악은 어려움)

- 기획, 회계: 법인당 1명, 6,800명

- 농기계, 설비: 법인당 1명, 6,800명

- 마케팅 인력: 원예, 축산 부문 각 1명, 1,800명

⇒ 농업법인 고용인력: 60.1천명 (생산분야 44.7천명+생산외 15.4천명)

표 5-6. 농업법인에 의한 생산점유 고려에 따른 전업농, 법인취업자 수요

	전문농 수요 (만호)	생산법인 수요 (목표)	법인 생산비율 (%)	법인 총생산 (조)	추정 총소득 (조)	법인당 생산액 (억)	법인 취업자 (천명)	법인당 취업자 (명)
식량작물	2.3	5,000	60	4.72	1.65	9.44	27.55	5.5
원예·특작	5.5	1,400	20	3.96	0.99	28.30	12.38	8.8
축산	2.2	400	20	3.49	0.38	87.22	4.80	12.0
계	10.0	6,800	34	12.17	2.56	124.96	44.72	6.6

- 전체 농업생산의 80%중에서 농업법인에 의한 생산 비율을 식량작물은 60%, 원예특작과 축산은 20%로 설정할 경우
 - 농업생산법인 6,800개, 법인취업자 4.8만명, 전업농은 10만호 필요
 - 농업생산법인 생산분야 취업자중 1/2정도를 정예 인력으로 상정시, 12.4만명
 - 한 세대(30년)의 인력 순환 주기 고려시 **매년 4,100여명(=12.4만명 ÷ 30년)의 정예 신규인력 유입 필요²⁹**

우리나라 농업법인 실태

- 2011년 현재 운영중인 농업법인은 10,871개로 이중 영농조합법인이 8,727개, 농업회사법인이 2,144개임.
 - 이중 출자자공동운영이 47.5%, 대표단독경영이 41.7%, 사실상 법인이라고 하기 어려운 출자자개별경영이 10.8%임.

표 5-7. 우리나라 농업법인 현황 (사업분야별)

단위: 개(%)

전체	농업생산	농업생산 이외				
		소계	가공판매	유통판매	농업서비스	기타사업
9,695	3,401	6,294	1,797	2,385	636	1,476
(100.0)	(35.1)	(64.9)	(18.5)	(24.6)	(6.6)	(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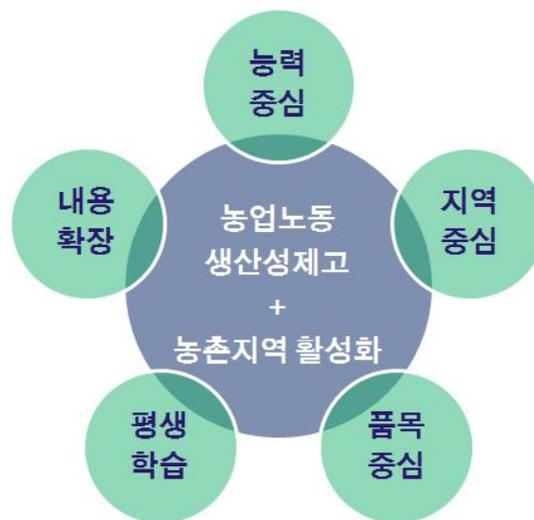
- 사업유형별 구성비를 보면, 농업생산을 주로 하는 법인이 35.1%이며, 유통판매는 24.6%, 가공판매는 18.5%로 나타남
- 농업법인 종사자수는 66,907명으로 농림업인구의 4.3%, 법인당 종사자수는 6.9명
- 상시근로자 규모별 분포를 보면, 「4인 이하」법인이 66.5%이며, 「5~9인」법인은 23.2%로 나타남
- 농업법인의 경지면적은 우리나라 전체 경지면적(1,698천 ha)의 2.0% 차지, 농업법인당 경지면적은 10.5ha
- 생산액은 3.78조(41조 중 9.2%)로 재배업 1.41조(26조 중 5.4%차지), 축산업 2.37조(15조 중 15.8%차지)

²⁹ 이와 같은 정예 신규인력 유입 규모는, 이후 농업교육 추진과제에서 제시하는 농업계 학생 연간 2,300명, 40대 이하 대졸 귀농자 2,000명의 설정 근거가 됨.

2. 정예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농업교육 기본방향

- 앞으로의 농업교육은 능력중심, 지역중심, 품목중심의 농업교육 그리고, 농업교육 내용의 확장, 평생학습의 관점에서의 접근 등을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함.

그림 5-4. 농업교육의 기본방향



□ 학문중심, 강사중심 → 능력중심 교육

- 기존의 농업교육이 지나치게 강사 중심, 학문 중심, 일반 품목 교육이 이뤄짐. 그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간 단절, 내용 중복, 심화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는 한계를 나타냄.
- 능력중심 교육을 통해 교육과정의 슬림화와 더불어 효율화가 촉진되어야 함. 이를 위해 농업분야 품목별 능력표준과 자격체계를 개발하고, 농업관련

각종 학습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연계시켜야 함.

□ 중앙(수도권)집중 → 지역중심 교육

- 농업교육에 대한 정부차원의 투자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대부분 중앙정부 주도에 의한 것으로, 이는 결국 수도권 중심(중앙집중)의 교육이었음. 이로 인해 중앙과 지역간의 농업교육 역량 차이는 점차 가속되고 있음.
- 지역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교육과 더불어 지역별 농업교육 관련 인적·물적자원의 연계가 필요함. 이를 위해 지역 거점별 농업인력육성 관련 중간 지원조직 육성을 육성하고, 농업인력육성 정책과 연계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이 되어야 함.

□ 품목일반 → 품목중심 교육

- 품목별 생산구조(규모화, 조직화) 뿐 아니라 인력구조(역량, 연령)가 다르기 때문에 품목별 인력육성 및 농업교육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그동안 농업 인력육성이 품목별로 다른 현장의 요구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농림수산식품부 각 실국의 교육 또는 인력육성 관련 사업과 경영인력과 사업과의 연계성이 부족하였음.
- 영농 현장에서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품목별 활동과 농업교육의 품목별 접근을 연계할 필요가 있음
 - 작목반, 품목별 연구회 등 품목중심 농업인 학습조직의 연계 강화
 - 농업인 대학, 농업 마이스터 대학 등 장기 교육프로그램의 품목 중심으로 운영의 연계
 - 농수식품법인연합회의 경우 9개 품목위원회(과일/과채/양념채소/엽근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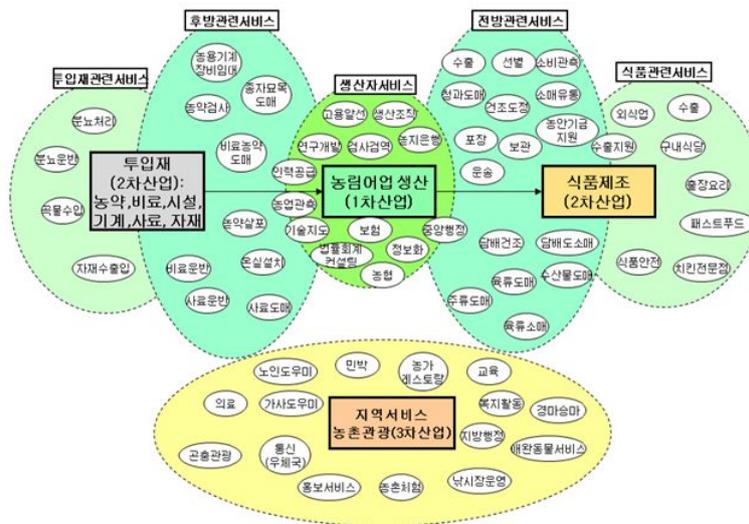
소/버섯특작/가공식품/축산/양곡) 운영 활성화

- 27개 품목단체별 교육 활성화
- 품목별 전문가 조직(품목실습 전문교수, 농촌진흥기관 전문지도연구회, 농업계학교 품목별 교수·교사 요원 등) 활성화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품목별 생산량/가격 전망 정보와 교육활동의 연계

□ 농업교육 내용의 확장

- 생산중심의 농업에서 벗어나 농식품복합체(Agri-Food Complex)의 관점에서 농업교육의 접근이 이뤄져야 함.
 - 농식품복합체란 안전하고 고품질의 안정적인 식품의 생산과 유통 (production & distribution of sufficient food that is safe and of good quality)과 관련된 시스템을 가리키는 것으로, 농업 생산이외에 이를 지원하는 전방산업과 후방산업 그리고 농촌의 일자리 (마을개발, 농촌관광, 농관련 창업 분야 등)가 모두 융합된 것임.

그림 5-5. 농업 생산 및 농업 전 후방 그리고 농촌의 일자리



자료: 김병률 등(2010)

- 이에 따라 농업교육의 내용도 전문 기술교육, 최근에 강조되기 시작한 경영 교육 등 농업 생산을 중심으로 한 내용에서 벗어나, 환경과 지속가능 발전(개발), 협동조합, 사회적 책임, 농촌 개발 등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Mulder 2010)

□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농업교육 접근

-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농업교육의 영역을 교육 주체, 교육 내용, 성장 단계에 따라 다양하게 분화하고, 현재의 문제점을 보다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더 투자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를 찾아내어 보다 균형있고 체계적인 농업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할 것임.
 - 그동안 우리 농업교육은 교육내용 측면에서는 너무 돈버는 농업, 농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에만 집중되었고, 교육주체 측면에서는 사회교육 위주이고, 교육대상(성장단계) 측면에서는 정착 단계 교육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음.

그림 5-6. 농업교육의 영역 체계화



- 교양교육과 전문교육이 상호 균형되게 학습되도록 사회 교육기관과 학교 교육기관이 유기적으로 역할 분담을 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농업교육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전 생애에 걸친 성장 단계(잠재 단계 → 예비 단계 → 신규 진입 단계 → 정착 단계 → 은퇴 단계)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단계별 교육을 실시해야 함.
- 잠재 단계는 유·초·중등학생 그리고 농업관련 단체 종사자, 교사를 포함한 일반시민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들에게는 농업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 농업·농촌에 대한 동경과 우호적 태도 형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
 - 예비(준비) 단계는 농업 관련 교육을 받는 농업계 학교의 재학생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들에게는 농업과학에 대한 종합적 이해, 농업분야의 직업기초능력 함양 교육을 실시함. 또한 본격적인 영농을 준비하는 사람, 귀농을 준비하는 사회인, 농업법인체의 직원들에게는 농업에 대한 사명감과 철학, 농업경영인으로서의 기본역량, 민주사회 시민으로서의 일반 교양을 교육함.
 - 신규 진입 단계는 영농경력 10년 이하 농업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들에게는 성공적 정착에 필요한 실용적 영농 역량, 농촌 지역사회 적응 역량을 교육
 - 성장 발전(정착) 단계는 성공한 농업 CEO를 포함한 중견의 영농경력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들에게는 전문농업경영인, CEO로서의 전문역량,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의 후진 양성 관련 기술 개발, 농촌 지역사회 리더로서의 교양, 인적 네트워크 역량을 강화
 - 은퇴 단계는 고령자 또는 육체·정신·경제적으로 경영능력에 제한이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들에게는 합리적 노후설계, 노년기 생산적 활동(지역사회 개발, 사회봉사) 종사에 필요한 역량을 교육

표 5-8. 농업인력육성의 단계별 목표와 관련 사업

	잠재 단계	예비 단계	진입 단계	정착 단계	은퇴 단계
육성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원 ~ 고등 학생 일반 시민(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계 학생 귀농준비 사회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농 영농경력 5년 미만자(50세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업농, 준전업농, 중소농 영농경력 3년 이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 또는 육체·정신·경제적으로 농가 경영에 제한이 있는 자 65세 이상 소규모 농업인
육성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 농업·농촌 정책에 대한 지지 미래 잠재적 농업 인력으로서 가능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 과학에 대한 종합적 이해 농업분야 직업기초능력 함양 농업 분야로의 진로 계획 및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공적 정착에 필요한 실용적 농업 역량 농업에 대한 사명감과 철학 경영인으로서의 기본역량 농촌 지역사회 적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통해 전문농업경영인으로서 역량 구비 안정적 농가 경영 규모의 지속적 확대 도시가구 이상의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리적 노후설계 노년기 생산적 활동(지역사회 개발, 사회봉사)에 필요한 역량 개발 후계세대에 경영이양
기존 관련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자·시민 대상 교육 귀농·귀촌 성공 사례/우수농업인 발굴·홍보 농업 희망찾기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성화농고 농대영농정착 교육 과정 농업인턴제 한국농수산대학 귀농·귀촌종합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후견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농업마이스터대학 전업농사업 농업경영컨설팅사업 농업인 교육·훈련 신지식농업인 	
신규 추진 필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산어촌 유학 농직업탐구 프로그램 식습관 교육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계 학교에 대한 투자 강화 비농업계 학생 유입 프로그램 	지역 농업인력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농승계활성화 사업
주요 관련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기술센터 농업계 학교(농고, 농대) 농업연수원 농촌정보문화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농어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수산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계학교 농협 농민단체, 품목단체 민간컨설팅회사

- 한편, 학습의 관점에서 보다 포괄적인 전문성 개발이 지원되어야 함. 본인이 가장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식대로 원하는 내용이 학습될 때, 학습의 결과가 현장에서 가장 실천력이 높음. 따라서 집체식 교육·훈련 이외에 다양한 방식의 전문성 개발 수단(학습조직, 컨설팅, 개인학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영농현장의 생산자 조직(작목반, 농업법인, 마을공동체 등) 중심의 학습 조직을 통한 교육 강화
 - 전문가 컨설팅(멘토링, 코칭, 인턴십, 도제)을 통한 학습 지원
 - 이밖에 각종 소식지(행사 및 정보 출처 제공), 신문, 잡지, 인터넷 그리고 소셜네트워크(SNS), 스마트폰 앱(Application) 등을 통한 정보 제공
 - 온라인 교육 콘텐츠와 오프라인 교육의 체계적 융합(Blended Learning) 프로그램 운영 강화

3. 농업교육 중점 추진과제와 중장기 로드맵

- 농업인력수급 전망(4장)을 통해 이 연구에서 설정한 목표 연도(2022년)에 노동생산성 수준을 연평균 3%(현재보다 33% 수준) 성장시키려면, 농업교육 예산은 현재 수준보다 200%의 예산 증액이 필요함.
- 현재보다 200% 증액되는 농업교육 예산의 투입은 앞서 제시한 기본방향에 따라 크게 잠재농업인력 육성, 농업계 학교교육 강화, 농업인 교육 프로그램 개선, 농업 학습조직 및 농업법인 활성화, 농업교육 시스템 개선 등의 다섯 개 분야에 나누어 투자될 필요가 있음. 분야별 단기 또는 중장기 세부 추진과제³⁰를 정리하면 <표 5-9>와 같음.

30 해당 과제의 단기적 추진, 중장기적 추진은 관련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표 5-9. 정예 농업인력육성을 위한 중장기 농업교육과제 추진 로드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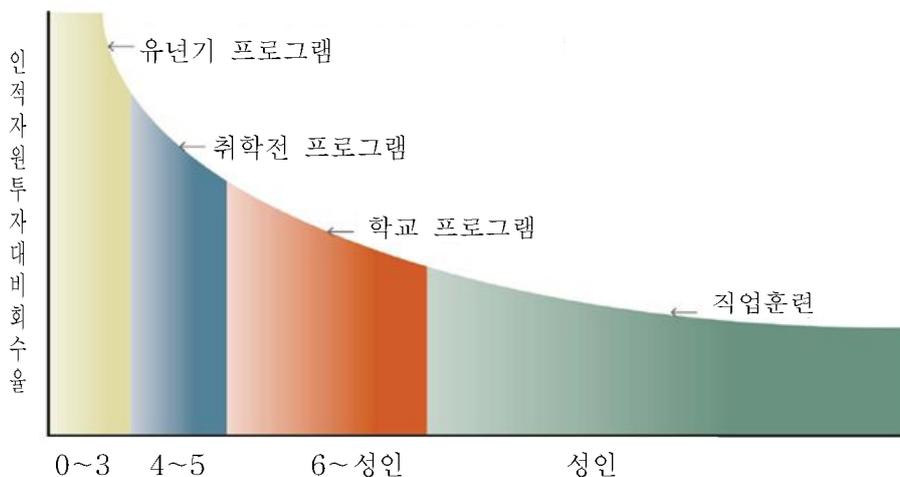
과제		단기 (2013~2017년)	중장기 (2018~2022년)
잠재 농업인력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농촌·식품 관련 소양 교육 콘텐츠 질 개선 및 유관기관 네트워킹 초·중·고 교사 연구회 운영 농업·농촌·식품 소양 개선을 교과서 / 교재 개발 보급 교원 연수 / 교대 예비교사 농식품 연수 프로그램 지원 시범학교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국민 농식품 소양에 대한 정기 조사 초·중등 교육과정 정책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농업계 학교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 중학생, 농고 유치사업 추진 도별 1개씩 거점농고 지정·육성 농대 영농중심 교육과정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단위 농업진로(취업) 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농업인 교육 개선	장기 교육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계농업경영인을 위한 장기 교육과정 운영 농업인 대학 프로그램 귀농인 과정 보장 및 프로그램 표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법인 중간관리자를 위한 장기 프로그램 개설
	농업 교육 내용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문학 / 지역개발 내용 강화 경영회계 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체 위기관리 교육 강화
학습조직 / 농업법인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농업인 학습조직 발굴 지원(자생적 학습조직 사업 활성화) 전문가 학습조직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품목별 학습조직 육성 농업법인을 통한 신규유업인력 학습/정착 지원
농업 교육 시스템	능력중심 교육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분야 교육 학습계좌제 실시 품목별 NCS 개발 농업 분야별 NQF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분야 종사를 위한 필수 자격제 실시
	농산업 전후방 인력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 전·후방산업 인력수급전망 정보 체계 정립 농업 교육·연구 분야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 농업계 학교 농업 전·후방산업 인력유입 프로그램 운영 	
	농업교육 가버넌스 / 정책추진 체계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교육심의회 실효성 확보 시군 지역농업교육계획 수립 지역농업인력육성종합센터 운영 농업교육 사업 성과진단 체제 구축 	

3.1. 잠재 농업인력 육성

- 농업교육에 대한 투자는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보다 장기적·거시적으로 접근해야 함.
 - 현재 현장 농업인 중심에서 벗어나 유·초·중등 단계 그리고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잠재 농업인력육성 차원의 투자를 지금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인력육성과 관련한 투자는 대상 연령이 낮을수록 효과가 더 크기 마련임 (Heckman 2008). 최근 비농업분야에서는 자기 분야의 우호세력을 마련하기 위해 유·초·중등 교육에 보다 많은 내용을 담으려 노력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와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교육학회, 교총,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등 4개 교육단체,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한국개발원,

그림 5-7.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회수율(Heckman 2008)



한국소비자원 등 경제 관련 총 23개 정부부처 및 기관·단체 등이 참여하여 학교 안팎의 대국민 경제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8년 12월 (사)한국경제교육협회를 구성하였음. 이를 통해 경제교육법 제정, 지역단위 경제교육, 대국민 경제인식 관련 실태조사, 경제교육 전문가 양성, 교사들의 경제관련 연수 지원, 다양한 경제관련 교과서 개발·보급 등 매우 적극적으로 학교 교육에 개입하고 있음. 효율성, 효과성을 중시하는 이들이 유아, 청소년 교육에 매진을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함.

-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위한 제반 환경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인식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농업교육 사업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종사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보다 어린 나이의 학생들에게까지 대상을 넓혀야 함.

- 농업 잠재인력 육성은 농업에 대한 대국민 소양 제고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미래의 잠재 농업인적자원의 확보, 농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더라도 농정의 든든한 정책 후원자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
- 농업·농촌에 대한 기존의 소극적, 수동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농업이 우리의 식생활과 삶의 질을 책임지는 중요한 산업이며, IT·BT 등을 활용하는 미래 유망 산업일 뿐만 아니라, 농촌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라는 적극적인 이미지를 제시해 줄 필요가 있음.

□ 기대 실적과 성과

○ 초·중·고·대학의 일반 학생 그리고 일반 시민 중에 잠재 농업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성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

- 농업·농촌·식품 산업의 중요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
- 농업·농촌·식품 관련 정책에 대한 대국민 지지
- 농업·농촌·식품 관련 직업에 대한 진로 선택자 증가 → 농업계학교의 우수 입학생 확보, 준비된 신규 취농자 확보

□ 단기 추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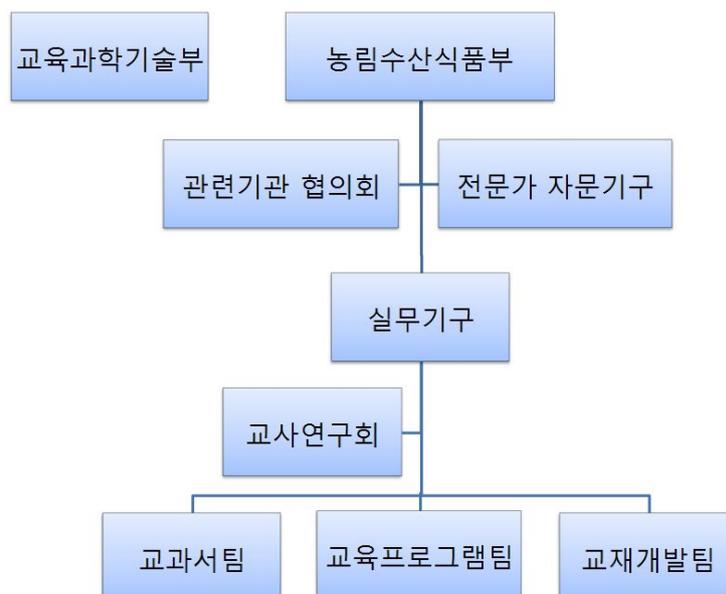
- ‘잠재 농업인력 육성’과 관련하여 현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가치확산본부가 하고 있는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여기에서는 농식품 관련 교육 및 홍보의 기본 방향(비전)을 설정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내 실과, 산하 기관 등에서 다양하게 진행되는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들은 당장 단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농식품 관련기관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각종 교육·홍보 활동의 전문성 강화(교재 개발, 프로그램 개발, 강사 지원 등) 및 이들 기관의 기존 교육·홍보 콘텐츠의 질 관리(정확성, 충실성 보완)를 위한 활동
 - 농림수산식품부 관련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 그리고 각종 민간단체의 농식품 관련 교육·홍보 활동 간의 네트워킹을 도모하여 상호 벤치마킹 기회 제공과 더불어 상호 중복적인 활동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 교사 연구회 운영: 현장의 초·중·고 교사 중에 농식품 교육에 관심 있는 교사 중심으로 연구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지원하여 교사들이 교과서 및 각종 교육관련 활동에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교대나 사대의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농업·농촌 관련 동아리 활동 또는 방학동안의 체계적 연수 지원
 - 농업·농촌·식품 산업에 대한 대국민 소양 개선을 위한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와 다양한 교재를 개발 보급(기존에 개발된 자료에 대한 체계적 정리 포함)
 - 농업·농촌·식품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더불어, 관련 강사 자원을 확보하여, 초·중·고 교육 현장(창의적 재량활동 활용) 및 각종 교사 및 일반인 대상 연수 현장(각종 대학, 평생교육기관, 연수원)에서 농식품 관련 프로그램 요구시 운영을 부분적으로 지원 또는 프로그램 일체(세부 프로그램 내용, 운영 강사)를 패키지로 지원

- 이상의 농업·농촌·식품 교육과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시범학교 운영

□ 중장기 추진과제

- 잠재 농업인력육성과 관련하여 앞선 과제들의 추진 정도에 대해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그 일환으로 농업·농촌·식품 소양과 관련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농업·농촌·식품과 관련한 시범학교 운영 결과 확인 및 농식품 관련 교과서에 내용에 대하여 학생들의 인식, 그리고 이를 가르치는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나아가 전 국민의 소양을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농식품 교육 활동 그리고 모니터링 활동의 성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와 연계하여 초·중등 교육과정 정책에 대한 정기적인

그림 5-8. 농식품 관련 내용 모니터링 체계(안)



자료: 최경환, 마상진 (2010)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교사 연구회 및 교대/사대 예비 교사들의 참여 활용(최경환·마상진, 2010)

미국의 AITC(Agriculture in the Classroom)

- 국가의 입법가들 대다수가 비농업 지역 출신이고, 농업과 직접적 관계를 가진 경우가 점차 드물어지며, 생산 중심의 식량 및 농업 정책에서 소비자 중심 정책으로의 초점 이동이 한 국가의 식량 수급 체계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 인식 하에 1980년대 들어 미국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대국민 농업, 환경, 식품 관련 이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인 AITC가 추진됨
- AITC는 연방정부 차원의 조직과 주정부 차원의 조직으로 구성됨. 미국 농업부의 국가 AITC(national AITC)의 직원은 팀 리더, 국가 프로그램 리더, 프로그램 전문가, 프로그램 보조자로 구성되며, 이들의 활동결과는 농업연구지도청(Cooperative State Research, Education and Extension Service:USDA CSREES)의 과학·교육자원개발 부국장에게 보고됨. 각 주의 농업 교육은 지역의 요구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일부 주에서는 자원봉사 네트워크에 의해 교사 교육 및 교재 배분이 이뤄지고, 몇몇 주들은 교육부, 또는 농업부 아니면 다른 정부기관을 통해 제공하기도 하며, 어떤 주는 농업 단체 또는 품목 단체를 통해서 제공함.
- AITC를 통해 이루어지는 주요 활동(일리노이주 AITC 사례).
 - 교재 및 교안 제공: 교사들을 위해 교과 운영과 관련하여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재와 교안 제공
 - Acres of Agventures: 지역 내 교사들이 농업 내용을 교과에 잘 접목시킨 우수 사례를 공유
 - Adopt a Classroom: 지역 농민과의 연계를 통해 학생들이 농업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농민이 학생들에게 글이나 사진을 통해, 또는 농장 방문을 통해 농업과 관련한 궁금증 해소
 - Grant: 농업교육 관련 교과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교사에게 재정적 지원(프로젝트당 USD 250)을 해주며, 특히 신규 교사들에게 많은 혜택을 줌
 - Teacher of the Year: 매년 농업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한 교사를 선정하여 시상
 - Preservice Teacher Workshop: 사범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한 순회 위

크숍을 개최하고 있으며, 농업과 관련한 교안 작성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자료 (PreService Teacher Packet)를 무료로 제공

- Agricultural Awareness Conference: 매년 주지역 내의 농산업체와 교육자들이 모여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농업과 교육에 대하여 의견을 서로 공유하는 대회를 개최
- Summer Agricultural Institute: 여름 방학을 이용하여 교사들이 농업 관련 내용을 자신들의 교과에서 효과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

뉴질랜드 Meat & Wool NZ의 Outstanding in the Field

- Meat & Wool NZ는 식육과 양모 산업 발전을 위해 생산자들이 설립한 기구로서, 국내 및 국제적으로 뉴질랜드 식육과 양모에 대한 선호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교재개발)을 지원함.
- Meat & Wool NZ는 농업계 신규 인력 유입 촉진을 위해 "Outstanding in the Field"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 이 프로그램에서는 고교생, 또는 젊은 사람들에게 축산 분야의 생산(hands on), 경영 (business), 과학(science) 분야에 다양한 직업을 소개하는 활동을 함.
 - 고등학교 2~3학년 학생들이 농업관련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Experience Days 개최, Massey나 Lincoln의 대학교와 연합하여 교사들이나 진로 상담자,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Career Workshop 활동, 산업체와 교사들간의 상호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Teacher Field Days, 학생이나 교사들이 인근 농업 산업체나 농장에 방문하도록 해주는 Road Shows, 학생들에게 Role Model로 작용할 수 있는 우수 농업인이나 산업체, 전문가 등이 학교를 방문하여 홍보활동을 하는 School Visit 등의 행사가 있음.
 - * 한편 낙농 단체인 Dairy NZ에서는 이와 비슷한 활동으로 "Windows to Dairy"라는 활동을 함.

3.2. 농업계 학교교육 강화

- 농업계 학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이를 통해 안정된 신규 농업인력 확보 노력이 필요함.
 - 농업인력육성의 출발은 우선 기본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신규 인력 유입의 안정적 확보에 있는데, 농업계 학교는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설립된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직업 학교라 할 수 있음.
 - 최근 농업계 교육기관들이 비농업분야로 많이 이탈하고 있지만, 아직 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학교 교육기관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 각 농업계 학교별로 농업 분야별 교육전담 인력(교사, 교수)과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음. 더 여건이 나빠지기 전에 농업계 학교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농업계 학교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함.

농업계 학교 현황

농업계 고등학교

- 농업계 고등학교는 일제시대 4년제 농업학교, 농림학교 등이 해방후 6년제 농업중학교로 바뀐 후, 1951년 6-3-3-4제 확립과 동시에 고등학교에서 전 교과목의 30%이상을 농업과목으로 하는 학교에 대하여 농업고등학교 명칭을 붙이기 시작한데서 출발.
 - 1969년 133개까지 이를 정도로 많이 있었지만, 정부가 1972년 부실 농업계 고등학교를 정비한다는 명목으로 43개의 농업 고등학교를 인문고, 공고, 실고로 전환함으로써 농고의 수가 줄기 시작함. 1980년에 75개로 잠시 늘어나기는 했지만 이후 계속 감소
 - UR 협상이후 농업시장 개방, 그리고 부모의 자녀에 대학 진학 기대로 인하여 농업계 고등학교 진학은 의미를 상실하였으며, 거기에 실업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 등이 겹쳐 농업계 고등학교는 학생 확보를 위해 변신을 시도. 1995년 경부터 본격적인 학과 개편 진행. 생산농업과 관련된 학과는 급속히 줄면서, 농업관련 학과 및 명칭상으로 농업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학과들이 개설되기 시작.
- 2010년 현재 농업계 고등학교³¹⁾는 전국에 70여개가 존재하는데 이중 농업계 학과를 위주

로 개설하고 있는 순수 농고는 29개이고, 이들 학교를 통해 매년 5,000여명의 농업인력이 배출됨.

농업계 대학

- 농업계 전문대학은 실업고등전문학교 설치계획(1962년)에 따 농고에서 5년제 농업고등 전문학교로 바뀐 뒤, 1970년을 전후하여 2년제 농업전문학교로 개편된 데에서 시작 - 이후 농업전문대학(1979년)으로 바뀌고, 상당수가 산업대학교로 승격. 현재 남아 있는 농업계 전문대학은 1970년 후반 이후부터 생겨난 대학들.
- 140여개 전국 전문대학 중 농학, 원예, 축산 등 전통적인 농업 생산분야 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학교는 한국농수산대학,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천안연암대학 등 10여개 미만. 농업계 전문대학의 입학정원은 3,000여명이지만, 농업 생산 관련 학과로 한정하였을 경우 총 1,000명 내외임.
- 농업계 4년제 대학은 해방전 농업전문학교, 농림전문학교가 해방이후 국립대학의 농과대학으로 개편되거나³², 해방이후 생겨난 초급농과대학이 국립대학의 단과대학으로 편입된 데에서 출발³³.
 - 1990년대 중반 ‘학과통합으로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을 통하여 학과 통합을 위한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이후 1995년 대학모형의 다양화를 골자로 하는 교육개혁안을 제시하면서 학부제가 도입되고,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한 농학계 대학 내부의 변화 노력이 맞물리면서 전통적인 농업계 학과들의 이합집산이 이뤄짐.
 - 농과대학의 단과대학 명칭과 마찬가지로 학과 명칭이 이후 다양하게 변화, 명칭만으로 농업계 학과인지를 구분하기가 힘들어짐.
- 농업계 단과대학이 있는 학교는 20여개로, 이들 학교의 학생정원은 10,000여명에 육박하지만, 이들 중에서도 전통적인 농업 생산(농학, 원예, 축산) 관련 학과의 정원은 2,000여명 수준.

31 농업계 관련 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고등학교로 순수 농고이외에, 가사실업계 고교, 종합 고등학교 중 일부가 여기에 포함된다.

32 서울대학교, 경북대학교등의 농과대학 사례

33 경상대학교, 전남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충북대학교 등의 농과대학의 사례

- 비농업분야의 경우 고등학교 단계에서부터 해당분야 산업인력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중소기업청은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기술사관 육성사업,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중소기업 특성화 육성사업, 국립공고 로봇학과 운영사업 등을 지식경제부는 첨단나노분야 특성화고 인력육성사업, 산학협력 특성화 지원사업 등을 실행하고 있음.

비농업분야의 고등학교/대학단계 교육에 대한 투자 사례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분석하여 특성화고 졸업예정자를 맞춤형으로 교육시켜 졸업과 동시에 해당 중소기업에 재교육 없이 취업 유도하려는 사업
- 지원대상(지원규모 2012년): 특성화고, 중소기업(98.3억원)
- 지원내용
 - 참여학교의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실습기자재 구입 지원
 - 자문기관을 통한 맞춤형 사업 참여교사 연수 및 교육과정 개발 자문 지원 등

기술사관 육성사업 (중소기업청)

- 특성화고와 전문대를 연계한 5년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에 필요한 혁신형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 지원대상: 18개 사업단(특성화고-대학 컨소시엄)
- 지원규모: 96억원('12년)
 - 중기청 보조금(48억원) + 교과부 특별 교부금(48억원)
- 지원내용
 - 특성화고-전문대-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분야별 프로그램 개발 경비
 -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실습형 환경개선, 운영협의회 운영 등 관련 경비
 - 협약 중소기업 및 기업체 CEO, 해당 분야 우수기능인 등 외부 전문 강사비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장기 재직 유도 및 선취업-후학업 기반 구축을 위해 주간·야간 학위과정 운영 지원

- 지원대상: 중소기업 및 재직자
 -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교육기관인 대학,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원격대학(단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평가 미참여 종교계 대학 제외)
 - 학생: 참여할 학과와 관련된 분야 중소기업 1년 이상 재직 중인 자
 - 기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제조 및 지식기반서비스 관련 매출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에 규정에 의한 상시 근로자 5인(대표자 포함) 이상
- 지원규모: 55억원('12년)
- 지원내용: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수강료, 전담인력 인건비, 시험재료비 등) 지원
 - 계약학과 설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70%를 정부가 지원하여 학생 1인·학기당 최고 5백만원 이내(정규 유사학과 대비 150% 내외) 지원

중소기업 특성화고 육성사업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 지역 특성과 지역 산업계의 수요를 고려하여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중간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특성화고 지원
- 지원대상: 제조업 기반 및 제조업 지원 업종에서 특성화 전략이 분명한 80개교
- 지원규모: 165.04억원('12년)
- 지원내용
 - 현장중심 맞춤형 교육: 1팀 1프로젝트, 전공동아리 등 방과후 학생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강화하고 학생 마인드 개선을 위해 기업가정신 교과 운영 지원
 - 교원 역량 강화: 교원의 전문성 및 기초작업능력 교수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 연수 지원
 - 학교 역량 강화: 우수학교가 미흡학교에 멘토 역할을 수행하는 학교 간 협력프로그램, 산학겸임교사 및 외부강사 지원
 - 학생 진로지도 강화: 산업분야별 진로지도 프로그램 및 성장경로 모형 제시, 취업 연계할 수 있는 산학협력업체 발굴, 중소기업 이해 연수 지원

국립공고 로봇학과 운영사업 (중소기업청)

- 신성장동력인 로봇산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립공고 3개교에 로봇학과를 설치하고 로봇학과 인프라 구축, 특화과정 운영, 우량 중소기업과 채용연계 등을 통해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 지원대상: 국립공고 3개교(부산기계공고, 전북기계공고, 구미전자공고)
- 지원규모: 40억원('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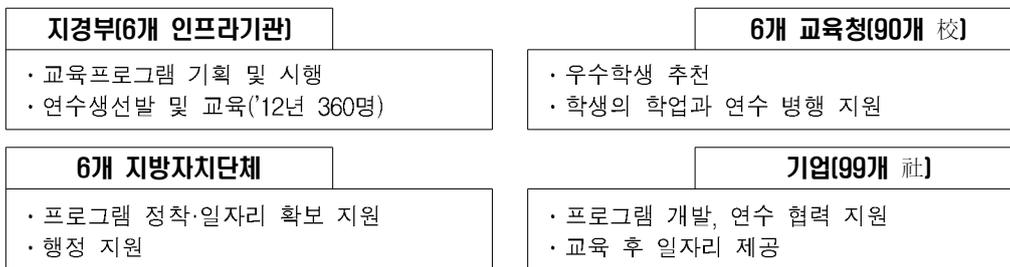
○ 지원내용

- 인프라 조성: 이론실습 통합형 교육과정에 맞는 로봇관련 실습장비 확충 및 로봇학과 실습장 구축, 교원 산업체 로봇기술 연수 지원
- 특화과정 운영: 기업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편 및 로봇 전문교과 교재 개발, 기업 참여 팀 프로젝트형 교수학습, 로봇전공동아리 활동 지원
- 현장중심 교육: 마이스터 로봇챌린지 대회, 마이스터 로봇 캠프 등 국내·외 로봇분야 현장연수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채용연계 확대: 기업과 학교간 산학협력 및 채용약정 협약 지원, 취업알선 등을 수행할 산학협력지원관 채용 지원

첨단 나노분야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 (지식경제부)

- 나노융합산업의 성장으로 측정·공정 장비 Operator, Technician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교육기관(특성화고)의 나노분야 장비실습 부족으로 인력공급에 애로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구축한 나노인프라의 첨단 나노장비와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나노기술을 교육하고, 관련기업으로의 취업까지 연계
 - 특성화고 90개교, 기업 99개사가 참여해 매년 2차례에 걸친 교육을 실시하고 연간 360명의 교육생을 배출하는 사업.
 - 교육은 주로 기업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공정·장비실습 위주로 진행
- 사업내용: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나노기술·공정 이론과, 특히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장비실습 위주로 교육 실시
 - 장비실습: 이론 = 70: 30 (총 교육시간 800시간)

그림 5-9. 첨단나노분야 특성화고 인력양성 협력체계



* 나노인프라기관: 나노융합실용화센터(대구), 나노종합팜(대전), 나노특화팜(경기), 나노기술집적센터(광주·전북·경북)

산학협력 특성화 지원 (지식경제부)

- 사업 목적: 실무교육(멘토링/인턴십), 신기술 개발, 고용창출, 비즈니스 아이템 발굴을 연계한 신개념의 산학협력을 통한 “실무형 R&D 인력 양성”
- 지원 대상
 - (기업) 국내 IT/SW 전문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되는 중소/중견기업
 - (대학) 국내 4년제 대학의 IT 관련 학과/전공
- 지원 규모: 5개 과제 선정(과제당 年 1억원 수준)
- 지원 내용: 기자재·재료 구입비, 프로젝트 수행비, 사내 벤처 운영비, 연구활동비, 특허출원비 등

- 농업계 학교에 대한 투자를 함에 있어 우선 농고·농대생들이 농업분야에서 자신의 미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진로경로(Career Path)를 제시해주고, 이에 따라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보강해 주어야 함.
 - 영농기반이 있는 농가출신의 농업계 학생들은 ‘농고→농대→승계→전문농’으로 이어질 수 있게 유도하고, 영농기반이 없는 비농가 출신 농업계 학생들은 ‘농고→농대→농업법인 취업→창업→전문농’ 또는 ‘농고→농대→전문가 양성과정→전문 교수요원/컨설턴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농고, 농대, 영농현장의 지원조직(이후에 소개될 ‘지역 농업인력지원센터’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이 상호 연계할 필요가 있음.
- 농업계 학교교육의 지역 농업·농촌과 연계 강화
 - 교육과정의 자율적 운영을 통해 지역 농업·농촌의 콘텐츠를 농업교육 내용으로 강화될 수 있게 함.
 - 농업유관 기관과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농업·농촌 현장과의 연계를 촉진함.

- 지역의 선도농가, 신지식농업인, 농업CEO
 - 농업인 단체: 한농연, 한여농
 - 품목단체: 27개 자조금 단체
 - 농업컨설팅 회사
 - 농업계 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어촌공사
 - 지역 농협
- 농업계 학교를 통해 농업 뿐만 아니라 농촌의 리더가 육성될 수 있게, 농촌의 다원적 기능 교육을 확산하고 농촌 개발 관련 종사인력 육성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함.

농고 교육의 성과에 대한 올바른 이해

- 최근 농업계 고등학교의 영농취업자 배출 실적이 저조하지만, 이는 1990년대 이후 농정 당국의 농업계 학교에 대한 투자저조와 더불어 농업계 고등학교의 교육목표 전환(중견 농업인 육성 → 농업분야 직업 기초교육기관) 그리고 그에 따른 일부 학교들의 탈농 위주 학과 개편(농업관련 및 비농업분야 중심으로) 때문임. 농업계 고등학교의 영농 이외의 동일계 진학이나 취업 관련 성과는 나쁘지 않음.
 - 농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1970년대부터 시작하여, 1980년대를 전후로 절정을 이루어 1990년대 초까지 활발하다가, 2000년대 중반까지 10여년이 넘게 거의 지원이 전무하였음.
 - 1972년: 시범 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 1978년: 농업고등학교 육성방안
 - 1980년: 10개 농고에 자영농과 설치
 - 1983년: 자영농고 도입, 농업고등학교 자립체제의 추진, 우수농업고등학생 영농 정착 특별지원사업
 - 1990년: 농업기계공동실습소
 - 2006년: 농고 현장 체험학습 지원 등에 대한 지원 사업
 - 2008년: 특성화 농고 프로그램
 - 2011년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6,613명중, 영농종사자는 57명으로 1% 조금 못되는

수준이지만, 동일계 취업자 635명 (9.6%), 동일계 진학자가 2,433명(36.8%)이었다. 즉 졸업자중 거의 과반(47.3%)에 학생들이 자신이 배운 전공과 관련된 산업현장에 바로 진출하거나, 진출이 예정된 분야로 졸업 후 진로를 정하고 있음.

○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고졸 이상의 고학력자중에 적지 않은 수가 농업계 고등학교 출신자임.

- 2010년 기준으로 산업분류상 농업 종사자(2,050,492)중, 농고(농림어업관련고) 출신자는 58,597명으로 전체 농업종사자의 3% 수준이었음.
- 하지만 대다수 농업종사자가 중졸이하(75.4%)로, 농업 종사자 중 고졸이상(503,461명)을 기준으로 하면 농업계 고등학교 출신자 비중은 11.6% 수준이었음. 농고 출신자 중 진학 이후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을 고려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판단됨.
- 농고 출신자 중 농업에 종사하는 비중은 12%로 다른 계열의 고졸자보다, 그리고 대졸자중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비중 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것임.
- 농고 출신 영농종사자의 연령대를 보면 50대가 30.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40대 (25.1%)였고, 20대는 1.8%에 지나지 않았음.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농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적을 수 있지만, 이들이 일정기간 사회 경험 이후에 농업에 종사할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줌.
- 마상진(2008)의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대상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전체 후계농중 28.3%가 농업계 학교 출신자였는데, 영농경험이 없는 후계농업경영인 대상자중 48.2%가 농업계 학교 출신자였음.

○ 2000년대 후반(2006년), 농업교육체계 개편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된 특성화 농고사업은 농고생들에게 영농과 관련된 보다 많은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였고, 그 투자 성과는 다음과 같이 확인되고 있음.

- 2011년 이수학생을 조사한 결과 학생들의 농업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 그리고 자기 진로 계획의 변화까지 효과가 있었음.
- 농업 분야 진로 선택에 대한 긍정적인 학생 비중(3학년) (상반기 → 하반기 변화)
 - 일반 농고 23.9% → 43.9%,
 - 특성화 농고 55.9% → 62.0%
- 농업생산 분야 진로 선택에 대한 긍정적인 학생 비중(3학년)
 - 일반 농고 22.1% → 39.3%,
 - 특성화 농고 48.3% → 57.4%

표 5-10. 농고 특성화 교육 참여 3학년생의 진로계획 변화

		취업/창업		진학	
		농산업	타산업	농산업	타산업
일반농고	상반기	14.2%	35.4%	14.2%	36.3%
	하반기	13.1%	18.7%	15.0%	53.3%
특성화농고	상반기	8.5%	17.8%	37.3%	36.4%
	하반기	13.9%	16.7%	39.8%	29.6%

자료: 농업인재개발원. 2011. 농고·농대생 농산업분야 인식변화 조사.

표 5-11. 농산업분야 취업/창업 진로계획 변화

		영농분야	농산물가공/유통	농기계	농약, 비료	종자 및 시설	기타
일반농고	상반기	25.0%	50.0%	12.5%	0.0%	0.0%	12.5%
	하반기	21.4%	35.7%	7.1%	7.1%	7.1%	21.4%
특성화농고	상반기	10.0%	30.0%	20.0%	0.0%	20.0%	20.0%
	하반기	46.7%	26.7%	13.0%	0.0%	0.0%	13.3%

자료: 농업인재개발원. 2011. 농고·농대생 농산업분야 인식변화 조사.

□ 기대 실적과 성과

- 농업계 학교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성과는 농업계 학생들의 농업과학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관련 직업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춘 인력을 보다 광범위하게 확보하고, 농업 생산에 종사할 예비 정예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임.
- 농업계 학교교육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적 기대치는 농업생산분야 예비 정예인력을 **연간 2,300명** 규모 확보임.
 - 농업계 고등학교: 우수 중학생의 거점 농고 유치 (읍면별 1~2명) → 광역단위 10개 거점 농고에 연간 200여명 우수 인적자원 유치(전국 2,000명)

- 농업 생산분야 인력 **연간 1,500명** 육성 (탈락자 및 대학 진학자 500여명 고려)
- 농업계 대학: 거점 농고와 연계하여 광역단위로 50명(전국 500명) 육성, 이와 더불어 농대 수준에서 자체 인력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500명 추가 육성 → **연간 1,000명** 육성
- 한국농수산대학을 통해 **300명** 육성(현재 수준 유지)

□ 단기 추진과제

- 농업계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단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는
 - 읍면단위로 1~2명씩의 농업계 고등학생 유치
 - 광역단위 1개씩 총 10개 정도의 거점 농고 육성
 - 광역단위 농과대학에 1개씩 영농중심과정 개설 등이 있음.
- 읍면 단위 우수 중학생의 거점 농고 유치
 - 일부 농고에서 가정 형편상의 이유로 농고에 진학하는 성적 우수 중학생들이 있음. 이들 자원이 농업이라는 직업에 종사하면서 이후 연계된 대학과정 그리고 평생학습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음.
 - 지역의 장학재단과 농어촌 희망재단, 기존 농협이나 농업유관 장학재단의 장학시스템을 활용하여 읍면단위 1~2명(시·군 단위 20여명 내외 장학금 지급)의 학생을 조기에 농업분야로 유치할 필요가 있음.
- 광역단위 거점 농고 육성
 - 현재 70여개에 이르는 농고를 특성별로 유형화(3개 유형)하고, 차별화된 육성 전략을 추진함.
 - 특성화 농고(자영농고, 순수농고): 농업생산 분야 후계인력 육성, 지역 거점 농고로 육성

- 산업수요 맞춤형 농고: 농업생산 분야 및 전후방산업 분야 인력 육성
- 일반형 농고(농업과 설치 농고): 농업 전후방산업 및 농생명 산업 분야 인력 육성
- 자영농고, 순수농고 등 특성화 농고를 중심으로 하여 광역단위로 10개 내외의 거점 농고를 육성하고, 기존 농업계 학교 물적·인적자원을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지역단위 농업인력수요와 연계하여 농고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의 농업유관기관의 협력과 투자를 촉진해야 함: 농촌 공동체 유지를 위한 읍면단위 필요인력 도출 → 광역단위 농업인력계획 수립 → 농업인력육성 투자 계획 수립
- 중앙단위에서는 특성화 농업고등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에 개입 강화
- 농업전공 공모제 교장 및 교사 초빙제를 실시하고, 기존의 교과중심이 아니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 중심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자율적 운영을 강화해야 함.

네덜란드의 농업계 학교·사회교육기관 통합운영 및 통폐합 사례

- AOC는 Agrarisch Opleiding Centrum의 약자로(영어로 Agricultural Education Center) 중등수준의 예비 농업교육, 전일제 농업교육, 그리고 단기 코스중심의 시간제 도제 농업교육을 실시하고 일부 성인농업교육을 실시
 - AOC는 교육과정이 다양화하고 노동시장 및 자격제도가 긴밀하게 연계됨에 따라 지역 특화 교육을 위해 상당한 준비시간을 거쳐 기존의 농업계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폐합하여 1990년부터 등장함.
 - 현재 네덜란드 전역에 110여개의 농업계 학교 캠퍼스가 12개 AOC로 연계되어 관리되고 있고, 약 7만여 명의 학생이 농업에 대해 공부하고 있음.

그림 5-10. 네덜란드 AOCs의 주요현황과 지역별 분포



- 한편 네덜란드에서는 1980년대 농업인 수와 농업계 학교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사회농업교육기관에 대한 1차 구조조정이 1993년 단행되어 11개 농업실습센터를 3개 혁신실습센터(Innovation and practical center)로 통폐합.
 - IPC Animal ← Oenkerk, Barneveld, Horst
 - IPC Plant ← Emmeloord, Schoondijke, Ede, Horst
 - IPC Green Area ← Schaarsbergen

*Almeo는 폐쇄, Deurne은 Agrarisch Opleidingscentrum (AOC) Helicon에 흡수, 2개의 Ede는 1개로 통폐합
- 2000년에 IPC Plant와 IPC Animal간의 통합으로 5개의 실습센터만이 남게 되고, 이름을 PTC+로 개칭
 - Ede
 - Barneveld
 - Horst
 - Oenkerk
 - Emmeloord(이후 폐쇄) → Dronten(신 시설, 장미로 대체)

* IPC Green Area는 폐쇄, 그리고 Mushroom Growing 실습교육을 위한 Horst는 완전히 독립하여 별도로 운영.

○ 영농중심 인재양성을 위한 농대 개편 및 거점 농고와의 연계 강화

- 농업계 대학이 현장 농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생명과학 분야 등의 학문 또는 산업인력 취업 희망자들을 위한 기존의 학과 및 학문 중심 교육과정 외에 지역의 농업후계자 육성을 위한 별도의 영농중심 교육 체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학생 선발 체제에서부터 프로그램 운영까지 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임.
- 이 과정은 학생 선발시 농업계 고등학교 출신자를 우대하거나 영농 관련 배경과 역량에 초점을 두고, 특히 지역 농업계 고등학교의 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농업의 중요성 그리고 농업 및 생명과학의 최근 동향과 관련한 내용을 교육하고, 교육성도가 우수한 학생은 신입생 전형에 가중치를 반영하도록 함. 이를 통해 지역 농업계 고등학교와의 인적 교류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농학에 대한 관심을 높여 농대 신입생으로 유치할 수 있음.
- 농업후계자 과정은 특정 학과의 전공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통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예를 들어 졸업 후 경종 작물 경영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작물 관련 과목뿐만 아니라 토양, 농기계, 병해충, 환경, 경영, 유통 등 인접 학문을 수강하게 함으로써 폭넓은 소양을

표 5-12. 농업계 대학의 이원화된 교육체제 운영(안)

	학문 중심 교육체제	영농 중심 교육체제
운영 목적	- 관련 전공 분야의 학문적 발전 - 농업 (전후방) 관련 분야 인력 육성	- 농업 생산 분야 종사 인력 육성 - 지역의 농업 유지·발전에 기여
신입생 자원	-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	-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 취농을 준비 중인 일반 성인
교육 내용 및 방법	- 기초 학문, 이론에 대한 강의와 실험 중심 교육	- 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과제, 실습 중심 교육
교육운영 단위	- 학과 중심	- 전공간 통합교육
졸업생 진로	- 관련 전공 대학원 또는 생명공학 등 관련 산업분야 직장	- 전문 농업인 또는 현장 중심의 농업 컨설턴트

쌓게 하고, 현재 농대 영농정착교육과정에서와 같이 다양한 농업인 강좌, 농가 인턴실습, 그리고 해외연수 등의 영농 현장 경험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를 정식 학점으로 인정하도록 함.

- 이러한 영농중심 교육체제를 졸업한 학생은 지역의 농촌에서 농업 생산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 농업인이 되거나, 현장 실무 능력을 갖춘 농업 전문가로서 농업교육 강사 또는 영농 컨설턴트로 활약할 수 있을 것임.

경북농업 청년리더 양성계획 (경상북도 2012)

- 목적: 경북의 농어촌 고령화로 청년 농어업 인력확보가 시급함에 따라 농업고를 졸업한 젊고 우수한 정예인력의 농어촌 정착 유도 ≡ 농업고 졸업생 경북농업 “뉴-프론티어”로 육성
 - 농어업계 고교 교과과정 현장 맞춤형 중심으로 운용
 - 학교, 학생과 농어업 현장과의 교류 체계 마련
 - 농어업계 고교 졸업생의 영농정착을 위한 제도화 방안 마련
- 교과과정을 맞춤형 현장 중심으로 운용
 - 농업계열고교를 특성화고로 개편
 - 한국생명과학고: 농업 자영자 양성고로 육성
 - 김천생명과학고: 바이오 생명산업으로 육성
 - 한국산림과학고: 산림자원관리로 특성화
 - 용운고 : 마뿔관리 등 말산업 분야로 특성화
 - 교과과정 전면 개편
 - 실무능력 배양 위한 현장실습 비율 10%로 확대
 - 교육과정에 특별활동(농장경영, 창업 등) 시간 배정으로 학생들에게 동기 부여
- 특성화고교 졸업생 경북대 농산업학과 특례 입학: 농산업 관련 분야 3년이상 종사자 무시험 → 2012년 신설: 정원 30명 중 24명 선발
- 농업계 고교졸업생의 영농정착 위한 별도의 지원 제도 마련
 - 후계농업경영인에 농지구입, 시설건립 등에 2억원 용자 → 지원조건: 연리 3%, 3년거

- 치 7년 분할상환(도 자체적인 2% 이차보전으로 부담 경감(3% → 1%))
- 조기정착을 위한 영농정착금 지원: 의지 있고 우수한 고교졸업생 대상으로 영농·창업비용 지원 → 매년 50명(250백만원/년, 5백만원/인) 정도 선발·지원
- 시군 농업기술센터 전담 지도사를 지정: 고교졸업생의 영농 정착시까지(3~5년)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지도사를 후견인으로 지정, 기술 지원 및 관리

○ 네덜란드 ptc+ 영농기술 연수 지원(6개월)

- 대 상: 농업계고 재학생 및 졸업생
- 인 원: 5명 정도(향후 지속적으로 확대)
- 사업비: 100백만원(20백만원/인)

전라남도 학사농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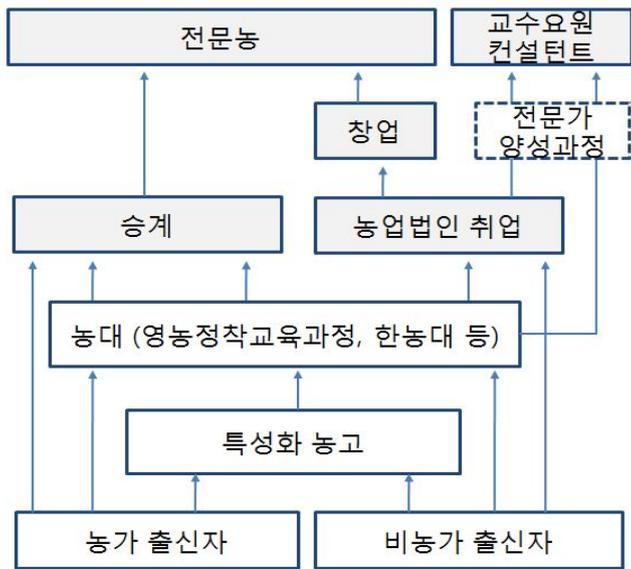
- 젊은 농업인력의 신규 유입과 정착을 돕고자 전라남도가 2005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처음에는 농업계 대학생에 한정하여 추진되다가, 일반계 대학생으로 대상 확대
 - 2005~2009년까지 융자금을 실행한 185농가 영농실태 조사결과 181명(97.8%)이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며, 4명은 영농 미 종사
 - 종사분야(181명): 축산 85명, 수도작 52, 원예특작 41, 기타 3
 - * 미 종사 사유: 4명(취업전출 3, 파산 1) - 자금회수 완료
- 사업개요
 - 연간 60명에 40억원(농가별 2억원 이내) 지원(연중 수시접수)
 - 지원대상: 50세 이하인 자로서 2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45세 → 50세로 지원대상 확대, '11.9월)
 - 재원: 道농어촌진흥기금(연리 1%)
 - 융자기간: 시설자금 3년 거치 10년 상환 / 운영자금 2년 거치 3년 상환
 - 사업내용: 농지구입, 시설하우스 및 축사신축 지원 등
 - 신지식학사농업인 육성 현황('05~12. 9월까지): 368명 / 34,598백만원 지원
- 사업대상 선정, 융자, 관리
 - ① 신지식학사농업인 선정 방법: (시군)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 → (道)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 ② 융자 실행 절차
 - 타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해 완공 후 융자 실행(필요시 사업 추진 정도에 따라 중도금

- 읍자신청 가능)
- 담보 또는 신용 제공 후 농협을 통해 대출실행
 - ※ 일부 농가의 경우 담보능력 부족으로 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있음.
 - ③ 읍자금 신용보증서 발급 지원
 - 전남신보 협약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보증 지원(개인사업자)
 - ④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 읍자금 상환 완료시 까지

□ 중장기 추진과제

- 장기적으로는 농업계 학교를 통해 육성된 학생자원이, 그 지역 농업·농촌 분야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광역단위 농업취업 지원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그림 5-11. 농업계 학생의 농업 생산 분야 진로 경로(안)



- 지역의 다양한 일자리 탐색 연계: 농업생산 + 전방산업 + 후방산업 + 농촌형 일자리 (마을개발, 농촌관광, 농관련 창업) 발굴 연계
- 농고생의 농업분야 진출을 위한 진로 경로(Career Path)의 설정: 농업계 고등학교에서의 교육에 끝나지 않고, 이들의 취업이나 진학이 결국 농업 분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 분야별 진로 경로를 설정하도록 해야 함.
 - 영농 승계
 - 법인 취업
 - 농업분야 창업/창직(JOB CREATION)
 - 진학후 승계/취업/창업
- 영농기반이 없더라도 농업과 관련하여 일을 하는 방법, 영농에 종사하는 경로 등에 대한 모형을 정립해야 함. 이와 관련하여 이후 소개되는 농업법인 취업이후 창업, 또는 기반이 없는 후계자끼리 공동 창업, 또는 비농업분야 자산형성지원사업 및 미국의 신규 취농자 개인개발계좌처럼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개인 계좌제 실시 등의 보완 대책 마련 필요.
- 이를 위해 농고/농대 협동으로 거점 농고 또는 거점 농대에 농업진로(취업) 정보시스템을 광역단위로 구축(퇴직교사 활용 가능)하여 농업계 내부의 구인정보, 구직정보를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것임. 이와 더불어, 학생들의 진로의식, 진로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교육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자산형성지원사업³⁴

-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소액을 저축할 경우 최고 2배의 매칭펀드를 지원하여 자활지원을 촉진하는 사업임.
- 저축용도는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소규모 창업 등 인적·물적 자산형성으로 제한하고, 다른 용도를 위한 인출 시 본인저축만 인출을 허용(정부·민간

매칭펀드 제외)하며, 본인의 저축규모는 근로소득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하되 상한선을 설정하고, 적립기간도 일정기간으로 제한함.

- 선진국에서는 기존 소득보장프로그램이 자활지원에 한계가 있음을 주목하고, 저소득층의 인적·물적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장기적인 자활·자립 촉진사업이 확산 중임. 미국의 IDA(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영국의 Saving Gateway, 캐나다의 Learn\$ave 등이 있음.

미국의 신규 취농자 개인개발계좌

- 신규 취농자 개인개발계좌는 농가지원청(Farm Service Agency: FSA) 주관 하에 15개 주에서 실시되고 있음.
- 자산이 부족하고, 수입이 중산층의 80% 이하인 자가 수혜대상임. 해당 신규 농업인은 매달 일정 금액을 저금하고, 정부와 기부단체에서는 최소 100%, 최대 200%까지 매칭하여 신규 취농자의 계좌에 입금함.
- 신규 농업인은 계약 기간 이후에 자금 사용이 가능하고, 농장 운영과 관련한 곳에만 사용할 수 있음.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매칭 펀드의 상한선은 매년 6,000달러로 정해져 있음. 수혜자는 반드시 재정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음.

3.3. 농업인 교육 프로그램 개선

- 농업교육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대부분의 문제점은 일회성, 단기 교육으로 인한 것
 - 유사 내용의 반복
 - 교육 프로그램간 중복성
 - 강사 위주의 교육

34 보건복지부(2005)의 「자산형성지원사업 도입추진계획」에서 인용함.

- 교육내용간의 단절성
 - 교육내용 표준화의 한계로 질 개선의 어려움
 - 현장 실천력 부족 및 성과 확인의 어려움
- 농업인 장기 교육 프로그램(농업인 대학, 농업 마이스터 대학)의 성과
- 기존의 단기 교육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한 무형의 성과: (농산물 개방의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는)자신감. 미래 농업투자에 대한 확신, 지식(배움)에 대한 겸손함. 지식의 유용성에 대한 확신.
 - 신 기술 도입 및 적용의 경험, 해당 품목 전문가와 그리고 같은 품목의 광역단위 동료 농업인과의 깊은 인적 네트워크
 - 경제적 성과: 단위면적당 생산성 변화, 또는 경영비 절감 → 농업 소득 증가
 - 지식과 자기만의 노하우 공유(단기 교육에서는 나오기 힘들)
 - 현장 중심의 교육 확대: 참여자 농장 방문을 통한 교육 및 컨설팅 가능
- 농업인 교육 프로그램은 단기과정 보다는 장기화를 추구하고, 농업기술과 관련된 돈버는 농업과 관련된 내용 이외에 인문학적 내용이 보장될 필요가 있음.
- 현재 많이 확산되어 운영되는 기초지자체 단위의 농업인대학 과정의 운영을 좀 더 표준화하여 운영하고, 기존에 단기적으로 운영되던 프로그램을 현재 농업 마이스터 대학 프로그램을 응용하여 장기 프로그램(예비 농업마이스터대학)화할 필요가 있음.

농업인대학 교육의 성과

- 현재 대부분의 농업기술센터(160개중 136개)에서는 농업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음. 농업인대학은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기존의 기술보급사업의 일환으로 해오던 단기성 연수

프로그램 외에 지역의 특산물 중심으로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운영하는 장기 교육 프로그램

- 농업인대학에서는 영농기술 교육 이외에도 각종 교양 프로그램을 연계시켜 재미있는 농업교육, 그리고 평생학습을 실현하고 있음. 교육 종료이후에도 사후 관리 프로그램(학습조직, 컨설팅)을 제공하고, 영농 현장조직(작목반, 법인)과의 연계를 통해 교육한 내용이 영농 현장에서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함. 누구보다 현장 농민들을 잘 이해하는 지도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업인들의 교육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고, 시군 단위로 교육이 진행되어 농업인들의 접근성이 높다는 점에서 기존 사회 농업교육에서 나타나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농업인대학 운영 확대를 통한 농업인의 기술수준 및 소득 향상 실적
 - 기술수준 향상(교육전후 기술점수 차이): ('10)13.4→('11)15.2→ ('12)16.6
 - 농가소득 증가: 교육 전(52,970천원) → 교육 후(64,650천원)

표 5-13. 전국농업인대학 학습 기술수준 향상도(2011)

지 역	학습/기술수준향상도			
	조사인원	사전점수 (평균)	사후점수 (평균)	사후점수-사전점수 (평균)
경 기	551	52.9	67.9	15
강 원	530	58.7	76.7	18
충 북	472	57.1	68.9	11.8
충 남	988	63.6	76.3	12.7
전 북	712	60.8	70.3	9.5
전 남	1,047	56.3	74	17.7
경 북	1,168	55.8	72.9	17.1
경 남	697	59	76.9	17.9
제 주	95	48.3	60.8	12.5
부 산	38	67	86	19
대 구	30	60.2	75.5	15.3
인 천	196	74	82	7.9
광 주	87	53	71	18
대 진	86	53.8	71.6	17.8
울 산	49	60.2	85.1	24.9
전 체	6,746	58.7	74.4	15.7

자료: 농촌진흥청, 내부자료(시도별 농업인대학 결과보고서)

농업마이스터대학의 성과

- 농업마이스터대학 이수자를 대상으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선발 효과외에 기존 농업인 교육과 차별화된 성과가 있는지를 분석하였음.
- 관련 변인(연령, 경력, 성별, 학력, 영농승계여부, 품목, 영농규모, 교육시간)을 통제한 상황에서 농업마이스터대학 이수 여부가 자신감 획득, 신기술 습득, 인적 네트워크 확대 등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다중회귀분석(SPSS 18.0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구명한 결과, 자신감 획득은 농업마이스터과정 이수 여부와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적 관계를 가졌다. 신기술습득, 인적네트워크 확대 등은 시간효과에 가려 농업마이스터대학 이수 여부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관계를 갖지를 못했음.

표 5-14. 농업마이스터대학 참여의 무형적 성과

	자신감 획득		신기술 습득		인적 네트워크 확대		
	β값	유의확률	β값	유의확률	β값	유의확률	
연령	.023	.632	-.074	.118	-.113	.020	
경력	.042	.251	.035	.326	.044	.243	
성(남=0)	-.015	.693	-.053	.155	.027	.480	
학력	.050	.214	.005	.893	.034	.399	
승계(창업=0)	-.010	.791	-.004	.906	-.034	.367	
품목 (쌀=0)	특용	-.003	.944	.044	.262	-.030	.465
	과수	.083	.061	.097	.024	-.003	.944
	채소	.081	.054	.034	.401	.021	.623
	축산	.075	.089	.098	.022	.077	.085
영농규모	.081	.038	.061	.110	.023	.559	
Ln(교육시간)	.245	.000	.314	.000	.300	.000	
농업 마이스터 (일반농=0)	.142	.014	.066	.241	.007	.905	
P	0.000		0.000		0.000		
Adj-R ²	0.192		0.219		0.178		

자료: 이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2012)

- 한편 경영비, 생산성, 농업소득과 같은 경제적 성과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농업마이스터대학 이수 여부는 농업생산성 증가는 통계적으로 1% 수준, 농업소득 증가와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양적 관계가 있었음. 경영비 감소는 농업교육시간 효과에 가려 농업마이스터대학 이수 여부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관계를 갖지를 못했음.

표 5-15. 농업마이스터대학 참여의 경제적 성과

	경영비 감소		생산성 증가		농업소득 증가		
	β 값	유의확률	β 값	유의확률	β 값	유의확률	
연령	-.007	.883	-.078	.100	-.055	.244	
경력	.062	.096	.073	.043	.064	.071	
성(남=0)	-.043	.268	-.079	.035	-.016	.662	
학력	-.005	.897	-.040	.299	-.063	.104	
승계(창업=0)	-.036	.340	-.029	.423	-.044	.219	
품목 (쌀=0)	특용	-.004	.917	.088	.025	.165	.000
	과수	-.028	.519	.069	.111	.085	.044
	채소	.042	.316	.102	.012	.131	.001
	축산	-.011	.810	.060	.159	-.007	.859
영농규모	.029	.465	.076	.049	.083	.030	
Ln(교육시간)	.335	.000	.235	.000	.204	.000	
농업 마이스터 (일반농=0)	.025	.666	.144	.010	.183	.001	
P	0.000		0.000		0.000		
Adj-R ²	0.125		0.201		0.199		

자료: 이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2012)

- 이를 통해 농업마이스터대학은 보다 체계화된 교육경험을 농업인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장기간 교육 투자(기회비용)가 소요되지만, 기존 교육과는 차별적인 성과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기대 실적과 성과

- 농업인 교육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질적인 변화
- 일정 시간 이상의 체계적 교육을 받은 정예 농업인력을 지역별로 안정적으로 확보
 - 개인의 잘사는 것을 넘어, 지역이 더불어 잘사는 농촌 구현
 - 자료에 근거한 과학적 농업경영과 위기관리 능력 향상

- 특히 농업인 장기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광역단위 농업·농촌 발전계획과 연계할 경우 다음의 구체적인 실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농업 생산분야 정예 농업인력(장기과정 이수자) **매년 1만명, 농업법인 중간관리자 1,200명 배출**
 - 읍·면단위 농업마이스터대학 이수자 매년 1명 배출 → 연간 **1,500명** (격년 과정으로 운영시 기수당 3,000명)
 - 예비농업마이스터과정(시·군 농업인대학, 후계농업경영자) 교육이수자 → 연간 **8,500명**
 - 시·군 농업인대학 기존 농업인 이수자: **연간 5,000명** (2011년 농업인 대학 수료생(10,123명)에 대하여 프로그램 표준화 등을 통해 이수생 정예화 필요)
 - 시·군 농업인 대학 귀농자(40대 이상 고학력자) 이수자: **연간 2,000명** (2010년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40대 이하 영농경력 1년 이하 신규진입자중 대졸자는 7,744명 규모로 이들 중 농업 주종사 의지가 있는 사람 선별)
 -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장기과정화: **연간 1,500명**
 - 농업법인 종사자(중간관리자) 교육: **연간 1,200명**

□ 단기 추진과제

- 농업인 프로그램 개선과 관련하여 단기적으로 다음의 사업들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 현재 1주일 정도의 단기교육 형태로 이뤄지는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교육을 6개월 이상의 장기 교육과정화
 - 농업인 대학 프로그램 귀농인 과정 보장 및 프로그램 표준화
 - 기존 농업인 교육에서 부족했던 인문학, 위기관리 등의 분야 교육 강화
- 장기 농업교육 프로그램 확대

- 농업 마이스터 대학 코스의 기초(입문) 과정을 재조직하여, 현재 형식적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신규 후계농업경영인(학생, 귀농) 교육에 적용(6개월 정도의 장기 프로그램 운영) ← 중소기업청의 청년창업사관학교도 정부 재정지원에 앞서 장기 교육 프로그램 과정 운영
- 기존 농업인 대학과정 프로그램의 표준화를 통해 이 과정을 이수한 인력의 역량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학습계좌제와 연계 → 이후 학점 인정).
- 후계농업경영인 장기과정 이수자는 농업인대학 이수자와 더불어 예비농업 마이스터로 육성하고, 이후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시 교육 시간 일부 면제
- 농업법인의 중간관리자를 위한 전문 과정(농업 기획, 회계, 마케팅, 물류 등에 필요한 역량)에도 장기 교육과정 도입

청년창업사관학교

- 기술창업을 준비중인 청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준비공간, 전문인력의 1대1 코칭, 창업 교육, 개발보조금, 마케팅 지원 등 창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창업단계 전 분야를 일괄 지원하여 젊고 혁신적인 '청년창업CEO'를 양성
- 사업대상: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또는 예비창업팀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
- 지원인원: 240명 내외
 - * 입소: 선정후 협약을 체결하고 사관학교 창업공간에 입주
 - * 준입소: 사관학교 창업공간에 입주하지 않고 자체사업장에서 창업활동 수행하되, 주관기관이 별도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동사무공간 의무 출근(주1회 등)
 - * 입소, 준입소는 구분하여 모집하며 입소를 우선 선발
- 사업분야: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기술집약 업종(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 자금지원: 총사업비의 70%, 연간 최대 1억원 이내 → 졸업심사 우수평가 청년창업자는

1년간 1억원 이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 창업지원: 청년창업자에 대하여 협약기간 동안 창업절차에서부터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시험생산, 판로개척 등 지원을 통해 창업성공률 제고

그림 5-12.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내용



- ① 창업공간 제공: 청년창업사관학교(중소기업연수원 내)에 창업준비공간(개별 공동)을 제공
* 준입소 공동사무공간: 경기도 안산, 전라권(광주), 경상권(경산, 창원)
- ② 창업코칭: 전담교수를 1대1 배치하여 창업 전과정 집중 지원
- ③ 창업교육: 경영역량과 창업분야의 전문지식 등 체계적 기술창업 교육 실시 → 필수 교육과정 미이수 및 교육이수시간 부족시 중간 탈락(퇴교)
- ④ 기술지원: 제품설계(CAE, 역설계 포함)부터 시제품 제작 등 제품개발 과정의 기술 및 장비 지원
- ⑤ 사업비지원: 창업활동비, 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비, 기술정보활동비, 지재권취득 및 인증비, 마케팅비 지원
- ⑥ 연계지원: 우수 청년창업자에 대해서는 창업자금 및 사업화자금 우선 용자, 투자연계, 보증연계, 판로 및 입지 등 지원 가능

그림 5-13.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절차



○ 인문학 및 농촌 지역사회 문제와 관련한 농업교육 강화

- 지금까지 농업교육 대부분은 돈버는 농업을 중심³⁵으로 한 농업인의 신기술 습득, 경영 능력 제고 등 농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농업·농촌의 발전과 관련한 농업인들의 공적 역할에 대한 강조가 전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그동안 농업인력 육성의 방향도 ‘돈 버는 농업’에만 집중했지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농업은 아니었음.
- 현재 농촌은 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귀농·귀촌인구 증가에 따른 외지인과 다문화가족의 가족의 증가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농촌에 유입되면서 농촌 지역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농촌의 전통적 규범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음.
- 우리 사회의 농업·농촌 부문에 대한 투자는 도시 및 상공업 중심의 산업화 과정에서의 희생 그리고 다원적 가치를 지닌 농업·농촌의 핵심적인 역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이루어져 왔음. 하지만 최근 들어 직불금 및 각종 정책지원 사업의 부당 수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농업인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자주 거론되고, 농업·농촌 정책에 대한 대국민적 지지도가 하락하는 추세임.
- 기술 및 경영 중심의 교육 이외에 좀 더 다양한 내용들이 농업인 교육에서 다루어져야 함. 개인이 소득을 많이 버는 활동을 벗어나 지역의 문제가 무엇이며, 이웃 중에 소외받는 사람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게끔 도와주는 교육이 필요함.
- 농업인들이 여러 농업경영과 관련된 도전적인 환경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느라 지쳐있는 시기에 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교육이 뭔가를 재고해 볼 때, 돈만 소중히 여기는 경제적 삶보다는 농업 이외의 다른 것, 예를 들어 중산층 도시민들이 즐기는 교양적 삶, 인문학의 경험들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농업인들이 직업적 삶으로서 농업의 의미를 한번 돌아보고, 스스로의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교양적 교육이

35 MB정부의 농정 목표는 ‘돈버는 농어업, 살맛나는 농어촌’이다(농식품부 2008).

그동안 너무 소홀이 다루어졌음.

- 비농업분야의 경우 최근 사회적 기업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윤리경영, 책임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기업활동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농업부문도 이와 관련한 논의를 수용하여 개인 농가를 넘어서서 이웃 농가의 발전, 나아가 농촌 지역사회의 개발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농업계 내부에서도 나눔축산운동³⁶, 농어촌 공동체 회사 추진 등 농업·농촌 내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내부갱생 운동이 전개되고 있음.
- 농업인들이 자신의 농장 발전뿐만 아니라, 다른 농업인의 발전도 선도하고, 나아가 농촌의 사회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앞장설 수 있는 공공적 성격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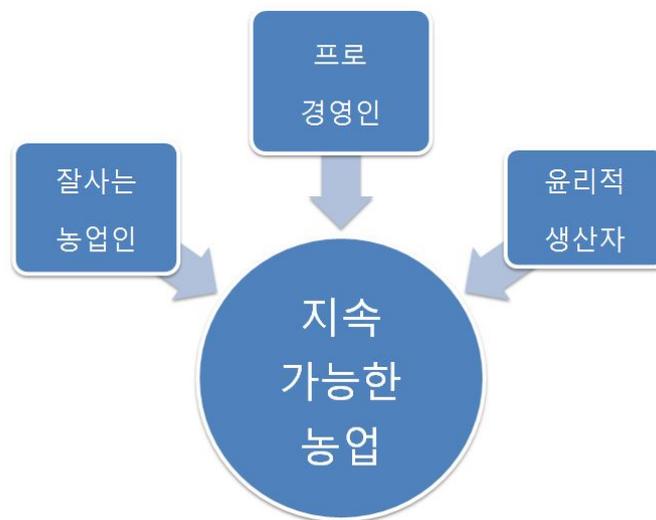
농업인력상의 전환 필요(마상진 등 2011)

- 농업교육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농업인력의 모습은 '돈버는 농업인'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으로 전환되어야 함
 -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란 특정한 과정이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태계가 생태의 작용, 기능, 생물다양성, 생산을 미래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뿐 아니라 인간사회의 환경, 경제, 사회적 양상의 연속성을 의미하는 개념임.
 - 그동안 농업·농촌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악순환 구조가 발생해 왔음.
 - (환경) 생산성 증대 노력 ⇒ 고투입 농법(환경오염)
 - (경제) 경쟁력 취약 ⇒ 지속적 수익창출 한계(성장정체)
 - (사회) 도·농간 생활격차 ⇒ 농어촌 공동화(지역사회 낙후)
 -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유지, 지역사회 및 국토환경 보전,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김병률 외 2009; 농림수산식품부 2010).

36 사회에 만연한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시키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축산관련업계가 사회적 나눔 운동을 적극 펼치기 위해 2010년 7월부터 농협중앙회, 축산단체, 소비자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운동

- 농업의 주체로서 농어업인은 인류 역사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해 농업이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여해 왔듯이, 앞으로도 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속가능한 농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농업교육을 통해 농업인력이 잘사는 농업인, 프로 경영인, 윤리적 생산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잘사는 농업인**이란 농촌에 살더라도 도시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를 가지는 농업인, 농지를 가지고 직업으로서 농업을 선택한 사람을 의미함.
 - **프로 경영인**이란 여러 경영 상의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며, 고품질 농산물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전문 기술과 경영 능력을 갖춘 농업인, 창의적 경영을 실천함으로써 삶의 가치를 느끼는 전문 직업인을 의미함.
 - **윤리적 생산자**란 소비자에게 깨끗한 농식품을 공급하는 생산자로서, 자신의 발전뿐 아니라 이웃 농가와 농촌 지역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다원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농업·농촌의 수호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의미함³⁷.

그림 5-14. 농업교육을 통해 육성하고자하는 농업인력상



37 직불금 및 각종 정책지원 사업의 부당 수혜와 관련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농업인의 범위와 더불어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자주 거론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농업·농촌 정책에 대한 대국민적 지지도가 하락하는 추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농협의 나눔축산운동, 농어촌 공동체 회사 추진 등 농업·

○ 농업 경영회계 교육 강화

- 상당수 농업인이 자신의 영농 계획과 감가상각비, 투자분석 등 농가회계와 관련한 기본 지식조차도 없이, 우선 받고 보자는 식으로 정부 지원사업을 받고 있음. 그러다 보니 융자형태로 이뤄진 정부 지원사업은 그대로 부채로 이어지고 있음. 자금 관리에 대한 개념이 없는 상황에서의 정책 자금 지원은 빚쟁이를 양산하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음. 자금(돈)에 대한 인식, 경영분석을 토대로 사업계획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농업분야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임.
- 최근의 후계농 대상 조사결과(마상진 2010) 영농규모 변화, 조수입 변화에 있어 경영회계장부 작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 또한 최근에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가 진행하는 농업인 회계활용 교육프로그램은 참여개발식 교육을 통해 교육 이수와 동시에 참여 농가의 사정에 맞는 회계 프로그램이 산출되도록 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고 있음. 이를 통해 농업회계에 대한 농가의 선입견을 극복하고 자본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경영체라는 자존감을 갖게 하며, 농가 구성원 단위의 교육을 통해 부수적으로 농업경영에 대한 세대(부부) 간의 갈등도 해소하는 효과를 보고 있음.
- 농업인에 대한 회계교육 강화는 농업인들의 경영 전문성 제고 차원뿐만 아니라 농업인력육성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함.
- 농업회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농업인들이 이를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교육뿐만 아니라 컨설팅을 통해서 농가경영회계와 관련한 전문성 개발을 강화해야 함.
- 농업 부문의 국내외적인 위협요소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위기관리시스템 구축과 위기관리에 필요한 정보의 생성 그리고 농가에 대한 위기관리 교육을 강화해야함.

농촌 내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내부갱생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최근 추세를 반영하여 윤리적 생산자라는 인력상을 도출하였음.

농업회계 교육의 성과

○ 농업마이스터대학 등에서 농업회계와 관련된 교육이 현재 수행되고 있는, 이들 교육이 수생들에 대한 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농가 회계 또는 농가 재무 설계 교육의 (잠정적) 효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

- 농가의 통제가능성 제고 → 위기대응능력 증가
 - 합리적 의사결정 → 부부간의 갈등 해소
 - 과학적 영농 → 농가 스스로의 경영자로서의 자존감 제고
 - ※ 농가 자녀들에게 긍정적 영향(부모에 대한 자부심) → 경영승계
 - 효과적인 시간관리 → 삶의 질이 높아짐
 - 농가의 조직화 촉진 → 협동농장 등을 통해 소규모 농가의 규모화 가능
 -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민주적 경영 → 농업·농촌 개발사업 관련 갈등 해결
 - 외부인(귀농인 포함)의 투자유치 가능
- 예)○○ 영농조합법인 사례: 개별 낙농 입장에서 농가당 60마리나 65마리나 생산비용이 비슷
→ 이러한 사정의 5~6개 농가에 젓소 5마리씩 분양 (투자 유치) → 수익 창출

표 5-16. 후계농업경영인의 조수입 변화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관련 변인		B	β	t	sig
상수		0.184		0.161	
품목	특용	-0.674	-0.093	-2.392	*
	과수	-0.288	-0.047	-1.210	
	화훼	0.356	0.034	0.852	
	채소	-0.144	-0.027	-0.678	
	축산	0.360	0.071	1.666	
영농 방식	시설재배 여부	0.262	0.066	1.433	
	친환경 여부	-0.554	-0.153	-3.895	***
농경지 규모		0.510	0.417	7.461	***
농관련 사업 여부		-0.208	-0.054	-1.368	
영농 초기 특성	(초기)경지규모	-0.362	-0.283	-4.920	***
	(초기)본인소유	-0.085	-0.052	-1.121	
	선정나이	-0.016	-0.056	-1.061	
	선정당시 경력	0.027	0.030	0.575	
	영농승계 여부	0.145	0.039	0.950	
	학력	0.210	0.116	2.815	**
	농업계교 졸업 여부	-0.105	-0.028	-0.682	
	출신지역	0.539	0.085	2.084	*
	비농업분야 경험	-0.073	-0.021	-0.521	

관련 변인		B	β	t	sig
선정 이후 경과시간		0.057	0.079	1.796	
후계농 용자액 규모		0.136	0.110	2.701	**
추가 지원	전업농 사업지원	0.042	0.009	0.229	
	후계농 추가지원	0.431	0.085	2.080	*
	사전 교육훈련	-0.114	-0.015	-0.403	
	컨설팅	0.276	0.063	1.501	
자금 사용 처	농지·축사부지구입	-0.277	-0.076	-1.906	
	시설설치 자금	-0.097	-0.027	-0.629	
	가공시설	0.210	0.047	0.967	
	정보화	-0.274	-0.050	-1.125	
	운영자금	-0.108	-0.030	-0.769	
전문 성 개발 활동	교육참여 횟수	0.017	0.015	0.393	
	경영장부 작성	0.236	0.221	5.103	***
	학습조직 활동	-0.036	-0.022	-0.463	
	전문가와 교류	0.109	0.060	1.240	
	이웃농가 논의	0.068	0.048	1.131	
	신문·서적 구독	-0.070	-0.054	-1.127	
	방송 시청·청취	-0.132	-0.109	-2.275	*
	인터넷 활용	0.059	0.055	1.139	
농관련 회의 참석	-0.113	-0.060	-1.301		

Adj-R²=0.193, F(38, 593)=4.965***

*p<0.05, **p<0.01, ***p<0.001

- 마상진(2010)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진단 및 성과평가’ 연구에서 후계 농업경영인 1009명을 표집조사를 통해 농업경영장부 작성 빈도가 조수입 변화와 관계를 가지는지를 조사함. 영농초기와 현재와의 비교하여 보았을 때, 농가의 경영장부 작성 빈도는 조수입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었음. 어떤 특성이 후계농의 조수입 변화(증가)가 가장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한 결과 평소에 경영장부/일지를 자주 기록하는 후계농 농가일수록 영농초기에 비해 조수입 증가가 더 많이 이뤄졌음.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의 농업경영체 회계 교육

- 농업회계에 대한 이해와 경영 마인드 제고를 통해 주먹구구식 농가 경영 관리를 극복하도록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부설 농업정책연구소에서는 농업인(부부)을 대상으로 소그룹 경영회계 교육을 실시함.
- 1일차: 농업회계 이해 및 경영마인드 제고
 - 2일차: 논리적 사고법 트레이닝 / 표준 회계 이해
 - 3일차: 품목 특성 파악을 통한 회계요소 도출

- 4일차: 품목 특성을 반영한 관리 회계 수립 및 계정 분류
- 5일차: 프로그램 개발 평가
- 6일차: 프로그램 실습 / 농업세무회계 이해
- 7일차: 프로그램 실습

- 30명 단위로 총 7일간 (야간)교육이 이루어지는데, 기존의 회계 교육과 차이점은 강사는 일반 경영분야 회계 전문가이지만 일반적인 회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강사와 참여한 농가가 함께 농가 사정과 품목 특성을 반영하여 자신만의 회계 프로그램을 만들어 낸다는 것임.

□ 중장기 추진과제

○ 농가 위기관리 교육 강화

- 최근 환경여건의 악화로 인하여 자연재해 및 가축질병이 빈발하고 있고, 또한 농산물 시장개방의 진전으로 농산물 가격변동이 심화되고 있으며, 국제 원자재시장의 불안정으로 비료, 농약, 사료, 연료 등 농업 투입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농업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수입개방 확대와 풍작에 의한 과잉생산으로 과일 등의 농가판매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이처럼 농업부문의 외부여건에서 불확실성이 증가할수록 농가 육성에서 농업경영의 위기관리가 중요함. 위험수준이 높을수록 실패에 따른 손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농업투자를 기피하게 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전문농으로의 발전이 위축됨.
- 최근 선진 농업국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농작물 재해보험의 도입 등을 포함하여 농가가 위기관리 방식들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위기관리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농업법인체 종사자 전문교육 강화

- 농업법인이 좀더 활성화 되면 수요조사를 통해 농업법인 종사자(중간관리자)를 위한 농업 기획, 회계, 마케팅, 물류 등에 필요한 역량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할 필요가 있음. 장기적으로 농업법인 종사자 교육도 6개월 이상의 장기 교육 프로그램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호주의 Farmbis

- 호주에서는 농업인, 농가, 농촌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농업인 경영, 회계, 위기관리 등의 분야를 강조한 Farmbis라는 농업인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하였음.
 - Farmbis는 경쟁력, 수익성, 지속가능성을 가진 농산업, 지속적인 학습과 개선을 토대로 변화에 대응·적응할 수 있는 자립 가능한 농업인, 호주 천연자원 기반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목표로 추진되었음.
 - 특히 기존의 농업인에 대한 교육·훈련이나 지도가 생산 기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계에서 벗어나, 미래의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도록 경영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구 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음. 재정관리, 마케팅, 천연자원관리, 위기관리, 리더십 등과 같은 분야에 교육·훈련을 받고자 할 때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해줌.

미국의 위기관리 교육

- 미국은 지역별 거점 위기관리교육센터(Risk Management Education Centers)를 지정하고 농가에 체계적인 위기관리 교육 리더십과 농가간 협력을 강조하고 있음. 미국의 위기관리 교육은 생산 위기관리, 마케팅 위기관리, 재정 위기관리, 법률 위기관리, 인적자원 위기관리 등 크게 다섯 영역에 걸쳐 이뤄짐.
 - North Central Risk Management Education Center
 - Southern Region Risk Management Education Center
 - Western Center for Risk Management Education
 - Northeast Center for Risk Management Education

3.4. 학습조직 / 농업법인을 통한 학습 활성화

- 공공을 통해 제공되는 교육기회 대부분이 집체식 교육·훈련에 집중되고 있음. 실제 농업인들의 많이 활용하고, 노출되는 학습 경험으로서 학습조직이나 개인학습과 관련된 지원은 아직까지 매우 부족.
- 지역단위 학습 조직의 육성 필요성
 - 농업인들은 일반적으로 형식 학습(기관에 의해 주어지는 학습 경험)보다는 무형식 학습을 선호함(Kilpatrick 등 1999). 이는 농업인들은 독립성과 자기충족감을 원하고, 상황에 특화된 학습을 원하고, 평소 학습자로서 훈련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여 이왕이면 낯선 강사보다 익숙한 자원으로 부터의 정보 취득을 선호하고, 자신들의 신념에 의문을 제시하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은 두려워하기 때문임.
 - 읍면 단위 학습조직을 통해 기존 집체식 교육·훈련의 한계(학습활동의 수동성, 비적시성, 중복성, 비연계성, 비실천성)을 자연스럽게 극복하고
 - 농업교육과 관련된 접근성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하면서, 학습의 적시성, 능동성, 현장성과 더불어 특정 교육과정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농업인 뿐아니라 지역별로 품목별 전문가 집단의 학습조직 활성화를 통해, 전문가간의 교류 및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욕구 충족 필요

□ 기대 실적과 성과

- 학습조직과 농업법인의 육성과 관련하여 기대되는 질적인 성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
 - 정예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활동 강화
 - 정예 농업인력과 일반 농업인의 교류를 통한 혁신 기술 전파

- 농업인 전반의 평생학습 참여율 제고
- 신규 농업인력의 농업현장 안착
- 품목별 전문가 조직의 지역단위 육성

○ 학습조직과 농업법인의 육성과 관련하여 기대되는 실적치

[학습조직]

- 농업인의 접근성을 고려 읍면별, 해당 지역의 주요 품목(5개 내외)당 1개씩 육성: 2022년까지 7000여개 육성 (← 2011년 읍·면수 1,414×5)
- 학습조직을 통한 농업 학습 참여자: 20만명 내외 (← 학습조직당 30명 내외)

[전문가 학습조직]

- 광역단위 10개 주요 품목에 품목별 전문가 20명 참여 (→ 전국 단위 2,000여명 조직)

[농업법인]

- 시·군별 농업법인 50여개 육성: 식량작물 35여개, 시설원예 10여개, 축산 3~5개 (← 전국단위 6,800여개 육성)
- 시·군별 농업법인 종사자: 350명 내외(법인당 9~10명 종사자 고용)

□ 단기 추진과제

○ 기존 품목별 생산조직을 농업인 학습조직으로 육성필요

- 기존의 농업교육 중장기 코스(농업인대학, 농업 마이스터 대학) 이수자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활성화
- 기존 생산 단위조직(작목반, 농업법인, 마을공동체)의 학습조직화 촉진
- 수요자 중심의 학습 내용과 학습방식(장소·시기 포함) 결정
- 외부 전문가 배정 및 타 지역 네트워크 연결 지원

경남의 농업인 실용기술 Study Group

- 경남 농업기술원 미래농업교육과에 농업인의 학습촉진을 위해 조직 활성화 유도 (2002년부터 시작)
 - 각종 교육이수자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시작
 - 소규모 학습조직에서 핵심기술 습득 및 상호교류를 통해 농산물 개방화 대비 배우고 연구하는 전문기술 농업인 양성하고자 시작
- 조직 현황
 - 12품목 16개 그룹(99회 1,713명)
 - 품목: 딸기, 고추, 토마토, 멜론, 곤충, 장미, 단감, 버섯, 가지 등
- 추진방향
 - 소그룹 중심의 지속적, 반복적 연중교육 과정 구성: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신주경야독형 교육시스템 → 생산활동 기술지원
 - 수출 품목 위주의 해외우수 컨설턴트 초빙 현장기술지원 강화: 월 1회 → 작물별 주요시기 2 ~ 3회
 - 기술지원 컨설턴트: 국내 전문가
- 교육운영
 - 교육장소: 경남도 농업기술원의 교육관(미래농업교육관), 경남 농업기술원의 온실 Study Group회원농장

표 5-17. 경남의 농업인 Study Group 학습 활동

구 분	학습활동내용	교육시간
핵심기술교육 및 현장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 ▶ 수확 후 처리 및 가공시설에 대한 기술지원 ▶ 작물의 생육상황 판별 및 환경조절 능력배양 ▶ 현장 실습교육, 선진농가 비교 견학, 벤치마킹 ▶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약안전성 교육 등 	2
현장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습교육, 선진농가 벤치마킹 등 	(3)
피드백(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 애로기술 질의 응답토론, 정보교류 	1

○ 전문가 학습조직 육성

- 지역단위로 품목별 농업교육에 관심이 있는 농업교사, 교수, 품목실습전문교수, 농촌진흥청의 전문지도연구회, WPL 선도 농가, 그리고 연구자 등의 상호 연결한 학습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이들의 정기적 학술교류, 현장 상호 방문, 해외 탐방활동을 국가적으로 지원 해줌.
- 특히 농업 현장 감각이 없는 농업계 교사, 교수를 위한 연수 과정으로 활용하고, 농업계 교사를 준비하는 예비 교사들의 농업관련 체험 또는 전문성 개발 기회를 체계적 지원
- 품목실습교수, 농촌진흥기관의 전문지도연구회 요원 등 교육학에 대한 기본 역량이 되는 전문가의 학교 교육 참여(협동교수) 활성화 필요함.

□ 중장기 추진과제

○ 농업법인을 통한 농업인 학습 촉진 및 신규 유입인력 육성 강화

- 농업법인은 핵심농가와 중소농가가 결합한 지역농업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수단이자 지역농업 조직화의 실질적 주체로서, 지역농업 활성화에 여러 측면에서 기여하고 있으나, 실제 농업인력의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체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
- 반면 귀농자를 포함한 신규 취농자의 경우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농지 확보, 생산기술의 습득, 농촌사회에 동화 등 많은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 개별 농업경영체 중심의 신규 취농 정착 인큐베이팅은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지만, 농업법인은 농업회계, 판매·마케팅, 영농계획의 수립 등 귀농자의 다양한 경력을 활용할 영역이 많고, 개별적인 이해관계에 얽매일 소지가 적음.
- 정예 농업인력 핵심축으로서 기존의 개별농가 중심의 지원책에서 다시 농업법인 육성으로 전환해야 함. 동시에 신규 취농자의 영농정착 인큐베이팅 조직으로서 농업생산자조직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귀농자(외부

인력)의 고용을 장려하고 촉진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인건비, 경영 컨설팅, 공동경작지 확보 지원 등 농업생산자조직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품목별 지원방향
 - 미작: 들녘별 경영체 등 생산법인, 농기계임작업 및 공동이용조직
 - 시설원예: 유통 및 가공법인. 첨단시설농업생산법인
 - 과수: 유통법인
 - 축산: 생산법인. 가공법인
- 지역별 농업여건을 감안한 농업법인 육성계획 수립
 - 시군 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 발전계획에서 농업법인을 포함한 경영체 육성을 중요한 항목으로 다룸
 - 시·군별 농업법인 50여개 육성: 식량작물 35여개, 시설원예 10여개, 축산 3~5개
 - 시·군별 농업법인 종사자: 350명 내외(법인당 9~10명 종사자 고용)
- 농업법인 취업인력에 대한 교육 및 인건비 지원
 - 회계의 투명성, 노무관리능력을 갖춘 법인이 신규취농자를 고용하여 훈련할 경우, 교육훈련비와 임금의 일부를 일정기간 지급 → 농산업인턴제 확대: 지원기간(8개월)과 선발인원(200명)을 대폭 확대
 - 비전이 있고 안정된 직장으로서 법인의 취업조건 개선·정비: 농업의 특성을 감안한 노동시간, 휴일 및 휴가 등이 포함된 표준취업규정 제정

농업회사법인 흙살림³⁸의 신규인력 창업보육 사례

- 흙살림은 농업 생산에서 시작(1984)하여 단계적으로 농업유관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
 - 유기농 농업생산 → 유기농 연구모임 조직(1991년) → 유기농 연구소(흙살림 연구소) 설립(1993년) / 유기농 자재 국산화 → 친환경 농업교육(환경농업교육장, 2000년) / 컨설팅 실시 → 농산물 유통(흙살림 생활꾸러미, 2010년)

- 현재 80명 고용: 관리(영업)분야 40명, 연구 10명 / 현장근무 40여명(사회적일자리 20명 포함)

- 신규 취농자에 대한 창업보육 기능 수행
 - 농업계 학생/귀농자의 연락처를 위한 인큐베이팅 시스템 운영
 - 농업인에게 필요한 체력, 생산 및 생활 기술,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농산물 유통 등의 분야에 대한 도제식 교육(생산, 인증, 유통, 분석 등을 통합적으로 배울수 있음)
 - 농업인력공급 + 기초이론교육 + 농업실습 등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

일본의 조직경영체 육성 정책

- 食과 농림어업의 재생을 위한 기본방침·행동계획(2011. 10. 25)
 - 7개 전략 중 첫째로 지속가능한 튼튼한 농업의 실현을 통한 경쟁력·체질 강화를 들고 있음
 - 세부 전략으로 장래 일본농업을 지탱할 인재 확보를 들고 있는데, 청년취업자의 경영 안정 지원, 법인고용 취농의 촉진, 지역 리더층을 두텁게 하는 농업경영자교육의 강화를 통한 신규취농 증대를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음
- 지역농업 마스터플랜의 수립에서 조직경영체를 비롯한 지역의 중심경영체의 육성을 가장 중시하고 있음
 - 토지이용형농업에 있어서 조직경영체와 대규모 농가에의 농지집적을 위한 지원 강화(규모확대 가산금, 이양협력금 지급)로 현재 30%인 점유비를 80%로 향상시킴
- 경영체육성을 위한 농업투자지원사업에서 인정농업자와 경영발전지향농가, 농업법인, 마을영농조직을 포함
 -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등에 필요한 기계와 시설의 조성과 개량, 농지 개량에 필요한 비용에) 10~30% 보조 (보통은 50% 이상의 용자만 있음)
 - 마을단위의 공동농작업, 농기계공동이용 등을 위한 영농조직이 법인화 하기 위해 필요한 농기계 구입에 50%까지 보조

일본의 법인취업을 통한 신규취농 지원

- 일본은 최근 지속적으로 신규 취농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신규 자영농업 취농자 감소 때문이고, 농업법인 등에 신규 고용 취농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신규 자영농업 취농자: 72,350명(2006년) → 44,800명(2010년)
 - 신규 고용 취농자: 6,510명(2006년) → 8,040명(2010년)
- 일본은 특히 40세 미만의 농업인력 유입에 초점을 두어 일본의 '농업구조동태조사' 등 조사에서 40세 미만의 신규 취농자에서 기간적 농업종사자로서 정착하는 것은 매년 1만 명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결과와 관련하여 새로이 1만 명을 증가시켜 연간 2만 명을 확보할 것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함(2012년 사업규모는 13,374백만엔)
- 새로이 증가시키는 1만 명 가운데 자영업 약 6,000명, 법인 취농 약 4,000명 정도로 목표를 잡음(종래 40세 미만 신규 취농자가 대략 자영 60%, 법인 취농 40%인 것을 토대로 함)
 - 구체적으로 자영업의 약 6,000명에게는 취농으로부터 최장 5년간, 연간 150만 엔을 지급함.
 - 법인 취농하는 약 4000인에 대해서는 농업법인의 취농 수용을 독려하기 위하여 취농 희망자를 신규 고용하는 법인에게 1인당 최장 2년간 연간 최대 120만 엔을 교부함
 - 한편 45세 미만이면서 취농을 전제로 선진농가나 법인에서 연수 중 최장 2년간, 연간 150만 엔을 지급함. 전국 각지의 농업대학교의 연간 졸업생 수 등을 고려하여, 2,200명 정도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 일본의 법인을 통한 신규 취농 정책은 1997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사업은 신규 취농 희망자들이 농업법인에 우선 취업해서 상당기간 영농기술을 배운 후, 회사 인근 지역의 토지를 취득하여 영농활동을 하게 됨으로써 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무엇보다도 영농기술을 배우는 동안 급여를 받아 농촌에서의 생활을 지속할 수 있어 효과가 높다는 평가임.

38 대표 이태근씨는 농대 졸업이후 1984년 귀농이후 유기 농업을 기반으로 농업 시작 (1989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1994년 학사개척농 선정)

3.5. 농업교육/인력육성 시스템 구축

- 농업교육 및 인력육성의 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능력중심 농업교육체제, 농산업 전후방 인력육성, 농업교육 거버넌스와 정책추진 체제 등 하위 세 개 영역으로 나누어 과제를 제시하였음.

3.5.1. 능력중심 농업교육체제 구축

- 각종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농업분야 학습결과의 체계적 기록과 농업분야 능력표준과 자격체제 확립 등의 과제 추진이 필요함.

□ 기대 실적과 성과

- 능력중심(Competence-based) 교육을 통해 다음의 변화가 기대됨.
 - 품목중심/역량중심/평생교육 실현의 기본
 - 개인기반 학습결과의 누적 기록을 통해, 모든 농업교육 성과와 자격이 연결되게 됨.
 - 학문 중심의 농업계 학교 프로그램이 역량 중심으로 바뀌면서, 교육과정 이 슬림화되면서도 효율성 있게 운영이 되고, 무엇보다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연계성이 강화됨.
- 구체적으로 기대되는 실적으로는
 - 농업인 학습기록의 체계화 및 농업인 평생학습계좌제 실현
 - 농업분야 28개 주요 품목의 능력표준 개발
 - 전문 분야별 자격체제 개발

□ 단기 추진과제

○ 농업분야 학습결과의 체계적 기록 누적

- 농업관련하여 지자체 단위, 중앙 단위에서 받은 다양한 교육이 통일된 체계에 따라 기록·관리되도록 해야 함.
- 이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추진하는 평생학습계좌제와 연동이 되도록 표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학습계좌제

- 평생학습계좌제는 개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습계좌에 누적 기록하여 체계적인 학습 설계를 지원하고, 학습결과를 학력이나 자격인정과 연계하거나 고용 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법적 근거: 「평생교육법」 제23조(학습계좌)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하여 학습계좌(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구성 요소
 - 학습과정 평가인정: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학습과정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과정을 평가하여 평생학습계좌에 등록 가능한 학습과정으로 인정하는 절차
 - 학습이력관리시스템: 학습자가 학습이력을 누적 관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에 만든 학습계좌(www.all.go.kr)로, 인적사항, 학력, 자격증, 평생교육 이수 실적 등을 수록
 - 학습결과 활용: 자신의 학습이력을 증명서 또는 이력철로 발급받아 학습설계, 학력 및 학위 취득과 연계

○ 농업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개발

- 직무능력표준이란 한 개인이 산업현장에서 자신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직업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출하여 표준화한 것. 직업능력은 기초직업능력³⁹과 직무수행능

³⁹ 직종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모든 직업분야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공통

력으로, 직무수행능력은 더 구체적으로 필수직업능력⁴⁰, 선택직업능력⁴¹ 그리고 산업공통직업능력⁴²으로 나누어짐.

그림 5-15. 직업능력표준상의 직업능력의 구조



- 2002년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추진하여 현재까지 총 260직종이 개발했고, 농업분야는 2007년에 재배, 환경, 종자 분야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12개 직종이 개발되어 있지만 현장 적용성에 있어 문제가 있으며, 축산분야는 전혀 개발되어 있지 않음.
- 한국산업인력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농업분야의 품목별, 전문 분야별 국가능력표준의 개발이 시급함.

적으로 필요한 능력.

40 해당 분야에서 특정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직업능력으로 해당 직업에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직업능력

41 해당 분야에서 기업간 업무범위, 장비 등의 차이점에 대한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직업능력으로, 해당 직업에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직업능력은 아니나 기업체의 특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직업능력

42 해당 분야에서 직업 혹은 직무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능력

표 5-18. 농업분야 능력표준 개발 직종 현황

중분류	소분류	하위 단위	직종수
농업	재배	수도작재배, 전특작재배, 채소재배, 과수재배, 화훼재배	12
	환경	환경, 작물보호	
	종자	종자계획, 육종, 종자생산, 유통보급, 종자법률	

○ 농업분야 국가자격체계(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NQF) 개발을 통한 교육수준간 연계 추진

- NQF: 모든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결과를 종합적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학교교육을 통한 형식교육의 결과와 비공식-비형식 학습결과 등에 대하여 국가 차원에서 이를 인정하는 틀 (framework of recognition on learning outcome)
- 농업분야도 품목 및 각 농업인력 분야별 개발된 NCS를 기반으로, NQF를 통해 다양한 교육과 학습결과가 연계되도록 해야 함.

표 5-19. 농업(생산)분야 NQF (안)

수준	명칭	직무수준	전문교육기준	지식 / 기술 / 자율성 / 책임 / 영향력 (업무)복잡도
5	선도농업인	<p>정예농업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지식농업인이나 대규모 농업법인 CEO에게서 많이 나타남 - 박사학위를 부여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이론/실무)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농업을 경영함 	<p>전문교육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품목에 대한 높은 수준의 실무 기술과 더불어 이론적 지식을 가지고 있음 -해당 품목분야 및 비즈니스 환경을 고려한 종합적인 지식과 판단능력을 보유 -전문적인 경영역량도 가지고 있어 관련분야 중간관리자를 관리할 수 있으며, 해당 분야 초보농업인을 지도할 수 있음. -기술력을 전국적으로 인정 -품목 관련 전문 연구를 독자적으로 수행 가능 -전국적 수준의 기술 전파 -직무분석의 대상, 중앙정부 농정에 참여 -장기적이고 전략적으로 업무 수행 -농업경영 전반의 문제에 대하여 경기호름을 전망하고 선도적으로 대응

(계속)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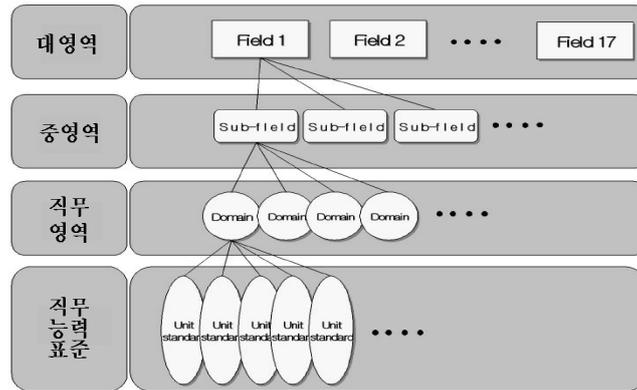
수준	명칭	직무수준	전문교육기준	지식 / 기술 / 자율성 / 책임 / 영향력 (업무)복잡도
4	전문농업인	-농업분야 10년이상 경력을 가진 전업적 영농종사자 또는 대규모 농업법인 중간 관리자나 중소규모 농업법인 CEO들이 수행하는 수준	농업 마이스터 대학 이수 80학점 (1200시간)	-해당 품목에 대한 높은 수준의 실무 기술 보유(이론적 지식은 다소 부족) -중소규모 법인내 중간관리자를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경영 역량 -지역 수준에서 기술력 인정 -인근 지역 농가에 대한 제한적 기술 전파 -품목 관련 전문 연구, 지역농정에 대한 참여 -지역의 품목 학습조직 선도 -(중소규모 농업법인) CEO로서 농업법인을 성과를 책임 -(대규모 농업법인) CEO의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아 업무 수행 -농가 경영에 있어 발생하는 예측불가능한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해결
3	준전문농업인	-농업분야 4~10년 정도 경력 소지자로 겸업(1종) 영농종사자 또는 중소규모 농업법인 중간관리자들의 수행 수준	예비농업 마이스터 과정	-해당 품목에 대한 안정적 소득을 올릴 수 있을 정도의 기술과 지식 -독립적인 농가(경영체)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경영역량 -자기 농가(농업경영체)의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 -(중소규모 농업법인) CEO의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아 업무 수행 - 농업경영에 있어 발생하는 예측가능한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
2	초보농업인	-3년이하 영농 경력의 신규취농자, 농업법인 분야별 업무담당자, 또는 농업계 (전문) 대학생 수준	40학점 (600시간)	-성공적 정착(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용적 생산기술 역량 -기본적인 농업경영기술과 농업 생산·가공·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 이해 -농업에 대한 사명감과 철학 -자기 농가(농업경영체)를 경영하지만 문제해결에 있어 인근 선도농가나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함 -(농업법인) 자신에게 부여 받은 업무를 관리자의 부분적 지시를 받으며 자율적으로 수행 -품목에 대한 이해를 요하는 작업에 대하여 큰 무리없이 자율적으로 수행
1	예비농업인 잠재농업인	-농업계 고등학생, 귀농준비자 또는 농업분야 단순노동인력이 수행하는 수준	40학점 (600시간)	-동물, 식물에 대한 적성과 농업에 대한 흥미 -농업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 -농업분야 기초기술 습득 -행동지향성 -경영주(중간관리자)의 지식을 받아 주어진 단순 업무를 수행 -단순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

뉴질랜드의 NQF / NCS 사례

- 뉴질랜드의 모든 교육·훈련은 자격제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중등 단계부터 학교를 통해 획득된 학위와 사회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이수되는 단기 또는 장기의 프로그램은 자격과 연계. 뉴질랜드 국가자격체제(NQF: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가 바로 그것으로, 국가적으로 인정된 일관성 있는 직무능력표준과 자격을 관리하고, 모든 형태의 학습결과에 대한 인정과 이에 상응하는 학점(credit)을 부여함. 국가에서 통용되는 모든 국가 자격(National Certificate), 국가 학위(National Diploma)들은 모두 NQF에 등록되며, 교육·훈련기관이 운영하는 민간 자격 등도 모두 이 틀 안에 등록되도록 하고 있음.
- NQF에 따른 모든 학습자의 학습결과는 ‘학습 기록(ROL: Record of Learning)’ 체제에 의해서 관리됨. NQF상에서 평가를 받고 학점을 획득한 학습자들은 학습기록(ROL:Record of Learning)을 받음. 학습자가 NQF상의 교육·훈련에 등록할 때 그들의 상세 인적사항과 등록 수수료를 국가자격관리청(NZQA: New Zealand Qualifications Authority)⁴³에 제출하면 NQF상에 등록된 학습자가 되고 고유 ID 번호를 부여받음. 학습자는 장기간에 걸쳐 자격을 취득할 때까지 NQF상에 ROL을 통해 학점을 축적할 수 있음.
- 교육·훈련 제공자 역시 인터넷을 통해서 단위 학습자들의 단위 표준에 대한 결과를 알아볼 수 있으며 인터넷의 정보는 통상적으로 2주마다 한번씩 갱신됨. 학습자가 국가 자격이나 학위과정을 완수하였을 때 그들은 NZQA에 수기로 작성한 양식을 통보하면 이 기록이 ROL에 등록되게 됨. ROL은 뉴질랜드의 교육·훈련 제공자, 고용주, 노동 조합, 전문직 단체에 의해서 보증되고 지원되는 국가적 데이터베이스로서 영국, 유럽,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북미 지역에서까지도 호환되고 있음.

43 농업을 포함한 각 산업분야의 자격을 관리(자격코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인증 및 등록하고, 국가 자격시스템을 관리)하는 우리나라의 산업인력공단과 같은 기구이다.

그림 5-16. 뉴질랜드 NQF 하위영역과 NC관계



- NQF상에는 거의 모든 직무와 학습의 범위를 망라하는 국가 자격과 학위가 존재하는 데, 17개 대영역(Field) 하에 204개 중영역(sub-field) 그리고 중영역 하에 세부 직무영역(domain), 직무영역 하에 단위 직무능력표준(unit standard)의 4단계로 구성됨. 2007년 현재 17,056개의 단위 직무능력표준이 존재함. 각 표준에는 기대되는 구체적인 학습 성과에 대한 기술과 더불어 NQF에서의 해당 Level과 이수에 필요한 학점과 필수 또는 선택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 기술되어 있으며, 이는 각 산업계에서 보증한 것임.
- 자격 대영역은 총 17개 영역으로 나뉘지는데 그중에 하나가 농림수산업 분야. 농림수산업 분야는 다시 12개 중영역(농업, 원예, 임업, 말사육, 동물 보호, 해충관리, 돼지 사육, 가금 사육, 농촌 계약, 수산업, 잔디, 양털수확 등)로 나뉘짐.
- 일반적으로 하나의 자격은 세부 직무영역 하나 또는 몇 개의 직무영역이 연합되어 자격을 형성. 한 예로 중영역 농업의 세부 직무영역중에 하나인 영농기술(Farming Skill은 National Certificate in Farming Skill이라는 자격을 형성하는가 하면, 아래에 보는 바와 같이 세부직무영역 여러 개가 합쳐서 농업 국가자격(National Certificate in Agriculture)을 형성하기도 함. 아래 두 번째 나오는 농업 국가자격 수준 3(National Certificate in Agriculture (Level 3) with strands in Arable Farming, Cattle Farming, Dairy Farming, Deer Farming, and Sheep Farming)은 경작농업, 목축, 낙농, 사슴사육, 양사육 등의 세부 직무영역으로 구성됨을 알 수 있음.
 - National Certificate in Agriculture (Level 2)
 - National Certificate in Agriculture (Level 3) with strands in Arable Farming, Cattle

- Farming, Dairy Farming, Deer Farming, and Sheep Farming
- National Certificate in Agriculture (Level 4) with strands in Arable Farming, Cattle Farming, Dairy Farming, Deer Farming, and Sheep Farming
- National Certificate in Agriculture (Production Management) with strands in Arable Farming, Cattle Farming, Dairy Farming, Deer Farming, and Sheep Farming

표 5-20. 뉴질랜드의 국가자격체계

수준	자격명	이수 학점	비고
10	Doctorates	10단계에서 최소 240학점 이상 이수	
9	Masters Degrees	8,9단계에서 최소 240학점 이상 이수(단, 9단계에서 최소 40학점 이상 이수)	10단계 등록 가능
8	Postgraduate Diplomas & Certificates	7단계에서 최소 120학점 이상, 그리고 8단계에서 최소 7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9,10단계 등록 가능
	Bachelors Degrees with Honours	최소 480학점 이상(연계과정 또는 복수전공)8단계에서 120학점 이수	
7	Bachelors Degrees	최소 360학점(4-7단계);7단계에서 최소 72학점 이상 이수/4단계에서 최대 20학점 이수	8,9단계 등록 가능
	Graduate Diplomas & Certificates	6,7단계에 등록 가능. 5-7단계에서 최소 60학점 이상 이수/각 단계별 최대 40학점 이수	복수전공, 연계전공
6	Diplomas & Certificates	4단계 이상에 해당되는 학점 중 최소 120학점 이상	
5		이수/5단계 이상에서 각 단계별 최대 72학점 이수	
4			
3	Certificates	40학점 이수: 고등학교 수준의 자격	
2			
1			

- 뉴질랜드 국가자격체계의 수준은 총 10단계로 구분이 됨. 수준 1~4은 고등학교 교육과 이에 상응하는 기초훈련(basic training)수준이며, 수준 5~6은 대학의 전문학위(diploma) 과정 수준이며 수준 7~10은 종합대학 학사학위(Bachelor)과 대학원 학위(Master, Doctor)에 해당하는 수준임.

□ 중장기 추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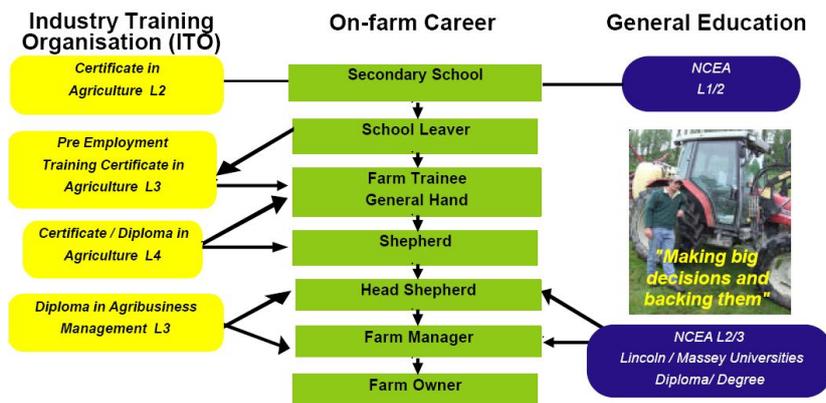
- 중장기적으로 뉴질랜드의 사례 처럼 농업분야 자격체계를 기본으로 각종 학교 농업교육 및 사회 농업인 교육간의 연계가 원활히 이뤄지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덴마크 등 유럽의 일부 국가 사례처럼, 아무나 농사를 짓고, 농지를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과 관련한 일정 수준의 교육과 전문성을 획득한 사람에 한해 농업 부문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진입장벽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뉴질랜드 NCS와 진로경로의 연계

- 생산분야 종사자로 성장할 것인가 관리자로 성장할 것인가에 따라 명확한 진로 경로 (Career Path)를 제시하고, 그에 따라 교육과 자격이 연계되어 제공됨.
 - (생산분야 종사) 농업인(On-Farm Career): 농업법인 CEO / 중간관리자의 경우 중등학교 졸업하면서 농업분야 자격 수준 2(Certificate in Agriculture L2)와 수준 3을 취득한 이후, 농장에서 훈련생으로 일하면서 수준 4를 취득하고, 이후 농장 직원으로 취업한 후, 농업경영 관리과정을 이수한 후, 중간관리자, 관리자, 농장 주인으로 성장하게 됨.

그림 5-17. 뉴질랜드의 농업경영인 진로경로



- 농업을 전후방에서 도와주는 농업 전문가(Off-Farm Professional Career)의 경우, 농업분야 자격 수준 2(Certificate in Agriculture L2)와 일반 교육(학문중심교육) 수준 1, 2를 취득한 이후 전문직업교육기관에서 중등이후 교육을 이수한 이후, 4년제 농업계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후 농업분야 전문가(은행원, 연구자, 컨설턴트 등)로 진출하게 됨.

덴마크의 Green Certificate

- 덴마크 농업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농장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농장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능력을 보장하는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이 자격은 농업전문학교의 정규적인 훈련을 받은 후 발급됨.
- 덴마크의 농업전문학교의 교육과정은 크게 기초과정(basic education)과 연장과정(extended education)으로 구분됨.
- 기초과정은 ‘2개월 수업-12개월 실습-4개월 수업’의 모듈 1과 ‘17개월 실습-6개월 수업’의 모듈 2로 구성됨.
 - 이 3년 6개월 과정을 모두 마친 경우 농업경영 자격을 갖춘 농가에 고용될 수 있는 자격(license as skilled farmer)이 부여됨.
 - 모듈 1과 모듈 2 과정을 모두 마친 학생은 영농경영자를 양성하는 농업직업학교에 입학할 자격이 부여되며, 경우에 따라 농과대학에 입학할 자격이 부여되기도 함.
- 연장과정은 기초과정을 마친 학생에 대해 실시하는 교육훈련 과정
 - 18개월 과정인 모듈 3을 이수한 자에게는 Green Certificate을 수여하여 농장을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자격(farm manager)을 부여함.
 - 모듈 4과정은 모듈 3과정의 연속과정으로서 5개월 과정으로 운영되며 Green Diploma를 수여함.

3.5.2. 농업 전후방산업 인력육성⁴⁴

- 우리나라 농산업 분야별 종사인력을 보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대분류)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 산업인력 중 농림수산생산과 관련된 분야에 7.8%,

⁴⁴ 농업 전후방 산업인력 육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이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별도의 정교한 인력 수급 분석을 토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여기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가지 과제로 제시하고, 구체적인 육성 목표 등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음.

각종 투입재와 관련된 후방산업에 0.17%, 가공·유통 등 전방산업에 3.08% 비중으로 종사하고 있음.

표 5-21. 우리나라 농림수산업 분야별 총산출 및 고용인력 현황(2000~2010)

단위: 10억원/만명

	2000		2005		2010	
	총산출	고용	총산출	고용	총산출	고용
농림수산업(생산)	39,106 (2.97)	2242 (13.45)	42,918 (2.19)	1830 (10.40)	52,905 (1.78)	1585 (7.79)
- 농림수산업서비스	908 (0.17)	14 (0.08)	1,031 (0.05)	29 (0.16)	1,334 (0.04)	34 (0.17)
농림수산업후방산업 (투입재)	14,988 (1.14)	124 (0.74)	19,554 (1.00)	123 (0.70)	32,186 (1.08)	129 (0.63)
농림수산업전방산업 (가공·식품·유통)	73,149 (5.58)	698 (4.19)	85,431 (4.38)	623 (3.54)	113,669 (3.81)	627 (3.08)
농림수산업 전체	127,243 (9.7)	3,064 (18.4)	147,903 (7.6)	2,576 (14.6)	198,760 (6.7)	2,341 (11.5)

*농림수산업서비스는 농림수산업(생산) 총액 일부에 포함되는 것으로, 네덜란드와의 비교를 위해 추가로 제시함

자료: 한국은행, 각년도, 산업연관표.

○ 한편 농업국가 중 전 세계 최고의 생산성을 자랑하는 네덜란드 농산업 종사

표 5-22. 네덜란드의 농산업의 생산 및 고용구조(1995, 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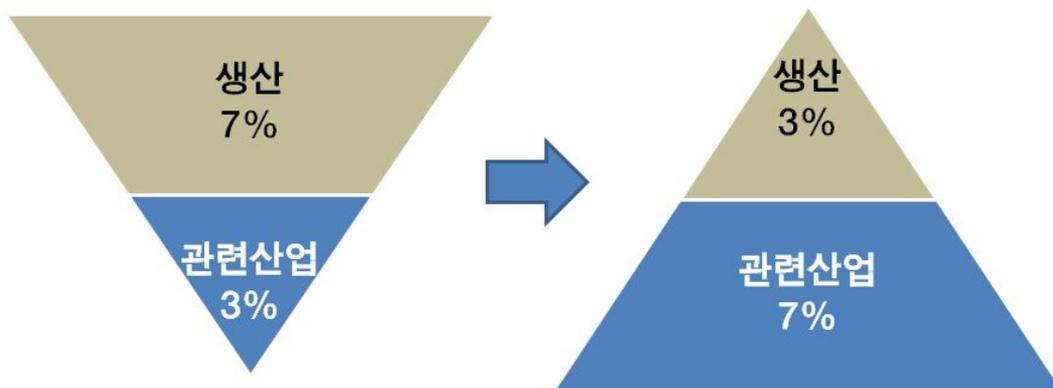
	총생산(십억유로)		고용 (1,000명)	
	1995	2005	1995	2005
농산업	32.3 (12.0)	41.9 (9.4)	659 (11.6)	648 (10.0)
농업/원예 (생산)	8.4 (3.1)	7.2 (1.61)	189 (3.3)	174 (2.7)
후방산업 (농기계·농업설비·농자재)	6.5 (2.4)	8.8 (2.0)	135 (2.4)	126 (1.9)
전방산업 (가공·유통)	16.4 (6.1)	22.4 (5.0)	297 (5.2)	286 (4.4)
농업서비스(교육·연구 등)	1.0 (0.4)	3.7 (0.8)	39 (0.7)	62 (1.0)

자료: Rijk 등(2008)의 '네덜란드 농업정책의 변화와 미래과제' 자료를 일부 수정 보완.

인구는 전체 산업대비 10% 수준으로, 3%는 농업 또는 원예 등의 농업현장과 관련하여 종사하고, 7%는 농기계·농업설비·농자재, 가공, 수송, 연구 및 개발, 지도, 교육 등의 농업 전·후방 및 관련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고 있음.

-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업 인력구조 개편 필요
 - 농업 경쟁력을 개별 경영체의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지역별 그리고 국가단위에서의 ‘투입→ 생산 → 가공·유통’ 그리고 ‘지원’ 시스템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
 - 같은 10%의 인구가 종사하고 있더라도, 현재와 같은 역피라미드형(관련산업 대비 생산인력의 비중)에서 네덜란드처럼 관련산업이 시스템적으로 전후방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해주는 피라미드형으로 전환이 필요함.

그림 5-18. 농산업 인력구조 개편의 방향



- 농업계 학교를 통해, 앞서 강조한 농업 생산분야 인력뿐 아니라, 관련산업 분야의 인력육성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함.
 - 농업생산활동에 있어 필수적인 농업기계, 비료, 농약 및 농업용 시설자재 그리고, 생산된 농산물의 가공과 유통과 관련된 시장규모 파악 및 종사인력 수급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더불어, 현재의 인력 양성시스템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

- 특히 농업 생산분야 인력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전문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수요원, 컨설턴트 요원의 양성이 시급함.
 - 우리나라 농업인력육성과 관련한 문제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농업인력육성의 주체(교수요원, 컨설턴트)의 역량 부족임. 농고, 농대생중 우수인력을 선별하여 농업 전문가(교수요원, 컨설턴트)를 양성해야 함. 앞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네덜란드의 농업의 교육·연구 등의 전문성 서비스 종사인구가 1% 수준인데 비해, 우리는 그 1/5수준임.
 - 앞서 언급된 농업계 대학에서의 영농중심교육체제를 통해 현장 중심 교수요원, 농업컨설턴트를 양성하는 것 외에 농대생중 영농기반은 없지만 현장 농업에 기여할 의욕이 있는 소수 정예의 학생을 엄선하여 장기 전문가양성과정을 운영할 필요 있음. 국내의 최고 전문가진을 구성하여 이들의 교육을 전담하게 하고, 경우에 따라 네덜란드나 뉴질랜드 등과 같은 농업 선진국의 교육기관에 장기 연수를 보낼 수도 있을 것임.

3.5.3. 농업교육(인력육성)을 위한 거버넌스 및 정책추진 체계 구축

- 점차 낮아져만 가는 농업에 대한 국민 지지도의 회복, 일상 경험과 농업 생산 현장과의 괴리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농업 관련 문맹 현상의 개선, 젊고 유능한 신규 농업인력의 지속적 확보, 농업인 전문성의 체계적 개발 및 관리를 위한 관련 교육역량의 집중과 조직화 등의 우리나라 농업이 안고 있는 핵심 현안들은 농업교육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음. 공공 및 민간의 농업 관련 기관과 단체가 서로 역량을 연계하여 농업교육의 방향 설정과 더불어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함.
- 농업이 처한 국내외적 위기 상황을 타파하고, 나아가 새 시대가 요구하는 농업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진 농업국들은 범 국가적으로 관련 단체들이 연계하여 농업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덴마크 47개 농업 관련 단체의 연합기구인 DAC 차원의 농업인 단체 교

육·훈련 역량 지원을 위한 LOK의 활동, 뉴질랜드 12개 농업 관련 단체 연합으로 농업교육 방향 정립 및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HC in AgHort의 활동, 미국 13개 전국 규모 농업 관련 단체 연합으로 농업교육 부흥을 위한 Team Ag Ed의 활동 등은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들임.

- 네덜란드는 지역단위로 Green Knowledge Network를 구성하고 있음.

뉴질랜드 HC in AgHort

- 2002년 농업·원예 분야가 직면한 인적자원의 문제(공급, 개발, 유지)의 심각성을 공감한 산업계, 농업인, 교육·연구자들이 연합하여 만든 농업 인력 육성관련 연합기구임.
 - MAF SFF(sustainable farming fund)와 MAF Policy에서 초기 추진에 필요한 자금 지원 및 전문인력 지원
 - 참여단체: 기관에서 하는 각종 프로젝트 운영 재정 및 인력 지원
 - Meat & Wool New Zealand
 - Dairy Insight
 - Deer Industry New Zealand
 - Lincoln University
 - The Tertiary Education Commission
 - Dept. of Labor
 - The New Zealand Fruitgrower Federation
 - Dixel
 - The Agriculture ITO
 - Massey University
 - AgResearch
 - Min. of Social Development
- 주요 활동내용
 - 농업·원예업 분야 다양한 진로에 대한 홍보(Career Promotion Strategy)
 - 농업·원예업 분야 발전 방향 개발·검토 (Review of Leadership Development in the Ag/Hort Sector)
 -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우수사례의 보급을 위한 훈련 모듈 개발 및 인적자원의 역량 개발과 관련한 연구 수행(Career and Training Pathways)
 - 평생학습 촉진(Seamless Education and Training)
 - 미래 인력 수요 및 인력에게 필요한 기술 전망에 대한 연구(Labour and Skills Forecasting)
 - 농업·원예업 관련 내용이 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Schools Curriculum Strategy)

미국의 농업교육 관련 역량의 연계를 위한 Team Ag Ed의 10×15

- National Council of Agricultural Education을 필두로 농업교육 관련 기관들이 미국 사회의 위기 상황을 제기하고 이를 농업교육의 부흥을 통해 해결하는 시도를 위해 작업반 (Team Ag Ed) 결성하고, '10×15' 이라는 계획을 추진(2006년).
- 참여단체
 - The National Council for Agricultural Education
 - AgrowKnowledge
 - Agricultural Education Division of the Association for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 American Association for Agricultural Education
 - National Association for Agricultural Education
 - National Association of Supervisors of Agricultural Education
 - National FFA Alumni Association
 - National FFA Foundation, Inc.
 - National FFA Organization
 - National Farm and Ranch Business Management Education Association
 - National Postsecondary Agricultural Student Organization
 - National Young Farmer Educational Association
- 10×15 Long Range Goal for Agricultural Education: 2015년 까지 10,000개의 농업과학 교육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할겠다는 계획
 - 미국 사회가 당면한 현안 중에 공립학교의 학업성취도를 어떻게 개선하는가이고, 또한 미국민에게 안정적이고 안전한 식품 공급을 해주는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농업 교육 분야가 역할을 해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National Council of Agricultural Education가 주도하여 제시한 계획
 - 수학과 과학 등의 내용을 일상에 밀접하게 관련있는 농업교과에 통합시켜 기초학습 능력을 제고시키고, 농업 분야 심각한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에서부터 농업과 관련한 학생들의 소양(agricultural literacy)을 제고시키고, 지역사회 리더십과 시민정신을 배양하도록 교실/실험실 수업, 실험학습,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의 농업과학교육 프로그램에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을 참여시키려는 노력임.
- 10×15에서 제시하는 8개 정책(priority initiatives)

- 농업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기준: 농업교육 통합모형에 근거한 학문적, 기술적, 직업적 기술을 위한 국가 농업교육 프로그램 기준을 설정하고 채택하도록 함.
- 식품, 농업, 자연자원 내용 기준과 국가 교육내용 기준과 연계: 과학, 수학, 언어, 사회과학 분야의 국가교육내용기준(national academic content standard)을 연계하고 국가기준을 설정하는데 각 학문단체를 개입시킴
- 다양한 농업교육 설계를 개발: 농업교육 프로그램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지역 사회나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농업과학 교육 설계를 개발함
- 프로그램 자료 보고: 프로그램 출발점을 형성하고, 이후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피드백을 주는 프로그램 결과 보고 체제 개발·운영
- 농업교사 영입: 농업교사 영입 전략을 개발·실행
- 농업교육 옹호 전략: 농업교육을 효과적으로 옹호해주는 지역, 국가 수준의 전략 개발
- 농업교육 브랜드 전략: 농산업 분야의 모두에게 최고의 성공을 가져다 주는 농업교육의 새로운 이미지 브랜드 전략을 개발·시행
- 프로그램 재정지원 전략: 농업교육 프로그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공공, 민간의 지원 참여를 유도하는 지방, 국가 차원의 전략

네덜란드의 Green Knowledge Cooperative

- 과거 농업분야 지식·정보 시스템(AKIS, Agricultural Knowledge & information System)을 대체하는 새로운 R&D와 교육 및 농업기술진파 시스템
- 2006년 모든 농업교육(green education) 및 연구기관간의 협약 체결
 - Involvement of business community
 - More value to knowledge
 - Regional embedding
 - Attractive education
 - Motivated students
- 13개 AOC(중등단계 농업교육기관)와 5개 HAO(전문대학수준의 농업교육기관), Wageningen 대학교(UR) 및 연구센터가 멤버로 참여
 - 총 75,000명의 학생
 - 15,000명의 관계자(교사, 교수, 연구자)
 - 120개 학교(campus 포함)

○ GKC 협력 프로그램

- Knowledge-circulation
 - bridging practice and research by students
 - school as regional centre of knowledge
 - valorisation of knowledge
 - driven by demands of the field (e.g. companies)
- Innovation of education
 - learning in the field
 - life-time learning
- Development of supporting infrastructure
 - joint infrastructure (ICT, Libraries, etc.)
 - in line with development of schools

○ 농어촌교육심의회 실효성 확보

- 중앙수준에서는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어촌교육심의회를 실효성을 강화해야 함.
- 농림수산식품부는 2007년부터 농업교육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농업교육체계의 합리적 구성을 위하여 농업교육심의회(이후 2011년 이후 농어촌교육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농업교육과 관련하여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함.
- 현재의 농어촌교육심의회 구성자체가 자체가 아래로부터(농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에 따른 정책 논의 기구가 아니라, 주로 공공부문의 농업교육 실행기관을 중심으로 위에서부터 논의 주제가 주어지는 형태임. 때문에 농어촌교육심의회가 농업 현장으로부터 제대로 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음.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교육 담당과(경영인력과) 이외에 누구의 주인의식, 몰입의 대상이 되고 있지 못함.
- 농업내부 전·후방의 관련 조직, 지역별 농업조직, 품목별 조직의 광범위한 참여가 보장되고 다양한 민간의 교육 주체들이 참여가 이루어져야 함. 그리고 농업교육과 관련한 지역 단위, 품목 단위 토론회 등을 바탕으로

로 제대로 수렴된 의제를 가지고, 관련 전문가들의 진단과 더불어 논의 주제가 심층적으로 논의되는 자리가 기본적으로 마련된 이후 최종 의사결정의 자리로서 심의회가 운영되어야 할 것임.

- 인력육성에 있어 비농업분야 관련 정책과의 교류 그리고 유사 시스템 벤치마킹, 관련 정보 공유 등의 관점에서 대표적인 비농업분야 인력육성 관련기관 관계자(교육과학기술부의 평생직업교육국장,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중소기업청장)의 참여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다른 한편 현재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농어업회의소의 주요 기능으로 농업교육 주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

덴마크 농업회의소와 농업교육

- 덴마크의 농업회의소(DAFC): 1919년에 덴마크산 농산물의 생산과 가공, 유통단계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Danish Farmer's Union, Federation of Danish Cooperatives와 Royal Danish Agricultural Society 등이 합작하여 설립된 DAC(Danish Agriculture Council)는 최근 덴마크 농업(Danish Agriculture), 덴마크 베이컨 및 식육위원회(the Danish Bacon and Meat Council), 덴마크 낙농위원회(the Danish Dairy Board), 덴마크 양돈(Danish Pig Production) 등과 통합하여 Danish Agricultural & Food Council(DAFC)로 새롭게 출범.
- DAC에서는 덴마크 농업에 관계되는 모든 정책적, 경제적, 상업적, 기술적 과제에 대하여 생산자단체·정부·EU가 협력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의 개척, 수출, 진흥, 보급촉진을 도모함.
 - DAC의 여러 위원회중 농업정보교육위원회 (The LOK Committee)는 1963년 DAC내에 설치되었으며 농업인의 교육에 관한 지침을 마련, 덴마크 농업의 세계화, 농업과 농촌지역의 발전에 대해 논의함.
 - 또한 회원 농민단체의 교육·훈련 사업의 체계화를 위해 회원 단체의 조직역량개발 (organizational capacity building), 그리고 교육·훈련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강사들 훈련 및 회원기관 담당자들 훈련, 교육과정 개발 등과 더불어 지역 농민들을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함.

○ 또한 DAFC 산하에 과거 Danish Agriculture의 하위조직이었던 농업자문서비스(DAAS: Danish Agricultural Advisory Service)는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농업인들에게 영농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음.

- 중앙의 1개 센터와 46개 지역센터, 그리고 약 3,50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음
- 중앙조직에서는 주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여 지역센터에 보급
- 지역 센터는 한 개소당 20~70여 명의 상담요원들이 약 500~2000여 명의 농업인에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 시군 단위 지역농업인력육성계획의 수립

- 지자체는 지역농정의 실행의 핵심 주체로 농업인력 육성을 주도하고 있지만, 대부분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에 의지하거나 해당 지역의 농업인력 실태에 대한 조사나 분석 없이 단기적 목표에 몰입하는 한계를 보임. 농업인력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 정책사업과 교육사업이 연계되어야 하며, 관련기관들의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필수임
- 기관별(부서별)로 분산 추진되고 있는 관련 정책을 조절하고, 연계시키기 위한 통합적 정책단위의 구축이 핵심과제임.
- 지역농업의 현실에 입각한 농업경영체 육성 및 관리정책을 추진할 근거로 시·군 지역농업 인력육성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입각하여 종합계획을 수립
- 시·군 지역농업 인력육성 지원조례에는 지역농업 활성화와 조직화를 실천해 나가기 위한 관련 주체의 역할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실질적 인력육성 관련 사업을 담당할 기구인 지역농업 인력종합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
- 이와 함께 지역농업 인력육성 종합계획 수립의 근거를 명시. 지역농업 인력육성 종합계획은 3년 단위로 수립하고 매년 연차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농업인력 육성 및 관리를 실천
- 시·군 농업인력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이 관련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

례도 있지만 농업인력 확보 및 육성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지원 조례로 특화

○ 지역농업 인력육성종합센터 설립

- 광역 단위, 시·군 단위 지역농업 인력의 종합적 관리 및 조직적 공급을 담당할 농업인력 전담조직의 설립 및 운영이 필요함. 이미 전북(농식품 인력개발원), 경북(농민사관학교)의 경우 광역 단위 농업교육과 관련한 사업을 위한 별도 전담조직을 두어, 도내 각종 농업교육 자원을 통합적 계획, 운영하고 있음.
- 시·군, 지역농협, 농민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운영하는 제3섹터 방식으로서 ‘지역농업 인력종합센터’를 설립 추진(정부의 시범사업을 통한 활성화 유도가 필요)
- 지역농업 인력종합센터는 지역단위 농업인력 정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시·군 지역농업 인력육성 지원 조례 및 종합계획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이를 위해 기존 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 귀농귀촌지원센터 등의 농업인력 담당 기능을 통합시키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농업교육과 관련하여 기대할 수 있는 또 다른 역할
 - ① 지역단위 농업교육 Coordinator 역할
 - 지역의 농업기술센터, 농협, 농민단체 등의 구심점
 - 농업계 학교와 민간의 교육 연계
 - ② 지역 농업/농촌 구인·구직 연계시스템 / 농업계 학생 취업정보 제공
 - ③ 지역단위 외국인 노동자/일용직/도시민 농업 기초교육 실시
 - ④ 영농승계 지원
 - ⑤ 신규 취농자 / 후계자 / 귀농자 지원
 - ⑥ 농업법인체 필요 인력 인큐베이팅 징원 / 기초역량 교육
 - ⑦ 노령농업인의 가업 승계 프로그램 (신규농과의 연계) 운영
 - ⑧ 지역농협 등 산지유통 조직화에 참여하는 농업경영체의 계절 노동력

의 안정적공급 (도시지역 인력센터와 연계)

⑨ 여성 농업인, 고령 농업인 등 취약 농업인의 지역사회 농업 내 취업 활동 지원

⑩ 이주 농업 노동자의 관리 및 교육·훈련 지원 담당

- 이밖에 다양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지만, 농업교육과 관련한 사업에 있어 중앙 단위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가 필수적임. 비농업분야(예: 보건복지부 지역자활센터, 여성부의 새일센터 등)처럼 농정원의 지역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임. 이 경우 기존 지역의 인재 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 농업계 학교 졸업생의 (사회적기업) 창업모델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임.

전북 농식품인력개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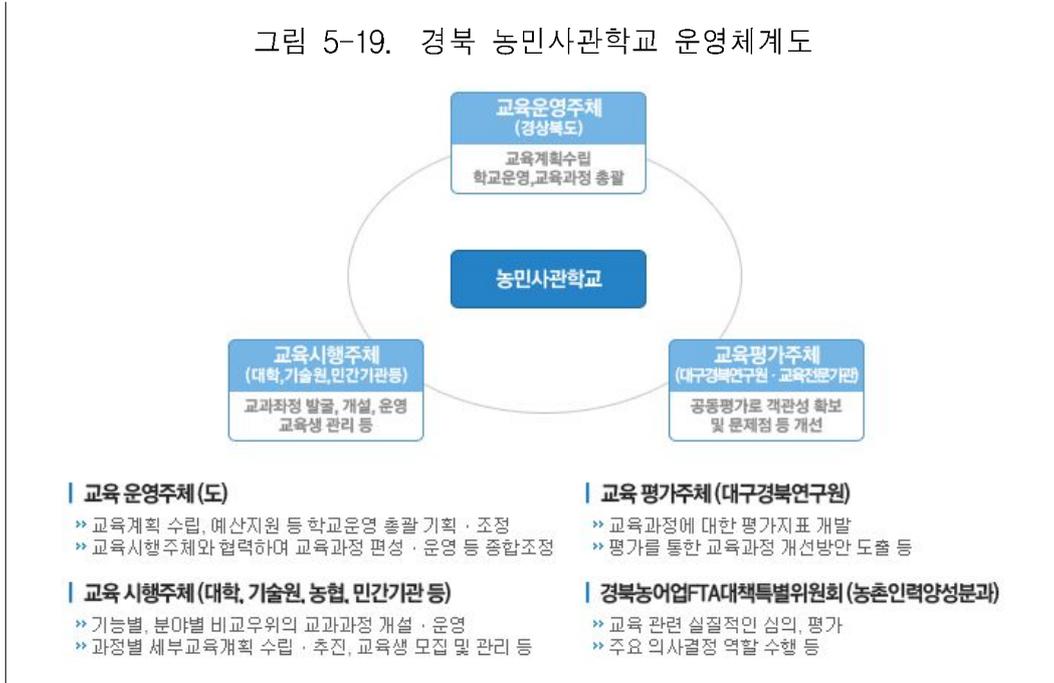
- 이전의 농민교육원(명칭 변경 → 농식품인력개발원 → 농식품사관학교 → 농식품인력개발원)
 - 전북도 주도하에 도 농업인 교육 그리고 농식품부 사업인 WPL(실용농업교육센터 JATC: 2011. 8. 16일 개소), 농업마이스터대학을 통합적으로 운영 → 연간 4500여명 교육.
- 과정별 교육에 부합하는 실습(체험) 중심의 현장 맞춤형 교육 실현
 - 병해충, 작물생리 등 문제해결 중심의 실용농업 교육과정 개설·운영
 - 생산↔가공↔마케팅↔관광 등의 교육연계를 통한 6차산업화 실현
 - 실용농업교육센터의 첨단온실 실습교육으로 습득기술 농장 바로 적용
 - 작물생육단계별로 체험·실습을 통해 현장 접목형 전문기술 습득
- 농식품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실습형 가공교육 확대
 - 생산과 연계한 가공교육관의 제조·가공실습, 품질분석·마케팅실습, 식품조리실습, 전문경영 교육을 통해 실용교육 확대
 - 기초이론에 충실한 소수 정예인원(16~20명) 대상 참여형 가공실습 실현
 - 마을단위 사업과 가공실습교육 연계를 통한 소득향상 기반 마련

- 소비자 기대에 부응한 경영 및 유통·마케팅 교육 강화
 - 현장 중심의 농산물 유통·마케팅 전략습득 및 브랜드화 실현
 - 미래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의 조직화·규모화, 리더쉽 중심 교육
- 품목별 경영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문 기술교육 추진
 - 핵심기술 및 전문지식 보급을 위한 차별화된 교과과정 운영
 - 예비농업인의 생산기술 습득을 위한 실습형 체험 교육 추진
- 농한기(1월~4월)에 전체 교육계획의 50%를 집중 교육실시로 교육 만족도 향상 및 참여율 제고

경북 농민사관학교

- 기존 지역 내 대학, 연구기관 등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System을 구축
 - 경북내의 대학·연구기관·민간단체가 네트워크를 통해 비교우위를 가진 분야별로 역할분담을 하여 농어업인 Life cycle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창업에서 은퇴까지 단계별 교육과 지역 지도자로서의 소양을 갖출 수 있는 전인교육 등이 가능한 평생교육 시스템을 제공
- 분산적, 일회성 교육과정의 집적화와 농가 밀착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현장 위주 맞춤형 교육체계 확립
 - 농어업인 현업종사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집체교육을 최소화하고 현장중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 기존 농어업인 교육과정을 농민사관학교 체제하에 포함, 각 과정별 특색을 살리고 연계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재편
- 농민사관학교 교육과정 수료생에 대한 D/B구축, 인센티브 부여로 정예 농어업인력의 체계적 확보
-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농어업인을 준공무원의 자격을 부여하여 교육강사, 농어업인지도사 등으로 활용

그림 5-19. 경북 농민사관학교 운영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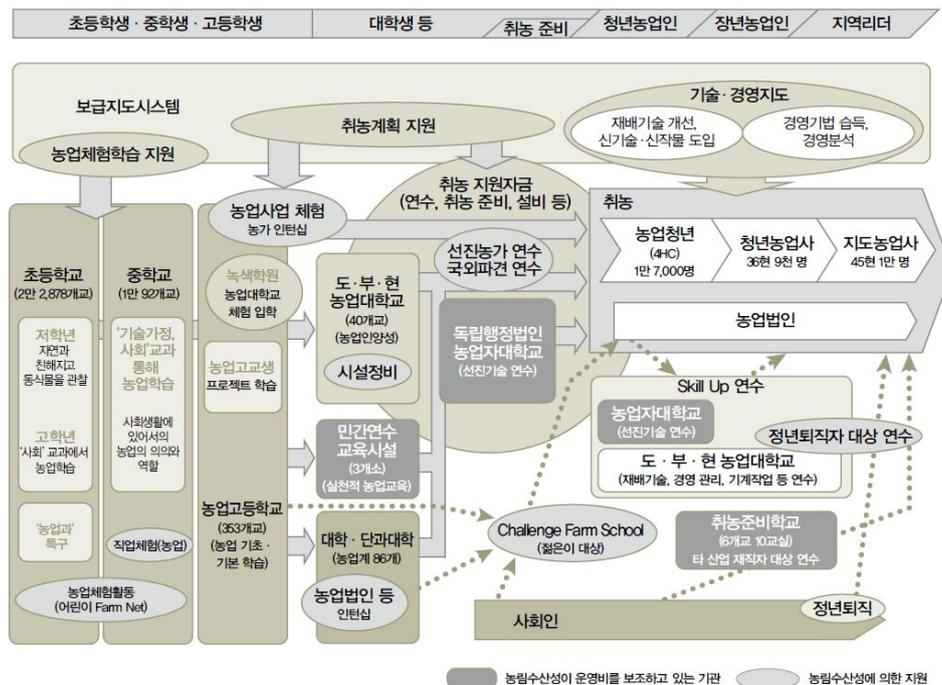
○ 농촌진흥기관 농업교육과 타 농업교육과의 연계 강화

- 농촌진흥기관은 1960년대부터, 농업분야 R&D 그리고 그 결과의 현장 전파와 교육 등에 있어 국가의 기간이 되어 왔지만, 1990년대 지방조직화 이후, 농업교육과 관련하여 농촌진흥기관과 타 농업교육기관간의 연계가 일반적으로 매우 미약하고, 광역 지자체 내에서도 도 단위 농업교육 프로그램과 농업기술센터 프로그램간의 연계가 매우 미흡한 상황임.
- 국가적 차원에서 시군 단위의 기간조직으로서 농업기술센터 운영까지 포괄하는 농업교육계획의 수립 및 투자계획을 통해 이들 기간 조직의 시설과 인적자원이 농업인력육성과 농업교육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일본 농촌지도조직의 농업교육관련 역할

- 일본의 협동농업보급사업(이하 ‘보급사업’이라 함)은 1948년 농업개발조장법의 제정에 기초한 제도의 발족 이후, 시험연구기관과 농업인과의 가교 역으로서 시험연구나 일반 행정과 함께 가장 기본적인 농정(農政)의 추진 전략으로서 실시되어 오고 있음.
- 보급사업의 기본적 구조: 보급사업은 농업개발조장법에 기초하여 국가와 도도부현의 협동사업으로 실시되고 있음.
 - ① 국가와 도도부현 협의 하에 정하는 기본방침에 따라 사업 운영
 - ② 도도부현에 일정 자격을 갖는 보급지도원을 보급지도센터, 도도부현의 시험연구기관 등에 배치
 - ③ 보급사업을 조장하기 위해 국가는 도도부현에 대해 협동농업보급사업교부금(이하 ‘보급교부금’이라 함)을 교부

그림 5-20. 농업교육/인력육성단계별 보급지도센터의 역할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2008. 내부자료.

○ 보급지도센터에서의 농업교육

- 현 농업인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 발전을 위한 기술혁신 지원
- 초등학교, 중학교의 농업체험학습 지원
- 신규 취농자(농고, 농대 졸업생, 일반사회인)의 취농계획 수립 지원

○ 농업교육(인력육성) 사업 성과진단 체제 구축

- 농업교육/인력육성 사업과 관련한 성과평가는 아직 연구사업의 형태로 평가가 이뤄짐에 따라 평가와 관련하여 획득 가능한 자료가 제한적이고, 아직 평가를 위한 자료 구축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음.
- 농업교육 및 인력육성사업의 성과를 보다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농촌개발, 농촌복지 분야는 이미 2005년부터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고, 최근에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을 개발하여, 삶의 질 분야별 구체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점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하였음.
- 향후 추진된 농업인력육성 사업 영역별로 무엇을 성과지표로 하고, 그 달성여부를 지속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점검할 것인지를 정하고, 이와 관련한 점검 시스템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명확한 성과지표의 설정과 더불어, 농업인력육성 정책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평가되기 위해서, 나아가 정책의 정교함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인력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맞춤형 농정을 위해 농림수산물부가 농가의 경영등록정보를 정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인력육성과 관련해서는 많은 정보가 수집되어 있지 못하고 있음. 그리고 농업인 이외의 잠재, 예비 그리고 은퇴 단계의 인력과 관련한 통계는 현재로서는 거의 수집체제가 없다고 볼 수 있음.

- 각종 사업을 통해 발굴되는 잠재 단계의 농업인력에서부터 농업계 학교를 통해 배출되는 학생 인력(예비 단계), 농업에 진입한지 얼마되지 않은 신규인력(진입 단계), 그리고 정착 단계의 일반농과 전문농, 경영 이양을 촉진해야 할 은퇴 단계에 있는 농업인력의 현황과 미래 변화 추이를 전망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농업노동인력의 계절별·지역별·품목별 수급을 구체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자료수집체제가 필요함.
- 비농업분야의 경우 해당 산업인력육성과 관련한 법률(기본법/특별법)에 기반하여 분야별 인력수급실태 조사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중소기업청에서는 2000년부터 정기적인 ‘(중소기업)인력실태조사’를 통해 중소기업 인력수급 현황을 조사하여 인력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는 2006년부터 ‘이공계 인력실태조사’를 통해 이공계 박사과 기술사 등 주요 이공계 인력의 실태를 진단하고 이공계 인력 육성과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 및 정책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단기적으로는 ‘농가경제조사’나 ‘농업(총)조사’ 등에 농업인력수급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과 농업교육과 관련된 현황 파악 부분이 조사 항목으로 추가되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농업관련법(‘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여 현재와 같은 농가를 중심으로 한 조사와는 다른 농업인력 수급 현황에 초점을 둔 별도의 조사나 전망시스템이 추진되어 현재 인력 및 부족 인력 현황, 향후 수요 전망이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야 함.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

- 고용시장에서 높은 비중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해소되지 않고 있어, 중소기업청에서는 2000년부터 매년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인력수요자인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인력수급현황과 전망 인력수급 불균형 요인, 인력수급의 문제점 및 정책방안을 도출하여 산업인력양성기관, 대학, 관련기관 등에 제공함으로써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을 양성·공급하고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인력관련 종합 정보를 제공하고자 수행됨.
- 법적 근거: 중소기업지원특별법 제7조(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 및 인식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지역별·업종별·직종별 인력의 실태 및 특성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의 인력구성 및 인력수요의 변화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의 교육훈련 및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의 대학생 현장체험학습 강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여성, 외국인 또는 비정규직 직원의 활용 등 중소기업의 인력 및 인식개선에 필요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③ 중소기업청장은 실태조사를 하기 전에 지식경제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중소기업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중소기업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업무 수행상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2009년부터는 중소기업실태조사(중소기업기본법 제21조(중소기업 실태조사))에 통합되어 조사됨.

이공계 인력실태조사

- 우수한 이공계인력(理工系人力)을 육성하여 이공계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고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공계 박사과 기술사 등 주요 이공계 인력의 실태를 진단하고 이공계 인력 육성과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 및 정책연구 활성화에 기여함.
- 법적근거: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7조(이공계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 ① 정부는 이공계인력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 등의 이공계인력 육성·활용 및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이공계인력을 활용하는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조하여야 한다.
 -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및 주요 이공계인력의 경력사항 등을 파악하고, 이들의 국내외 유입·유출 현황을 지표(이하 “이공계인력 수지지표”라 한다)로 작성하여 그 내용을 이공계인력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범위·방법 및 이공계인력 수지지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기 법적근거에 따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는 조사를 위해 주요 이공계 인력 표본 집단을 구성하여 패널을 구축하고 인력의 활용현황, 유동성 및 경력경로 등을 추적하여 조사함. 이공계 인력 관련 정책 현안에 대한 심층조사와 분석을 통해 관련 정책 기획 및 이공계 인력 기본계획 실천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함.

참고 문헌

- 강대구 등. 2004. 「농업인력 구조변화에 따른 정예농업인력 육성방안 연구」. 농림부.
- 강창용 등. 2001. “농업기술지도에 대한 농민평가.” 「한국농업교육학회지」 32(2): 83-98.
- 강혜정 외. 2011. “농업교육 참여에 따른 농가소득 증가율 추정.” 「농촌경제」 34(4): 25-40.
- 고순철 등. 2005.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의 효율적 운영방안」.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 김경덕 등. 2012. 「농업생산·경영구조의 변화와 전망: 2000·2005·2010 농업총조사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병률 등. 2010. 「농업분야 고용현황 분석 및 인력수급 안정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수석, 김태곤, 강혜정. 2006. 「맞춤형 농정을 위한 농가유형 구분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수석·박석두 등. 2007. 「농업법인의 운영실태와 제도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애련. 2005. 「대학평생교육원 성인학습자의 학습 성과 인식 연구」.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 김정호 등. 2000. 「농업경영컨설팅 체계 발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호 등. 2007. 농가의 사회경제적 성격변화와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호. 1997. 「농업경영체의 경영개선 활동 지원시책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호. 2012. “농정,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새 희망을 찾는 중장기 농정 방향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 이슈 심층토론회(2012. 10. 25).
- 김정호·한석호. 2011. “농업의 미래상과 새로운 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11.
- 김진모 등. 2005. 「농어업인 교육정책 혁신」.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 김진모 등. 2007. “농업인 교육 프로그램 분석”. 「한국농업교육학회지」 39(1): 99-116.
- 김진모. 1997. 「직무교육훈련의 유효성과 그 영향요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진영 등. 2008. “농업경영컨설팅 성과평가를 위한 소득증가율 조사 결과보고”.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인력과.
- 김진화, 정지웅. 1989. “농민교육참여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1(4): 73-91.
- 나승일 등. 2005. 「수요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모형 및 평가지표 개발」. 농림부.
- 나승일 등. 2007. “농업교육훈련 프로그램 평가”. 「한국농업교육학회지」 39(3): 97-123
- 남양호 등. 2010. “농업인 특성별 교육성취도와 농업 경영활동 성과분석”. 「농촌경제」33(1): 41-65

- 노동부. 2007. 「제1차 평생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2007~2011)」.
- 농림부 경영인력과. 2005. 「농업경영컨설팅 사업 개선방안」.
- 농림부. 2004.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2004~2013)』.
- 농림부. 2006. 「농업교육체계 개편방안」.
- 농림부. 2007a. 「농림사업안내서」.
- 농림부. 2007b. 「한미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국내보완대책」.
- 농림수산식품부. 2008. 『신 농업교육체제 구축 계획』.
- 농림수산식품부. 2009. 「제284회 국회(정기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주요현안보고」(2009. 12. 3).
- 농림수산식품부. 2010. 『농업교육 3개년 기본계획(2011)』.
- 농림수산식품부. 2011a. 『농산업 경쟁력제고 및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교육체계 개편 계획』.
- 농림수산식품부. 2011b. 『신규 전문농어업경영인 육성방안』.
- 농림수산식품부. 2012.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2011」.
- 농촌진흥청 농업경영관실. 1999. 「농업경영혁신 지원체계 구축_정책연수결과보고」.
- 농촌진흥청. 2005. 「유형별 우수농업기술센터 사례집」.
- 농협. 2006. 「농협연감」.
- 농협. 2007. 「농업인의 희망: 교육으로 열어갑니다」.
- 마상진 등. 2005. 「농업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마상진 등. 2010.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진단 및 성과 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마상진. 2006. “농업인 교육·훈련 참여 요인”. 『농촌경제』29(3): 33-50
- 마상진. 2007. 「농업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학습 활성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마상진. 2008. “농업인의 전문역량 강화.” 『농업전망 200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마상진·최경환. 2008. 「선진 농업국의 농업교육 정책동향 및 우수사례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마상진·김영생. 2006. “농업인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38(1): 1-26
- 마상진·박성재·김강호. 2011. 「농림수산식품 인력육성정책 진단과 발전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문호. 2003. 「농업인 민간위탁 교육·훈련의 실태와 발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석두. 2011. 「농업구조정책의 평가와 방향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성재 등. 2008. 「선진국형 농정으로의 전환을 위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천수. 2010. 「농어촌 지역의 일자리 실태와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춘성 등. 2012. “한국농업의 성장회계분석: 1970~2010.” 「농촌경제」 35(4): 1-18.
- 서종석 등. 2011. “농업교육이 농업소득 증대에 미치는 효과분석”. 「농업경제연구」52(4): 19-48
- 송영수. 2001. 「디지털 시대의 e-Learning 추진 전략과 방향」.
- 안덕현 등. 2001. 「농업인력 확보 및 육성방안 연구」. 한국농업전문학교.
- 오세익, 강창용, 김수석, 김태중. 2000. 「농업기술보급체계 및 현장영향 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유영민 외. 2011. “농업인 교육 프로그램 문제점 및 개선방안”. 「농촌지도와 개발」17(1): 45-74
- 윤준상. 2007. “여성농업인의 요구분석을 통한 전문기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39(2): 79-114
- 윤호섭, 박동규, 이영대. 1992. 「농업인력의 확보 유지 및 교육훈련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무근. 2003. 「직업교육학 원론」. 교육과학사.
- 이순석·장우환. 2011. “농가경영성과에 따른 농업인 교육 분야별 필요도에 대한 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43(4): 79-100
- 이영대, 김종숙, 정명채. 1993. 「농업계 교육체제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영대, 정명채. 1990. 「농촌인력의 체계적 육성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용환, 정철영, 나승일, 서우석, 강대구, 김수욱. 2000. 「21C 신지식농업인화 방안 및 교육·훈련 연구」. 농림부.
- 이주량·정윤정. 2010. 「농산업 R&D 투자/생산성 국제비교 및 포트폴리오 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장우환 등. 2011. “농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효율성 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43(3): 95-117
- 장원섭 등. 2005. “기업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직업교육연구」 24(1), 89-109.
- 전국농업기술자협회. 2005. 「영농정보」.
- 정명채, 민상기, 이영대. 1991. 「농업 전문인력의 확보와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상택. 2005. 「최고농업경영자과정 학습자의 교육참여 동기와 저해요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연순. 2003. 「정보통신분야 지식노동자의 직업능력학습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철영 등. 2001. 「21세기 지식기반 농업을 위한 농업인력 육성 방안」. 서울대학교.

- 최경환·마상진·김강호. 2010. 「한국농수산대학 학과 신규개설 타당성 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경환·마상진·윤병석. 2010. 「초·중등 교과서 농식품 관련 내용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상덕. 2006. 「비형식, 무형식 학습 인증 현황과 과제-OECD 국제조사 참여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최찬호. 1992. “작목반(作目班) 협동의 본질과 전개방향.” 『농촌사회』 2: 309-354.
- 통계청. 1980~2011. 「농가경제조사」.
- 통계청. 2010. 「지역별고용조사」.
- 통계청. 2011. 「농업조사」.
- 통계청. 2012. 「2011 농어업법인조사」.
- 한국고용정보원. 2000~2009.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
- 한국은행. 1995. 「산업연관표」.
- 한국은행. 2000. 「산업연관표」.
- 한국은행. 2005. 「산업연관표」.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교육훈련 100년사」.
- 한석호 등. 2012. 『2012 상반기 KREI 농업경제전망』(2012. 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홍은파. 2010. “여성농업인 영농교육이 농업생산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2(1): 49-79.
- 황영모·황만길. 2012. “농업인력, 지역과 조직에서 답을 찾자”. 『2012 대안농정 대토론회 자료집』.
- Boone, E. 1985. *Developing programs in adult educa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road, M. and J. Newstrom. 1992. *Transfer of Training*. Cambridge, MA, Perseus.
- Carnevale NT, Woolf TB, and Shepherd GM. 1990. “Neuron simulations with SABER.” *Journal of Neurosci Methods* 33: 135-148, 1990.
- Colley, H, Hodkinson, P. & Malcolm, J. 2002. *Non-formal learning: mapping the conceptual terrain*. A Consultation Report, Leeds: University of Leeds Lifelong Learning Institute.
- Cross, KP 1981, *Adults as Learners: increasing participation and facilitating learning*. Jossey-Bass, San Francisco.
- Daley, B. J. 2001. “Learning & professional practice: A study of four profession.” *Adult Education Quarterly*, 2(1): 39-54.

- Emmalou Van Tilburg, N. 1992. "Why adults participate." *Journal of extension*. 30(3)
<<http://www.joe.org/joe/1992fall/a2.html>>
- Farmbis. 2007. *FarmBis Courses & Categories*.
<<http://www.farmbis.com.au/courses.asp>>
- Hawkins, H.S., Almond, E.F., & Dwyer, M.G. 1974. *Post-Secondary Needs of Australian Farmers: A Survey of Opinions of Farmers and Agricultural Staff*. Agricultural Extension Section, School of Agriculture and Forestry, University of Melbourne
- Holton, E. F. 1995. "In search of an interactive model for HRD evaluation." *Academy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1995 Conference Proceedings*.
- Houle, C. 1961. *The Inquiring Mind*.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Keen, M and Stocklmayer, S. 1999. "Science Communications: The evolving role of rural industry research and development corporations." *Australian Journal of Environmental Management*. 6(4):196-206.
- Kilpatrick, S. 2000. *Education and training, impacts on farm management practice*. Launceston: Centre for Research and Learning, University of Tasmania.
- Kilpatrick, S., Johns, S., Murray-Prior, R., & Hart, D. 1999. *Managing Farming: How Farmers Learn*. Rural Industries Research and Development Corporation.
- Kolb, D. A. 1984. *Experiential learning: Experiences as the source of learning and development*. Prentice Hall P T R Prentice-Hall, Inc.
- Leeuwis. C. 2004. *Communication for Rural Innovation*. Blackwell Science.
- Nadler, L. 1970. *Developing Human Resources*. Reading, MA: Addison-Wesley.
- NESFI(New England Small Farm Institute). 1999. *DACUM Occupatioal Profile for Northeast Small Scale Farm Sustainable Farmer*.
- Marsh, S.P. and Pannell, D.J. 2000. *Agricultural Extension: A decade of change*. RIRDC
<<http://www.rirdc.gov.au/pub/shortreps/sr66.html>>
- McLagan, P. A. 1989. "Models for HRD Practice." *Training & Development* 50(1): 60-65.
- McLean & McLean. 2001. "If we can't define HRD in one country, how can we define it in an international context?"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ternational* 4(3): 313-326.
- Morgan, A. 1993. *Improving your Students? Learning: reflections on the experience of study*. London, Kogan Page.
- Participative Technology Pty Ltd . 2002. *Conditions Influencing On-Farm Implementat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Outcomes*. 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Australia.

- Rosenberg, M. J. 2001. *E-learning: Strategies for delivering knowledge in the digital age*. McGraw-Hill.
- Rogers, E. M. 1995. *Diffusion of innovations (4th ed.)*. New York: Free Press.
- Rothwell, W. 2002. *Workplace Learner*. New York: AMACOM.
- Roy Morgan Research. 2001. *2000 survey of FarmBis training participants*. Sydney: Roy Morgan Research.
- RTCA(Rural Training Council of Australia). 1993.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Farm Business Management*.
- Saleeba, J. 1991. "The Role of adult education in developing the human resources for agricultural industries." *Proceedings of the 1991 National Conference and Workshop' Developing the Human Resources for Agricultural Industries'*, AIAS Occasional Publication (60): 7-10.
- Smith, P. J. 2003. "Workplace learning & flexible delivery."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73(1), 53-88.
- Swanson, R. A. 1994. *Analysis for Improving Performance, Tools for Diagnosing Organizations & Documenting Workplace Expertise*. San Francisco: Berrett-Koehler Publishers.
- Taylor-Powell, E., Steele, S. & Douglah, M. 1996. Planning a program evaluation. Retrieved April 2010, from University of Wisconsin-Extension-Cooperative Extension, Program Development and Evaluation Unit Web site: <http://www.uwex.edu/ces/pdande/evaluation/evaldocs.html>
- Van Horn, B. & Reed-Morrison, L. 1996-1997. *Adult Learner Skills Competencies: A Framework for Developing Curricula in Adult Contexts and Linking Instruction to Assessment*. Institute for the Study of Adult Literacy, College of Educ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부록1: 질문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신원 조사
- 농업마이스터대학 학생 조사

통신원번호					
-------	--	--	--	--	--

농업인 교육실태 조사 (KREI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이번에 농업인의 교육 실태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귀중한 의견은 농업인의 역량 개발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되오니 성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작성하신 설문지는 ○월 ○○일 이전까지 회신하여 주십시오. 이 조사에서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수치화되어 통계처리되기 때문에 개인의 신상자료가 외부에 노출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 11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문의사항] 연구위원 마상진(02-3299-4258 msj@krei.re.kr)

1. 다음 네모 상자에 귀하가 농촌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번호를 적어주세요.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농업(생산) 관련 기술 교육 ② 농기계 교육 ③ 농산물 가공 관련 교육 ④ 농산물 유통/마케팅 관련 교육 ⑤ 농업경영/회계/위기관리 관련 교육 ⑥ 농촌마을개발/농촌관광/지도자관련 교육 ⑦ 정보화(컴퓨터/ 인터넷 사용) 교육 ⑧ 인문 교양/문화/예술교육 ⑨ 비농업분야 직업/창업교육 |
|--|

- 1.1. 귀하가 지난 1년간 가장 활발히 참여한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을 두개만 골라주십시오 () ()
- 1.2. 귀하가 현재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장 참여하고 싶은 교
육 프로그램 내용은 무엇입니까? ()
2. 평소에 원했지만 참여하지 못했던 교육이 있을 경우, 그 이유는?
 ()
- ① 자격 조건이 안 되어서
 ② 교육비용이 너무 비싸서(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③ 가까운 거리에 교육훈련기관이 없어서
 ④ 학창시절과 같이 학습에 임할 자신이 없어서(자신감 부족)
 ⑤ 건강 또는 나이 때문에
 ⑥ 시간이 없어서(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 등)
 ⑦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단계가 개설되지 않아서
 ⑧ 어느 기관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 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⑨ 인원초과로 교육의 기회가 없어서
3. 귀하가 올해 참여한 전체 영농관련 교육시간은 대략 얼마나 됩니
 까? ()
- ① 없음 ② 10시간 미만 ③ 10~19시간
 ④ 20~29시간 ⑤ 30~49시간 ⑥ 50~99시간
 ⑦ 100~149시간 ⑧ 150~199시간 ⑨ 200시간 이상
 ⑩ 잘 모르겠음
- 3-1. 총 교육 일수는? 대략 ()일
4. 귀하가 올해 가장 활발히 참석한 농업 교육 프로그램 형태는?
 ()
- ① 농업 마이스터 대학
 ②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③ 대표실습장(WPL) 교육
 ④ 농업기술센터 농업인대학
 ⑤ 지자체(농업기술센터)주관 단기교육(새해영농설계 교육 등)

- ⑥ 농협중앙회 교육원(안성, 경주, 창녕 등) 교육
- ⑦ 단위농협(축협)의 조합원 교육
- ⑧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또는 농민교육원 주관 교육
- ⑨ 기타 농업공공기관(농어촌공사,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교육
- ⑩ 농업인단체 / 품목단체 / 기타 민간단체 교육
- ⑪ 농업인 해외연수
- ⑫ 소규모 학습조직(연구회,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영농회 등)을 통한 교육

4-1. 올해 참여한 영농관련 교육은 몇 종류나 됩니까? ()개

4-2. 올해 참여한 프로그램 중 6개월이상의 장기 교육이 있습니까? ...
()

- ① 없음 ② 있음

4-3. 개인적으로 활발히 참여하는 영농관련 학습조직이 있습니까?
..... ()

- ① 없음 ② 있음

5. 귀하가 상기 교육(4번에서 응답한 교육)에 참여한 가장 큰 이유는? ()

- ① 영농현장에서 발생한 문제 해결을 위해 / 품목 또는 영농방식 전환을 위해
- ② 자격/인증/법적 조건 충족을 위해(보조금/혜택을 받기 위해)
- ③ 평소 하고 있는 영농활동의 기초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 ④ 지적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배운다는 활동 자체가 좋아서)
- ⑤ 사회적으로 인정 /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해
- ⑥ 교육담당자 또는 주변 사람의 부탁으로/ 소속한 집단에서 요구하므로

6. 귀하가 참여한 상기 교육의 성과는 무엇입니까(해당번호에 ○표시)?

주요 교육 성과	동의 정도 (적음 ↔ 많음)
(1) 다양한 정신적 육체적 경험을 통한 교양의 함양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농업경영(농산물개방)에 대한 자신감 획득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신기술 습득(도입)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지역사회참여기회 증가, 인적네트워크 형성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④ 마을시설(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활용한 교육
- ⑤ 소규모 학습조직을 통한 교육
- ⑥ 농장 방문을 통한 상담이나 교육
- ⑦ 인터넷 교육

11. 귀하는 평소에 **다른 농업인과 경험을 공유**하십니까(해당번호에 ○ 표시)?

경험 공유	동의 정도(적음 ↔ 많음)
(1) 내 경험과 노하우를 타인에게 공유한 적이 있다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내 농장을 다른 사람에게 개방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2. 귀하는 전반적으로 현재의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해당번호에 ○ 표시)?

매우 불만족스럽다 매우 불행하다	←—————→	매우 만족스럽다 매우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3. 귀하는 농업교육의 기회와 질(내용, 방법)이 **과거 5년 전에 비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교육 기회와 품질	더 나빠졌다 ↔ 더 좋아졌다	잘모름
(1) 교육기회(횟수) / 접근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2) 농업교육의 내용/ 품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14. 귀하는 다음의 **농업인력육성 정책이나 사업**이 강화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해당번호에 ○ 표시)?

농업인력육성 정책/사업	확대 찬성정도 (적음 ↔ 많음)	잘모름
(1) 후계농업경영인(영농후계자) 육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2) 귀농귀촌정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3) 농업 마이스터 대학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4) 현장대표실습장(WPL) 교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5) 민간단체/농민단체주도 농업교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6) 학습조직(연구회, 작목반 등)을 통한 교육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번호

농업인 교육실태 조사 (농업마이스터대학 학생)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농업정책을 연구하는 국책연구소로서, 이번에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의 협조하에 농업인의 교육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농업인의 역량개발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되오니 성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귀하가 응답하신 내용은 수치화되어 통계처리되기 때문에 개인 신상자료가 외부에 노출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조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년 11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문의사항] 연구위원 마상진(02-3299-4258 msj@krei.re.kr)

1. 귀하가 농업마이스터대학에 참여한 가장 큰 이유는? ()

 - ① 영농현장에서 발생한 문제 해결을 위해 / 품목 또는 영농방식 전환을 위해
 - ② 자격/인증/법적 조건 충족을 위해(보조금/혜택을 받기 위해)
 - ③ 평소 하고 있는 영농활동의 기초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 ④ 지적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배운다는 활동 자체가 좋아서)
 - ⑤ 사회적으로 인정 /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해
 - ⑥ 교육담당자 또는 주변 사람의 부탁으로/ 소속한 집단에서 요구하므로

2. 농업마이스터대학 과정에서 가장 도움이 된 교육내용은? ()

 - ① 농업의 학문적 원리 이해 교육
 - ② 농업(생산) 관련 기술 교육
 - ③ 농기계 교육
 - ④ 농산물 가공 관련 교육
 - ⑤ 농산물 유통/마케팅 관련 교육
 - ⑥ 농업경영/회계/위기관리 관련 교육
 - ⑦ 교육방법(교수법) 교육
 - ⑧ 인문교양교육

7. 귀하는 평소에 다른 농업인과 경험을 공유하십니까(해당번호에 ○표시)?

경험 공유	동의 정도(적음 ↔ 많음)
(1) 내 경험과 노하우를 타인에게 공유한 적이 있다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내 농장을 다른 사람에게 개방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8. 귀하는 전반적으로 현재의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해당번호에 ○ 표시)?

매우 불만족스럽다 매우 불행하다	←————→	매우 만족스럽다 매우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9. 귀하는 **농업인력육성의 정책방향**이 앞으로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력육성의 방향·주체·영역 등에 대해 경쟁이 되는 **두의견(A, B)** 중, **귀하 생각과 가까운 의견의 번호에 ○표** 하십시오.

	A의견에 동의	↔	B의견에 동의
육성 방향	개별 농가(자영농) 육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유통, 가공 등 분야별 전문인력 육성
육성 주체	공공(정부, 지자체)에 의한 농업교육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민간 주체에 의한 농업교육 강화
육성 영역	농업계 학교(농고/농대) 교육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현장 농업인 교육 (전문성개발) 강화

- D1. 귀하가 다니는 과정명? .. ()농업마이스터대학 ()과정
- D2. 귀하의 입학년도는? ()년도
- D3. 귀하의 연세는? 만()세
- D4.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 D5.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졸업에 중퇴도 포함)()
 ① 무학 ② 초졸(국졸) ③ 중졸 ④ 고졸 ⑤ 전문대졸 ⑥ 4년제대졸 ⑦ 대학원졸
- D6. 귀하의 컴퓨터 활용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

- ① 활용 능력 없음
- ② 1단계수준 (파일이나 폴더 복사, 이동 가능)
- ③ 2단계수준 (프로그램 설치 및 삭제 가능)
- ④ 3단계수준 (컴퓨터 오류시 기본문제 해결가능)

D7. 귀하는 평소 경영장부(영농일지 포함)를 기록하십니까? ()

- ① 아니오 ② 한달에 한번 정도 ③ 1주일에 한번정도
- ④ 1주일에 2~3번 ⑤ 거의 매일

D8. 귀하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십니까? () ① 아니오 ② 예

D9. 귀하의 연간 농가소득(농업소득+농외소득)규모는? ()

- ① 거의없음 ② 120만원 미만 ③ 120~300만원
- ④ 300~500만원 ⑤ 500~1천만원 ⑥ 1~2천만원
- ⑦ 2~3천만원 ⑧ 3~5천만원 ⑨ 5천~1억원
- ⑩ 1억원 이상

D10. 귀하 가구의 농산물 판매액 규모는? ()

- ① 거의없음 ② 120만원 미만 ③ 120~300만원
- ④ 300~500만원 ⑤ 500~1천만원 ⑥ 1~2천만원
- ⑦ 2~3천만원 ⑧ 3~5천만원 ⑨ 5천~1억원
- ⑩ 1~2억원 ⑪ 2억 이상

D11. 귀댁의 주력품목(판매액이 가장 많은 농작물/가축)은 무엇입니까? ()

- ① 쌀 ② 특용작물 ③ 과수 ④ 화훼 ⑤ 채소 ⑥ 축산 ⑦ 기타

D12. 귀댁 주력품목의 수익률(판매 대비 소득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

- ① 20% 미만 ② 20~29% ③ 30~39% ④ 40~49%
- ⑤ 50~59% ⑥ 60~69% ⑦ 70~79% ⑧ 80%이상

D13. 귀댁 주력품목의 영농규모는?(아래 **품목별 규모 판단기준 참조**) ()

- ① 소규모 ② 중소규모 ③ 중규모 ④ 중대규모 ⑤ 대규모

품목	영농규모판단기준					
	소규모	중소규모	중규모	중대규모	대규모	
쌀	3,000평미만	3천~9,000평	9천~1만5천평	1만5천~3만평	3만평 이상	
과수	사과/배/포도	600평미만	600~2100평	2100~4500평	4500~7500평	7500평 이상
	복숭아/단감/귤	900평미만	900~3천평	3천~6천 평	6천~9천평	9천 평 이상
화훼	절화류	300평미만	300~900평	900~1800평	1800~3천 평	3천 평 이상
	분화류	300평미만	300~600평	600~900평	900~1500 평	1500평 이상
채소	시설	600평미만	600~1500평	1500~3천 평	3천~6천 평	6천 평 이상
	노지	900평미만	900~1500평	1500~4500평	4500~6천평	6천 평 이상
특작	인삼	1500평미만	1500~4500평	4500~1만평	1만~2만 평	2만 평 이상
	축산	한우	15두미만	15~50두	50~100두	100~170두
축산	젖소	10두미만	10~30두	30~50두	50~90두	90두 이상
	양돈	160두미만	160~500두	500~1,500두	1,500~2,500두	2,500두 이상
	닭	8천수미만	8천~2만 5천수	2만5천~5만수	5만~9만수	9만수 이상

D14. 귀하는 도시에서 살다가 귀농하셨습니까?() ... ① 아니오 ② 예

D15. 귀하는 농업계 학교를 졸업하셨습니까? ()

- ① 아니오 ② 농고 졸업 ③ 농대 졸업 ④ 농고와 농대 모두 졸업

D16. 귀하가 영농에 종사하기 시작한 시기는(해당년도 기입)?()년도

D17. 귀하는 언제부터 농촌에서 사셨습니까? ()년도

D18. 귀하는 부모님의 농장을 승계하셨습니까? ()

- ① 새로이 창업 ② 부모님 영농 승계

D19. 귀하가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생산자 조직은? () ()

- ① 작목반 ② 영농조합법인 ③ 농업회사법인 ④ 없음

D20. 귀하는 향후 자식에게 농업경영을 승계할 의향이 있습니까? ()

- ① 자식이 없음 ② 자식이 있지만 승계하지 않겠음
- ③ 승계하고 싶지만 자식이 원하지 않음 ④ 승계하려는 자식이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2: 농업교육 현황(2012년)

1. 농림수산물식품부 경영인력과(농림수산물식품교육문화정보원) 주도 농업교육

교육종류	참여기관	프로그램	교육인원(명)
1. 수요자중심 교육운영	60	91	12,380
○농어촌교육 공모	48	72	8,000
○기획과제공모	0	0	3,000
○자생적 학습조직육성	0	0	1,000
○농업인 국외훈련	12	13	260
○농업CEO MBA과정	0	1	20
○농어업회의소교육	0	5	100
2. 농과계 학교교육 활성화	20	25	6,600
○농업계고교산업연계교육	10	10	5,000
○농업교육협회 지원	0	0	0
○농대미래전문농업경영인교육	10	10	1,500
○농대생국외연수	0	5	100
○농산업 Jobmap 프로젝트	0	0	0
3. 창업·후계인력 육성	20	28	2,700
○귀농자교육	20	26	1,600
○이주여성농업인교육	0	2	1,100
4. 현장중심의실습형교육확대	73	88	3,688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	9	88	1,688
○현장실습교육(WPL) 운영	64	0	2,000
5. 농업교육지원시스템운영	0	6	1,100
○농업인 교류센터 지원	0	1	1,000
○품목실습전문교수아카데미	0	5	100
교육분야	기관명	프로그램명	교육인원
창업경영	농수산무역신문	농수산무역대학	100
	(재)더푸른미래재단	더푸른미래농업 YOUNGPOWER CEO MBA 교육과정	64
	(사)충북농업연구원	농업인인터넷상거래 운영자 과정	40
		농업인인터넷상거래 마케팅 과정	40
	농업기술실용화재단	High-up농식품벤처창업성공비법	27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기술기반	25

교육분야	기관명	프로그램명	교육인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농식품벤처창업과정	
		여성농업인혁신인재 비즈니스 아카데미	25
	농협중앙회 원예사업부(케이멜론)	여성농업인전업농경영교육	30
		품목전국연합 브랜드조직화프로그램(K-Melon)	1,200
	(주)한국식품정보원	농식품 안전을 위한 소규모 HACCP 기본과정	60
	(사)한국농수식품CEO연합회	농수식품경영체 실무과정	42
(주)호현에프앤씨	농산물 전자상거래 마케팅 중급과정	40	
농촌개발	(주)오르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전북협의회	농촌마을지도자 육성과정	30
	(주)지역활성화센터	농어촌마을해설가양성과정	25
	부래미마을 / 부래미축제 학교	주민이주도하는마을축제 리더양성캠프	210
	동신대학교산학협력단	문화를접목한농촌관광 전문가양성과정	30
	농촌사랑지도자연수원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	30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	34
	(주)호현에프앤씨	체험실무자상품개발 중급과정	40
	(재)지역재단	2012년 농어촌공동체회사 아카데미과정	270
(사)한국분권아카데미	지속가능한 농어촌 비즈니스과정	35	
소비자 ·청소년	(사)한국생약협회	소비자와함께하는 생약농업희망찾기	25
	우리원보성교육관	친환경농업과 바른먹을거리	120
	(재)원주키유니티비즈니스지원센터(사) 누리살이퍼머컬처센터컨소시엄	누리살이녹색학교	120
	경주환경농업교육원	친환경농업소비자초대	240
	전국농업기술자협회	도시민(소비자)생활농업교육	79
	사)슬로푸드문화원	슬로푸드매니저양성	27
	한국작물보호협회	소비자파워유저 농산물 및 농약안전성교육	220
	여성민우회생협연합회	바른식생활강사양성과정	100
	축산물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원	축산물HACCP생생현장탐구	140
	(사)농촌로가는길	가족농촌체험학교in진안	60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전국학부모대상전통장류, 떡류 만들기 과정	150
	우리꽃	이천그린아카데미	60
	(사)한국농수식품CEO연합회	2012년 농장에서 식탁까지	90
	(사)한국신지식농업인회	우리농산물과 함께하는 영어캠프	60
	품목전문	담다현	떡가공교육과정
한국농수산대학		화훼 품종개발	25
산학협력단		버섯가치혁신반	25
한국종자연구회		민간육종가양성과정:분자육종기술전문가 과정	20
		민간육종가양성과정:돌연변이육종기술전 문가과정	20
(사)한국생약협회		GAP인증약용작물 재배기술	30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여성농업인향토음식 가공상품화	60
농업회사법인 예농주식회사		고품질베드딸기재배과정	60
친환경스터디영농조합법인		파실가공 실습교육	40
전국농업기술자협회		고품질조경수재배과정	53
		말산업전문가양성과정	27
한국작물보호협회		농업경영인 농약안전사용 Master교육	180
(사)경남과학영농 특성화교육사업단		FTA대응 수출 베드딸기	75

교육분야	기관명	프로그램명	교육인원
녹색성장 친환경	(사)한국신지식농업인회	토종벌증식 및 질병대처 교육과정	20
	(사)친환경축산추진운동본부	친환경축산교육과정	80
	(주)오르빌 (사)전북친환경농업인연합회	친환경농업인 역량강화교육	676
	전남대학교 친환경농업연구소	친환경유기농자재 심화교육과정	40
	농업회사법인 예농주식회사	고품질무항생제한우생산과정	180
	경주환경농업교육원	친환경농업 무농약 도입	200
		유기농업아카데미	200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저비용유기생산교육과정	180
	친환경스터디영농조합법인	무농약/유기농배 인증농가양성교육	120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특용약용작물재배입문과정	50
	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	유기농채소심화과정	30
	(세계유기농수산물연구교육관)	유기농최고전문가과정	25
	(사)경남과학영농특성화교육사업단	FTA대응친환경참다래수출	25
	(주)한국식품정보원	녹색성장을 위한 유기농식품인증제도의 이해	80
	(사)한국유기농업협회	무농약사과재배과정	120
화홍포영농조합법인	유기채소 고급품목전문	60	
리더십 거버넌스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친환경농업인단체 조직핵심인력육성과정	120
	(주)고려아카데미컨설팅	2012년농어촌공동체여성 핵심리더양성과정(총2기)	60
	(사)전북지역농업연구원	농업·농촌핵심리더교육과정	76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농축협임원경영능력배양교육(중급과정)	867
		농축협임원경영능력배양교육(심화과정)	60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여성농업인 리더십 교육(1기)	30
	(사)국민농업포럼	농어업회의소 운영 활성화 및 지원	3,529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농업협동조합역량강화단기과정	150
(사)진안군농어업회의소	농어업회의소 참여활성화 교육	475	
기획공모	강원대학교	마을 경영능력을 갖춘 핵심리더 육성	
	공주대학교	농촌마을 일꾼만들기 프로젝트	
	호현애프앤씨	색깔있고 옛지있는 농촌마을 리더 육성	
	한국농수산대학	색깔있는 마을만들기 기본과정	
	고려아카데미 컨설팅	색깔있는 마을만들기 핵심리더 마스터 과정	
	황토구들마을 영농조합법인	핵심주체 육성 전문과정	
	그린코리아컨설팅	귀농 귀촌 지역선정 기본과정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영농조합법인 스마트 경영교육	
한국산업인삼연합회	인삼 산업계 인재개발		
자생적 학습조직	장안우렁이쌀작목반	고품질 친환경 무농약 쌀의 생력화 재배	
	강서갯잎 수출작목반	우수농산물 생산 및 수출 활성화	
	대구 파 연구회	고품질, 친환경 대파 생산과 유통망 개척	
	대구꿀벌연구회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과 유통구조 개선	
	대구새사과연구회	대구사과 명품 브랜드화 및 수출 전략	
	대구일들깨연구회	해수농법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농법	
	농업회사법인 대구농특산물유통주식회사	친환경 채소 및 과일의 재배 기술 향상과 유통	
	강화군 토마토연구회	고품질 토마토 재배 교육	
	강화군 친환경 발작물 연구회	환경 발작물의 친환경 재배 기술 교육	
	명품 풋고추 육성	고품질 농산물생산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명품 부추 육성	고품질 농산물생산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교육분야	기관명	프로그램명	교육인원
	명품 토마토 육성	고품질 농산물생산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서광주 애호박 작목반	고품질 생산 및 품질 경쟁력 확보	
	임곡농협 시설채소, 딸기 작목반	미생물을 이용한 재배농법 확립	
	임곡농협 벼 친환경 작목반	미생물을 이용한 재배농법 확립	
	빛찬들지산딸기작목회	빛찬들 지산딸기 생산성 향상 및 명품화 전략수립	
	지산쌀작목회	친환경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교육	
	빛고을명품 버섯마을	친환경 표고버섯 재배로 특화작물 육성	
	장태산 딸기 작목반	딸기 육묘(모종)관리	
	남대전 토마토 작목반	유럽종 토마토 재배기술 교육	
	선바위부추작목반	차별화된 명품 선바위부추 생산을 위한 방안	
	참다래작목반	참다래 산업현황과 재배기술 습득	
	두북농협친환경쌀생산단지	친환경 쌀 생산에 따른 친환경 농법(무농약)	
	가평심비영농법인	고품질 심비디움 생산 및 수출전략	
	고양시수출선인장작목회	수출용 접목선인장 품질향상	
	나디아수출작목반	수출주도형 나디아 재배기술 습득 교육 강화	
	양동면부추작목반	자생적 경영체 육성 및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성 향상	
	양평오디영농조합법인	뽕나무	
	용인한우영농조합법인	한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	
	장전노루마을	고부가가치 쌀 생산 및 유통 방안	
	장호원농협배작목반	고품질 배 생산으로 수출활성화 및 농가 소득 증대	
	천생연분마을 영농조합법인	천생연분마을 영농조합법인의 성공전략과 마인드 개선	
	감자연구회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최신의 지식습득	
	금강산 블루베리 연구회	친환경 블루베리 재배 및 판매를 위한 연구모임	
	친환경 고사리 연구회	친환경 고사리 재배 및 판매를 위한 연구모임	
	파프리카연구회	고품질 파프리카 생산을 위한 방안 모색	
	춘천시 복사동 연구회	복숭아 고품질 다수확을 위한 연구모임	
	인삼연구회	인삼의 우수성과 FTA에 따른 인삼농가의 대응방안	
	친환경인삼작목반	친환경 6년근 인삼재배의 생산성 제고	
	한우 고부가가치연구회	브랜드경영체의 한우 비 선호 부위육을 연구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	
	청주유기영농조합법인	청주시 친환경농업의 육성방안과 조직의 규모화 추진모색	
	충주목숭아농업인연구회	목숭아재배 생산성 향상, 수출전략품목 육성, 지역특화작목 경쟁력 향상	
	청원생명딸기연구회	고품질 딸기 생산(수출전략, 생산성 향상 등)	
	상그린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한 장류식품 개발로 색깔있는 마을 조성	
	정안마을	색깔있는농작물품질향상을위한생산기술 및공동브랜드·마케팅학습	
	명심체험마을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교육분야	기관명	프로그램명	교육인원
	연풍친환경사과연구회	고품질 및 친환경적 사과 생산	
	한울타리영농조합법인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생태 마을 만들기)를 위한 노력	
	국화수출영농조합법인	고품질 수출국화 재배기술 습득 및 상품화 방안	
	태안심비디움수출영농조합법인	고품질 심비디움 생산을 통한 대외 경쟁력 제고	
	우성 토마토공선회	공동구매·선별·출하등경영비절감기술 투입과자재공동이용	
	이안회	친환경 고품질 배 생산	
	전주우리공작목반	유기농공 및 일반공 다수확 생산 및 가공	
	황토고구마작목반	고품질 황토고구마 생산을 위한 역량 강화	
	부안참뽕식초연구회	자연 발효오디식초 제조 연구 및 조직 활성화	
	귀농 블루베리연구회	블루베리정보수집 및 재배기법 연구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친환경농산물생산 및 유통	
	한국쌀전업농도지부어수시지회	친환경농산물생산 및 유통	
	순천월등복숭아연구회	최고품질 복숭아 생산을 위한 품종 선정 및 핵심기술 실천	
	순천유용미생물연구회	친환경 농축산을 위한 유용미생물 활용방안 제고	
	과수전정기술지원단	매실 및 과수 전정 전문교육	
	단호박 작목반	단호박 재배기술 및 고품질 생산	
	햇살토마토	토마토 재배의 토양관리 및 시설 환경 관리	
	한울영농조합법인	토마토 생리장애와 병해충 방제	
	몽탄황금영농조합법인	한우 개량 및 고급육생산	
	장성산업곤충	식용 및 학습용 곤충체험농장 및 농산물직거래 판매	
	장성블루베리연구회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블루베리 재배기술 및 수확후 관리	
	오디작목반	오디 친환경 재배 및 고품질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도초면 시금치 연구회	“신암선초” 시금치 인증시스템 확립	
	고사리연구회	친환경고사리 재배기술 교육을 통한 고품질 유기농 고사리 생산	
	임자면 대파연구회	임자대파 친환경재배 기술 습득	
	영광유기농업연구회	친환경농업 실천 유기농자재 제조 및 재배농법 활용 연구	
	경주체리사랑모임	고품질 체리 생산에 관한 기술교류 및 학습	
	경주딸기연구회	고설딸기재배 시스템화로 안정적인 재배기술 확립	
	한국똥땅지협회작목반	똥땅지 성분분석과 상품활성화 교육	
	경산시 곤충사육연구회	고부가가치 생물 자원으로 곤충사육을 통하여 농가소득증대	
	대추명품화연구회	고품질 대추 재배기술 및 경영 개선	
	호두재배연구회	호두 재배기술 습득 및 우리지역에 맞는 품목연구회 활성화	
	다인곶감작목반	청결하고 안전한 곶감생산과 유통	
	의성마늘 명인회	의성마늘재배 전문가 육성 및 생산성 향상	

교육분야	기관명	프로그램명	교육인원
	고품질사과생산을위한귀농인모임	초보자가 고품질 사과를 생산하기 위한 방법	
	신라녹색농촌체험마을영농조합법인	녹색농촌체험마을 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	
	봉화군 표고버섯 연구회	품목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품질 표고버섯 생산기술 배양	
	울진양봉연구회	전문기술연찬을 통한 경영능력 향상	
	녹래사과수출작목반	사과 생산성 향상 및 수출전략	
	길안사과수출작목반	사과수출 다변화 및 고품질 친환경 사과 생산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	
	임동면사과수출단지	사과 품목 경쟁력 제고 및 수출전략 방안	
	밀양시설채소수출농업단지	수출확대	
	봉명골 친환경 딸기영농조합법인	최신딸기육묘기술, 딸기 재배기술 습득	
	용현명품토마토	경쟁력 확보와 생산성 향상	
	진주시 배 연구회	고품질 친환경 배 생산을 위한 전문가 초빙 교육	
	우포무농약채소 작목반	무농약 채소 가꾸기	
	창원친환경고추연구회	친환경재배기술보급, 상품 및 포장의 고급화	
	다람산 멜론연구회	고품질멜론생산기술교육	
	성산읍시설만감류연구회	만감류 품종별 고품질(고당도) 생산 및 출하방법 개선	
	그등애작목회	감귤 품질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	
	서귀포친환경노지감귤연구회	친환경노지감귤 생산 재배기술 및 유통 활성화 방안 모색	
	감귤사랑동호회	고품질 감귤생산과 효율적 판매를 위한 기술교육 및 정보 공유	
	대정탑프루트연구회	고품질 감귤생산을 위한 정밀 기술	
	서부한라봉프루트단지	고품질 한라봉 생산을 위한 정밀 기술	
국외연수	한국농수식품CEO연합	농수식품 수출시장 개척	
	농수산무역신문	한국 신선농산물 말레이시아 시장개척단	
	단국대 친환경유기농인증센터	한국 농식품 말레이시아 수출시장 분석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유럽 유기농 생산, 가공식품 및 유통	
	지역아카데미	유럽의 녹색기술 및 유기농업 선진지 연수 실용중심의 맞춤형 농촌개발 전문가 양성 여성농업인 농장경영 혁신과정	
	한국농수산대학 산학협력단	FTA 대응 중국 화훼생산기지 근명 지역의 신제품 및 화훼 재배기술 분석	
	한국협동조합연구소	농어업회의소 선진운영 시스템 벤치마킹 연수	
	전북지역농업연구원	일본 지역개발 활성화 사례 이해	
	고려아카데미컨설팅	일본 신선농산물 수출시장 개척전략	
	고창군 지역농업연구회	일본 선진 농업경영혁신 및 유통조직화의 이해	
	슬로푸드문화원	2012 유럽 슬로푸드 연수	
농고	경남자영고	농고 산업연계 프로그램	249
	공주생명과학고	농고 산업연계 프로그램	674
	김제자영고	농고 산업연계 프로그램	385
	보은자영고	농고 산업연계 프로그램	286
	수원농생명과학고	농고 산업연계 프로그램	1,017
	여주자영농고	농고 산업연계 프로그램	450

교육분야	기관명	프로그램명	교육인원	
	전남생명과학고	농고 산업연계 프로그램	447	
	청주농고	농고 산업연계 프로그램	917	
	홍천농고	농고 산업연계 프로그램	280	
	한국생명과학고	농고 산업연계 프로그램	463	
	한국농업교육협회	멘토링 사업		170
		비전스쿨		150
		농산업 Job Map 프로젝트		150
		전국 FFK 전진대회		820
		우수학생 국외연수		49
		교사 직무연수		74
		산업연계 인프라 확충		50
	농대	지역아카데미	한일 농대생 교류와 미래농업의 가치 찾기	20
		농경과원에	일본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마케팅 현장견학	20
선진 농산업 시스템 분석을 통한 미래 농업경영인 육성			20	
전북지역농업연구원		일본 북해도 축산 사례를 통한 축산 후계자들의 실천과제 모색	20	
한국농수산대학 산학협력단		독일 친환경 축산 및 바이오에너지 발전시설 분석	20	
강원대학교		농대 미래 전문농업경영인과정	157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농대 미래 전문농업경영인과정	150	
경북대학교		농대 미래 전문농업경영인과정	150	
경상대학교		농대 미래 전문농업경영인과정	150	
공주대학교		농대 미래 전문농업경영인과정	150	
전남대학교		농대 미래 전문농업경영인과정	155	
전북대학교		농대 미래 전문농업경영인과정	157	
제주대학교		농대 미래 전문농업경영인과정	149	
천안연암대학		농대 미래 전문농업경영인과정	110	
충북대학교		농대 미래 전문농업경영인과정	153	
귀농	농업인재개발원	농산업 Job Map 프로젝트	90	
	농협경주환경농업교육원	과채류 귀농실습 전문교육	30	
	가자 유성농장으로	농부와 함께 1년 과수 귀농실습	20	
	수암영농조합	친환경 축산귀농	60	
	전국농업기술자협회	귀농교육-실습형 종합교육	25	
	친환경축산추진운동본부	비전 축산 교육과정	40	
	친환경스터디영농조합법인	귀농을 위한 친환경 과수재배	40	
	(주)엠비씨아카데미	도시민을 위한 현장체험형 귀농 기본과정	60	
	한국농수산대학 산학협력단	약초(산채·허브포함) 귀농과정	25	
	전국귀농운동본부	자립하는 소농학교	25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도시민농업창업교육(과수)	20	
	서해영농조합법인	귀농인 친환경 복합영농 창업과정	26	
	농협중앙회 여성교육원	도시민 농업창업 과수과정	25	
	(재)한국지도자아카데미	귀농·귀촌 약용작물 생산기술 과정	30	
	천안연암대학	2012 도시민 농업 창업과정	75	
	황토구들마을 영농조합법인	내 손으로 만드는 황토구들방	136	
	(사)농촌으로가는길	귀촌 희망자 정착 안내 및 소규모 창업 교육	60	
	그린코리아컨설팅	귀농귀촌으로 부자되기	30	
	친환경스터디영농조합법인	내 손으로 가꾸는 전원생활	40	

교육분야	기관명	프로그램명	교육인원	
	농어촌빈집찾기사업단	농어촌 지역에서 (빈)집 마련하기	60	
	원주군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누리살이 귀촌학교	72	
	부산귀농학교	생태난방 실습	20	
	전국귀농운동본부	마을도우미(적정기술)	70	
	천안연암대학 귀농지원센터	제대군인 귀농교육	25	
	한국지도자아카데미	제대군인 귀농교육	25	
현장실습 교육 (WPL)	순천대학교	IT 활용 시설환경 계측/제어 기술 교육		
		온실 환기제어를 위한 공기조화 기술 교육		
		지열 히트펌프 온실 냉난방 기술 교육		
	강원도 축산기술연구원	한우 개량 번식교육		
	한과문화박물관	한과인재개발교육		
	경상북도 축산기술연구소	한우인공수정과정		
	천안연암대학교	한우 자가 인공수정 실습교육		
		농대 미래 전문 농업 경영인과정		
		농고생 현장실습교육		
		농대생 현장실습교육		
	전남대학교 니주 실습장	한우인공수정과정		
		한우질병관리과정		
		한우질병임상실험과정		
		한우 번식우 사양관리 과정		
	제이앤드에이	한우 목장실무 장기 교육과정		
		바다뜰포도명품화과정(12.3.12~30)		
		포도강소농육성과정(12.3.20~21)		
	홍로원	웅진포도 품질향상과정(12.3.14~14)		
		사과고품질 생산기술(1)		
		임흥과수연구소	고품질 사과생산 기술	
		주신목농원	고품질 사과재배 과정	
		은일농산	사과기초 교육과정	
		주신목농원	고품질 사과재배 과정	
		23살농부	봉지톱밥표고버섯 배지제조 및 생산기술	
		서해영농조합법인	버섯 종균제조, 살균, 접종 및 가공실습	
		영광포도원	포도기초 교육과정	
		우리원	수도작	
		제이앤드에이	바다뜰 명품화전략(4.9~27)	
			웅진포도 품질향상교육(4.16~17)	
			포도강소농육성과정(4.2~6)	
		주신목농원	고품질사과재배	
		증산목장	친환경 한우사양관리	
용수농원		친환경 배 재배기술과정		
주신목농원		고품질 사과재배 과정		
땅강아지 사과밭		사과재배기초과정		
기타		한국농업경영인증양연합회	농업인 교류센터	

2. 농업유관 기관에서의 농업교육

교육분야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대상	주요 교육내용	교육 인원
농림어촌개발	한국농어촌공사	사업 시행자 기본교육	기타	-포괄보조사업의 이해	277
		사업 시행자 중급교육	기타	-지역개발 기획	27
		사업시행자 중급지도	기타	-우수사업계획서 기획	52
		사업 지원자 기본교육	기타	-지역개발 실행 역량 강화	57
		워크숍	농어촌 주민	-지역개발 정보 교환 및 상호 협력	380
귀농귀촌	농협(지역)	기초농업교육	농업인	-농업일반, 기초영농교육, 농기계 사용법, 현장체험, 소양교육 등	500
		1:1맞춤형 교육	농업인	-실습위주의 수준별, 품목별 교육 실시	600
농림어촌개발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마을리더 양성과정	농림어촌 주민	-초급: 사업에 대한 인식 및 동기 부여 -중급: 마을사업 추진역량 배양 (리더십, 마을경영) 및 전략수립 -고급: 사업설계 및 실행	565
농림어촌개발	한국농어촌공사	사무장 양성과정	농림어촌 주민	-초급: 사업에 대한 인식 및 동기 부여 -중급: 사무장실무역량개발 (체험프로그램개발, 홍보, 회계 등 전문지식/스킬) -고급: 사업설계 및 실행	325
농림어촌개발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	농림어촌 주민	-퍼실리테이션 필요성 인식, 기본 이론 -농어촌 상황에 맞는 실질적 퍼실리테이팅실습 -자격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100
농림어촌개발	한국농어촌공사	프로젝트개발과정	농림어촌 주민	-마을 사업의 경영마인드 함양, 심층역량배양 -국내외 현장실습, 토론, 피드백 -실질적인 사업계획서 수립, 평가 및 지자체 사업과 연계	140
농림어촌개발	한국농어촌공사	R u r a l - 2 0 지도자과정	농림어촌 주민	-농어촌 관광명소를 매년 20개씩 발굴하여 대상지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관광객 유치 및 마케팅 전략 교육	120
농림어촌개발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유학과정	농림어촌 주민	-실행주체: 유학사업의 활성화방안 -유학교사: 교사마인드 함양, 실무역량 향상 -학부모: 농어촌유학의 이해, 아동심리 이해	240
농림어촌개발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축제과정	농림어촌 주민	-마을잠재 자원 발굴, 지역 고유의 차별화된 마을축제 개발·운영할 수 있는 역량 제고	30
농림어촌개발	한국농어촌공사	관 리 대 상 체 험 마 을 활성화과정	농림어촌 주민	-마을방문→마을평가 부진사유에 대한 진단→해결방안 제시, 토론	300

교육분야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대상	주요 교육내용	교육인원
농림어촌개발	한국농어촌공사	도농교류사업 워크숍	기타	-정책사업에 대한 이해 -사업활성화를 위한 실무역량강화 -지역의 변화주도자로서 사업담당자의 역할 토론	100
농림어촌개발	한국농어촌공사	체험학습 운영과정	농림어촌 주민, 기타	-체험프로그램 운영사례 연구 -연령별 눈높이에 맞는 체험운영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설계	50
농림어촌개발	한국농어촌공사	체험마을 서비스향상과정	농림어촌 주민	-전화, 언어예절, 고객만족서비스 등 이론/실습교육 -차별화된 농어촌관광 서비스매뉴얼 작성	90
농림어촌개발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농촌사랑지 도자연수원 시행)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과정	농림어촌 주민	-이민자로서 느끼는 문화적 이질감 극복 -한국인 및 농촌인력으로서 정체성 확립	1,200
농림어촌개발	한국농어촌공사	교육계획 및 평가		-고객모니터링 및 평가 -교육홍보, 시스템 운영 -교육강사 관리	
농림어촌개발	한국농어촌공사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인증심사지원		-기타 농식품부 교육 인증지원 -인증심사회의 및 워크숍 운영	
농림어촌개발	한국농어촌공사	표준교재 개발		-교육과정 표준교재 및 사업관련 실무 매뉴얼 개발	
농림어촌개발	한국농어촌공사	농산업경영자과정	농어촌기업 경영인 및 임직원	-기초: 농산업 트렌드 및 기업경영 전략, 농업법인관리 및 회계 -심화: 농어촌기업 홍보·마케팅, 농어촌 우수 기업 벤치마킹	140
농림어촌개발	한국농어촌공사	농산업기획설계 자과정	지자체 공무원	-기초: 좋은 사업계획서 보는법, 농산업트렌드와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사고 -심화: 농산업분야 창의적 홍보·마케팅, 농산업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140
기술교육	한국농어촌공사	쌀농업 경영CEO	농업인	-쌀산업, 농지은행사업 등 정부정책 -경영계획수립기법 습득 및 공유	840
기술교육	한국쌀전업농 중앙연합회	고품질쌀 마케팅	농업인	-마을단위 공동생산·판매 브랜드화 -쌀자조금 운영방안 및 혁신단지 건학 등	400
기술교육	한국농어촌공사	쌀전업농해외연수	농업인	-농업인 조직 구성 운영실태, 공동마케팅 현황 등 선진 농업경영기법 습득	15
친환경	농업인재개발원	친환경농업교육 (친환경농업무농약 도입과정 등)	농업인(친환경), 귀농인, 기타	-친환경농업 품목·재배기술 -친환경농자재 -친환경인증 -친환경유기농산물 가공 -친환경농식품 수출, 유통 등	2,000
창업·경영	aT 농식품 유통교육원	농산물마케팅전문가과정	기타	-농산물마케팅총론 -유통업체의 농산물 품질관리와 상품화 -브랜드개발및네이밍전략	70
		농산물CEO MBA	"	-농산물마케팅총론 -관리자리더쉽을 통한 경쟁력 구축 -사업성분석과투자방안	70

교육분야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대상	주요 교육내용	교육 인원
창업·경영	aT 농식품 유통교육원 외부위탁 (공모)	마케팅 분야	기 타	-산지유통시설운영 -마케팅(판촉·홍보) -유통환경변화(소비자행동분석) 등	175
		상품화 분야	"	-농산물재배기술 -농산물수확후관리 -저장및가공 -상품개발 등	175
		물류관리 분야	"	-농산물생산부터 선별·가공, 유통, 소비까지의 물류통합관리를 통한 농산물유통 효율화방안 등	70
		경영관리 분야	"	-국내농산업을구조이해 -농산물글로벌시장트렌드와전망 -농업CEO리더십향상 -농업경영체성공사례연구 등	35
기술교육	aT 농식품 유통교육원	농산물산지상품화	"	-출하요령,브랜드화,마케팅전략 등 -농가조직화 -유통경로별출하전략등	1,000
		수확 후 관리	"	-수확후관리이론(생리,예냉등) -국내외수확후관리기술적용사례 -최신농산물선도유지기술등	35
		GAP 및 안전성 관리	"	-GAP및관리시설인증기준 -이력추적관리제도이해및운영 -친환경농산물유통과마케팅전략	105
창업·경영	aT 농식품 유통교육원	농산물 브랜드 육성	"	-농산물브랜드정부육성시책 -브랜드개발및브랜드네이밍 -국내외농산품브랜드성공사례	70
		전자상거래	"	-농식품전자상거래정책 -전자상거래마케팅전략 -홈페이지,오픈마켓운영관리실습	105
		농산물 마케팅	"	-농산물유통정책현황및방안 -농산물마케팅전략수립이론및실습 -마케팅사례(브랜드,산지상품화등)	105
		수산물 마케팅	"	-수산물유통정책방향 -수산물마케팅전략수립이론및실습 -수산물마케팅사례	35
		산지유통 활성화	"	-유통환경변화와유통정책 -산지조직경쟁력강화방안 -친환경농산물유통우수사례	105
		공통비 (평가,사후관리등)	"		-
		농산물 품질관리사보수교육	"	-농산물유통에대한정책방향 -농산물품질관리사의기능과역할 -농식품안전성및위생관리	35
		농가조직화	"	-농가조직화필요성 -공동계산제정의및운영방안 -산지유통조직발전을위한대응전략	150
기 타	aT 농식품 유통교육원	도매시장 운영활성화 워크숍	"	-도매시장운영활성화방안주제발표 및 종합토론	90
		도매시장임원 관리 자반	"	-도매시장정책방향 -유통환경변화에대응한도매시장 활성화 전략 -도매시장물류체계개선방안	35

교육분야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대상	주요 교육내용	교육 인원
		농산물 경매사 역량강화	기 타	-도매시장정책방향과농안법설명 -농산물상품성평가, 대형유통업체 확산과 도매시장 대응전략 등	140
		수산물 경매사 역량강화	"	-도매시장정책방향 -수산물상품성평가,산지개발등 -산지개발및출하주관리사례등	35
		농산물 중도매인	"	-도매시장정책방향 -중도매인의채권관리와세무신고, 고객관리와 판매기법 등 -중도매업마케팅성공사례등	105
		농산물중도매인 사이버교육	"	-도매시장정책방향,개정농안법이해 -도매시장법인과중도매인의담면과제 -중도매인세무관리	100
		수산물 중도매인	"	-도매시장정책방향 -중도매인의채권관리 -중도매업마케팅성공사례등	35
		도매시장중서자 야간과정	"	-유통정책및도매시장정책방향 -시장개방에따른도매시장대응방안 -해외도매시장의기능과역할	30
		농산물 산지유통인	"	-농산물표준규격출하,농산물수급동향, 산지유통업세무관리 등 -국내외물류효율화사례등	35
		농산물 시장도매인	"	-도매시장운영활성화정부정책 -시장도매인의영업전략등 -시장도매인제의발전방안토의등	50
		도매시장 현장교육	"	-도매시장정책방향,농안법해설 -유통환경변화에따른도매시장대응방안 -고객관리와마케팅전략등	900
창업·경영	aT 농식품 유통교육원	농산물 구매협상	"	-농산물구매협상준비 -구매협상전략의수립및실행 -협상실습및종합분석	35
		농산물 영업협상	"	-농산물세일스협상준비 -영업협상전략의수립및실행 -협상실습및종합분석	35
		FTA활용전략	"	-농식품수출지원정책과방향 -FTA체결에따른농식품분야기대효과, 국가별FTA전략 -FTA활용성공사례	35
		농식품 수출촉진	"	-농식품수출지원정책과방향 -수출품생산,선별,포장,운송,통관등 -무역실무실습,수출식품안전성확보	35
		해외 농산물 유통조사단	"	-현지농산물판매실태조사 (도매시장, 유통업체 등) -현지마케팅및상품화전략 -현지마이어의구매전략강의	40
기 타	aT 농식품 유통교육원	글로벌곡물전문가	"	-국내외곡물생산및유통현황 -곡물등급평가방법및측정방법 -곡물계약및협상방식	60
		도매시장·산지조직관리지반	"	-농산물유통정책방향 -도매시장및산지조직상생협력방안 -출하주및도매시장법인상생협력사례	35

교육분야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대상	주요 교육내용	교육 인원
창업·경영	aT 농식품 유통교육원	식품산업글로벌리더	기타	-기업혁신, 내부역량강화 -위생 및 안전, 마케팅, 해외연수 등	70
		농식품수출리더	"	-경영혁신, 무역실무, 경영관리 -수출전략, 해외연수 등	35
		고부가식품전문가	"	-고부가식품 제조기술 이론 및 실습 -경영혁신, 해외연수 등	35
		외식산업글로벌리더	"	-외식산업 경영관리 -마케팅, 위생, 해외연수 등	70
기술교육	aT 농식품 유통교육원 외부위탁 (전문교육기관)	전통·발효식품산업화	"	-전통·발효식품(김치, 장류, 천일염, 전통주) 제조 이론 및 실습 -마케팅, 해외연수 등	105
		한식·외식산업화	"	-한식·외식산업화 경영관리 -마케팅, 위생, 해외연수 등	105
		기능성식품산업화	"	-기능성식품(인삼·홍삼·효모·화분·효소·유산균·추출물·키토산 등) 제품화 이론 및 실습 -마케팅, 해외연수 등	105
		식품제조기술	"	-식품(육가공, 유가공, 수산가공, 곡물가공, 임산가공) 제조 이론 및 실습 -유통 및 영업전략, 해외연수	140
		식품기계산업활성화	"	-생산·공정·설비·품질관리, 기술혁신 -공장운영전략,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 -식품기계·기자재산업 경영활성화 방안, 해외연수 등	35
창업·경영	aT 농식품 유통교육원	식품클레임 대응기법	"	-식품기업 클레임과 PL -클레임 대응기법 -클레임 처리방안 등	120
창업·경영	aT 농식품 유통교육원	식품기업 생산성 극대화 및 문제해결 실습	"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개선활동 사항 이해, 총별, 체크시트·파레도트, 관리도, 히스토그램, 산점도 QC 7가지 도구 실습 -문제해결기법 이론 및 실습 등	40
창업·경영	aT 농식품 유통교육원	식품기업 원가관리	"	-기업 경영활동, 기업경영과 재무정보 -원가관리 및 원가 절감방법 -원가절감 사례 등	60
기술교육	aT 농식품 유통교육원	이물관리 실무자	"	-이물관리정책 방향, 이물사고 발생사례 -이물유형별 혼입경로, 이물클레임예방 활동 및 조직 운영 -이물혼입예방을 위한 현장관리 등	150
기술교육	aT 농식품 유통교육원	식품 품질관리	"	-품질관리개요 -품질관리실무(품질개선을 위한 분임조활동,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체계 수립, 식품기업 품질관리 우수사례 연구) 등	40
창업·경영	aT 농식품 유통교육원	식품 신상품개발	"	-신제품 개발의 패러다임, 신제품 시장의 프로파일분석 및 도출 -신제품의 Idea도출 및 C-ncept 선정 -STP전략 및 신제품화 전략수립, 출시 및 출시후 관리전략 등	40

교육분야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대상	주요 교육내용	교육 인원
창업·경영	aT 농식품 유통교육원	식품특허 및 상표실무	기타	-식품산업과 브랜드(네이밍 및 브랜드 전략) -특허 획득전략(식품발명의 명세서 기재요령, 특허성 판단, 분쟁사례, 특허출원 경향 및 특허전략) 등	40
창업·경영	aT 농식품 유통교육원	식품관련법규 해설	"	-식품관련법규 소개 -식품위생법 해설, 식품공전 해설 -식품 등의 표시기준 등	60
기술교육	aT 농식품 유통교육원	HACCP 현장설계 및 위해요소관리	"	-작업장 위생관리 -위생관리(개인, 제조설비, 제품 및 자재) -위해요소 분석 및 관리 등	40
창업·경영	aT 농식품 유통교육원	SNS를 활용한 농식품 마케팅전략	"	-패러다임 전환 -뉴미디어 활용사례연구 -소셜미디어 Sales Promotion PLAN, -소셜미디어 Sales Promotion 경쟁 우위 전략 등	60
기술교육	aT 농식품 유통교육원	식품 포장기술· 디자인개발	"	-가공식품 품질열화 억제방법 -기능성 포장재 종류 및 특징 -포장관련 법규 -포장재 원가절감 -디자인 개발	40
기술교육	aT 농식품 유통교육원	식품 5S 및 세척, 살균	"	-식품산업 혁신활동 개요 -5S의이해 및 단계별 세부추진방법 -식품공장의 세척 및 살균 등	40
창업·경영	aT 농식품 유통교육원	식품명인 사업활성화	"	-마케팅 활성화 -식품제조·가공·조리의 전통성, 정통성 -유래 및 전승계보 등	20
창업·경영	aT 농식품 유통교육원	FTA활용 글로벌 대응전략	"	-농식품 FTA개념과 용어의 이해 -국가별 농식품 FTA전략 -한국형 글로벌 경쟁전략 -농식품 FTA성공사례 연구	60
창업·경영	aT 농식품 유통교육원	농식품 영업관리	"	-고객커뮤니케이션 스킬 -영업직원 능력개발, 역량강화 -영업 경쟁전략, 비즈니스 매너 -신규고객 개척전략 등	60
창업·경영	aT 농식품 유통교육원	고객주문 특화	"	-(품목, 분야, 기능, 과정) 주문·현장교육	300
창업·경영	aT 농식품 유통교육원	농식품 수출실무자	"	-농식품 수출절차 해설, 해외시장조사 -바이어발굴 및 관리, 무역계약 -수출신용장, 선적서류 작성, 환어음 및 대금회수, 콜레임과 중재 -사례 및 토의 등	120
창업·경영	aT 농식품 유통교육원	수출성공사례	"	-수출성공사례 특강	120
창업·경영	aT 농식품 유통교육원	소셜미디어 마케팅 전략	"	-소셜미디어마케팅 전략 특강	60
창업·경영	aT 농식품 유통교육원	FTA 대응방안	"	-FTA 대응방안 특강	120

교육분야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대상	주요 교육내용	교육 인원
창업·경영	aT 농식품 유통교육원	외식산업성공전략	기타	-외식업 성공사례 특강	60
창업·경영	aT 농식품 유통교육원	식품인 특별교육	"	-식품인 특별강좌(고부가·기능성 식품, 건강관리 등)	120
농림어촌개발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자조금 교육	농·어업인	-자조금사업비에 대한 사용 용도 -향후 자조금사업 발전방향 토론 -자조금 선진사례소개 및 제도 홍보를 통한 거출율 제고	미정
친환경	농협중앙회 축산물위생교육원	한우농장haccp 교육	농업인	-한우농장 haccp인증을 위한 교육	2,000
기술교육	농협중앙회 도지역본부, 천안연암대학, 공주대학교, 한경대학교, 대구대학교, 국립축산과학원 충북축산위생연 구소, 제주축산진흥원	인공수정 실습교육	농업인	-인공수정 이론 교육 -인공수정 실습 교육	1,000
기술교육	농협중앙회 도지역본부	고급육생산기술 교육	농업인	-초음파 활용 -송아지 질병관리 -TMR 고급육 사양 프로그램	300
기술교육	선정 예정	한우경영정보시 스템	농업인	-프로그램 자가 활용법	300
기술교육	한돈자조금 (대한양돈협회)	FMD 및 돼지 열병 박멸 교육	농업인	-농장 차단 방역 교육 -FMD 및 열병 전종, 방역 교육	5,000
기술교육	한돈자조금 (농협/양돈협회)	세미나 개최 및 지원	농업인	-신기술, 질병 예방, 경영 관리 세미나 등 개최 및 지원	800
기술교육	한돈자조금 (농협/양돈협회)	양돈인 교육	농업인	-PTC+ 교육 -여성 양돈인 교육	730
친환경, 녹색성장	한돈자조금 (농협/양돈협회)	분뇨 자원화 교육	농업인	-경종농가 퇴액비 이용 교육 -분뇨 자원화 기술 교육	5,000
기술교육 친환경	농협중앙회	젓소사육단계별 HACCP교육지원	농업인	-HACCP 인증을 위한 필수교육	980
기술교육 리더십	농협중앙회	후계농인교육	농업인	-우수기술 정보교류 및 신기술습득 -목장경영마인드 제고 및 생산성 향상 효과	70
기술교육	낙농육우협회	여성낙농인홍보요원 화교육	농업인	-우유요리 교육 및 우유 영양학 강의 -생산성 향상교육 등	330
기타	농수산식품연수원	여성농업인리더 십아카데미	농업인	-농정시책, 소양 교육 -교수기법, 리더십 개발 등	180
기타	농수산식품연수원	여성농업인리더 십아카데미심화	농업인	-기획력·스피치 기법 및 리더십 배양 -이미지 메이킹, 비즈니스 기법 등	60
기타	농수산식품연수원	농촌체험마을리더	농업인	-농촌체험관광 정책방향 -농촌관광 프로그램 개발·활용 등	80
기타	농수산식품연수원	농어업인단체정책 기획개발	농어업인 단체	-농어업 정책 방향 -커뮤니케이션과 갈등관리 등	30
기타	농수산식품연수원	농촌사랑체험교실	소비자	-농촌체험, 도농교류 정책 -농촌체험	175
기타	농수산식품연수원	농산물명예감시원	소비자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농산물 안전관리 등	40

교육분야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대상	주요 교육내용	교육 인원
기타	농수산식품연수원	청소년 농어촌체 협캠프	소비자	-농어촌 관련 지식 -농촌체험	400
기타	농수산식품연수원	열린강좌	소비자	-컴퓨터, 인터넷 활용방법 -농촌체험	30
기타	농수산식품연수원	농식품 안전관리 의이해	소비자단체	-농식품 안전정책 -GAP, HACCP 원산지제도 등	30
기술교육	도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품목 장기교육	농업인	-농업(인) 대학, 대학원	22,000
기술교육	시군 농업기술센터	품목 단기교육	농업인	-품목별 상설교육	100,000
				-경영마케팅 II	1,000
				-수산물품목	2,000
기술교육	시군 농업기술센터	실용기술교육	농업인	-당면과제현장교육	140,000
				-농기계 II	30,000
				-GAP교육	15,000
				-농산물가공 II	4,000
				-경영마케팅 I	4,700
				-농약안전관리	700
				-정보화교육 II	9,000
기술교육	시군 농업기술센터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농업인	-새해영농계획수립, 농정시책홍보 등	300,000
기술교육	시군 농업기술센터	생활문화교육	농업인	-여성농업인교육	70,000
				-취미교양교육	50,000
				-농산물가공 I	20,000
				-정보화교육 I	11,000
				-농기계 I	10,000
				-다문화가족교육	2,000
소비자교육	도 농업기술원, 시군센터	농심교육	일반소비자 고교생, 대학생	-소비자교육	30,000
				-초중고생 교육	30,000
귀농귀촌	도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영농정착기술교육	귀농·귀촌 희망자	-귀농가족의 농촌생활정착유도	8,000
기술교육	도농업기술원	도단위 특화교육	농업인, 일반소비자	-지역특화소득품목교육	13,000
				-기계화영농사교육	600
				-전문농업정보교육	1,000
				-일반농기계교육	2,000
				-여성농업인과제교육	4,000
기술교육	농촌HRD센터	주류제조기초	농업인	-전통주 양조 기초이론 및 실습 -누룩제조 기초이론 및 실습 -과일주 양조 기초이론 및 실습 -양조용 발효제 특성과 이용기술	120
기술교육	농촌HRD센터	인공수정	농업인	-암소 생식기의 구조와 기능 -한우 번식생리 및 발정행동의 이해 -인공수정의 장단점과 직장질법 -한우 번식우 사양관리	80
기술교육	농촌HRD센터	로컬푸드산지처리 가공	농업인	-지역농축산물 가공산업활성화 방안 -지역농축산물 산지처리 및 가공기술 -GAP, HACCP 및 GMP 기술 -가공식품 산지처리·가공 현장견학	80

교육분야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대상	주요 교육내용	교육 인원
기술교육	농촌HRD센터	근층사육	농업인	-근층자원의 연중 사육법 -안정생산을 위한 병해충 방제법 -애원, 정서, 희귀근층 이용 기술	40
창업·경영	농촌HRD센터	농촌교육농장 교사양성기초	농업인	-프로그램의 이해 및 실습, 상호 컨설팅 -학교 교육과정 및 현장체험학습의 이해 -우수농장 사례발표 및 사례연구	120
창업·경영	농촌HRD센터	농촌교육농장 교사양성심화	농업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습 -교재 및 교구와 교육환경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사례연구 -품질관리, 경영, 시장활성화 전략	120
기술교육	농촌HRD센터	채소공정육묘심 화	농업인	-공정육묘 시설·자재 및 관리 -공정육묘 환경관리기술 -생리장해 및 병해충 경감기술	30
기타	농촌HRD센터	GAP인증심사원 양성	기타	-GAP 관리기준 및 정보서비스 -GAP 인증을 위한 농약 안전사용 -GAP 인증품 수확 후 관리	250
귀농·귀촌	농촌HRD센터	제대예정군인	귀농·귀촌 희망자	-농업의 가치와 이해 -귀농·귀촌 국내외 정책 -창업 및 귀농설계 -기초영농기술	100
귀농·귀촌	농촌HRD센터	엘리트귀농대학	귀농·귀촌 희망자	-농업의 가치와 이해 -귀농·귀촌 국내외 정책 -창업 및 귀농설계 -채소, 과수, 특작 기초재배기술	100
귀농·귀촌	농촌HRD센터	퇴직예정공무원 귀농	귀농·귀촌 희망자	-농업의 가치와 이해 -귀농·귀촌 국내외 정책 -창업 및 귀농설계 -기초영농기술	60
귀농·귀촌	농촌HRD센터	북한이탈주민귀 농	귀농·귀촌 희망자	-농업의 가치와 이해 -귀농·귀촌 국내외 정책 -창업 및 귀농설계 -기초영농기술	30
귀농·귀촌	농촌HRD센터	출소예정자귀농	귀농·귀촌 희망자	-농업의 가치와 이해 -귀농·귀촌 국내외 정책 -창업 및 귀농설계 -기초영농기술	50
소비자교육	농촌HRD센터	농촌어메니티체험 연수	기타	-학교교육연계 농어촌체험 방안 -농업·농촌의 교육적 가치 -원예 통합교육프로그램개발	120
소비자교육	농촌HRD센터	농촌어메니티직 무연수심화	기타	-학교교육연계 농어촌체험 방안 -농업·농촌의 교육적 가치 심화 -원예 통합교육프로그램개발 심화	40
소비자교육	농촌HRD센터	유아교사원예활동	기타	-원예 통합교육 프로그램 -유아 자연체험교육의 현재와 미래 -유치원 교육과정 원예활동 개발	120
창업·경영	농촌HRD센터	농업비즈니스모델 개선교육	농업인	-3년 후 비전, 1년 후 목표, 고객분석 -실행계획 수립 -현장실천을 통한 성과제고 -지역 C-P구성	160
창업·경영	농촌HRD센터	농업비즈니스모델 개선심화교육	농업인	-농업경영체의 자원 분석 -내·외부의 DNA(전략) 분석 -농업경영체 대표상품 찾기	100

교육분야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대상	주요 교육내용	교육인원
기술교육	농촌HRD센터	농기계전문인력양성(중급)	농업인	-농기계기관정비 -기초농기계 정비 -전기장치의 이해	30
기술교육	농촌HRD센터	농기계전문인력양성(고급)	농업인	-농업기계공작법 -농업기계학 실제 -농업동력학 실제	30
기술교육	농촌HRD센터	한국농수산대학공통필수(기초)	대학생	-농업기계안전사용 -경운정지 기초운전 -기초 농작업 활용기술	260
기술교육	농촌HRD센터	전국농과계대학생	대학생	-농업기계안전사용 -경운정지 기초운전 -기초 농작업 활용기술	30
기술교육	농촌HRD센터	대외협력외국인농기계	기타	-농업기계안전사용 -경운정지 기초운전 -기초 농작업 활용기술	40
기타	농협안성교육원	경제사업활성화 핵심리더	조합장, 조합임원 대의원, 조직장 등	-협동조합이념이해 -조합경영(경제환경, 경영 및 사업 활성화) -농업 농촌 농협의 환경 변화와 지도자의 자세	1500
기타	농협안성교육원	농협사업활성화과정	조합단위임원, 대의원 내부조직장 등	-협동조합이념이해 -조합원의 역할과 자세 -조합사업의 활성화 방안	3000
기타	농협안성교육원	농협 핵심리더 테마체험과정	조합원, 대의원, 내부조직장, 우수고객 등	-협동조합이념이해 -경제사업활성화 -NH종묘 및 NH팜랜드 체험	1500
기타	농협안성교육원	공선출하회육성과정	공선출하회 회원 등	-농산물산지유통혁신 -판매사업선진화전략 등	500
기타	농협안성교육원	공선출하회 핵심리더과정	공선출하회 선도리더 등	-유통환경변화와 정책 방향 등	200
기타	농협안성교육원	지역농업발전 상생교육	도시, 군 단위 농업인, 유관기관 농협임직원	-지역농업발전 방향 -농업, 농촌의 이해 -지역민과의 상생 방안 등	1200
귀농귀촌	농협안성교육원	귀농귀촌 향상교육	귀농인 및 귀농예정자	-농업, 농촌의 이해 -성공귀농전략 -기초농업기술 및 선도농가 체험 등	25
기타	농협안성교육원	꿈나무금융경제 가족캠프	조합원 가족	-성인, 어린이, 초·중·고등학교 경제 교육 -선진지견학 및 가족 캠프 등	120
기타	농협안성교육원	농산물전자상거래	조합원	-인터넷 활용방법 -인터넷통신 판매 실습 -우수농가 사례	20
창업경영	농협안성교육원	여성농경영자과정	여성 농부	-낙농 관련 기술 교육 -커뮤니케이션 및 리더십	40
리더십	농협안성교육원	전국새농민회	새농민회수상자	-협동조합이념이해 -지도자의 역할과 자세	180
창업경영	농협안성교육원	성공농업경영자과정	예비CEO, 성공농업인	-성공농업인의 핵심역량 -성공농업인 우수사례	25
기술교육	농협안성교육원	최고기술아카데미 과정	품목별 최선도농업인	-재배기술 교육, 상품화 기술 -상호학습, 우수농가 견학	100
기술교육	농협안성교육원	최고기술아카데미 향상과정	최고기술과정 수료자	-재배기술 향상 교육, 상품화 기술 -상호학습, 우수농가 견학	60
기술교육	농협안성교육원	전문농업기술	품목별 전문농업인	-재배기술 교육, 현장 실습 -상호학습, 우수농가 견학	250

교육분야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대상	주요 교육내용	교육인원
기술교육	농협인성교육원	품질향상기술	품목별 재배농업인	-고품질생산기술교육, 품종선택 및 관리 -상호학습, 우수농가견학	400
기술교육	농협인성교육원	핵심축산기술	한우 번식우농가	-인공수정 이론 및 실습 -상호학습	120
기술교육	농협인성교육원	주산지현장영농기술	주산단지 농업인	-품목별재배기술 -농가현장컨설팅 등	1200
기술교육	농협인성교육원	주산지현장야간교육	주산단지 농업인	-품목별재배기술 -농가현장컨설팅 등	200
소비자교육	농협인성교육원	우리농축산물바로 알기	전국영양사, 조리사	-국내산, 수입산농산물구별법 -국내산농산물의 우수성	750
기타	농협창녕교육원	농축협 이감사교육	농축협 조합 이사 및 감사	-협동조합이념이해 -농협임원의 역할과 자세 -농협법 및 회계원리	1500
기타	농협창녕교육원	농협단위 농축협 대의원교육	농축협 조합 대의원	-협동조합이념이해 -대의원의 역할과 자세 -조합경영원리의 이해	2250
기타	농협창녕교육원	농축협 경영혁신과정	조합단위임원, 대의원, 내부조직장등	-협동조합이념이해 -조합원의 역할과 자세 -조합사업의 활성화방안	400
기타	농협창녕교육원	농축협 역량강화 교육	핵심조합원 등	-협동조합이념 이해 등	3000
기타	농협인성교육원	지역농업발전 상생교육	도시,군단위 농업인,유관기관 농협임직원	-지역농업발전방향 -농업,농촌의이해 -지역민과의상생방안등	1050
리더십	농협창녕교육원	뉴핵심리더 양성과정	조합장,조합임원 대의원,영농회장 부녀회장, 작목반장 청년부등	-협동조합이념이해 -조합경영(경제환경, 경영 및 사업 활성화) -농업농촌농협의환경변화와 지도자의 자세	450
기타	농협창녕교육원	경제사업활성화 핵심리더	농축협 조합 핵심리더	-협동조합이념이해 -경제사업활성화전략 -조합원역할과자세	2000
기타	농협창녕교육원	경제사업활성화 현장교육컨설팅	농축협 조합 핵심조합원	-협동조합이념이해 -경제사업활성화방안 -유통활성화방안	1500
기타	농협창녕교육원	여성조직 운영활성화	농주모,부녀회, 고주모 임원	-협동조합이념이해 -여성지도자의자세 -여성조직육성방안	600
리더십	농협창녕교육원	여성리더 역량강화	농축협여성임원 및 여성대의원	-협동조합이념이해 -농협임원의 역할과 자세 -여성지도자의변화관리	400
기타	농협창녕교육원	지역농업 상생발전교육	도시,군단위 농업인,유관기관 농협임직원	-지역농업발전방향 -리더의역할과자세 -농업,농촌의이해 -지역민과의상생방안등	600
소비자교육	농협창녕교육원	소비자 교육	도시소비자 등	-농업,농촌,농협의이해 -우리농산물애용등	400
기타	농협창녕교육원	농협이념 확산교육	농협퇴직동인 등	-농협의 이해와 홍보	150
귀농귀촌	농협창녕교육원	귀농귀촌 교육	귀농인 및 귀농예정자	-농업,농촌의이해 -성공귀농전략 -귀농우수사례 -기초농업기술 -친환경농업기술및선도농가체험등	30

교육분야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대상	주요 교육내용	교육 인원
친환경	농협경주환경농업 교육원	친환경농업 도입	친환경농업 도입희망농가	-친환경농업의 필요성 과전망 -친환경적인 토양관리 -자연자재를 이용한 병충해 방제 -인증 및 사후관리, 실천 우수 사례 등	900
친환경	농협경주환경농업 교육원	친환경농업 인증	저농약이상 인증농가	-친환경적인 토양관리 -수확 후 관리 기술 및 상품화 전략 -친환경농산물 유통 전략 -친환경농자재 통제 실습	120
친환경	농협경주환경농업 교육원	친환경농업 유기농 아카데미	유기농희망농가 친환경실천작목 반장, 영농회장 등	-친환경적인 토양관리 -친환경농산물 마케팅 전략 -친환경농자재 통제 실습 E40	40
친환경	농협경주환경농업 교육원	친환경 축산	축산(한우) 사육 농가	-친환경 축산의 필요성 -축산정책 -친환경 축산 실천 사례 -상호 학습 등	120
친환경	농협경주환경농업 교육원	친환경농업 현장교육	농협 및 작목반 단위	-친환경농업의 필요성 과전망 -친환경적인 토양관리 및 병충해 방제 -친환경농자재 활용 및 통제 실습 시연	2250
친환경	농협경주환경농업 교육원	농업마이스터대학	무농약이상인증 농업인중 과채류 재배 농업인	-친환경농업 실천 필요성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 -원예작물 천적 방제 기술 -친환경농산물 마케팅 전략	20
친환경	농협경주환경농업 교육원	친환경농업 직원과정	농협 직원	-친환경농업 정책 및 추진 방안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사후관리 제도 -친환경농업 유통 활성화 방안	120
친환경	농협경주환경농업 교육원	친환경농업 CEO	농협조합장 등 부서장	-친환경농업 정책 및 추진 방안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사후관리 제도 -친환경농산물 마케팅 전략	120
소비자교육	농협경주환경농업 교육원	친환경농업 소비자초대	농협고객, 공무원 교사, 각종단체회원, 도시주부 등	-친환경농업의 올바른 이해 -친환경농장 견학 및 농촌 체험 -친환경생활 체험 -친환경농업 실천 사례	1200
친환경	농협경주환경농업 교육원	친환경농업이해 (1일교육)	지역농협 등 단체 단위	-친환경농업, 소비 마인드 제고	1600

부록3: 비농업분야 부처별 인력육성사업

1. 취업지원 및 고용유지

고용노동부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10년 실적	'11년 실적	'12년 계획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정년연장 장려금	○(대상)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한 사업주 ○(내용) 정년을 1인당 월 30만원, 1년(정년연장기간 3년 이상시 2년)동안 지원	369억원	308억원	300억원, 134,021명
	정년퇴직자 재고용 장려금	○(대상)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 ○(내용) 재고용 1인당 월 30만원을 6개월간 지원 (500인 이하 제조업은 12개월) *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			
	60세이상 고령자 고용 장려금	○(대상) 사업주 ○(내용)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초과 1인당 분기 18만원 지원 * 근로자수의 20%(대규모 기업은 10%) 한도 지원			
임금 피크제 지원금	정년연장형	○(대상 및 요건) 근로자 대표 동의를 받아 정년을 56세 이상으로연장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50세 이후 일정 시점부터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 * 임금감액율: 피크임금 대비 2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 이상 ○(지원) 피크임금 대비 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 이하로 감액되는 부분을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날로부터 최대 10년간 연 600만원 한도 지원	-	125억원	103억원, 2,497명
	근로시간 단축형	○(요건)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피크 시점 대비 1/2 이상 감소, 임금이 피크대비 50% 이상 감액 ○(지원) 피크대비 50% 이하 감액분 지원, 정년연장형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10년, 재고용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5년, 연 300만원 한도까지 지원			
	재고용형	○(대상 및요건) 정년이57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되면서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 * 임금감액율: 정년 전(55세 이후)에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피크임금 대비 20%(우선대상 기업은 10%) 이상, 정년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피크임금 대비 30%(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5%) 이상 ○(내용) 정년 전(55세 이후)에 임금이 줄어든 경우는 피크임금 대비 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 이하로 감액되는 부분을, 정년이후 임금이 줄어든 경우는 피크임금 대비 70%(우선지원대상기업은 85%) 이하로 감액되는 부분을 재고용된 날부터 최대 5년간 연 600만원 한도 지원			
사회적기업	경영지원 등	사회적기업의 설립(인증)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 세무·노무·회계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 지원	-	664개사 인증	-
	시설·운영비 대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 시설비 등을 지원·용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등 사회적 기업에 보호된 시장 제공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10년 실적	'11년 실적	'12년 계획
세제 및 사회 보험료	세제 및 사회 보험료	①법인세·소득세 4년간 감면, 기부를 한 연계기업에 그 기부금을 법인소득의 10%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 처리, ②정부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사업주 부담 분 사회보험료 지원(1인당 월 79천원, 4년도)			
	전문인력 채용지원	전문인력 및 대기업 퇴직전문인력 고용시 1인당 월 150만원('12년도 신규인원 2백만원) 한도로 인건비 지원(기업당 3명, 3년간, 자부담 부과) * 자부담율: (1차년도)10%→(2차년도)20%→(3차년도)30%→(4차년도)50%			
	(에비)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공모를 통해 참여기관에서 신규로 고용하는 근로자(취약계층 50% 이상)에 대하여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용도로 1인당 월 1,4040천원 한도로 지원			
	기타	지역별·업종별·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경영봉사대 구축 지원, 대학 등에 사회적기업가 양성 아카데미 과정 설치 지원 및 장학사업 수행, 사업개발비 지원(자체 매칭펀드 방식) 등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양성	○(지원내용) - (위탁운영기관)청년 참여자 배정 물량에 따른 육성비용 * 청년 참여자 활동비 지급, 사업화 지원(시제품 제작비용 등), 상근지원 인력 인건비, 외부 전문가 멘토링, 관리비용 등 총당 ○(참여자) 여비, 시장개척 홍보비, 정보활동비, 창업관련 수수료 등 소요비용을 위탁기간을 통해 월별 지급	-	-	-	
외국인 고용허가제	○일반 외국인근로자 도입: 고용허가제(E-9) - (허용업종)중소 제조업(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미만), 축산업, 어업(20톤 미만), 건설업 - (도입대상)인력송출국(15개국)의 한국어시험 합격자 ○동포 고용: 방문취업제(H-2) - (허용기업)서비스업(음식, 숙박 등 25개 업종), 중소기업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20만톤 미만), 건설업 - (도입대상)연고 동포(국내 초청), 무연고동포(한국어 시험, 전산추첨)	34천명 (제조업 28.1천명)	48천명 (제조업 40천명)	57천명 (제조업 49천명)	
워크넷	고용부에서 운영하는 구인-구직 포털사이트로 직종별 분야별, 지역별 등으로 구분된 실시간 채용정보 제공	-	-		
청년취업아카데미	○ 기업·사업주단체가 대학과 협력하여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 운영 - (기업 주도형)대기업 등이 자체 또는 협력업체 등의 인력양성·채용을 위해 설립 - (사업체단체 주도형)사업주단체, 업종별 협의회 등이 인력공급을 위해 설립	382억원	308억원	264억원, * 청년취업 아카데미(8천명), 59개 소 선정(138개 대학 협력) * 창조캠퍼스(24개교)	
창조캠퍼스	창직 아이디어를 공모·심사하여 선정 및 구성된 팀에 대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한 창작지원금(6백만원 내외), 창작공간, 멘토링 등 지원				
청년취업진로지원(취업지원관 채용 지원 사업)	○(대상) 대학, 특성화고 ○(지원) 취업지원관 인건비, 취업진로 프로그램 관련사업비 등(대학 7천만원·특성화고 5천만원 한도, 대학은 취업지원관 인건비 30% 이상 부담)	150억원	85억원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10년 실적	'11년 실적	'12년 계획																								
취업사관학교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만 15세~만 24세 이하 취약청소년 ○(지원) 1년 과정의 무료 직업훈련 실시, 인성교육 및 직업진로지도 실시, 학업(검정고시) 지원 등 개별적 맞춤 서비스 지원 * (훈련기관 훈련비용 지원, (훈련생) 지원수당 월 30만원 지원(훈련비, 기숙사비 무료) 	29억원	15억원 100명																									
고용보험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임금의 0.45%)와 사업주(임금총액의 0.7~1.3%)가 공동 부담하는 기금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능력개발·향상, 실직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 * (직종법위)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6조 1,668억원	6조 2,962억원																									
구직급여 연장급여	구직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 * 지급기준: 이직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40,000원, 1일 하한액은 최저임금액('12년 시간당 4,560원)의 90% <table border="1"> <caption><구직급여 소정일수></caption> <thead> <tr> <th>구분</th> <th>1년 미만</th> <th>1년 이상 ~3년 미만</th> <th>3년 이상 ~5년 미만</th> <th>5년 이상 ~10년 미만</th> <th>10년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30세 미만</td> <td>90일</td> <td>90일</td> <td>120일</td> <td>150일</td> <td>180일</td> </tr> <tr> <td>30세 이상~50세 미만</td> <td>90일</td> <td>120일</td> <td>150일</td> <td>180일</td> <td>210일</td> </tr> <tr> <td>50세 이상 및 장애인</td> <td>90일</td> <td>150일</td> <td>180일</td> <td>210일</td> <td>240일</td> </tr> </tbody> </table>	구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3조 3,660억원	3조 3,772억원	3조 2,924억원 1,063천명 * (구직급여) 32,878억원 * (연장급여) 46억원
	구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연장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장급여)개별연장, 훈련연장, 특별연장 - (개별연장)구직급여의 70%,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 (훈련연장)훈련을 받는기간 최대 2년간 지원 - (특별연장)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취업촉진 수당	조기재취업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요건)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안정된 직업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사업을 영위한) 경우로서 잔여 급여 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1회이상 자영업 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함) ○(지원금액)구직급여일액에 잔여 급여일수 x1/2(재취직할 당시 55세 이상 또는 장애인: 잔여 급여일수x2/3) 	1,562억원	2,150억원	2,347억원																								
	직업능력개발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요건)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때 ○(지원금액)실제 훈련을 받은 날 1일 5,000원 																											
	광역구직활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요건)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할 때 ○(지원금액)숙박료(실비 40,000만원 한도, 운임 실비 교통수단별 중등급 수준) 																											
	이주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요건)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기 위하여 이사를 할 때 ○(지원금액) - ('11년 이전)실비(2.5톤 초과시 실비의 80%), 5톤까지만 지급 - ('12년 이후)5톤까지는 실비(5톤 초과시 실비(5톤까지)+실비의 50%(5톤 초과~7.5톤까지) 																											
중소기업 고용구조 개선지원		사업장당 인사관리체계 개선, 비정규직 능력개발프로그램 구축, 임금 직무재설계,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컨설팅 비용 지원(15백만원 한도)	37억원	24억원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10년 실적	'11년 실적	'12년 계획
취업계층 취업지원	노숙인	노숙인(거리·쪽방)에 대한 취업 알선(노숙인상담보호센터 등)	노숙인쉼터 및 상담보호센터 ('12년6개소)		
	건설인력	건설일용 근로자에 대한 취업알선	유·무료 직업소개소 등 ('12년16개소)		
	산업단지	주요 산업단지내 중소기업 지원 및 취업알선	산업단지 관리기관 등('12년4개소)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에 대한 취업알선	비영리법인 및 유·무료 직업 소개사업자 등('12년7개소)		
	가사·간병	가사·간병도우미에 대해 취업알선 전담	비영리법인 및 유·무료 직업 소개사업자 등('12년19개소)		
	노상공동전직 지원센터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퇴직자 등에 대한 취·창업 지원 서비스	노상공동전직지원센터('12년 1개소)		
	전직지원사업	비자발적직업자에 대해 재취업 및 창업지원	유·무료 직업정보제공사업자('12년4개소)		
	우량중소기업 일자리발굴사업	관찰은 중소기업 일자리 발굴	유·무료 직업정보제공사업자('12년 1개소)		
	경력단절여성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비영리법인 및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 등 ('12년 100개소)		
	고령자인재은행	고령자를 대상으로 취업서비스 제공	비영리법인 및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 등 ('12년 46개소)		
	중견전문인력	실업자 및 이직자를 대상으로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비영리법인 및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 등 ('12년 6개소)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실직충격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민간에 위탁	프로그램 운영능력(경력)이 있는 (비)영리법인('12년 41개소)		
	집단상담 프로그램	고용센터내 집단상담 프로그램(CAP)추진허가 상실 등운영을 민간에 위탁	유·무료 직업정보제공사업자 ('12년 41개소)		
	유희간호인력 재취업	유희간호인력에 대한 취업알선 및 재취업 훈련지원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등 ('12년 58개소)		
취업성공패키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별 지원 서비스: (1단계)진단 경로설정 →(2단계)의욕·능력증진→(3단계)집중 취업알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수당)참여자가 1단계 수료시 실비 5~20만원 지급 - (훈련참여지원수당)2단계 직업훈련 참여시 참여기간 중 최대 6개월간 월 최대 31.6만원 지급 - (훈련비 지원)직업훈련 참여시 훈련비 전액지원(최대 2~3백만원) - (취업성공수당)취업시 최대 1백만원 지급(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만 해당) - (이행급여특례 적용)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으로 탈수급한 경우 2년간 교육 및 의료급여 지원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성공패키지 기초수급자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자 북탈주민, 위기청소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 - 청년 YES 프로젝트: 최종학교 졸업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청년층 미취업자(고졸 비전학 미취업자: 졸업 직후 참여 가능) - 중장년층 새일찾기 프로젝트: 40~64세의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①실업급여 수급 종료 1개월 이후 미취업자, ②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요건 미충족 미취업자, ③최근 6개월 이상 계속 실직 상태에 있는 자 	197억원 2만명	574억원	1,396억원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10년 실적	'11년 실적	'12년 계획
취업장려수당		중소기업 빈 일자리 취업자에 1인당 180만원 지급(취업 일로부터 1개월후 30만원, 6개월후 50만원, 12개월후 100만원)	155억원	353억원 4만명	
고용 유지 지원금		○(휴업) 1월간 소정근로일수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2/3(대기업 1/2) 지원 ○(훈련) 고용유지에 적합한 훈련 실시시 사업주에게 지급된 임금의 3/4(대기업 2/2)과 훈련비 지원 ○(휴직) 근로자에게 1월 이상 유·무급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급된 휴직수당의 2/3(대기업 1/2)를 지원(무급휴직 월 1인당 20만원) ○(인력재배치) 업종전환후 종전 업종 종사근로자의 50% 이상을 새로운 업종으로 재배치한 사업주에게 지급된 임금의 3/4를 지원(대기업 2/3)	998억원	360억원	290억원, 26,182명
고용 창출 지원금	일자리 나누기 지원	○교대제 도입·확대, 실근로시간단축제, 일자리순환제 도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 ○(지원내용)증가인원 1인당 720만원/년(피보험자수의 30% 한도) - (우선지원대상기업) 최대 1,080만원 - (중점지원대상) 1년간 최대 1,080만원, 최대 2년까지 지원	770억원	164억원 * 고용환경개선 (126억원)	164억원, 6,359명 * 고용환경개선 (232억원)
	고용 환경 개선 지원	○(지원대상)제조업 또는 일부서비스업 영위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내용)고용환경개선 트자금의 50%(500만원 한도)와 증가한 근로자 1인당 120만원(최대 30명 한도) 합산한 금액을 1회 지원 - 다수 사업주가 공동참여하는 경우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지원 ○(지원분야)기숙사, 구내식당, 사내 교육시설, 목욕시설, 체력 단련시설, 통근차량(16~35인승) 등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	○(대상)고용보험위원회에서 정한 업종(신재생에너지산업, 콘텐츠·소프트웨어산업)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창업초기(6월~2년)기업 중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기업 ○(지원내용)새로 고용된 근로자 1인당 1,080만원/년/기업당3명 한도)			
	전문인력 채용 지원	○(대상)고용보험위원회에서 정한 업종(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전문인력을 신규 고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기업 ○(지원내용)새로 고용된 근로자 1인당 1,080만원/년/기업당3명 한도)			
고용 촉진 지원금		○(대상) - 고용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취업취약계층으로서 도서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 고용후 6개월 경과시 280만원(우대지원자 340만원), 이후 추가 6개월 경과시 300만원(우대지원자 520만원) 지급(임금의 75% 한도) * (우대지원: 중증장애인) 800만원/년(전반기 340만원, 후반기 520만원)	-	572억원	479억원
고용영향평가제도		○(절차)평가 요청(중앙부처·지자체)→대상선정(고용부)→평가확정(고용정책심의회)→분석·평가(고용영향평가센터)→평가결과보고(고용정책심의회)→평가결과 통보(고용부)→평가요청기관→개선방안 마련·시행(해당기관)	-	20억원	19.6억원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10년 실적	'11년 실적	'12년 계획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취약계층(청년, 장기구직자, 고령자, 장애인 등)에 있는 자를 알선을 통해 신규 고용한 사업주 지원	993억원	570억원 3만명	
청년인턴제		미취업 청년을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인턴기간 약정임금의 50%(월 80만원 한도, 6개월, 정규직 전환후 6개월간 매월 65만원 지원(최대 870만원)) * 제조업·생산직 등 취업 청년에게 사업주 지원과 병행하여 취업지원금2백만원지원	1,868억원 30,939명	1,991억원 32,934명 (고졸 10,812명 정규직 전환률 83.9%)	2,179억원 (창직인턴 161), 4만명(고졸 2만명)
청년창직인턴제		인턴 6개월간 실시기업에 약정임금의 50% 지원(월 80만원 한도) * 인턴 종료후 창작·창업성공시 청년에게 창작지원금(2백만원) 지원			
취업포털(JobYoung) 운영		대졸 청년층에게 특화된 구인 및 기업정보 등을 제공('10.2.1부터 서비스 개시)	5억원	-	
채용박람회 개최		취업과 창업을 희망하는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취업정보 등 관련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과의 만남의 장 제공	13.2억원 (810개사 참여, 1,031명 취업)	6.65억원	
취업·채용지원 서비스		○심층상담→구직자 능력·적성 진단-개인별 취업지원계획(LAP)수립-취업의욕 제고·구직기술 향상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 구인업체 등록·신청(위크넷, 유효기간 2개월)-취업알선(고용센터)-채용 및 결과통보 * 고용센터(49개소): 상설채용관 운영, 매주 1회 이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
청년직작 직업체험 프로그램		○(지원대상)15~29세 학교 재학생 ○(지원내용) - (연수참여자연수 참여시 월 40만원의 수당 지원 - (연수기관)기업연수지원경비(중소기업, 1인당 월 5만원) 등 지원		152억원	122억원
취업지원관 사업		대학(4년제, 전문대), 특성화고, 산업정보학교를 대상으로 취업 전문 인력 채용 지원(대학은 40% 매칭 펀드 적용)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지 원	일자리 창출 컨설팅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사업주에 대하여 시간제 적합한 업무 발굴, 인력운영 및 인사관리체계 마련 등 컨설팅 지원(5~15백만원)			
	일자리 창출 지원금	○(지원요건) 사업주가 실업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고, 통상 근로자와 처우에 있어 차별이 없는 시간제근로자로 신규 고용(고용보험 피보험자) *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주를 평균하여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을 말함) 이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지원내용) 신규 시간제근로자 임금의 50%(월 40만원 한도), 1년간 지원		68억원	68억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지원요건) 지자체와 고용관련 비영리민간단체(법인)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재정자립도에 따른 대응투자를 조건으로 공모 및 선정 ○(지원내용) 포럼사업, 연구사업(지역 고용문제 실태조사 및 대안 제시 등), 특화사업(지역 일자리 창출, 고용촉진, 능력개발), 패키지사업(특화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이 결합된 사업에 지원하나, 포럼과 연구사업은 각각 1억원 한도로 지원(지방비 평균 20% 매칭 조건)		298억원	298억원
지역 일자리 공시제		○(절차) 사업계획확정·공표(고용부)-일자리목표·대책 수립 공시(지자체)-일자리대책 추진(지자체)-추진점검 컨설팅(고용부)→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제공(고용부) - (지자체 인센티브 제공) 홍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우대 포상 등		2.9억원	3.7억원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10년 실적	'11년 실적	'12년 계획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지정혜택) - (고용유지지원금) 임원의 90%45만원/인 이상까지 지원 - (전직지원장려금) 사업주가 부담한 소요비용 전액 대기업 90/100) 지급(최대 4백만원/인)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정지역으로 사업 이전 또는 신 증 설시 해당지역에 3월 이상 거주한 근로자를 채용하면 임금 의 1/2대기업 1/3를 1년간 지원		-	-																								
인력수급전망		○(주요내용) - 인력수급 총량(2년 주기) 및 지역별 인력수급(시도별 수준 으로 세분화 실시 예정) 전망 - 산업별 소분류·직업별 세분류 수요 및 테마산업·직업 전망 * 각 부처 수요 파악후 10개 주제 선정(과학기술전문서비스, 소프트웨어, 3D, 디자인산업, 디스플레이산업, 녹색금융, 신재생에너지, 뿌리산 업, 교육서비스, 유통산업) - 빈일자리, 전공별 고용동향, 직업별 임금수준 분석 실시		18억원	18억원																								
고용 노동계 조사	사업체 노동력 조사	○(조사시점) 전월 마지막 영업일, (조사대상) 종사자 1인 이상 28만개사 (조사주기) 매월 ○(조사내용) 임금, 근로시간, 빈 일자리수, 노동이동(이직) 등		11.5억원	10.8억원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조사시점) 4.1·10.1, (조사대상) 근로자 5인 이상 32만개사, (조 사주기) 연 2회 ○(조사내용) 16개 시도별·산업별 직종별 인원, 미충원인원, 부족 인원, 채용계획인원 등																											
	지역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조사시점) 4월말영업일·10월말영업일, (조사대상) 종사자 1인 이 상 20만개사 (조사주기) 연2회 ○(조사내용) 232개 시군별 종사자수, 빈 일자리수, 노동이동(이 직) 등																											
	지역별 사업체 근로시간조사	○(조사시점) 4월급여계산기간, (조사대상) 근로자 1인 이상 5만개 사 (조사주기) 연회 ○(조사내용) 16개 시도별 임금 및 근로시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조사시점) 6월급여계산기간, (조사대상) 근로자 1인 이상 32만 개사 (조사주기) 연 1회 ○(조사내용) 고용형태(기간제, 파견 등) 및 직종에 따른 근로실태 (임금, 근로시간, 사회보험 가입여부 등)																											
	사업체 기간제 근로현황조사	○(조사시점) 전월말 (조사대상) 상시 5인 이상 1만개사, (조사주 기) 매월 ○(조사내용) 기업체의 노동비용(임금, 복리후생비 등) 직간접비 용 모두 포함																											
	기업체 노동 비용조사	○(조사시점) 회계연도 (조사대상)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3.4만개 사 (조사주기) 연 1회 ○(조사내용) 기업체의 노동비용 (임금, 복리후생비 등) 직간접비 용 모두 포함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27%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1550만원 지급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경증</th> <th colspan="2">중증</th> </tr> <tr> <th>남성</th> <th>여성</th> <th>남성</th> <th>여성</th> </tr> </thead> <tbody> <tr> <td>입사일로부터 만 3년</td> <td>30만원</td> <td>40만원</td> <td>40만원</td> <td>50만원</td> </tr> <tr> <td>입사 3년 초과~ 만 5년까지</td> <td>21만원</td> <td>28만원</td> <td>40만원</td> <td>50만원</td> </tr> <tr> <td>만 5년 초과</td> <td>15만원</td> <td>20만원</td> <td>40만원</td> <td>50만원</td> </tr> </tbody> </table> <p>* 경증장애인: 입사일로부터 만 3년까지는 100%, 만 3년부터 만 5년까지는 70%, 만 5년부터는50% 지원, 6급 장애인은 입사일로부터 만 4년까지 지원</p>	구분	경증		중증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입사일로부터 만 3년	30만원	40만원	40만원	50만원	입사 3년 초과~ 만 5년까지	21만원	28만원	40만원	50만원	만 5년 초과	15만원	20만원	40만원	50만원		1,226억원	1,322억원
구분	경증			중증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입사일로부터 만 3년	30만원	40만원	40만원	50만원																									
입사 3년 초과~ 만 5년까지	21만원	28만원	40만원	50만원																									
만 5년 초과	15만원	20만원	40만원	50만원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10년 실적	'11년 실적	'12년 계획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및 요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위촉 배치하여 작업지도를 실시한 사업주 • 사업주가 수급자격인정 신청일 90일 이전에 중증장애인근로자 참가 언어장애인 제외를 새로이 고용하고 장애인근로자 15명당 작업지도원 1명을 선임하여 장애인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 실시 ○(지원내용) 대상장애인 1명당 월 14만원(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3년간 지원) 		35억원	36.5억원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 ○(지원내용) 중증장애인의 부수적 업무(서류낭독, 물품이동 등)를 지원하는 보조인을 지원 • 지원단가: 6천만원/㎡수화통역 근로지원인: 9천원, 본인 지부당 500원/㎡수화통역 수혜 장애인: 700원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시험고용(인턴)	지원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직무 및 직장적응을 위해 선 배치·훈련 후 고용하는 방식으로 지원 - 사전 훈련(6일 이내)후 현장훈련(기본 3주 최대 7주까지 연장) 실시, 훈련사업체에 직무지도원 배치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지원금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훈련생</td> <td>훈련준비금</td> <td>40,000원/6일 이상 출석시</td> </tr> <tr> <td>일비</td> <td>12,000원/1일</td> </tr> <tr> <td>숙박비</td> <td>10,000원/1박</td> </tr> <tr> <td>사업주보조금</td> <td>17,650원/1일</td> </tr> <tr> <td>직무지도원 수당</td> <td>외부 50,000원/1일, 사업체근로자 25,000원/1일</td> </tr> </tbody> </table>	구분	지원금액	훈련생	훈련준비금	40,000원/6일 이상 출석시	일비	12,000원/1일	숙박비	10,000원/1박	사업주보조금	17,650원/1일	직무지도원 수당	외부 50,000원/1일, 사업체근로자 25,000원/1일		46억원	51억원
	구분	지원금액																
훈련생	훈련준비금	40,000원/6일 이상 출석시																
	일비	12,000원/1일																
	숙박비	10,000원/1박																
사업주보조금	17,650원/1일																	
직무지도원 수당	외부 50,000원/1일, 사업체근로자 25,000원/1일																	
시험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취업 중인 청년층(만 15~38세 장애인)을 대상으로 최소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현장직무체험프로그램 실시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고용의무사업체 실시(단순노무직 제외) - 연수기업에게 연수생 1인당 월 70만원, 3개월 한도 지원 																	
50+ 새일터 적응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50세 이상으로 고용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종료자, 내일배움카드 훈련 이수 후 미취업자, 고용센터 등에 구직 등록 후 3개월이 경과한 미 취업자 ○(지원내용) 참여자 1인당 최대 월 40만원 지원(3개월) 		-	20억원, 2,000명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또는 관련 자격소지자 - (참여단체) (예비)사회적기업 및 비영리 단체·기관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시간) 주 10시간 이상~40시간 이하(1일 최대 8시간) - (지원준수) 1일 4시간 이상 사회공헌 활동을 제공한 일수에 비례하여 일비 8천원(식비 5천원 교통비 3천원 지급) 사회공헌활동 제공시간에 따라 참여수당(1시간당 2,000원 지급) • 1일 1시간 이상~4시간 미만 활동을 한 경우 교통비(3천만원만 지급) - (지원기간) 참여자 1인당 연간 최대 활동시간은 1,000시간 • 추가 활동시간이 필요한 경우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 1,000시간 이상 수행 가능 		20억원, 1,000명	11억원, 500명													
글로벌 취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취업 연수) 청년, 개설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30세 이상도 참여 가능 - 해외연수비: 1인당 평균 4백만원 내외 ○(글로벌 청년취업) 지자체·학교 협력모델을 선정, 해외취업에 유망한 전공 및 어학능력을 갖춘 지역내 인력풀 확보 및 특성화된 프로그램 설계·지원 - 프로그램 지원비(4백만원/인), 사업관리비(50만원/인) 		285억원	178억원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10년 실적	'11년 실적	'12년 계획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대상) 50인 미만 근로자 고용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 임의 가입자 ○(지원요건) - (실업급여) 가입기간 1년 이상, 적자지속 매출액 감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폐업,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 보험료: 선택한 기준보수(154*231만원)의 2.25% - (직업능력개발 등)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원내용) - (실업급여) 가입기간에 따라 90~180일간 기준보수의 50% 지급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5px;"> <tr> <td rowspan="2">구분</td> <td colspan="4">가입기간(피보험기간)</td> </tr> <tr> <td>1년-3년</td> <td>3년-5년</td> <td>5년-10년</td> <td>10년 이상</td> </tr> <tr> <td>급여일수</td> <td>90일</td> <td>120일</td> <td>150일</td> <td>180일</td> </tr> </table> - (직업능력향상 지원) 근무능력향상지원(고용보험 강비 중인 자영업자) 또는 내일배움카드제(폐업한 자영업자)를 통해 훈련비용 지원 * 수강료 실비의 50~80% 지원, 훈련장려금 지원(최대 11.6만원) - (전직지원) 사업정리 절차 및 재취업 등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12년 시범사업: 120명)	구분	가입기간(피보험기간)				1년-3년	3년-5년	5년-10년	10년 이상	급여일수	90일	120일	150일	180일		-	8.7억원
구분	가입기간(피보험기간)																	
	1년-3년	3년-5년	5년-10년	10년 이상														
급여일수	90일	120일	150일	180일														
외국인력 지원센터	○(운영규모) 서울 의정부 감해 등 7개 거점센터와 평택 원주 영암 등 중소도시에 27개 소지역센터 운영 ○(지원내용) - (상담) 외국인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고충상담 및 갈등 중재로 애로사항 해결 지원 - (교육) 의사소통 능력 및 한국직장문화, 직장윤리, 관련 법규 - 각종 문화행사 및 정보 제공		52억원	45억원														
외국인력 상담센터	○(언어지원서비스) 영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나, 스리랑카, 중국어, 몽골, 우즈베크, 캄보디아 등 10개국 언어 ○(상담시간 및 연락처) 0900~1800 / 1577-0071		16억원	15억원														

□ 중소기업청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10년 실적	'11년 실적	'12년 계획
인력채용패키지	업종별 조합·단체를 통한 중소기업 채용수요조사로 미취업자 교육 후 해당기업에 취업연계 * 5개월간 실무교육, 집합교육(20만원/월), 현장연수(70만원/월)	52억원 * 교육 3,680명, 현장연수 60명, 취업 2,100명	30억원, * 집합교육 3,000명, 취업 1,800명	-
우수 중소기업 DB 운영	○(선정기준) ①신용등급 BB- 이상 ②종업원 5인 이상 ③업력 3년 이상, ④최근 3년간 자본잠식 無 ⑤최근 3년간 금융불량 無 ⑥현재 정상운영 중인 기업	6.8만개사	6.9만개사	3.9억원, 3.3만개사 ('12.4월)
외국전문인력 도입지원	국내에서 채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해외 기술인력 발굴·도입 지원 * 체제비(2,000만원 이내, 글로벌 진출기업 최대 3,000만원 이내), 인력발굴(수도권 2백만원·비수도권 3백만원), 도입인력 압곡항공료(Economy, 편도), 사증 발급 추천	20억원, 147명	36억원, 225명	34억원, 190명
채용박람회	지방중기청 등을 활용한 권역별 채용박람회 개최	3,463개사, 32,512명 참여(3,302명 채용)	3,489개사, 65,071명 참여(2,538명 채용)	권역별 채용박람회 개최 (11개 지역)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10년 실적	'11년 실적	'12년 계획
북한이탈주민취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채용수요조사 실시 후 취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직업교육 후 취업알선 • 취업지원(직업훈련추가장려금 제외시 총 2,240만원): (직업훈련장려금) 500시간 120만원, 500~1,220시간 120시간당 20만원 총 120만원, 직업훈련 추가장려금 200만원, (자격취득 장려금) 1회당 200만원, (취업장려금) 1년차 550만원·2년차 600만원·3년차 660만원 • 지방거주장려금(2년 후 지급): 광역시 130만원, 기타지역 260만원 • 정착금·주거지원금: 1인(1,900백만원)·2인(2,800만원)·3인(3,200만원)·4인(3,600만원)·5인(4,300만원)·6인(4,700만원)·7인 이상(5,100만원) • 정착금 가산금: 만 60세 이상(720만원), 장애(1급 1,540만원, 2-3급 1,080만원, 4-5급 360만원), 장기치료(80만원/월, 최소 3개월 이상 최대 9개월까지), 만 13세 이하 한부모 가정(세대당 360만원) 	5.4억원	11.4억원, 242명 취업	10억원, 350명
디자인설계 1인1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등이 디자인·설계 솔루션 프로그램을 활용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 • 디자인실계센터(9개소) 운영, 참여학생 등에게 월 1백만원 내외의 수당 지원 	-	40억원, 580명	40억원, 450명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연구소가 없는 업체에 인건비, 연구기자재 구입비 등 지원 ○(업그레이드) 기존 연구소의 인프라 구축 및 사업화 비용 지원 ※ 최대 2년, 5억원, 75% 이내 	380억원	380억원	420억원
정책자금지원우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우대 * 1년간 고용창출계획(최소 2인 이상 고용시, 북한이탈주민은 최소 1인 이상 고용시) 1명당 0.1%p씩, 최대 1.0%p까지 금리인하	-	-	-
기술개발인력우대		기술개발 신규인력 채용시 인건비 우대 지원 * 인건비 100% 현금 계상 가능	-	-	-
시니어창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내용) - (유망업종 선정) 시니어 유망창업 업종 40개 발굴 - (창업스쿨) 기초 → 실전 → 심화 약 80시간 내외 - (비즈플라자 7개소) 창업준비 공간 제공 상담 교육·세미나·특강 등 진행 - (창업자금·보증) 창업스쿨 수료자 및 15시간 이상 자문·교육받은 비즈플라자 회원에 한해 우선 지원, 중기 정책자금 연계 지원 	30억원	46억원	67.48억원
기술창업아카데미		운영기관 사업비, 교육생 창업지원금 멘토링비 등 지원	15.5억원	20억원, 27개기관 (기관당 5,000 또는 8,000만원 지원)	25억원, 주중·주말 기술창업 학교 35개 강좌
벤처기업 공동채용 (벤처협회)		대학순회 설명회(50개) 개최 및 사업홍보 동영상 제작하여 구직자 모집, 전문 채용매니저 활용을 통한 채용지원	6억원	7억원, 1,000명	-
취업하고 싶은 500대 강소기업 선정 민간 주도)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구직자 관점에서 정성(매출액, 영업이익 등) 및 정량적 요소를 고려하여 우수 중소기업 선정·발표	-	-	4억원
일자리 창출 기업 우대 보증제도	일자리 창출 기업 보증지원	원자재 구입 등 운전자금과 공장신축, 설비도입 등 시설자금(보증료 0.2% 감면)		25,455억원	2조
	고용창출 특별운전자금	신규고용 1인당 3~5천만원씩 최대 3억원10인)까지 지원 (고정보증료를 적용, 1.0%)		4.96억원	400억원

□ 교육과학기술부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10년 실적	'11년 실적	'12년 계획				
이공계전문 기술연수	전문연수	○(기간) 4개월 내외, (내용) 연수생 연수수당 30만 원/인·월, (내용) 전문분야 이론 실습교육 기본직 무소양·이론습득	154억원, 2,714명 취업	80억원, 1,836명	83억원, 2,000명				
	기업연수	○(기간) 1~2개월 내외, (내용) 연수생 연수수당 50만원/인·월, (내용) 주관기관의 유관기업에서 실제 업무 체험 연수							
지역 혁신 인력 양성		지역업체와 지방대에 공동으로 기술개발 연구비를 지원하여 지역산업을 선도할 맞춤형 인력양성(학석·박사연구원 인건비 지원)	237억원	237억원, 170개 과제	242억원, 172개 과제				
테크노닥터 활용 중소기업 기술역량 확충사업		○공공기관 또는 대기업연구소를 퇴직한 과학기술자 중 미취업자를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인력으로 채용시 인건비 일부 지원 - (정부지원금) 최대 5,900만원, (기간) 최대 2년 10개월, (인원) 업체당 1명	24.7억원, 97명	222억원, 96명	19.5억원, 96명				
		구분				1차년	2차년	3차년	
		기준 연봉				10개월 기준 2,500만원 이상 (월 250만원 이상)	연 3,000만원 이상(월 250만원 이상)		
		정부 지원금				2,000만원 (월 200만원)	2,100만원 (월 175만원)	1,800만원 (월 150만원)	
		기업 부담금				500만원 이상 (월 50만원 이상)	연 900만원 이상 (월 75만원 이상)	연 2,000만원 이상 (월 100만원 이상)	
해외 고급과학두뇌 유치·활용사업(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개요) 세계적 수준의 우수한 해외과학기술자를 국내 산업체, 대학, 연구기관 등 연구개발현장에 초빙·활용하는 제도 ○(지원대상)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대학부설연구기관, 비영리 재단법인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기관 등 - (초빙대상) 해외거주자로 박사학위 취득후 해외 현지에서 5년 이상의 연구개발 경험을 가진 외국인 및 교포 과학기술자 ○(지원내용) - 체제비, 유지경비 및 기타 경비(항공료, 입국시 이사비, 상해질병보험료 등)	-	-	-				

□ 기획재정부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10년 실적	'11년 실적	'12년 계획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p>○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를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로 전환</p> <p>- 사업용 자산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외에 고용증가인원에 비례하여 투자 금액의 1% 세액공제 (공제한도: 고용증가인원×10백만원, 청년 근로자는 1.5백만원)</p> <p>* (고용유지 조건) 투자금액 2~3%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 비례) 3% 추가 공제</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대기업</th> <th rowspan="2">중소기업</th> </tr> <tr> <th>수도권</th> <th>비수도권</th> </tr> </thead> <tbody> <tr> <td>임투</td> <td>4%</td> <td>5%</td> <td>5%</td> </tr> <tr> <td>고용창출</td> <td>1%</td> <td>1%</td> <td>1%</td> </tr> <tr> <td>합계</td> <td>5%</td> <td>6%</td> <td>6%</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대기업</th> <th rowspan="2">중소기업</th> </tr> <tr> <th>수도권</th> <th>비수도권</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고용창출</td> <td>기본공제</td> <td>2%</td> <td>3%</td> <td>3%</td> </tr> <tr> <td>추가공제</td> <td>3%</td> <td>3%</td> <td>3%</td> </tr> <tr> <td>합계</td> <td>5%</td> <td>6%</td> <td>6%</td> </tr> </tbody> </table>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비수도권	임투	4%	5%	5%	고용창출	1%	1%	1%	합계	5%	6%	6%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비수도권	고용창출	기본공제	2%	3%	3%	추가공제	3%	3%	3%	합계	5%	6%	6%	-	-	'12년 개편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비수도권																																							
임투	4%	5%	5%																																						
고용창출	1%	1%	1%																																						
합계	5%	6%	6%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비수도권																																							
고용창출	기본공제	2%	3%	3%																																					
	추가공제	3%	3%	3%																																					
합계	5%	6%	6%																																						
고용증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p>○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 사용자가 신규고용으로 인해 추가로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총급여의 10% 수준)를 2년간 세액공제('13년말까지)</p> <p>- 청년 근로자 순증인원에 대한 보험료 증가분은 전액공제, 청년이외 순증인원은 50% 공제</p>	-	-	'12년 신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면제	<p>○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 취업후 3년간 근로소득세 100% 면제</p> <p>* 만 15~29세(단, 군복무기간을 가산하여 적용연령을 35세까지 확대)</p>	-	-	'12년 신설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에 대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p>○ 마이스터고·특성화고·산업정보학교의 졸업생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한도 우대 (1인당 15백만원→20백만원)</p> <p>* 고용증가인원×10백만원(청년 근로자는 15백만원)</p>	-	-	'12년 확대																																					
마이스터고 등 재학생 현장실습비용 세액공제	<p>○ 마이스터고 등과 취업계약을 맺은 기업이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 등에 대해 R&D비용 수준의 세제혜택 부여</p> <p>* 기업이 훈련수당 등으로 지출한 비용의 25%(대기업은 37%) 세액공제</p>	-	-	'12년 신설																																					
연구전담요원연구활동비 세제감면	<p>○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연구개발 전담부서 포함) 종사자의 연구활동비 또는 연구보조비 중 일부 소득세 비과세 감면(월 20만원)</p>	-	-	'12년 연구개발 전담부서까지 확대																																					

□ 지식경제부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10년 실적	'11년 실적	'12년 계획
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	이공계 석·박사 또는 경력기술인력을 채용하는 중소·중경기업에 인건비 일부 지원(최대 3년) * 미취업석사 1,350만원, 미취업 박사·경력기술인력(수도권) 1,650만원, 경력기술인력(지방) 1,800만원	160억원, 1,100명	120억원, 863명	120억원, 800명
기술인재사업 (연구인력 파견제)	박사급 연구인력을 출연(연)이 채용하여 중소·중경기업에 공급	100억원, 180명	145억원	145억원, 260명 (180개사)
무역분야 외국인 사증 발급 추천(무역협회)	○(요건) 무역업고유번호를 가진 무역업체, 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사증발급 추천대상외국인은 무역관련 전공(경제, 경영학 포함) 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 또는 국내외 1년 이상 무역관련 업무 종사자(업체는 동일 국적을 가진 외국인)를 2명 이상 추천할 수 없음, 단 전년도 수출실적 1백만불 이상은 그러하지 아니함)	-	-	-
골드카드제도	○(개요) 해외기술인력을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고용추천장(골드카드 발급을 통해 특정활동비자(E-7) 사증 발급 지원 등 출입국상 특혜 부여 * 최대 체류기간(5년), 복수사증 발급, 체류자격외 활동 추가 가능, 근무처 변경 및 추가 가능(고용주 동의 필수) ○(자격요건) -해외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경력 無), 국내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경력 無), 해외 학사학위(해당분야 경력 1년 이상), 해당분야 5년 이상 보유자 ○(발급분야, 8개 분야):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파,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IT	-	-	-
글로벌 전문인력 지원센터	○해외전문인력 유치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 잠재력 확충을 실현하기 위해 해외전문인력 유치전담기구인 Contact KOREA를 KOTRA에 설치·운영	-	-	-

□ 여성가족부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10년 실적	'11년 실적	'12년 계획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용부 공동)	○(직업상담) 생애설계, 자신감 향상, 취업의욕 고취 및 구직기술 향상 등 다양한 집단상담프로그램 지원 ○(직업교육훈련) 재취업·창업에 필요한 전문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역별 세일센터마다 맞춤형 직업교육 훈련과정 개설·운영 ○(새일여성인턴제) 경력단절여성을 인턴으로 채용한 기업에게 1인당 월 50만원, 6개월간 지원 ○(취업지원서비스) 맞춤형 취업알선, 구직업체 발굴 및 기업 DB 관리, 구직상담 및 사후관리 등 제공	257.9억원	228.7억원	380억원, 100개소

□ 병무청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10년 실적	'11년 실적	'12년 계획
병역대체 복무	병역지정 기업체나 연구소(기관)에서 일정기간 근무함으로써 군복무를 대체 * 산업기능요원 선정절차: 신청·접수(매년 6월, 신청접수기관) → 지정업체 추천(매년 7월, 중기청) → 심사(8~11월, 병무청) → 지정업체 통보(매년 11~12월, 병무청)	산업기능 (8,300명), 전문연구 (2,500명)	산업기능 (5,500명) 전문연구요원 (2,500명)	산업기능 (7,000명) 전문연구요원 (2,500명)

2. 교육훈련 및 역량강화

□ 고용노동부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10년 실적	'11년 실적	'12년 계획
국가기간 전략직종 훈련	○(훈련대상) 구직 등록된 15세 이상 실업자, 고 3학년에 재학 중인 상급학교 미진학자, 대학 전문대 포함) 최종학력으로 대학원 등에 진학하지 않는 자(다음연도 2월말까지 졸업예정자) ○(지원내용) - (훈련기간) 훈련비 기준단가 또는 실비용 - (훈련생) 훈련장려금 최대 월 31.6만원	-	1,505억원	1,780억원, 23천명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기간제 파견·단시간·일용 근로자, 임의가입 자영업자가 고용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자부담으로 수강하는 경우 훈련 수수료 후 훈련생에게 훈련비용 지급 ○(지원요건) 소정출석 일수의 80% 이상 출석, 훈련 종료 후 30일 이내 주소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지원내용) -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 단가의 100% 이내에서 수강비용의 50~80% 지원 - 1인당 연간 100만원, 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계좌와 합산하여 1인당 연간 200만원 (5년간 300만원) 한도로 지원		2,380억원	3,111억원 *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 373천명, 내일배움카드 166천명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실업자 및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 단시간·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무급휴직 휴업자, 이직예정 근로자) ○(지원요건) 고용센터에서 취업희망분야에 대한 상담을 통하여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실업자와 비정규직근로자가 계좌를 발급받고 훈련에 참여한 경우 지원 ○(지원내용) 1인당 200만원(일부 취약계층은 300만원) 범위 내에서 실훈련비 지급 - (실업자) 실훈련비의 50~100%, 훈련비의 출석률 80% 이상인 경우 훈련비의 훈련장려금11.6만원 별도 지원 - (비정규직근로자) 실훈련비의 60~80% 지원(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과 합산하여 한도 차감)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10년 실적	'11년 실적	'12년 계획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중소기업과 훈련컨소시엄을 구성한 대기업·사업주단체·공공훈련기관·대학 등 ○(지원내용) 참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훈련 및 양성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시설장비비를 연간 15억원 한도로 최대 6년간 지원(6년 초과시 2년 단위로 평가후 지원여부 결정하고, 그 외 운영비, 인건비 등 지원) 	737억원, 96개사, 21.3만명	1,229억원	1,398억원
사업주 능력 개발지원	훈련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요건) 1일 8시간(대기업 2일 16시간) 이상의 훈련실시 ○(지원내용) 표준훈련비 100%(대기업 80%) 		1,247억원	3,437억원
	유급휴가훈련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생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정 훈련시간×기간급 최저임금액의 150%(대기업 100%) * (요건) 소속 근로자 대상으로 7일(대기업 60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30시간(대기업 180시간) 이상 훈련실시 ○ 대체인력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정 근로시간×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50%(대기업 100%) * (요건) 중소기업이 소속 근로자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30일 이상 부여하고 12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체인력 고용 			
	훈련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요건)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1개월 120시간 이상 양성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체인력 고용 ○(지원내용) 1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 			
	숙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요건) 훈련시간이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 중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 ○(지원내용) 식비 1일 3,000원 한도, 숙식비 1일 8,500원 한도(1개월 212,500원 한도) 			
중 소 기업 훈련지원	핵심직무능력 향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고용보험 가입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요건) 산인공 선정된 훈련과정 수료시 ○(지원내용) 훈련비 100%(일부 과정의 경우 자부담 있을수 있음) 		229억원	247억원
	학습조직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고용보험 가입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요건) 산인공 공모·선정된 기업이 학습조직화를 위한 조치 실시시 ○(지원내용) 지원유형(학습조직운영 우수 학습활동 학습네트워크 지원 등에 따라 비용의 70~100% 지원) 			
	체계적 현장 훈련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고용보험 가입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요건) 산인공 공모·선정된 기업이 체계적 현장훈련을 위한 조치 실시시 ○(지원내용) 지원유형(트레이너 교육 직무분석 등에 따라 80~100%) 			
	대한민국 산업 현장 교수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고용보험 가입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내용)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를 통한 기술진단·HRD 역량 진단 등에 바탕한 종합 HRD 서비스 지원 			
훈련 컨소시엄		대기업·사업주 단체·대학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운영비 및 시설·장비비 등 지원	737억원, 102개소	1,230억원, 218개소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10년 실적	'11년 실적	'12년 계획																			
취업사관학교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만 15세 ~만 24세 미만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과정의 무료 직업훈련 * 훈련기관: 훈련비 지원, 훈련생: 지원장려금 월 30만원 지원(훈련비 및 기숙비용 무료) - 인성교육 및 직업진로지도 실시 학업 검정고시 지원 등 개별적 맞춤 서비스 지원 		14.6억원	17.6억원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고용공단 산하 5개 능력개발원(일산, 부산, 대전, 전남, 대구)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장애인에게 훈련수당 지급(교사에게는 교사수당 지급) ○공공훈련기관(폴리텍)에서 훈련받은 장애인에게 훈련수당 지급(교사에게 교사수당 지급) ○민간훈련기관 공모를 통해 훈련비(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적용) 지원 및 장애인 훈련생에게 교통비, 식비 등 훈련수당 지급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구분</th> <th>훈련생 1인당 지원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6">훈련수당 (해당자에 한함)</td> <td>훈련준비금</td> <td>1회 4만원</td> </tr> <tr> <td>가계보조수당</td> <td>월 7만원</td> </tr> <tr> <td>가족수당</td> <td>부양가족 1인당 월 3만원</td> </tr> <tr> <td>교통비</td> <td>월 5만원</td> </tr> <tr> <td>식비</td> <td>월 6만원</td> </tr> <tr> <td>자격취득수당</td> <td>1회 5만원</td> </tr> <tr> <td colspan="2">교사수당(공공에 한함)</td> <td>훈련생 1인당 2만원 (최고 6만원 한도)</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적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통해 국가자격 면허 취득 등에 필요한 훈련수강료 100만원 한도 내 전액 지원 	구분		훈련생 1인당 지원기준	훈련수당 (해당자에 한함)	훈련준비금	1회 4만원	가계보조수당	월 7만원	가족수당	부양가족 1인당 월 3만원	교통비	월 5만원	식비	월 6만원	자격취득수당	1회 5만원	교사수당(공공에 한함)		훈련생 1인당 2만원 (최고 6만원 한도)		183억원	161억원
구분		훈련생 1인당 지원기준																					
훈련수당 (해당자에 한함)	훈련준비금	1회 4만원																					
	가계보조수당	월 7만원																					
	가족수당	부양가족 1인당 월 3만원																					
	교통비	월 5만원																					
	식비	월 6만원																					
	자격취득수당	1회 5만원																					
교사수당(공공에 한함)		훈련생 1인당 2만원 (최고 6만원 한도)																					

□ 중소기업청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10년 실적	'11년 실적	'12년 계획
중소기업 연수원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off-line) 공개집합연수(최고경영자연수, 생산기술 연수, 디지털기술연수, IT·자동화, 품질연수, 경영 연수), 맞춤연수, 국제연수, 합미음연수, 기업현장 연수 ○(on-line) 인터넷 원격연수, 우편원격연수 	144억원, 75,298명	142억원, 74,765명	129억원, 57,450명
중소기업 인력구조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단체를 통해 재직자 직업능력교육, 공동채용 훈련연계, 현장문제 해결 전문가 양성 등 지원 * 소비비용의 60~80% 지원(나머지 협·단체 또는 기업 부담) 	26억원, 22개 조합	18.6억원, 20개 프로그램, 5,900명 지원	18억원, 60개 프로그램
신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성화고 졸업반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후 협약 기업 채용지원 * (학교) 실습비 등 지원(1억원 내외/학교), (학생) 학생당 훈련수당 등 지원(300만원/학생) 	95억원, 72개교	73억원, 66개교	101억원, 90개교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10년 실적	'11년 실적	'12년 계획	
중소기업형 특성화고	중소제조업 기반기술(주조, 금형, 열처리 등)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차별화된 인력양성이 가능한 특성화고 지원 * 교육과정 운영비, 기자재 구입비, 전담교원 양성비 등 지원(학교당 2억원 내외)	137억원 (중기청 107, 고용부 30), 66개교	139억원, 66개교	168억원, 80개교	
국립 마이스터고 육성	직업교육체제혁신 지원, 국립마이스터고 신설 확충 로봇마이스터고 육성 등(구미전자공고, 부산기계공고, 전북기계공고)	-	182.59억원	163.4억원	
중소기업 계약학과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주말·야간 학위과정 운영 * 계약학과 설치·운영비 70% 이내 지원(나머지 30%는 참여학생 또는 소속기업이 부담하며, 소속기업 또는 사업주단체가 반드시 일 정금액 부담)	20억원, 11개 대학 (214명)	30억원, 21개 대학 (565명)	56억원, 26개 대학 (1,000명)	
중소기업 기술사관	특성화고-전문대를 연계한 5~6년제 전문교육 과정 운영을 통한 산업계 수요에 부응한 기술전문 인력 양성(사업단별 4~5억원)	50억원, 10개 사업단	80억원 (교과부 40, 중기청 40), 15개 사업단	96억원 (교과부 48, 중기청 48), 18개 사업단	
우수기능전수사업	기업현장 우수 기능인이 직접 특성화고생에게 기술과 기능을 전수하여 우수 기능인으로 성장 지원	시범사업 (30개사, 208명)	19.5억원, 18개교(291명)지원	10억원, 공동실습소 5개소	
소기업 CEO 교육	소기업 CEO에게 사례 중심의 실전경영 교육기회를 제공 (수강료의 53% 지원, 나머지는 자부담)	20억원, 1,000명	25억원, 1,304명	25억원, 1,300명	
연수업체 인증제 운영	현장연수 적합 우수 중소기업을 정부가 인증하여 특성화고생 등 대상 현장연수에 활용 및 취업연계 지원	-	-	12억원	
중소기업 녹색산업 기술인력 양성지원사업	○(교육대상)대학(2년제, 4년제 졸업자 또는 예정자 중 미취업자) ○(교육기관)대학, 연구기관 및 기타 교육기관 등(현 소사업 가능) ○(교육내용) - (기본교육)기업실무에 필요한 녹색분야 범용내용 교육 - (실무교육)관련업계 수요조사후 업계 필요인력에 맞는 교육	-	-	12억원, 150명	
IT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	IT전문인력 지원사업	IT전문인력 활용을 통한 정보시스템 활용도 제고 등을 위해 인건비 일부(고용보조금) 지원 * 월급여의 50%(최대 80만원)	-	7억원	7억원
	정보화교육 사업	사업 참여자, 중소기업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 실시	-	3억원	3억원
	IT전문가 컨설팅지원	전문교육, 전문상담, ISP 수립, 기술지도 등 지원	-	5억원	8억원
뿌리산업기술협력강화 사업	현자애로 기술지도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중,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기술적 보완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맞춤형 기술지도 실시 ○대기업 및 관련분야 전문가와 동등으로 기술지도 실시	-	80개사	120개사
	기술협력 아카데미	○대기업 및 유관기관 교육시설 등을 활용, 대기업 협력사 재직자를 대상으로 뿌리산업 기술협력 아카데미 개설 및 직무연수교육 실시	-	680명	700명

교육과학기술부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10년 실적	'11년 계획
마이스터고 육성	장인(마이스터) 양성을 위한 특성화고 교과과정 개발, 기자재 구입 등 지원	279억원	147억원

 여성가족부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10년 실적	'11년 계획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신성장 녹색일자리 확대에 대응한 여성전문가를 양성하여 관련분야 취업을 지원	2억원, 13개 과정, 309명 교육	1.6억원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	교과부와 공동으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를 지정 운영하여 진로개발에서 취업지원까지 원스톱 지원	10억원, 19개 센터	10억원, 22개 센터

 국가보훈처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10년 실적	'11년 실적	'12년 계획
전역예정자 전직 기본교육	중기복무(5~10년) 및 단기복무(5년 이하) 전역예정 장병을 대상으로 전직기본교육 및 소자본 창업교육 실시	8억원, 8,000명	8억원, 2,789명	20억원, 2,789명

 지식경제부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11년 실적	'12년 계획
KOTRA 글로벌연수원 연수 프로그램	신흥시장진출과정, 글로벌마케팅과정, 외국인투자 유치과정, 해외투자진출과정, 녹색성장/환경과정 등 자체개발과정 및 특정기관이나 기업을 위한 맞춤형 위탁연수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제공	3,500명	4,000명 내외

3. 인식개선 및 복지향상

고용노동부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10년 실적	'11년 실적	'12년 계획									
모성보호 육아지원	산전후 휴가 급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등을 부여 받은 경우 * (요건) 우선지원대상기업(휴가 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대규모 기업(휴가 종료 후 12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지원내용) (최고) 135~405만원, (최저) 최저임금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지급기간</td> <td>지원액</td> </tr> <tr> <td>우선지원대상기업</td> <td>90일</td> <td>최대 405만원</td> </tr> <tr> <td>대규모기업</td> <td>30일</td> <td>최대 135만원</td> </tr> </table>	구분	지급기간	지원액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	최대 405만원	대규모기업	30일	최대 135만원	3,360억원	4,111억원	6,122억원
	구분	지급기간	지원액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	최대 405만원											
대규모기업	30일	최대 135만원												
육아휴직 급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경우 * (요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지원내용)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 지급(상한 5백만원, 하한 50만원), 급여 중 일부(15%)는 복귀 후 지급 * 단, 실수령액이 월 50만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전액 지급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지원내용) 단축된 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지급(육아휴직급여액×근로시간단축비율) 													
유산·사산휴가급여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휴가 보장 및 유산·사산 휴가 급여 지원 <table border="1"> <tr> <td>임신기간</td> <td>휴가기간</td> </tr> <tr> <td>16주 이상~21주 이내</td> <td>유산·사산 일부터 30일</td> </tr> <tr> <td>22주 이상~27주 이내</td> <td>유산·사산 일부터 60일</td> </tr> <tr> <td>28주 이상</td> <td>유산·사산 일부터 90일</td> </tr> </table>	임신기간	휴가기간	16주 이상~21주 이내	유산·사산 일부터 30일	22주 이상~27주 이내	유산·사산 일부터 60일	28주 이상	유산·사산 일부터 90일				
임신기간	휴가기간													
16주 이상~21주 이내	유산·사산 일부터 30일													
22주 이상~27주 이내	유산·사산 일부터 60일													
28주 이상	유산·사산 일부터 90일													
임신·출산 여성 고용안정지 원금	임신·출산 후 계속 고용지 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및 요건) 출산전후휴가 중이거나 임신 중에 계약기간 또는 파견기간이 만료된 자와 출산후 1년 이내에 1년 이상의 계속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을 정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6개월간 월 40만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6개월간 월 30만원·이후 6개월간 월 60만원 	240억원	337억원	463억원									
	육아휴직 등 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및 요건)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등 종료 후 30일 계속 고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동안 1인당 월 20만원 지원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10년 실적	'11년 실적	'12년 계획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및 요건)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사용하는 경우 산전후가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 종료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중(산전후휴가에 이어 사용할 경우 산전후휴가기간 포함)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 동안 1인당 월 30만원(대규모기업은 월 20만원) 			
작장어린이집 지원	설치비	무상지원	385억원	105억원	157억원
		용자			
	운영비	인건비 지원			
		중소기업 지원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근로복지공단에서 정책자금 용자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 및 실업자 ○(지원내용) 1인 최고 한도 10백만원(고용보험 대학학자금: 20백만원)까지 신용보증 지원(대부액의 0.3~1.0% 보증료 부담) 	358.9억원	239억원	171억원
근로자 학자금 및 훈련비 대부	근로자학자금 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및 요건)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피보험자인 근로자 - 자영업자는 해당연도 대부사업 공고일 현재 보험가입 후 합산하여 180일이 지난 자로 한정 ○(지원내용)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전액 - (대부금리) 거치기간: 연1%, 상환기간: 연3%(신용보증료 연 0.3% 별도) - (대부기간) 졸업 후 1년 거치 4년 상환 	943억원	1,037억원	750억원, 19천명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및 요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직업훈련 수강시 지원 ○(지원내용) 수강비용 전액 대부(연 300만원 한도) - 대부금리: 연1.5%(1년 거치 1년 이내 분할 상환) 			
사내 근로복지 기금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기금을 설립한 후 근로자 복지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설립여부는 노사 협의에 의한 자율사항임) - (기금조성) 기업 세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하되 최고·최저수준은 노사 협의로 자율적으로 정함(사업주: 임의로 부동산 등 출연 가능) - (기금운영) 노사대표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 - (사용한도) 기금 수익금 당해연도 출연금의 50% 한도 	-	-	-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10년 실적	'11년 실적	'12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용도) 근로자 주택구입, 임차자금 보조, 우리사주 구입 지원, 주택자금 대부 등 근로자 재산형성과 생활 원조 사업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 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 소비인정 - (근로자) 기금에서 지급한 금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기금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기금 법인 설립 및 변경등기에 관한 등록세 및 교육세 면제 											
우리사주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득 및 배정방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취득방법</td> <td style="width: 50%;">배정방법</td> </tr> <tr> <td>조합원 출연</td> <td>우리사주 취득 즉시 조합원 개인 계정에 배정 후 1년간 의무위탁</td> </tr> <tr> <td>회사·대주주 등 무상출연</td> <td>우리사주 취득 즉시 조합원에게 배정 후 출연자와 협의기간(4~8년)동안 의무예탁(의결권, 배당금 개인귀속)</td> </tr> <tr> <td>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td> <td>차입금 상환액 범위 내에서 개인 계정에 배정 후 1년간 의무 예탁</td> </tr> </table>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회사출연금 전액을 손비인정 - (근로자) 출연금 연간 400만원을 소득공제 - 배당소득 비과세(액면가액 1,800만원 한도), 자사주 인출시 소득세 비과세(보유기간 3~5년 50%, 5년 이상 75%) 	취득방법	배정방법	조합원 출연	우리사주 취득 즉시 조합원 개인 계정에 배정 후 1년간 의무위탁	회사·대주주 등 무상출연	우리사주 취득 즉시 조합원에게 배정 후 출연자와 협의기간(4~8년)동안 의무예탁(의결권, 배당금 개인귀속)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	차입금 상환액 범위 내에서 개인 계정에 배정 후 1년간 의무 예탁	-	-	-
취득방법	배정방법											
조합원 출연	우리사주 취득 즉시 조합원 개인 계정에 배정 후 1년간 의무위탁											
회사·대주주 등 무상출연	우리사주 취득 즉시 조합원에게 배정 후 출연자와 협의기간(4~8년)동안 의무예탁(의결권, 배당금 개인귀속)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	차입금 상환액 범위 내에서 개인 계정에 배정 후 1년간 의무 예탁											
임금채권보장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금채권보장기금) 전체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징수되는 부담금(보수총액×부담금비율)과 사업주 변제금으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년 부담금비율: 0.8/1000 ○(지원대상) 도산사업장에서 퇴출되는 체불근로자 ○(지원요건) 재판상 도산 또는 지방고용관서 인정 사실상 도산 ○(지원내용)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	-	-								
중소기업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내복지기금, 선택적복지제도 등 주요 선진복지제도에 대한 무료 컨설팅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연금제도, 선택적복지제도,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우리사주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선진기업복지지원단(전국 6개 권역 거점 지역 소재)'이 사업주 설명회, 도입지원 컨설팅, 온라인 상담업무 수행 	10억원	10억원	9억원								
저소득 근로자 등 생활안정자금 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및 요건)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월평균 급여 170만원 이하 근로자 및 매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 ○(지원내용) 연리 3%,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 근로자) 의료비(7백만원 한도, 혼례비(700만원), 노부모요양비(300만원 한도)) * 2종류 이상 중복신청한 경우 또는 중소제조업체 생산직 근로자는 1천만원 한도 - (임금체불 근로자) 체불임금 한도 내에서 1인당 7백만원 한도 	486억원, 9,038명	422억원	444억원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10년 실적	'11년 실적	'12년 계획
퇴직연금제도		○ 금융기관에 매년 퇴직금 해당금액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금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받아 노후설계가 가능토록 하는 제도(퇴직금 대체)('05년 시행)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 비교>				-	6.4억원 * 13.9만개 사업장, 328만명 (정체 근로자의 38%) 도입	6.4억원
		구분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형태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			
		급여수준	근속연수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일시금 기준으로 퇴직금과 동일	근로자 각자 운용 실적에 따라 변동			
		사용자부담		퇴직금과 같음	연간 임금총액의 1/12(연1회 이상 납부)			
		적립방식·수급권	사제적립, 불안정, 도산 위험에 취약	부분사의적립, 부분보장, 도산위험준제	전액사의적립, 보장			
		운용	사용자	사용자	근로자			
		적합기업 근로자	도산위험 없고 임금상승률 높은 근로자	연공급(호봉제), 장기근속 근로자	연봉제,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기업 단기근속 근로자			
노사파트너십 재정 지원 사업		노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노사파트너십 증진 프로그램, 작업장 혁신 및 경쟁력 제고 프로그램 등 노사관계 향상 프로그램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 단위사업장 4천만원, 단체사업장 6천만원 한도대기업 공공부문 30% 이상, 중소기업 10% 이상 자체 부담)				127건 지원 (중소기업 76건)	44억원, 125건	
일터혁신 지원	통합진단	일터혁신진단 및 혁신수준 파악 → 가이드라인 제시 → 분야별 전문 컨설팅 연계('12년 190개소)				-	70억원	70억원
	임금·직무체계 개선컨설팅	임금·직무체계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12년 120개소)						
	소규모사업장 노사협력활성화컨설팅	30인 이상~1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노사협력기반조성 지원('12년 40개소)						
	고성과근무체계개선컨설팅	통합진단 및 컨설팅(근무제도 개선, 평생학습체계 구축, 임금·직무체계혁신, 인적자원관리제도 개선, 노사파트너십 구축) 제공('12년 30개소)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지원	노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노사파트너십 향상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12년 130개소)						
	혁신리더 및 전문가 양성과정	CEO, 기업인사노무담당자 노동조합간부, 노사협의회위원 컨설턴트, 근로감독관 대상 일터 혁신 과정 전반에 대해 교육('12년 800명)						
	중소기업 CEO 혁신 코칭	중소기업 CEO의 일터혁신 마인드와 의지 제고 등을 위한 전문코칭('12년 50개소)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지원대상 및 요건) 고용부가 지원하는 훈련(시·지체 설치 공공직업 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국가기술자격 취득목적 훈련 포함) 중 4주 이상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연 소득금액 2,400만원 미만 또는 전직실업자(배우자 포함) 연간 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지원내용) 월 100만원(비정규직 300만원, 실업자 600만원) 한도, 연리 1%(신용보증료 별도), 최대 3년 거치 최대 5년 균등분할 상환				109억원	153억원	153억원
산재보험제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 * 평균보험료율 1.80%, 최고요율(식·탄·광고) 36.0%, 최저요율(전문기술서비스업) 0.6%				-	-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10년 실적	'11년 실적	'12년 계획
산업보험급여	요양급여	4일 이상 요양 중인 산재환자에 대한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및 치료비	-	-	
	휴양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일당 평균임금의 70% 지급			
	장애급여	산재치료 종결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장애상태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 지급			
	유족급여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 * (연금)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365)의 52~67%, (일시금) 평균임금의 1,300일본			
	간병급여	산재치료 종결 후 상시 또는 수시간병비용 지급 * (상시간병급여) 38,240원/일, (수시간병급여) 25,490원/일			
	상병보상연금	요양개시 후 2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자에게 휴양급여 대신 지급 * 1급(329일본), 2급(291일본), 3급(257일본)			
	장의비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 * 평균임금의 120일본, 장의비(8,674,960원 ~ 11,963,570원)			
	직업재활급여	산재치료 종결 후 장애(1급 ~ 12급) 대상자의 조기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직업훈련 및 산재장애인을 채용한 사업주 지원 * 직업훈련비용 : 훈련비(600만원/인), 훈련수당(최저임금 100%) * 직장복귀지원금 : 1~3급(60만원/월), 4~9급(4만원/월), 10~12급(30만원/월) * 직장적용훈련(45만원/월), 재활운동지원(15만원/월)			
산재예방시설 용자		○(지원대상)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지원내용) 사업장당 3억원 한도 용자, 연리 3%,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712개사 (업체당 평균 117백만원)	990억원, 990개사	897억원, 900개사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 배우자 출산 일부터 30일 이내 청구하여만 사용 가능 (3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음) - (종전) 무급 3일 → (변경) 5일(유급 3일 + 무급 2일) * (시행일) 300인 이상 사업장(12.8.2), 300인 미만 사업장(13.2.2)		-	-
여성고용환경개선 용자사업	직장어린이 집 설치 용 자	○(지원대상)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시설건립 매입 임차 등 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지원요건 및 내용) 시설건립지, 매입지, 임차지, 개 보수비, 전환비 - 최고 7억원까지 연 20%(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 10%) 지원,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31억원	15억원, 6개소	13억원, 5개소
	여성고용 친화시설	○(지원대상) 여성고용친화시설을 설치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지원요건 및 내용) 시설건립지, 매입비, 임차비, 개 보수비, 전환비 - 최고 5억원까지 연 30% 지원, 5년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능력개발시설·장비비 용 대부		○(지원대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훈련시설 및 장비를 새롭게 확충하고자 하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사업주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원내용) - 훈련시설 및 장비 등 구입비용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60억원 한도 내 용자 - (용자이율) 중소기업 1.0%, 대기업 사업주·사업주단체 2.5%, 근로자 단체·고용부 지정 직업훈련시설 고용부 허가 직업능력개발훈련 법인 및 기타 4.0% - (상환조건) 최대 5년 거치 5년 상환(분기별 원금 균등분할 상환)	80억원	66억원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10년 실적	'11년 실적	'12년 계획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신재보험 가입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고용부·공단·민간대행기관의 감독 점검 기술지원 사업장 중 자금지원 요청 사업장 ○(지원내용) 점검 감독 기술지원 등과 연계하여 기술 자금 교육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비 개선 진여비용은 신재예방 시설자금용자 지원(사업장당 3억원 한도, 연리 3%,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구분</td> <td style="text-align: center;">클린사업장인정 (전체 개선)</td> <td style="text-align: center;">산재위험요인 개선 (부분개선)</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지원한도액</td> <td style="text-align: center;">사업장당 2천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사업장당 1천만원</td> </tr> <tr> <td></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고용중가 사업장 1천만원 추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지원비율</td> <td style="text-align: center;">10인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소요비용 50%</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10인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소요비용 70%</td> </tr> </table> <p>* 방호조치 및 개인보호구는 보조업무처리규칙에 의거 소요비용의 80% 지원</p>	구분	클린사업장인정 (전체 개선)	산재위험요인 개선 (부분개선)	지원한도액	사업장당 2천만원	사업장당 1천만원		고용중가 사업장 1천만원 추가		지원비율	10인 이상	소요비용 50%		10인 미만	소요비용 70%		627억원, 7,900개 소	720억원, 10,000개 소
구분	클린사업장인정 (전체 개선)	산재위험요인 개선 (부분개선)																	
지원한도액	사업장당 2천만원	사업장당 1천만원																	
	고용중가 사업장 1천만원 추가																		
지원비율	10인 이상	소요비용 50%																	
	10인 미만	소요비용 70%																	
소규모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및 요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한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월보수 12만원 미만) 및 사업주 ○(지원내용)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1/2~1/3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평균 보수 35만원 이상~105만원 미만 근로자: 1/2 지원 - 월평균 보수 105만원 이상~125만원 미만 근로자: 1/3 지원 		-	2,651억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및 요건) 장애인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이며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되, 장애인 근로자 중 50%(장애인이 상시근로자의 30% 초과시 초과한 인원의 25%)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하는 사업장을 설립할 경우 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차 구입 등 실제 투자한 금액의 75% 무상지원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인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0~15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16~20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21~25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26~30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31명 이상</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한도</td> <td style="text-align: center;">3억원</td> </tr> </table>	인원	10~15명	16~20명	21~25명	26~30명	31명 이상	한도	3억원	3억원	3억원	3억원	3억원		108억원	103억원 * 일반 13개 소, 지회사형 6개 소			
인원	10~15명	16~20명	21~25명	26~30명	31명 이상														
한도	3억원	3억원	3억원	3억원	3억원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및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표준사업장과 동일 요건 -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모회사)가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자회사(법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투자를 설립하고 자회사에서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용률에 산입하여 고용부담금 감면 - 2개 이상의 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가 공동출자하여 설립할 경우 출자비율에 따라 장애인 고용률 산입하여 고용부담금 감면 		108억원	103억원 * 일반 13개 소, 지회사형 6개 소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장애인 고용사업주, 직업훈련기관 ○(지원내용) 상용 및 맞춤 보조공학기기 지원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구분</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지원한도</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상용기기</td> <td style="text-align: center;">무상 임대</td> <td style="text-align: center;">장애인 1인당 물품가액 10백만원(중증 15백만원)한도, 사업장당 2억원 이내</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부상 지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장애인 1인당 물품가액 3백만원 한도, 사업장당 50백만원 이내</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맞춤기기</td> <td style="text-align: center;">무상 지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장애인 1인당 물품가액 3백만원 한도, 사업장당 50백만원 이내</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기개발</td> <td style="text-align: center;">장애인 적합기기 공모 제안을 통해 보조공학기기 개발</td> </tr> </table>	구분	지원한도		상용기기	무상 임대	장애인 1인당 물품가액 10백만원(중증 15백만원)한도, 사업장당 2억원 이내	부상 지원	장애인 1인당 물품가액 3백만원 한도, 사업장당 50백만원 이내	맞춤기기	무상 지원	장애인 1인당 물품가액 3백만원 한도, 사업장당 50백만원 이내	기기개발	장애인 적합기기 공모 제안을 통해 보조공학기기 개발		80억원	80억원 * 총 7,260점 (상용 4,760점, 맞춤 2,500점)		
구분	지원한도																		
상용기기	무상 임대	장애인 1인당 물품가액 10백만원(중증 15백만원)한도, 사업장당 2억원 이내																	
	부상 지원	장애인 1인당 물품가액 3백만원 한도, 사업장당 50백만원 이내																	
맞춤기기	무상 지원	장애인 1인당 물품가액 3백만원 한도, 사업장당 50백만원 이내																	
	기기개발	장애인 적합기기 공모 제안을 통해 보조공학기기 개발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10년 실적	'11년 실적	'12년 계획																					
장애인고용시설 설치 비용 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지원내용) 장애인 1인당 5천만원 이내 사업주당 18억은 한도에서 연리 3%, 10년 상환조건(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의무 장애인의 25%를 중증장애인으로 고용(최소 1인 이상) -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의 설치비용 및 구입비용 수리비용, 생산라인 조정비용, 출퇴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등 		76억원	76억원																					
장애인고용시설 장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지원내용) 장애인근로자 1인당 1천만원 중증 15 백만원, 사업주당 3억원 한도 지원(장애인근로자 2년 고용 조건) <table border="1"> <tr> <td>무상지원 대상시설</td> <td>지원비용</td> </tr> <tr> <td>장애인용으로 제작된 작업대, 작업장바·공구, 작업보조기기 설치·구입·수리비</td> <td>소요비용 전액(10백만원/인 한도, 중증 15백만원 한도)</td> </tr> <tr> <td>통근용 승합차의 리프트 등 장애인용 특수 설비 설치·구입·수리비</td> <td>소요비용 전액(10백만원/인 한도, 중증 15백만원 한도)</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0조에 따른 장애인고용 우수 사업주 또는 상시근로자의 30/100 장애인근로자가 최소 20인 이상, 이중 중증장애인이 50/100 이상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한 사업주의 통근용 승합 자동차 구입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편의시설 설치·구입·수리비 	무상지원 대상시설	지원비용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작업대, 작업장바·공구, 작업보조기기 설치·구입·수리비	소요비용 전액(10백만원/인 한도, 중증 15백만원 한도)	통근용 승합차의 리프트 등 장애인용 특수 설비 설치·구입·수리비	소요비용 전액(10백만원/인 한도, 중증 15백만원 한도)		13억원	13억원															
무상지원 대상시설	지원비용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작업대, 작업장바·공구, 작업보조기기 설치·구입·수리비	소요비용 전액(10백만원/인 한도, 중증 15백만원 한도)																								
통근용 승합차의 리프트 등 장애인용 특수 설비 설치·구입·수리비	소요비용 전액(10백만원/인 한도, 중증 15백만원 한도)																								
중소기업고용구조개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및 요건)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해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고용보험 가입 1년 이상 및 미체납 사업주 ○(지원내용) 인사관리체계 개선, 교육훈련제도, 보상 평가 제도 설계, 정규직 전환 제도 설계 등 컨설팅 비용 지원 (1천만원/개소 한도) 		24억원	14억원																					
최저임금보장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용대상)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감액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 감액 적용(단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외, '12.7.1. 시행) - 감시·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2014년까지만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 감액 적용 <p style="text-align: center;"><최저임금 현황></p> <table border="1"> <tr> <td>연도</td> <td>'07</td> <td>'08</td> <td>'09</td> <td>'10</td> <td>'11</td> <td>'12</td> </tr> <tr> <td>시급</td> <td>3,480</td> <td>3,770</td> <td>4,000</td> <td>4,110</td> <td>4,320</td> <td>4,580</td> </tr> <tr> <td>인상률</td> <td>12.3</td> <td>8.3</td> <td>6.1</td> <td>2.75</td> <td>5.1</td> <td>6.0</td> </tr> </table>	연도	'07	'08	'09	'10	'11	'12	시급	3,480	3,770	4,000	4,110	4,320	4,580	인상률	12.3	8.3	6.1	2.75	5.1	6.0		-	-
연도	'07	'08	'09	'10	'11	'12																			
시급	3,480	3,770	4,000	4,110	4,320	4,580																			
인상률	12.3	8.3	6.1	2.75	5.1	6.0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10년 실적	'11년 실적	'12년 계획
체당금 조력지원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및 요건) 도산 등 사실인정을 위한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으로써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백만원 이하인 사업장에서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 법원에서 재판상 도산(파산신고, 회생정재개시의 결정)의 경우 지원 제외 ○(지원내용) 조력지원공로무사 등에게 지원업무의 내용 체당금 지급 근로자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별로 백만원 지급 - 도산 등 사실인정 54만원, 불인정 2만원, 체당금 총 지급액이 1,020만원 이하인 경우 체당금 지급 1명당 3만원 - 체당금 총 지급액이 1,020만원 초과한 경우 지원 제외 (단, 체당금 수령액의 2% 이내에서 해당 근로자로부터 직접 수령 가능) 		-	8억원
유해작업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진, 화학물질, 소음 등 노출기준 초과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관리 및 석면 등 발암성물질 관리를 통한 유해작업환경 개선 - (지원대상) 산재보험가입 사업장(50인 미만 사업주) - (지원내용) 유해인자 노출저감, 석면질환예방, 측정 특검 비용지원 및 기관질관리, 보건대행기관 기술지원 		156억원	153억원
근로자 건강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사업내용) 근로자 건강센터 운영,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 지원, 직업병 역학조사 및 민간기관 정도관리,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평가 		76억원	86억원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및 요건) 산재장해급여자(1~12급)를 원직장에 고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 (직장복귀지원금)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 지원 (1~3급 월 60만원 4~9급 월 45만원 10~12급 월 40만원) - (직장적응훈련지원) 직무적응 직무전환 등 고용유지를 위해 적응 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 대하여 월 40만원 이내 실비(3개월 이내) - (재활운동지원) 노동력 회복 및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재활교육을 실시한 사업주 지원(월 10만원, 3개월 이내) 		13억원	14억원
산재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및 요건) 산재장해등급 1~9급 판정자, 상병보상연금수급자, 사망근로자 유족 등 ○(지원내용) 의료·혼례·장례 사업자금 및 차량구입 주택이전 등 용자 지원(세대당 20백만원 한도) 		186억원	255억원
비정규직 근로자 국민 임대주택 우선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및 요건) 저소득 가구의 무주택 세대주 등 기본적인 입주자격 충족 -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 현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 (일용근로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일용 근로자 내역이 있는 자 - (특수형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자로서 현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노무 제공 중인 자 		-	'12년 신설

□ 중소기업청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10년 실적	'11년 실적	'12년 계획
제조현장녹색화 기술개발	산악협력과제	중소기업·연구기관 공동기술개발 형태의 녹색화 공정 기술개발 지원 * 최대 2년, 6억원, 75% 이내	327억원	400억원, 274개 과제	435억원 (신규 257, 계속 178)
	출연(연)전용과제	중소기업지원전담조직 보유 출연(연)과 중소기업 공동 기술개발 형태의 공정기술개발 지원 * 최대 2년, 6억원, 75% 이내			
	기업제안과제	중소기업 단독기술개발 형태의 녹색화 공정기술개발 지원 * 최대 1년, 2.5억원, 75% 이내			
	보급확산과제	기 지원한 지정공모과제 중 우수 과제를 유사 동종 업종에 보급·확산하기 위한 추가개발 지원 * 최대 1년, 1억원, 50% 이내			
중소기업체험학습		청년층의 중소기업 현장인수를 통해 중소기업 인식 개선 및 건전한 직업관 함양(방학·학기중 4~8주)	24억원, 5,426명	12억원, 2,000명	-
중소기업인식개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중소기업을 집중 조명하여 중소기업인의 사기진작 및 대국민 인식개선을 도모	6억원	9억원	5.46억원
청소년 비즈쿨지원		창업동아리 지원, 기업인금융인·교수 등 전문분야 외부 특강, 창업 행사 등 지원 * 전국 130개 초·중·고등학교 지원, 학교당 11~50백만원 차등지급	30억원	44억원	50억원
청소년 새싹기업 프로그램 운영		비즈쿨 지정학교를 중심으로 우수 창업동아리 아이템 개발비 (1천만원 한도)를 지급(1년 이내)	-	4억원	-
기술창업학교 운영		운영기관별 감사비, 운영비 등 강좌당 8천만원 이내 지원	15.5억원, 26개 운영기관	18억원, 25개 운영기관	-
청년기업가정신재단 설립		기업가정신 모범사례 발굴·홍보, 실패기업인 재도전 여건 확충, 기업가정신 저해요인 발굴·해소 등	-	50억원	-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집적센터 조성		대학 내에서 기업부설연구소 50개 이상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애로기술지원센터 등 지원기능을 집적하여 연구역량 강화를 지원 * 지원한도는 총 사업비의 50% 이내('12년은 설계비 지원, 조성기간2년 이상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입주는 '13년말 예정)	-	-	12억원 (27개 대학)
기술유출방지사업	기술보호상담	○(지원내용)분야별 전문가 상담비 지원(기업당 3백만원)	-	4억원	4억원
	기술자료암치	○(지원내용)중소기업이 핵심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기술자료암치센터)에 안전하게 보관해 두고, - 기술탈취 또는 핵심기술 유출시 입증 및 파산 폐업 발생시 해당 임치물을 이용함으로써 납품 기술에 대한 지속 사용권 보장	-	5억원	15.4억원
	기술지킴이	○(지원내용) - 기술보호 수준 진단, 보안취약점 파악 등 보안수준 사전점검 - 24시간x실시간 네트워크 시스템 관제 및 트래픽 이벤트 등 취합·분석·평가 - 보안사고 발생시 원인분석, 대응 솔루션 제공, 현장대응 등 지원	-	17.6억원	17.6억원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10년 실적	'11년 실적	'12년 계획
창업보육센터 확장 및 운영 지원	○(건립비)전체 사업비의 70%(3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운영평가결과 A등급 이상인 B 대상투자비가 총 사업비의 30% 이상) ○(운영비)사업자당 최고 1억원 이내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5개 그룹으로 분류, 차등 지원)		334억원	2674억원 (확장비 155, 운영비 1124)
중소벤처기업 문화경영 활성화사업	○(지원내용) - 기업을 직접 찾아가는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 문화예술 동호회, 찾아가는 문화공연, 스토리텔링 마케팅 지원 * 문화예술동호회(3백만원 한도, 30개사), 찾아가는 문화공연(3백만원 한도, 30개사), 스토리텔링 마케팅(375백만원, 20개사)		7억원	5억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해 컨설팅, 마케팅 시제품 제작 등 지원(업체당 최대 2,000만원)		46억원	40억원

□ 국토해양부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10년 실적	'11년 실적	'12년 계획
중소기업 장기재직자주 택특별공급	중소기업 5년 이상 근무한 장기재직 근로자에 대해 주택 특별 공급	확보 1,580호, 추천 723호	900호 확보·공급	1,000호 내외 확보

□ 지식경제부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비고		
QWL 밸리조성사업	①업종구조고도화	○(시범사업, '10~'13) 4개 시범단지 대상 우선 추진, 시범사업 평가 후 본사업('13~20, 2 단계 확산여부 결정) * 노후 각가산단지 중 반월·시화, 남동, 구미, 익산 선정('09.12, 산단공) - (예산, 총30개 사업, 1조 3,500억원) 지자체(10개 2,100억원, 민간(7개) 1,300억원, 산단공(13개) 8,300억원		
	구분		주요 내용	
	반월·시화		환경업종이전집단지, 복합지원시설(지식산업센터)	
	남동		지식산업센터 건립	
	구미		집적화단지 조성, 의료기기집적센터	
	구분		지원시설 확충	복지·편의시설 확충
	반월·시화		반월 R&D 및 업무지원시설, 종합비즈니스센터, 산학융합센터	시화드림타운(보육시설 유치), 기숙사형 오피스텔, 주유소·주차장, 체육시설 개선 확충(축구장)
	남동		종합비즈니스센터, 공동물류센터, 복지시설 및 산학융합센터	차량정비센터, 주유소·주차장
	구미		-	기숙사부지 재개발, 체육시설(축구장, 풋살, 농구장)
	익산		-	원룸형 주택(근린생활시설)
	③기타사업			
	- 산업단지의 날 지정·운영, 소외지역 문화순회 공연, 문화예술 공연회 개최, 산업단지 꾸밈의 날 행사 개최, 산업단지 문화센터 운영, 산업단지 캠퍼스 운영 등			

C2013-1

세계와 경쟁하는

정예 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3. 1.

발 행 2013. 1.

발행인 이동필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주)문원사

02-739-3911~5 E-mail: munwonsa@hanmail.net

ISBN: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